

QA시스템  
聖經研究  
시리즈

43

요한복음

기독교지혜사

성서연구원

BIBLE RESEARCH GROUP

# 요한복음

## John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3:16)

*Οὕτως γὰρ ἠγάπησεν ὁ θεὸς τὸν κόσμον, ὥστε τὸν υἱὸν τὸν μονογενῆ ἔδωκεν, ἵνα πᾶς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αὐτὸν μὴ ἀπόληται ἀλλ' ἔχη ζωὴν αἰώνιον.*

## 요한복음 차례

---

요한복음 서론 .....	〈20제〉	…291
제 1 장 성육신(成肉身)하신 예수 그리스도 .....	〈22제〉	…303
제 2 장 예수 그리스도의 첫번째 표적 .....	〈16제〉	…313
제 3 장 니고데모와의 대화 .....	〈21제〉	…320
제 4 장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	〈24제〉	…329
제 5 장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	〈15제〉	…341
제 6 장 생명의 떡 .....	〈22제〉	…350
제 7 장 초막절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행적 .....	〈21제〉	…362
제 8 장 인간을 자유케 하는 진리 .....	〈21제〉	…373
제 9 장 소경을 고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 .....	〈19제〉	…385
제 10 장 선한 목자와 그의 양 .....	〈24제〉	…396
제 11 장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	〈28제〉	…407
제 12 장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	〈28제〉	…420
제 13 장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다 .....	〈33제〉	…434

제 14 장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다 .....	〈35제〉	446
제 15 장	그리스도께서 연합에 대하여 말씀하시다 .....	〈28제〉	459
제 16 장	성령의 사역에 대해 말씀하시다 .....	〈38제〉	470
제 17 장	그리스도의 증보 기도 .....	〈36제〉	482
제 18 장	그리스도께서 체포당하시다 .....	〈39제〉	494
제 19 장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시다 .....	〈31제〉	508
제 20 장	다시 사신 그리스도 .....	〈28제〉	521
제 21 장	마지막 표적을 행하신 그리스도 .....	〈26제〉	534

## 요한복음 특별 자료 차례

---

요한복음 서론	〈연구 자료〉	요한복음에 인용된 구약 성경 .....	300
제 2 장	〈본장의 요절〉 .....		319
제 3 장	〈본장의 요절〉 .....		328
제 4 장	〈지도 자료〉	예수의 공생애(公生涯) 초기 행적 .....	340
제 5 장	〈연구 자료〉	하나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	349

제 7 장	〈연구 자료〉	예수의 형제들 .....	372
제 8 장	〈화보 자료〉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와 예수 .....	384
제 9 장	〈화보 자료〉	실로암 못 (the pool of Siloam) .....	395
제 10 장	〈본장의 요절〉	.....	406
제 11 장	〈연구 자료〉	산헤드린 (Sanhedrin) .....	419
제 12 장	〈본장의 요절〉	.....	433
제 13 장	〈본장의 요절〉	.....	445
제 14 장	〈연구 자료〉	인간 구원에 있어서 보혜사(保惠師)의 사역 .....	458
제 15 장	〈본장의 요절〉	.....	469
제 16 장	〈화보 자료〉	유리 창에 그려진 비둘기 .....	481
제 17 장	〈본장의 요절〉	.....	493
제 19 장	〈본장의 요절〉	.....	520
제 20 장	〈화보 자료〉	예수의 못 자국과 창 자국을 확인하는 도마 .....	533

# 요한복음 서론

## 1. Q 본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 A (1) 본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다.
- (2) 물론 성경상에 본서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는 점이 분명히 명기(明記)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가 본서의 저자라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성경의 내적 증거를 갖고 있다.
- (3) 그 내적 증거란 다름아닌 본서를 기록한 자가 바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였다는 점이다(20:20-24).
- (4) 그런데 여기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평상시에 그리스도의 총애(寵愛)를 받았던 자는 사도 요한이었다(참조, 19:26, 27).
- (5) 그러므로 우리는 본서의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에 대하여 초대 교회의 교부(敎父)였던 이레니우스(Irenaeus, 120? - 202?)도 동일한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 2. Q 사도 요한은 어떤 인물인가?

- A (1) 사도 요한은 세베대(Zebedee)와 살로메(Salome) 간에 태어난 아들로써 사도 야고보의 동생이었다(참조, 막1:19).
- (2) 그는 처음에 세베 요한의 제자였으나 갈릴리 해변에서 자신을 부르신 그리스도를 좇아 그분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 되었다(1:35-39).
- (3) 혹자는 사도 요한의 전직(前職)이 어부였던 점(참조, 눅5:1-11)을 들어 그가 무식한 자였을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 (4) 왜냐하면 그의 집안은 샅군을 둘 정도로 부유하였을 뿐만 아니라(막1:20) 당시 그의 집이 있던 갈릴리 곳곳에는 공식적인 교육 기관인 회당이 설립되어 있었으니 그는 아버지의 직업을 이어받기 전에 그곳에서 형 야고보와 함께 소정의 교육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 (5) 그는 시몬 베드로 그리고 자신의 형 야고보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위대한 사역자로서 그의 일생을 복음 사역에 투신하였다(참조, 행4:19; 갈2:9).
- (6) 더우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총애를 받은 자로서 다른 제자들이 다 회피했던 예수의 십자가 처형장까지 친히 따라가 예수께서 생시(生時)에 말씀하시던 당신의 죽으심을 목격하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지녔었다(19:26).
- (7) 한편 초대 교회의 문헌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그의 노년을 에베소(Ephesus)에서 설교와 가르치는 것, 저술(著述) 등의 일로 보내다가 도미티안(Domitian, 81-96) 황제의 기독교 박해시에 밧모(Patmos) 섬으로 유배되었다고 한다.
- (8) 거기서 그는 종말적이고 영적인 사실을 다룬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한 치의 게으름이나 불성실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참조, 계1:9, 19). 이외에도 그의 저술로 알려져 있는 성경으로는 요한1·2·3서가 있다.

## 3. Q 본서의 기록 연대는 언제인가?

- A (1) 본서가 정확하게 언제 기록되었는지에 관해서는 말할 수 없으나 그 대략적인 기록 연대에 관해서는 밝힐 수 있다.

- (2) 그 같은 연대 추정 of 근거로는 본서가 공관 복음서의 완성 이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점과 적어도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 때 밧모 섬으로 귀양가기 전(A. D. 96)에 본서의 집필이 완료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 (3) 특히 이집트에서 발견된 본서의 단편(fragment)이 2세기 전반의 것으로 추정되므로 본서는 적어도 A.D. 1세기 이전에 기록되었다고 확증할 수 있다.
- (4) 그렇다면 본서의 기록 연대는 70-96년경으로 좁혀진다. 그런데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사도 요한의 행적 등을 역사적 문헌에 의거하여 살펴볼 때 본서는 85-9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 (5) 그러나 일부 자유주의 학자들은 본서의 사도 요한 저작설을 부인하기 위하여 본서의 기록 연대를 2세기 중엽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그러한 주장은 본서의 내·외적 증거와 상반된다.

4. ㉠ 본서의 기록 장소는 어디인가?

- ㉠ (1) 본서는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다.
- (2) 이러한 사실은 본서의 기록 연대가 85-90년경이라는 견해에 근거하고 있다(참조, ㉠3).
- (3) 그 당시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자신의 노년을 보내면서 설교와 가르침, 저술 활동 등을 하였는데 이때 기록된 성경이 본서와 요한1·2·3서인 것 같다.
- (4) 한편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하에서 한창 번성하였던 항구 도시로서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인 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참조, 행19:23-41).

5. ㉠ 본서의 수신자는 누구인가?

- ㉠ (1) 본서의 수신인은 분명하지 않다.
- (2) 왜냐하면 본서에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과 같이 본문 중에 수신인의 이름이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 (3) 그렇지만 본서가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아마도 소(小)아시아 여러 지역에 사는 기독교인들을 위하여 기록되어졌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 (4) 그렇다면 아시아 지역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누구를 위해 기록되었을까? 유대인인가 아니면 이방인인가? 본문에는 그 어느 쪽으로도 치우칠 수 없는 양면적인 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 (5) 즉 히브리어를 상세히 풀이하고 있는 점(1:38, 41, 42; 9:7; 19:13, 17; 20:16)은 분명히 이방인들을 의식한 것으로 이해되어지는 반면에, 본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리스도와 유대인들 간의 질의 응답(質疑應答)의 모습(3:1-15; 6:52-69; 7:14-24; 8:31-59)은 유대인들을 의식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 (6) 그러므로 결국 본서의 수신자는 아시아 지역의 모든 기독교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6. ㉠ 본서의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라.

- ㉠ (1)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머무르고 있을 당시 기독교는 급속도로 전세계에 전파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도처에 세워졌던 교회의 구성원들은 대다수가 이방인들이었다.
- (2) 이러한 상황하에서 사도 요한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 이방인들의 의식 구조와 저들의 문화 양식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 (3)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종교 관념과 여기에서 비롯된 저들의 독특한 문학, 사상 그리고 역사 등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당시 이방인들 세계에 보편화되어 있던 헬라적 사고 개념(思考概念)을 도입하여 이로써 심오한 진리를 증거하려고 하였던 것 같다. 이와 같은 그의

노력의 결실이 본서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로고스’(Logos, 말씀, 1:1) 사상을 들 수 있다.

- (5) 또한 당시의 시대적 배경으로서 간과할 수 없는 것 중의 하나는 ‘영지주의’(Gnosticism)이다. 이것은 1-3세기에 걸쳐 아시아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일종의 이단 사상으로 근본적으로 물질은 악하며 정신은 선하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세계 만물을 창조하셨을 리 없다는 것이다.
- (6) 심지어 일부 영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되심을 부정하였는데,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의 가르침에 직접 반대한 케린투스(Cerinthus)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 (7) 이러한 시점에서 사도 요한은 그와 같은 이단 사상에 대항하여 기독교의 진리를 수호할 책임감을 느끼고 본서를 집필하게 되었던 것이다.
- (8) 그러므로 본서는 서두(序頭)에서부터 로고스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하나님이 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1:1-3)을 강조하고 있다.

#### 7. ㉠ 본서의 기록 목적은 무엇인가?

- ㉠ (1) 본서만큼 그 기록 목적이 본문상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찾아 보기 힘들다.
- (2) 사도 요한은 20:31에서 본서의 기록 목적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 (3) 이와 같이 본서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같은 사실을 믿고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 (4) 따라서 본서는 케린투스의 영지주의 사상과 영지주의적 이원론에 입각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부정하는 ‘가현설’(Docetism)을 반박하고(참조, 1:14),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를 배척함으로써 드러난 유대교의 모순을 지적하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다(참조, 4:3-30).

#### 8. ㉠ 본서의 특징은 무엇인가?

- ㉠ (1) 본서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문체가 유례(類例)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명료하다는 점이다.
- (2) 즉 본서를 기록함에 있어서 사도 요한은 아주 쉽고 간결한 헬라어 문장을 사용하였다.
- (3) 하지만 본서에 담겨 있는 신학적인 사상은 그 어떠한 신학자라도 완해할 수 없을 만큼 심오하며 인상적이다.
- (4) 한편 본서는 일명 ‘독수리 복음’으로 불리우기도 한다. 이것은 곧 복음의 진리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 요한의 독수리같이 예리한 통찰력(insight)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 하겠다.
- (5) 또 한 가지 본서의 특징은 그 문체의 독특성이다. 즉 본서에는 ‘나는...이다’(I am...)라는 표현법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다. 그 예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6:35), ‘나는 세상의 빛이다’(8:12),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14:6) 등이 있다.
- (6) 이러한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이며 아울러 그분은 참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 (7) 이외에도 본서의 주요한 특징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비유(parable)를 담고 있는 공관 복음과는 달리 본서에는 단 두 번의 비유(10:1-18; 15:1-8)가 기록되어 있다는 점과 본서에서만 ‘보혜사’(Comforter), 즉 위로하시는 ‘진리의 성령’이 강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있다는 점이다(14:16; 15:26; 16:7).

#### 9. ㉠ 본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 Ⓐ (1) 본서 전체를 일관하고 있는 주제(또는 중심 사상)는 ‘믿음’(faith)이다.
- (2) 이와 같은 사실은 본서가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1:7)는 말로 시작하여 본서를 종료함에 앞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20:31)는 말로 끝맺고 있음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 (3) 물론 본서에는 직접적으로 ‘믿음’(벨, 피스티스)이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지만 ‘믿다’(벨, 피스티오)라는 말이 무려 90여 번이나 나오고 있다(2:11; 5:24; 9:38; 12:44 등).
- (4)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본서의 내용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차순(連次順)으로 집필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런 저런 기사를 산발적으로 발췌 수록하면서까지 그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까닭도 독자들에게 바로 이 믿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
- (5) 또한 본서가 공관 복음서와는 달리 처음부터 그리스도께서 메시아(Messiah)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1:41; 4:25, 26)도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게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0. ⓐ 본서와 공관 복음서와의 판제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본서는 공관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 (2) 그렇지만 공관 복음서에는 그리스도의 공생애의 무대가 거의 갈릴리(Galilee)로 한정되어 있음에 반해 본서는 유대(Judea) 지방에서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강조하고 갈릴리 지방에서의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을 지키고 있다.
- (3) 그리고 본서는 그리스도의 사역 초기에 일어난 성전 청결 사건을 기술하고 있음(2:13-16)에 반해, 공관 복음서에는 고난 주간 중 월요일에 일어난 성전 청결 사건을 기술하고 있다(마21:12-17; 막11:15-18; 눅19:45, 46).
- (4) 또한 사도 요한은 공관 복음서의 저자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와 그의 12제자들 간의 최후의 만찬(13장)에 대하여 성찬식 제정 사건에 강조점을 두지 아니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 가룟 유다의 배반 예고, 새 계명 부여 등과 같은 일에 강조점을 두고서 기술하였다.
- (5) 이처럼 본서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신학적인 깊이가 있는 성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神格)과 인격(人格) 그리고 신앙의 의미에 관하여 자세히 증거하고 있다.

11. ⓐ 본서와 요한 서신(요1·2·3)과의 판제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일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이견(異見)이 있기는 하지만 본서와 요한 서신의 저자가 동일한 인물인 사도 요한이라는 점은 보수주의 신학자들간에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견해이다.
- (2) 이러한 본서와 요한 서신 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점은 그 중심 사상이 모두 영지주의를 반박하고 있다는 점이다(참조, 1:14; 요일4:1-3)
- (3) 또 한 가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공통점은 본서와 요한 1서가 모두 ‘로고스’(Logos, 말씀)에 관하여 언급함으로써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참조, 1:1; 요일1:1).
- (4) 이 뿐만 아니라 요한 서신 곳곳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사랑에 대한 강조점(요일4:7-21; 요일1:5, 6)은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을 기술하고 있는 본서의 맥락과도 일치한다(참조, 3:16-18; 4:1-26; 5:1-9; 9:1-7; 13:34, 35; 14:21).

12. ⓐ 본서와 요한계시록의 저자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자.

- Ⓐ (1) 본서와 요한계시록의 저자 문제에 있어서는 신학자들간에서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혹자는 주장하기를 본서는 사도 요한의 저작이지만 요한계시록은 다른 사람의 저작이라고 하는가 하면, 그 반대로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 저작설은 인정하지만 본서의 사도 요한 저작설은 부정하기도 한다. 물론 이들과는 전혀 달리 본서와 요한계시록이 모두 사도 요한의 저작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는 자들도 있다.

- (2)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요한’(John)이라는 저자가 ‘밧모’(Patmos)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다(계1:9). 이런 사실은 도미티안 황제의 기독교 박해시에 사도 요한이 밧모 섬으로 유배되었던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고 있으니 우리는 본서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기록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다.
- (3)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본서와 요한계시록의 저자를 각기 다른 인물로 보고 있는 이유 중 한 가지는 본서와 요한계시록의 문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 (4) 그러나 그 같은 차이점은 각 본문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어쩔 수 없는 결과이다.
- (5) 즉 본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여 독자들에게 하여금 그분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 종말시에 있을 종말적 현상들을 예고함으로써 모든 성도들을 경성(警醒)시키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6) 따라서 본서와 요한계시록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 차이점으로 인하여 각 책의 기록자를 동일한 인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승인될 수 없다.

13. ㉠ 본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부분을 찾아 보라.

㉠

내 용	예 언	성 취
예수 그리스도 선재성(先在性)	사 9 : 6	1 : 1, 2
유대인들의 배척	사 53 : 3	1 : 11
하나님을 위한 열심	시 69 : 9	2 : 17
우리의 재판장	사 33 : 22	5 : 30
선지자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 18 : 15	6 : 14
베들레헴 탄생	미 5 : 2	7 : 42
예루살렘 입성(入城)	슥 9 : 9	12 : 13, 14
가룟 유다의 배반	시 41 : 9	13 : 21
연고 없이 미움을 받으심	시 69 : 4	15 : 23-25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제비뽑음	시 22 : 18	19 : 24
십자가 위에서의 갈증	시 69 : 21	19 : 28
쓸개 탄 신 포도주를 드심	시 69 : 21	19 : 29, 30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꺾지 않음	시 34 : 20	19 : 33
옆구리를 찢리우심	시 22 : 14	19 : 34
찌른 자들의 목도(目睹)	슥 12 : 10	19 : 37
수족을 찢리우심	시 22 : 16	20 : 27

14. ㉠ 본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각 장별로 구분지어 보라.

㉠

장	모 습	설 명	요 절
1 장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신성(神性)을 나타낸다	1, 14절
2 장	인 자	그분의 인성(人性)이 자세히 묘사되고 있다	2, 12절
3 장	거룩한 선생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묘사되고 있다	2절
4 장	영혼을 구원하시는 자	죄악 중에 빠져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을 구원하시다	13, 14절
5 장	위대한 의사	절망적인 상태에 놓인 자를 완전하게 치유(治癒)시키시다	8, 9절

6 장	생명의 떡	그분께서는 인간의 영적 굶주림을 해소시켜 주신다	48절
7 장	생 명 수	그분께서는 목마른 심령들을 만족케 하신다	37절
8 장	약자의 수호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받는 여인을 위하여 변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된다	3-11절
9 장	세상의 빛	그분께서는 소경의 눈을 열어 빛을 보게 하셨다	11절
10 장	선한 목자	그분께서는 자신의 양들을 끊임없이 보살피시고 돌아보시며 또한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다	15절
11 장	생명의 주관자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 내신 예수 그리스도	25, 43, 44절
12 장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임성하실 때 사 람들은 그분의 왕권을 드높이 찬양하였다	12-15절
13 장	중	그분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 겸손의 도를 보이셨다	4, 5절
14 장	위 로 자	자신의 슬픔에 앞서 제자들의 슬픔을 위로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1절
15 장	참된 포도나무	그분께서는 사람들이 영적 열매를 맺도록 하여 주시는 근원이 되신다	1절
16 장	성령을 주시는 자	그분께서는 세상을 떠나시면서 ‘보혜사’(Comforter), 즉 위로하시는 성령을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7-15절
17 장	중 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계신다	20-23절
18 장	고난당하는 자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쓴 잔을 받아 마셨다	11절
19 장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18절
20 장	사망을 이기신 자	그분께서는 사망을 이기심으로써 친히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11-17절
21 장	회복시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방황하는 베드로가 다시 돌아서는 것을 기뻐하시고 양들을 먹이도록 분부하셨다	15-17절

15. ㉠ 본서에 나오는 ‘로고스’(Logos, 말씀) 개념에 관하여 설명하라.

- ㉠ (1) ‘로고스’라는 말은 본래 헬라어로서 ‘말씀’, ‘이성’, ‘논리’, ‘계시’ 등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 단어이다.
- (2) 그런데 헬라어인 로고스 개념이 성립되기 이전부터 히브리인들은 이것과는 조금 특이한 로고스 개념을 이미 갖고 있었으니 그것은 곧 ‘말씀’(히, 따바르)에 대한 개념이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창1장;시33:6; 119:9, 105).
- (3) 하지만 이것과는 달리 헬라인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배제한 채 이 ‘로고스’를 ‘세계 가운데 내재하는 법’ 또는 ‘이성’으로만 개념지었다.
- (4) 그런 중에서 헬라적인 로고스 개념과 히브리적인 로고스 개념을 연결지으려고 한 자들이 일어났으니 그 대표적인 자가 곧 유대인 철학자 필로(Philo, B. C. 20-A. D. 42)였다.

- (5) 그는 절대적 초월자(超越者)이신 하나님과 물질적 세계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로고스’라고 하면서, 이 ‘로고스’를 ‘처음 난 아들’, ‘하나님의 대리자’, ‘인간의 변호자’, ‘대제사장’ 등으로 칭하였다.
- (6) 이러한 배경하에서 사도 요한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저들이 이미 친숙해져 있는 단어인 ‘로고스’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 (7) 그러므로 요한 서신이나 요한계시록과 같은 성경에는 ‘로고스’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는데(요일1:1; 2:5; 계19:13) 특히 본서에는 그 단어가 40여 회나 나온다(1:1, 14; 10:35; 17:6 등).
- (8) 그러나 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용어로서 사용된 경우는 본서 1:1-3, 14과 요일1:1-3에서일 뿐이다. 그 외에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고 있다.

**16. ㉠ 본서에서 사도 요한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증거하려고 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첫째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1:1a)는 것이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선재성(先在性)과 영존성(永存性)을 의미한다.
- (2) 둘째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1:1b)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신성(神性),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 (3) 셋째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1:3)는 것이다.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이 세상의 ‘공동 창조자’(Co-creator)이시라는 말이다.
- (4) 이 같은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1:1)는 귀절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단수형이 아닌 복수형(엘로힘)으로 사용되었다는 것과 인간을 창조하심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다스리게 하자’(창1:26)라고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하신 것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 (5) 넷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1:14)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the Incarnation) 사건을 가리킨다.
- (6) 그런데 볼트만(R. Bultmann, 1884-1976)과 같은 학자는 사도 요한이 이러한 개념을 이방의 관념론(idealism), 특히 영지주의(Gnosticism)의 체계에서 빌려 왔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주장이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은 당시에 유행하던 영지주의에 맞서 기독교의 진리를 수호하려고 본서를 저술하였기 때문이다.

**17. ㉠ 본서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설명하라.**

- ㉠** (1) 마태가 하늘나라에 대해 주로 ‘천국’(헬, 바실레이아 우라는)이라는 말(마5:3; 7:21; 13:11)을 사용한 데 반하여, 마가와 누가 그리고 사도 요한은 ‘하나님 나라’(헬, 바실레이아 투 테우)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 (2) 여기서 ‘나라’(the Kingdom)는 ‘왕국’을 가리키는데 이는 곧 하나님의 왕적 주권(王的主權)이 미치는 영역을 의미한다.
- (3) 본서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니고데모 간의 대화에서 언급된 것이다(3:1-5). 그리고 이와 동일한 의미로서 사용된 ‘내 나라’(my Kingdom)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빌라도 간의 대화에서 언급된 것이다(18:33-37).
- (4) 그런데 이러한 대화에서 강조되고 있는 점은 ‘하나님 나라’란 이 세상의 나라들과 같은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 (5) 즉 그리스도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3:5)고 말씀하시면서 '거듭남'(3:3), '영생'(3:15), '하나님 나라'(3:3, 5; 18:36)를 서로 연관지우셨다.

- (6)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 요한은 본서를 통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3:16-18; 5:24) 영생을 얻은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본 자(참조, 3:3)라는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現在性)'을 강조하였다.

18. ㉠ 본서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Messiah)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려는데 주력하고 있다.
-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서는 그 내용 전개에 있어서 점층적인 단계를 밟고 있는데 이를 크게 구분한다면 다음과 같다.
- (3)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인 양성(神人兩性)에 대한 강조이다(1장).
- (4) 둘째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 석상에서 행하신 그리스도의 첫번째 표적과 성전 청결 사건이다(2장).
- (5) 셋째는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3-12장)
- (6) 넷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별 설교(告別說教)이다(13장). 이때 그리스도께서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심으로써 사랑의 원리를 강조하셨다.
- (7)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수난과 부활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베드로에 대한 최후의 분부이다(14-21장).

19. ㉠ 본서의 대지를 구분하라.

- ㉠ (1)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 1:1-18
- ①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 / 1:1-5
  - ② 빛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 / 1:6-9, 15
  - ③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 1:10-14, 16-18
- (2)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 1:19-4:54
- ① 세례 요한의 증거 / 1:19-34
  - ② 그리스도의 첫 제자 / 1:35-51
  - ③ 그리스도의 첫번째 표적 / 2:1-11
  - ④ 성전 청결 사건 / 2:12-25
  - ⑤ 니고데모와의 대화 / 3:1-21
  - ⑥ 세례 요한의 증언 / 3:22-36
  - ⑦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 4:1-42
  - ⑧ 그리스도의 두번째 표적 / 4:43-54
- (3)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 5:1-12:50
- ①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 5:1-47
    - ㄱ. 베테스다 연못에서 행하신 표적 / 5:1-9
    - ㄴ. 유대인들의 반발 / 5:10-18
    - ㄷ. 자신의 신성(神性)에 대한 그리스도의 말씀 / 5:19-47
  - ② 유월절에 갈릴리에서 / 6:1-71
    - ㄱ. 오병 이어(五餅二魚)의 표적 / 6:1-21
    - ㄴ. 생명의 떡 / 6:22-40
    - ㄷ. 유대인과 제자들의 반응 / 6:41-71
  - ③ 초막절에 예루살렘에서 / 7:1-10:21

- ㄱ. 그리스도의 변론과 그를 잡으려는 자들/7:1-36
- ㄴ. 생수의 강/7:37-39
- ㄷ. 그리스도에 대한 반응/7:40-53
- ㄹ. 간음한 여인/8:1-11
- ㅁ.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8:12-59
- ㅂ. 소경의 눈을 고쳐 주심/9:1-41
- ㅅ. 선한 목자 비유/10:1-18
- ㅇ. 유대인들의 분쟁/10:19-21
- ④ 수전절에 예루살렘에서/10:22-42
  - ㄱ. 그리스도의 설교/10:22-30
  - ㄴ. 유대인들의 배척/10:31-42
- ⑤ 베다니에서/11:1-12:11
  - ㄱ.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11:1-44
  - 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음모/11:45-57
  - ㄷ. 그리스도에게 향유를 붓는 마리아/12:1-8
  - ㄹ. 그리스도와 나사로에 대한 음모/12:9-11
- ⑥ 예루살렘에서/12:12-50
  - ㄱ. 예루살렘 입성/12:12-19
  - 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12:20-50
- (4)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13:1-16:33
  - ① 사죄에 관하여/13:1-20
  - ② 배신당하심에 관하여/13:21-30
  - ③ 고별 설교(告別說教)/13:31-38
  - ④ 새로운 처소와 하나님에 대하여/14:1-14
  - ⑤ 보혜사(保惠師)에 관하여/14:15-26
  - ⑥ 평안에 관하여/14:27-31
  - ⑦ 포도나무 비유/15:1-17
  - ⑧ 세상에 관하여/15:18-16:6
  - ⑨ 진리의 성령에 관하여/16:7-15
  - ⑩ 재림에 관하여/16:16-33
- (5)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17:1-26
  - ① 자신을 위한 기도/17:1-5
  - ② 제자들을 위한 기도/17:6-19
  - ③ 성도들을 위한 기도/17:20-26
- (6)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18:1-19:42
  - ①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심/18:1-11
  - ② 안나스 앞에서/18:12-23
  - ③ 가야바 앞에서/18:24-27
  - ④ 빌라도 앞에서/18:28-19:16
  - ⑤ 십자가에 못박히심/19:17-27
  - ⑥ 운명하심/19:28-37
  - ⑦ 장사되심/19:38-42
- (7)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20:1-21:25

- ① 부활하신 그리스도/20:1-10
- ②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심/20:11-18
- ③ 제자들에게 나타나심/20:19-25
- ④ 도마의 고백/20:26-29
- ⑤ 본서의 기록 목적/20:30,31
- ⑥ 디베라 바다에 나타나심/21:1-14
- ⑦ ‘내 양을 먹이라’는 그리스도의 분부/21:15-23
- ⑧ 결어(結語)/21:24, 25

20. **㉠** 본서의 요점을 말하라.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3:16).

연구자료

요한복음에 인용된 구약 성경

본서의 특징 중 하나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 예수께서 십자가상(十字架上)에서 당한 고통이 이미 구약에 예언된 것이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성경 귀절이 비교적 자세히 인용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단적인 예로서는 19:24, 28, 29, 36, 37 등이 있다.

장절	내 용	출 처
1:23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사 40:3
1:29, 36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 53:7
1:49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시 2:7; 습 3:15
1:51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창 28:12
2:18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출 4:1, 8; 7:9
3: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민 21:8, 9
4:5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리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창 33:19; 48:22; 수 24:32
5:10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출 20:10; 신 5:14
5: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단 12:2

6 : 14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신 18:15, 18
6 : 31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 나를 먹었나이다	출 16:4-36; 민 11: 7-9; 느 9:15; 시 78: 24, 25; 105:40
6 : 45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 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 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사 54:13
7 : 2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레 23:34
7 : 22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그러나 할 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 서 난 것이라)...	창 17:9-14; 레 12:3
7 :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잠 18:4; 사 12:3; 겔 47:1
7 : 42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삼상 16:1; 삼하 7: 12; 시 89:3, 4; 사 11 :1; 미 5:2
8 : 5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들로 치라 명 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레 20:10; 신 22:22- 24
8 : 17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하 였으니	민 35:30; 신 17:6; 19:15
8 : 21	다시 이르시되...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겔 3:18; 33:8
8 : 41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 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니로다	사 63:16; 64:8
9 : 2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 경으로 난 것이 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 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출 20:5
9 : 24	이에 저희가...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수 7:19; 렘 13:16
10:16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 으리라	사 56:8; 겔 34: 11-13
10:34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 느냐	시 82:6
11:9, 10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 두 시가 아니 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 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렘 13:16

11:52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흠어진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사 49:5-7
12:13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시 118:25, 26
12:14, 15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합과 같더라	사 62:11; 습 9:9
12:27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 42:6
12:38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뉘게 나타났나이까	사 53:1
12:40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들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 6:9, 10
13:18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옹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시 41:9
15: 8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사 61:3
15:25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옹하게 하려 함이니라	시 35:19; 69:4
16:22	지금은...너희 마음이 기뻐한 것이요 너희 기뻐할 때를 내가 없느니라	사 66:14
17:12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그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옹하게 함이니이다	시 109:8
18:20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사 48:16
19:24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시 22:18
19:28, 29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옹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시 69:21
19:36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때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옹하게 하려 함이라	출 12:46; 민 9:12; 시 34:20
19:37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습 12:10
19:42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신 21:22

# 제 1 장 성육신 (成肉身) 하신

## 예수 그리스도

단락구분 1-5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 / 6-9 빛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 / 10-14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 15-18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진리 / 19-34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 35-51 예수 그리스도의 첫 제자

-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 2 그가 태초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 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 5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 하더라
- 6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 7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 8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 하러 온 자라
- 9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이 있었나니
- 10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 11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 하였으나
-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 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 15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 16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 17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 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 19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 20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 21 또 물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물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 22 또 말하되 누구나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 23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하니라
- 24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 25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대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 26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계시니
- 27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메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 28 이 일은 요한의 세례주던 곳 요단 강 건너편 벳다니아에서 된 일이니라
- 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 30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 31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물로 와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 32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

에 머물렀더라

33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34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35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36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37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거늘

38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나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9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심 시쯤 되었더라

40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41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계바

라 하리라 하시니라(계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43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44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벧새다 사람이라

45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46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47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8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49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50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 1. ㉠ 본장에서 증거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神性)과 인성(人性)에 관하여 고찰해 보라.

- ㉠ (1) 본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Logos)으로 표현하고 있다(1, 14절). 여기서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로고스>로서 그 본래의 뜻은 ‘논리’, ‘이성’, ‘계시’이다.
- (2) 그런데 이 같은 단어에 히브리적 종교 개념이 연결되어 이 단어는 <로고스>가 지닌 본래의 의미를 뛰어넘어 하나님과 이 세상 간의 중보자(中保者)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게 되었다(참조, 서론 ㉠ 15).
- (3) 사도 요한은 본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다.
- (4)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선재(preexistence)하셨다고 했다(1a절).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되심을 증거하는 속성(屬性) 중의 하나이다.
- (5)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했다(1b절). 이것은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을 주장하는 표현이다.
- (6) 셋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천지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다고 했다(3절). 이 같은 사실에 대하여 사도 바울도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고전8:6)고 증거하였다.
- (7) 넷째, 이와 같이 하나님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역설했다(14절). 예수에 대한 이러한 긴 설명을 마친 사도 요한은 곧 이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공생애(公生涯)의 첫걸음을 내디디시는 장면을 언급하였다(39절).
- (8)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사도 요한의 증거에 힘입어 근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께서 어떻게 또한 왜 성육신하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다(참조, 9-14, 41절).

## 2. ㉠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절)

- ㉠ (1) 이 귀절은 창1:1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을 연상케 해준다.
- (2) 그러나 여기서 ‘태초에’(헬, 엔 아르케)라는 말은 시간이 비로소 시작되는 어느 한 순간을 의미하는 창1:1의 ‘태초에’(히, 베레쉬트)라는 말과는 달리 초시간적(超時間的)인 영원(永遠)을 의미한다.
- (3) 그리고 ‘계시니라’는 의미를 지닌 헬라어 <엔>은 ‘...이다’ 또는 ‘...있다’라는 뜻을 가진 <에이미>에서 비롯된 단어로서 어떠한 것이 계속적으로 존재해 왔음을 의미한다.
- (4) 그러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말은 영원 전 곧 태초에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고 계셨다는 뜻이다.
- (5) 이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그의 또 다른 저서인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제1:8)고 증거하였다.

## 3. ㉡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 (1) 여기서 ‘함께’(헬, 프로스)라는 말은 단순히 같은 시간에 동일한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기 보다는 관계의 의미, 즉 서로가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
- (2) 그러므로 말씀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씀이 하나님께 종속되었거나 아니면 말씀이 하나님의 한 속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완전한 인격체로서 상호 대등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3) 이러한 사실은 뒤이어 나오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는 귀절에서 보다 명백해진다. 즉 이 귀절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실체(substance)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는 것을 의미한다.
- (4) 우리는 이 같은 말에서 단편적이거나 삼위 일체(the Trinity) 하나님의 상호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분명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본질과 실체에 있어서 한 분이시나 각각 독립된 ‘위’(位, person)로 존재하고 계시는 것이다(참조, 창1:26; 사6:8; 고후13:13; 엡4:6).
- (5) 이상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확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심’(14:10; 17:2)을 믿어야만 한다.

## 4. ㉢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말에 대하여 살펴보라’(3절).

- ㉢ (1) 이 말은 그리스도와 피조물과의 관계를 밝히 보여 주고 있다.
- (2) 여기서 ‘지은 바 되었다’(헬, 에게네트)라는 말은 ‘...이 되어 가다’(becoming)란 뜻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계셨으니(1절)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와 피조물 간의 본질적인 차이점이 있다.
- (3) 한편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귀절에서 ‘그로 말미암아’(헬, 디 아우투)라는 말은 ‘그에 의하여’ 또는 ‘그를 통하여’라는 뜻이다.
- (4) 이 말은 곧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께서 천지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사실 천지 창조에 있어서는 삼위 일체 하나님간에 의논과 협의가 있었으며(창1:26) 그 직접적인 사역에 있어서 삼위(三位) 하나님의 공동 참여가 있었다(참조, 서론 ㉠ 16).
- (5)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천지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공동 사역을 하셨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하여 고전8:6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5. **㉠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4절)**

- ㉠** (1) ‘생명’을 뜻하는 헬라어에는 두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바이오스>이며 다른 하나는 <조에>이다. 이 두 단어에는 의미상의 차이가 있으니 <바이오스>는 ‘생애’ 또는 ‘삶의 방식’을 뜻하는데 반해 <조에>는 ‘생명’ 그 본질을 뜻한다.
- (2) 그런데 이 두 단어 중에서 사도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는 <조에>이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말은 창조 사역과 연관지워 그분이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셨던 능력을 지니고 계셨다는 뜻으로도 이해될 수 있기는 하다.
- (3) 하지만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란 그분의 구속 사역과 연관지워 이해되어지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즉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代贖的) 죽으심에 근거한 구원 곧 영생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말은 위에서 언급한 의미와 아울러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미 기존 사실이라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3:16-18).
- (5) 한편 본절에서 가리키는 ‘빛’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드러내는 ‘제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4b절)이란 말은 그리스도께서 곧 사람들의 빛이 되심을 뜻한다.

6. **㉠ 빛과 어두움의 영적 의미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5절).**

- ㉠** (1) 사도 요한 당시에는 선의 세력을 ‘빛’으로, 악의 세력을 ‘어두움’으로 표현하는 은유법이 즐겨 사용되었다(참조, 3:19-21).
- (2) 이와 같은 맥락에서 사도 요한은 여기서도 그리스도를 ‘빛’으로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인간 세상을 ‘어두움’으로 표현하고 있다.
- (3) 그런데 이와 같이 ‘빛’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빛을 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이 영적 진리에 대하여 얼마나 무지하였는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 (4) 우리는 그토록 영적 진리에 대해 무지하였던 자로서 가뭇 유다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는 3년 동안이나 빛되신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으면서도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온 30에 그분을 팔아 넘겼었다(마26:14-16).
- (5)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고 깨닫게 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 같은 진리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마16:17).

7. **㉠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람인가? (6절)**

- ㉠** (1) ‘하나님께서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 자이다.
- (2) ‘요한’(John)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또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데 특별히 ‘세례 요한’(John the Baptist, 마3:1)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동일한 이름을 지닌 다른 사람(막1:19)과 구별하기 위함이다.
- (3) 이 세례 요한은 아비아 반열의 제사장인 사가랴(Zacharias)와 엘리사벳(Elizabeth)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의 출생과 태어나기 전부터 이름을 부여받은 것 등은 예수 그리스도나 이삭(창17:15-19)의 경우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눅1:13).
- (4) 그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한 마지막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리스도를 보면서 증거한 자였다. 이러한 그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마11:11)라고 말씀하셨다.

(5) 구약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하여 ‘장차 올 선지자 엘리야’(말4:5)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러한 예언에 걸맞게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눅1:17)으로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눅3:3)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29절)에 대하여 전파하며 증거하였다.

(6) 이러한 세례 요한의 최후에 대하여서는 3장 ㉒ 17을 참조하라.

8. ㉒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셨으며 또한 자기 땅에 오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10, 11절)

- ㉒ (1) 본절에서 말하는 ‘세상’(헬, 코스모스)이란 좁은 의미에서의 세상 곧 지구상에 존립하고 있는 인간 세상을 가리키지 않고 넓은 의미에서의 세상, 즉 우주(cosmos) 전체를 가리킨다.
- (2)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셨다’는 말은 그분께서 성육신(成肉身)하시기 이전에도 우주 가운데 거하시고 계셨다는 뜻이 된다.
- (3) 그리고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다’는 말에서 ‘자기 땅’이란 넓은 의미로는 자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뜻하며, 좁은 의미로는 특별히 선민(選民)으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의 지경(地境)을 뜻한다고 하겠다.
- (4)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도리어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 준 것을 가리킨다(눅22:66-23:38).
- (5)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이란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지음 받은 모든 인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와 같이 이해할 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유대 백성들이 범하였던 것과 똑같은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9. ㉒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가? (12, 13절)

- ㉒ (1)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 (2) 그런데 여기서 ‘권세’(헬, 엑수시아)란 누구에게든지 떳떳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 (3) 하지만 이러한 권세는 출생함으로써 자연히 획득하게 되는 ‘생득적 권리’(生得的權利)가 아닐 뿐만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 취할 수 있는 인위적인 권리도 아니다.
- (4) 이 같은 권세는 초자연적인 권세로서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분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은혜요 권리이다(참조, 롬9:1-24).
- (5)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서는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랑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랑하여야 한다(고전1:31).

10. ㉒ 사도 요한은 예수의 성육신(the Incarnation)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 (14절)

- ㉒ (1) 요한은 예수의 성육신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로 표현하였다. 마태의 증언도 이와 매우 유사하다(마1:12-25).
- (2) 여기서 ‘육신’(헬, 사룩스)이라는 말은 단순히 육체만을 의미하지 않고 인간의 몸과 마음, 영혼까지도 다 포함한 온 인격체를 의미한다.
- (3) 그리고 ‘되다’(헬, 에게네투스)라는 말은 ‘...이 되었다’는 의미보다는 ‘...을 입었다’, ‘...을 취하였다’는 의미가 강하다.
- (4)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완전한 영육(靈肉)을 덧입으셨다는 뜻이 된다.
- (5)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죄의 습성을 제외한 인간의 공통적 속성을 모두 지니게 되셨다(참조, 빌2:6, 7).

(6) 한편 ‘거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스케노센>인데 이 말은 ‘장막을 치다’는 뜻을 지닌 <스케노>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마치 ‘장막 같은 것을 치고 잠시 살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인간 세상에 잠시 동안 현존해 계셨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11. **㉠ 14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본서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이 말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추상적이고 막연한 개념을 서술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실체와 그분의 영광을 목격한 사도 요한의 고백이자 증언이다.
- (2) 구약 성경에서 ‘영광’(헬, 독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臨在)의 찬란함을 뜻하지만 사도 요한은 본절에서 이 용어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하나님의 가시적(可視的)인 임재를 의미하는 데 사용하였다.
- (3) 그리고 ‘독생자’(헬, 모노게네스)라는 말은 ‘유일한 종류’, ‘특이한 종류’라는 뜻으로서 수자적으로 하나밖에 없다는 의미보다는 그 속성과 성품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자는 없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 (4) 한편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을 비둘기같이 내려 주시며 또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3:17)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독생자의 영광’이 되심을 확인하셨다.
- (5) 이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모세의 율법이나 그에 준한 우리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자랑하려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자(참조, 엡2:8, 9).

12. **㉠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나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말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17절).**

- ㉠** (1) 모세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것은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을 은혜와 진리를 전제한 행위이다.
- (2)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인간들에게 주어진 율법은 의(義)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설정해 놓은 것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와 진리는 범죄한 인간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 (3) 그러므로 이 같은 진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롬5:20)라고 증거하였다.
- (4) 이처럼 모세의 율법 아래에 놓여 있던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 율법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축복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참조, 신28장)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세의 축복과 아울러 현세의 축복을 보장받게 된다.

13. **㉠ 세례 요한의 정체(正體)를 알기 위하여 그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낸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19절)**

- ㉠** (1) 바리새인들(the Pharisees)이다(참조, 24절).
- (2) ‘바리새인’이란 말은 ‘분리하다’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 <파라쉬>에서 유래한 말로서 ‘분리주의자’, ‘구별된 자’라는 의미이다.
- (3) 이들은 신구약 중간 시대(B. C. 400-4) 후기와 신약 시대 사이에 등장한 자들로서 헬레니즘(Hellenism)의 영향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한 자들이었다.
- (4) 그들이 내세운 행동 원리는 율법에 대한 철저한 복종이었는데 특히 정결 의식(淨潔儀式)에 관한 율법(참조, 레11:1-15:33)을 지킴에 있어서는 엄격했었다(막7:3, 4).
- (5) 이러한 그들의 움직임은 점차 당시 민중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고 그리하여 저들의 중

교적인 요구를 국가에 제시하여 관철시킬 수도 있을 만큼 막강한 정치적인 세력까지도 규합하게 되었다.

- (6) 그렇게 되자 그들의 처음 이념은 차차 퇴색되어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의식적인 행위로만 일관하게 되었다. 이 같은 현상은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무렵엔 더욱 심각해졌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막7:9)라고 책망하셨던 것이다.
- (7) 아물든 그 어떠한 회생을 치르면서까지도 자신들을 구별하여 정결을 보존하려 하였던 자들을 일컫던 명칭인 ‘바리새파’(the Pharisees)가 후대에 이르러 이처럼 의식과 형식주의에 탐닉된 자들을 뜻하는 대명사로 전락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 (8) 그렇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서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자기 도취나 영적 자만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聖徒)라고 자부하는 우리들도 실로 선 줄로 생각하여 넘어질까 조심하자(고전10:12).

#### 14. ㉠ ‘그리스도’라는 명칭에 대하여 설명하라(20절).

- ㉠ (1) ‘그리스도’(Christ)라는 말은 헬리어로 <크리스토스>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며 ‘메시아’(Messiah)란 말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 명칭이다.
- (2) 즉 ‘그리스도’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구세주(사9:6, 7; 단9:25, 26)를 가리키는 호칭인 것이다.
- (3) 그분은 이스라엘 백성 곧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들을 죄악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고 참된 자유를 주시며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자이다.
- (4) 그런데 히브리적 관습과 사고(思考)에 근거한 ‘기름 부음 받음’의 의미에 관하여 익숙하지 못하였던 이방인들에게는 이 같은 호칭이 낯익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 (5)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그분에 대하여 다른 호칭들을 사용하면서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노력하였었다. 그러한 호칭으로서 본서에 처음 언급되는 것은 ‘말씀’(Logos, 1절)이며 그 외에도 ‘주’(Lord, 20:15), ‘인자’(the Son of man, 3:13; 5:27), ‘하나님의 아들’(the Son of God, 49절; 11:4, 27) 등의 호칭이 나오고 있다.
- (6)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또는 ‘메시아’라는 개념을 정치적인 개념과 연관지어 ‘메시아’께선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이라고 굳게 믿었었다(참조, 행1:6).
- (7)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18:36)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만을 전파하자 완악한 유대인들은 그분을 배척하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에까지 그분을 내어 주었던 것이다.

#### 15. ㉠ 본절에서 말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23절)

- ㉠ (1) 사40:3에 나와 있는 이사야의 예언을 가리킨다. 거기에서 이사야는 세례 요한에 관하여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말로 언급하고 있다.
- (2) 이러한 말과 같이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wilderness of Judea)에 거주하며 약대 털옷을 입고 매뚜기와 석청(石濱)을 먹으면서(마3:1-4) 평탄한 길을 예비하여 왕되신 메시아께서 순조롭게 지나가시도록 하였다.
- (3) 한편 이사야 외에도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언한 선지자가 있으니 그는 곧 말라기(Malachi)이다. 그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말3:1)라는 말씀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말4:5)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받고

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증거하였었다.

- (4) 이와 같이 메시야의 선구자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은 시종 여일(始終如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만 증거하고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 (참조, 20-36절).
- (5)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된 성도들이 지녀야 할 참된 자세를 발견하게 된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일군이다. 그런데 일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고전 4:1, 2).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자(고전 10:31).

16. **㉠ 요단 강 건너편의 베다니란 어떠한 곳인가? (28절)**

- ㉠** (1) ‘베다니’(Bethany)란 지명의 뜻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학자들간에 조금씩의 의견 차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나루터’, ‘가난한 자의 집’, ‘무화과의 집’, ‘양의 집’이란 뜻으로 이해되고 있다.
- (2) 성경상에서는 지명은 동일하지만 각기 다른 곳인 ‘베다니’가 두 곳 나타나는데 한 곳은 본절에 나와 있는 ‘요단 강 건너편의 베다니’이고 또 한 곳은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베다니’(11:1; 12:1)이다.
- (3) 본절에 나와 있는 베다니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 동쪽에 위치하였는데 그곳에는 오늘날까지도 주요 성지로서 인정받고 있는 수도원이 자리잡고 있다.
- (4) 이 수도원은 아나스타시우스(Anastasius A. D. 431-518) 황제가 건립한 것인 듯한데 일명 ‘성 요한 수도원’(the Monastery of St. John)이라고 불리운다. 한편 오늘날에는 이곳 베다니가 ‘카슬 엘 예훤’(Qasr el-Yehud)이라는 지명으로 불리우고 있다.
- (5) 그런데 오리겐(Origen, 185-254)과 같은 학자는 본절에 나오는 ‘베다니’라는 지명의 정확한 발음이 ‘베다바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17. **㉠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란 말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고라(29절).**

- ㉠** (1) 이 같은 말에는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그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代贖) 사역’이고 다른 하나는 ‘대속 사역의 완성’이다.
- (2) ‘하나님의 어린양’이란 말과 관련지워 우리는 유월절의 어린 양(출12장)과 속건 제물로서의 어린 양(레 14:10-25) 그리고 사53장의 예언 등을 살펴볼 수 있다.
- (3) 이 모든 것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예표하고 있다. 즉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던 집은 죽음의 재앙을 면할 수 있었던 사실과 자신의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시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침으로써 자신의 부정을 씻을 수 있었던 사실 등은 그 같은 예표론적 진리를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다.
- (4)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떠맡으신 어린양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대속 제물이다. 여기서 ‘지고 가다’(헬, 아이레인)라는 말은 ‘깊어지다’라는 의미이기 보다는 ‘제거하다’라는 의미이다.
- (5) 즉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경험하시긴 하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죄악의 권세를 제거하셨으니 이로써 자신의 대속 사역을 온전히 성취시키셨던 것이다.
- (6) 한편 여기서 말하는 ‘세상 죄’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을 자들의 모든 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말을 통하여 우리는 사도 요한이 배타적인 유대주의를 배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 **㉠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 그리스도 위에 머물렀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32절)**

- A** (1) 비둘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부터 평화를 상징하는 새로 여겨져 왔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예수께서 평강의 왕이심을 보여 준다(사9:6). 성령의 역사하시는 바 긍정적인 목적도 사람을 감화시키며 하나님께로 인도하시어 참된 자유와 내적인 평안을 누리게 하는 데에 있다(참조, 14:26, 27; 롬5:5).
- (2) 한편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으로써(3:34) 그분이 메시아되심을 증거하셨다는 뜻이 된다.
- (3) 그런데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 임한 성령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세례 요한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였음이 틀림없다(참조, 33, 34절).
- (4)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확실히 깨닫고 더욱더 담대하게 그분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증거하도록 의도하셨던 것 같다.

**19. Q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자’란 말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33절)**

- A** (1) 세례 요한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자라는 말은 그분의 신적 권능과 사역의 성격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 (2) 사람이 물로써 세례를 받는 것은 곧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것을 표상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식이다(막1:4; 행13:24).
- (3) 그러나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내주(內住)하여 그의 회개한 자세를 보증해 주고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롬6:3, 4).
- (4)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택정하신 자들을 그분께서는 불러모으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며 성령께서는 그것을 인치심으로써 확정하여 주시는 것이다(롬8:30).

**20. Q 본절에 나타나 있는 전도의 방법론에 대하여 설명하라(36-46절).**

- A** (1) 첫째, 오늘날의 사람들이 가장 갈급해 하고 있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 (2)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좇은 두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셨다.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의 표명이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갈망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겠다는 적극적인 자세이다.
- (3)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의 증거자된 우리들도 오늘날 영적 갈증으로 인해 허덕이고 있는 자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4) 둘째, 그들의 문제점과 관련지워 복음의 진리대로 그들을 인도해 들인 후 그 진리를 증거해 주어야 한다.
- (5) 그리스도께로부터 ‘무엇을 구하느냐’는 물음을 받은 두 사람은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라고 그들의 궁금중에 대하여 털어놓았다. 그러자 그리스도께서는 ‘와 보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초대하셨다.
- (6) 이러한 자세는 복음 증거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진다. 사람들의 영적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그것에 대하여 증거해 주는 것뿐이다(참조, 사55:1; 계22:17).
- (7) 셋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양육이 있어야 한다.
- (8)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시는지를 와서 본 두 사람은 이후 계속해서 그분과 함께 거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제자가 되어 이제는 도리어 그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40-42절).

(9) 이와 같이 이제 막 신앙의 길에 들어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소유자에게는 신앙의 양육이 필요하다. 그러할 때 그의 신앙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여러 교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새 신자 교육의 목적과 그 필요성도 바로 여기에 있다.

21. **㉠**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한 나다나엘의 말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가? (46절)

- ㉠** (1)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는 말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참조, 7:41, 52)는 말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 (2) 이러한 말로 미루어 볼 때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Nazareth)에서 성장하신 사실(마2:23)은 알고 있었으나 그분께서 베들레헴(Bethlehem)에서 탄생하셨다는 사실(눅2:1-7)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 (3)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계선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예언을 굳게 믿고 있었다(참조, 7:41, 42). 마찬가지로 나다나엘도 그와 같은 예언을 믿고 있었을 것이니 나사렛 출신인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굳게 확신하였을 것이다.
- (4) 또한 ‘무슨 선한 것’이란 말로 미루어 볼 때 당시 갈릴리(Galilee)의 나사렛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평판이 좋지 않았던 동네였던 것 같다. 그러므로 나다나엘은 나사렛과 같은 곳에선 선한 것이 날 수 없다는 일반적인 견해를 갖게 되었을 것이다.
- (5) 한편 많은 사람들이 본절에 나오는 이 나다나엘(Nathanael)이 바로 그리스도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바돌로매(Bartholomew)라고 주장한다. 그 까닭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빌립과 바돌로매라는 이름이 함께 나오기 때문이다(마10:3; 막3:18; 눅6:14).

22. **㉠** 나다나엘에게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51절)

- ㉠** (1) 이 말은 베엘에서 꾸었던 야곱의 꿈(창28:10-15)의 내용을 인용한 말로서 나다나엘을 비롯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야곱이 받았던 축복보다도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 (2) 즉 야곱은 그 같은 꿈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얻을 것이라는 축복과 자손 번성의 축복 그리고 그들 후손이 신약 시대에 누릴 영적 축복 등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땅과 자손 번성의 축복만을 누렸을 뿐 그들 후손이 누릴 영적 축복에 대하여서는 먼 거리에서 바라만 보았을 뿐이다.
- (3) 그러나 나다나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도래(到來)를 목격하며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는 영적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 (4) 다시 말하자면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며 또한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 (5)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上達)되고 또 그 응답이 성도들에게 임하는 것을 의미한다(제8:34).
- (6) 한편 ‘인자’(the Son of man)라는 호칭은 행7:56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지칭하실 때 사용하신 호칭인데 그분이 인간사(人間事)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참조, 3:12-15; 6:27).

## 제 2 장 예수 그리스도의 첫번째 표적

단락구분 1-2 혼인 잔치에 청함 받으신 그리스도 / 3 포도주가 모자람 / 4-11 예수 그리스도의 첫번째 표적 / 12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다 / 13-17 성전 청결 사건 / 18-22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와 의 대화 / 23-25 예루살렘에서의 그리스도

- 1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 2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에 청함을 받았더니
- 3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 4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 5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 6 거기 유대인의 절례를 따라 두 세 통 드는 들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 7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 8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 9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 10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 11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 12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 13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 14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 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 15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 16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 17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 18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 19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 20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사십 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 21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 22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 23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 24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위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 25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므로 사람에게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가나(Cana)의 혼인 잔치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 초대받은 사실을 밝힘으로써 시작되고 있다(2절).
- (2)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모습 곧 여는 사람과 다름없는 인성(人性)을 지니시고 인간들과의 유대 관계(紐帶關係)를 가지신 그의 모습을 보게 된다.
- (3) 그런데 혼인 잔치가 진행되던 중 손님 접대용의 포도주의 떨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으니 마리아의 재치와 하인들의 순종 그리고 그리스도의 긍휼로 인하여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다(5-11절).

- (4) 한편 본장에 기록된 성전 청결 사건, 즉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13-17절)은 공관 복음서의 기록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 (5) 즉 공관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성전 청결 사건이 고난 주간 중 월요일에 일어난 사건(마21:12-17; 막11:15-18; 눅19:45, 46)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반해 본장에는 그 사건이 그리스도의 공생애 초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에 대하여선 ㉑ 11을 참조하라.

2. ㉑ 갈릴리 가나는 어떠한 곳인가? (1절)

- ㉑ (1) ‘가나’(Cana)라는 지명의 뜻은 ‘갈대’이다. 이곳은 나사렛 북방 약 14km 지점에 위치한 오늘날의 길벳 가나(Khirbet Qana)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2) 이곳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나다나엘(1:45-51)의 고향(21:2)이기도 하며 첫번째 표적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번째 표적(4:46-54)을 행하신 곳이기도 하다.
- (3) 이곳의 위치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언급하자면 가나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들레마이(Ptolemais)로부터 남동쪽으로 갈릴리 지방의 로마 행정 중심지인 셉포리스(Sepphoris)에 이르는 길목에 위치하였는데 이곳에서부터 남쪽으로 나사렛에서부터 사마리아(Samaria)와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이 연결되어 있었다.
- (4) 비록 이곳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 작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이따금씩 로마 시대와 비잔틴(Byzantine) 시대의 질그릇 조각들과 예수 그리스도 당시의 주화들이 이곳에서 발견되곤 한다.
- (5) 한편 팔레스틴에는 길벳 가나 외에 케프르 켄나(Kefr Kenna)라고 불리우는 마을이 있는데 혹자는 이곳을 갈릴리 가나로 추정기도 한다. 왜냐하면 이곳에 있는 한 그리스 정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번째 표적을 행하실 때 사용하셨던 것이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몇 개의 돌 항아리들이 소장(所藏)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돌 항아리의 진위(眞僞) 여부에 관하여선 판가름하기가 어렵다.

3. ㉑ 혼인 잔치 석상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3절)

- ㉑ (1) 여느 나라, 여느 고장과 마찬가지로 팔레스틴에 있어서도 결혼식은 동네 전체의 경사(慶事)였으며 항상 축제 행사로 지켜졌었다.
- (2) 그리고 그 같은 축제에 참석한 모든 손님들에게는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들이 제공되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포도주는 빼놓을 수 없는 음료수였었다.
- (3) 왜냐하면 팔레스틴을 비롯한 대부분의 중동 지역에는 물이 귀하였으므로 일찍부터 주산물(主産物) 중의 하나였던 포도로써 술을 만들어 음료수로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잔치 중에 손님들을 접대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커다란 결례(缺禮)이자 곧 집안의 수치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었다.
- (5) 그런데 이처럼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아마도 이 혼인 잔치가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 7일 동안이나 계속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어진다(참조, 창29:21-30; 삿14:1-18).

4. 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부른 사실에 대하여 살펴보라 (4절).

- ㉑ (1) 우리들의 어법(語法)과 어감(語感)에 의거하여서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하여 ‘여자여’라는 호칭을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겠다.
- (2)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여자여’라는 말인 헬라이어 <구나이>는 조소적인 의미나 힐책적(詰責的)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은 순수한 경어(敬語)이다.
- (3)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르실 때에도 ‘여자여’라고 하셨으며(19:26) 부활 후 막달라 마리아(Mary Magdalene)를 부르실 때에도 동일

하게 ‘여자여’라고 하셨던 것이다(20:15).

(4)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어머니’라는 말인 <메테르>를 사용하지 않고 구태여 ‘여자여’ (헬, 구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까닭은 자신의 사역, 특히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사역에 있어서 만큼은 마리아가 어머니라는 자격으로서 이에 관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다.

(5) 이러한 사실은 곧 이어 나오는 말인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 5. ◎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 때’란 어느 때를 가리키는가? (4절)

Ⓐ (1)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실제적으로 보여 줄 첫 순간을 가리킨다.

(2) 그런데 이 같은 ‘때’(time)는 결코 마리아의 뜻을 좇아와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들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좇아와야 한다.

(3)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함이기 때문이다(참조, 4:34; 6:38, 39).

(4)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본절에서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분명히 밝히시고 계시는 것이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정리(情理)에 연연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수 있는 가능성을 단호히 배격하고 계시는 것이다.

#### 6. ◎ ‘유대인의 결핵’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6절)

Ⓐ (1) 유대 장로들의 유전(遺傳)을 가리킨다(마15:2).

(2) 그 같은 유전은 모세의 율법을 전승하여 그것을 시대적 상황에 맞게 적용한 것들인데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것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종교적 의미는 퇴조되고 인습적이고 관행적(慣行的)인 의미만이 남게 된 근본적인 규례들이다.

(3) 이러한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또한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아니하면, 즉 샤워어를 하지 아니하면 음식을 먹지 아니하는 등의 여러 가지 규례를 지키었다.

(4) 구약 시대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정결 의식의 근간(根幹)이 되는 규례로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거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릴 때 사전에 물두멍의 물로써 손발을 씻도록 되어 있는 모세의 율법(출30:17-21)을 들 수 있다.

(5) 그러나 그 같은 모세의 율법은 성직자들에게만 적용되었으니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장로들의 유전과는 차이가 있으며 그 근본 의미도 다른 것이다.

(6) 아몽든 예수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이 지니고 있는 진정한 종교적 의미를 망각한 채 사람이 정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스스로 없이 범하였으므로 그분께로부터 ‘의식하는 자들’이라는 책망을 받았었다(마15:7).

(7)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식적인 규례 곧 심일조를 드리는 것과 같은 외면적인 행위를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내면적인 신앙 곧 의(義)와 인(仁)과 신(信)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마23:23).

#### 7. ◎ 마리아와 그리스도의 지시에 순종한 하인들의 자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5-9절)

Ⓐ (1)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4절)는 그리스도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하였다.

(2) 이러한 지시는 하인들의 편에서 볼 때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막연하고도 불확실한 지시였을 것이다.

(3) 그러나 그들은 마리아의 지시에 따라 그리스도의 분부를 받기 위하여 그분께로 나아

갔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는 유대인들의 절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여 있었다.

- (4) 이에 그리스도께서는 하인들에게 각 항아리에 물을 아구, 즉 가장자리(brim)까지 채우라고 분부하시었다. 이에 대하여 까닭은 모르지만 하인들은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그 같은 지시를 준행하였다.
- (5) 그리고는 다시금 그 물을 떠서 이제 연회장(宴會長)에게 갖다 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매우 이상한 분부에 대해서도 그들은 아무런 이의(異議) 없이 묵묵히 따랐었다.
- (6) 그러자 마침내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다. 하인들의 즉각적이고도 불평 한 마디 없는 순종의 결과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리스도의 첫번째 표적이 행하여졌다.
- (7)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삼상15:22)는 교훈을 새삼스레 받게 된다.

8. **㉠** ‘두세 통’은 어느 정도의 용적인가? (6절)

- ㉠** (1) ‘두세 통’이란 말에 있어서의 ‘통’(桶)은 <메트레테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것이다. 이 단어는 본래 ‘액체를 측량하는 기구’를 가리키는데 1통에 담을 수 있는 용량은 약 34-38ℓ 정도이다.
- (2) 그러므로 ‘두세 통’은 68-76ℓ 내지 102-114ℓ 정도의 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9. **㉠** ‘표적’이라는 말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라(11절).

- ㉠** (1) ‘표적’(sign)이란 말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인데 ‘이적’, ‘기사’, ‘징조’, ‘권능’이라는 말과 교체하여 쓸 수 있는 단어이다.
- (2) 그런데 사도 요한은 본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적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다른 말을 사용치 않고 꼭 ‘표적’이라는 말만 사용했다(18절; 4:54; 6:14; 11:47; 20:30).
- (3) 이처럼 사도 요한이 특별히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는 ‘표적’이라는 말에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적이 단순히 놀랍고도 위대한 행동이라는 의미나 곤경에 처하여 있는 인간을 돕고 그들의 병을 치유시키는 것이라는 의미 이상의 것이 내포되어 있다.
- (4)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적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여 주는 증표(證標)라는 뜻이다(참조, 14:11).
- (5) 마태복음에는 이 같은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일화가 있다. 곧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간의 대화인데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오니까’라는 저들의 물음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마11:4, 5)고 답하셨다.

10. **㉠** 가버나움은 어떠한 곳인가? (12절)

- ㉠** (1) ‘가버나움’(Capernaum)이란 지명의 뜻은 ‘나훔(Nahum)의 동네’인데 이 지명이 선지자 나훔(B. C. 700? -645?)의 이름을 본따서 지어진 것인지 아닌지는 분명치 않다.
- (2) 또한 이곳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곳은 ‘텔훔’(Tell Hum)과 ‘길벳’(Khirbet 또는 Khan Minya) 두 곳이다.
- (3) ‘길벳’은 요단 강에서 약 8km 지점에 있는 게네사렛(Gennesaret) 평야 끝의 갈릴리 바다 서북쪽에 위치하여 있고, ‘텔 훔’은 ‘길벳’에서 북동쪽으로 약 4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 (4) 복음서의 기록들에 의하면 이 가버나움은 매우 중요한 성읍이었음을 알 수 있는데 로마의 백부장(centurion)이 군사들과 함께 거주한 곳이기도 하다(참조, 마8:5-9).

- (5)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곳에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다. 그 예를 들 것 같으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신 일(마8:14, 15), 침상에 누워 있는 중풍 병자를 고쳐 주신 일(마9:2-8), 회당장 야이로(Jairus)의 딸을 살려 주신 일(막5:21-43) 등이 있다.
- (6)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마태(Matthew)도 이곳의 한 세관에서 근무하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그분을 따라 나섰던 것 같다(참조, 마9:9; 막2:14; 눅5:27).

11. **㉠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청결 사건에 관한 본질의 기록과 공관 복음의 기록 간에 나타나는 시간적 차이에 관하여 설명하라(13-17절).**

- ㉠** (1) 먼저 양자간의 차이점을 살펴볼 것 같으면 다음과 같다. 본질에서 그리스도의 성전 청결 사건이 그분의 공생애 기간 중 초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묘사되어 있는 반면, 공관 복음서에는 그분께서 죽기 직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 일어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마21:12-17; 막11:15-18; 눅19:45, 46).
- (2) 그러면 이와 같은 차이점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신학자들은 제각기 다른 해석들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3) 첫째 견해는 본질의 기록이 옳고 공관 복음서의 기록이 틀리다는 것이다. 둘째 견해는 공관 복음의 기록이 옳고 본질의 기록이 틀리다는 것이다. 세째는 사도 요한이 신학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앞 부분에 서술하였다는 것이다. 네째는 이와 같은 사건이 두 차례 곧 그리스도의 공생애 기간 중 초기와 고난 주간 중의 월요일에 각각 한 차례씩 일어났었다는 것이다.
- (4) 그런데 양자간의 기록을 면밀히 살펴볼 것 같으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본질에는 소나 양과 같은 짐승들이 언급되어 있는 반면, 공관 복음서에는 그러한 것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둘째, 공관 복음서에는 그리스도께서 산헤드린(Sanhedrin)에서 재판을 받으시기 전에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예고 하셨음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반면(마26:61; 막14:57, 58), 본서에는 산헤드린에서의 재판에 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18-22절).
- (5)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는 양자간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해결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위의 네번째 견해와 같이 성전을 2번 청결케 하셨다. 아마도 그 첫번째 성전 청결 사건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 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훗날 그와 같은 일이 다시 한번 일어나자 당시 완악한 심령을 지닌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수치가 드러남을 인해 그리스도에 대한 적개심을 품게 되었을 것이다(참조, 18절).

12. **㉠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소와 양, 비둘기를 팔 수 있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라(14-16절).**

- ㉠** (1)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중앙 성소 제도’를 설정하셨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면 오직 한 곳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자기를 경배하도록 명하신 법규이다(신12:5-8).
- (2) 그런데 이와 같은 제물로 사용되는 짐승들은 정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흠이 없어야 하였었다(신15:21).
- (3) 하지만 팔레스틴의 원근 각처(遠近各處)로부터 소나 양, 비둘기 등을 몰고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일 뿐만 아니라 도중에 짐승들이 병에 걸리거나 상할 우려가 있었다.
- (4)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 이르러 이와 같은 불편과 수고를 덜어 주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이 정결하고 흠이 없는 짐승들을 백성들에게 팔게 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 (5) 그러나 이와 같이 백성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던 제도가 모든 백성의 기도하는 집으로 작정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근거가 되었다(참조, 사56:7; 렘7:11; 막11:17).

13. ㉠ 성전 안에서 돈을 바꾸어 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라(14, 15절).

- ㉠ (1) 이러한 행위는 구약 시대의 속전(贖錢) 제도와 관계된다. 왜냐하면 이 속전은 반드시 성소의 세겔(Shekel)대로 반 세겔이어야 하였기 때문이다(출30:13).
- (2) 따라서 자신이 갖고 있던 금전을 성전에서 세겔로 바꾸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성립되었다. 그러나 이것도 후일에 가서는 환전상(換錢商)들이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서 돈을 바꾸어 주는 부패성을 드러내게 되었다.
- (3)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의분(義憤)에 못 이겨 성전 안에 있는 환전상들을 다 내어 쫓으시며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16절)고 책망하셨던 것이다.
- (4) 여기서 우리는 성전 안의 매매 행위 및 환전 행위가 그릇된 방향으로 흐르게 된 2가지 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제사장들의 탐욕이다. 둘째는 제사를 편하게 드리려고 했던 백성들의 안일한 정신 자세이다.
- (5) 오늘날에도 적지않은 목회자들이 탐욕에 눈이 어두워 있으며, 상당수의 신자들이 무성 의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사야는 목회자들과 신자들이 예배 처소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사56:1-12에서 언급하였다.
- (6)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좇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요4:24).

14. ㉠ 17절의 내용은 구약 성경 어느 부분의 말씀이 성취된 것인가?

- ㉠ (1) 시 69:9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 (2) 이러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熱情)이 어떠한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
- (3) 그리고 여기서 ‘주의 전’이라는 말은 ‘내 아버지의 집’(16절)과 같은 말로서 하나님께 대한 그분의 감정을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말이다. 즉 그리스도께 있어선 ‘주의 전’에서 장사하는 것은 ‘내 아버지의 집’을 더럽히는 행위요 이처럼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는 곧 ‘내 아버지’를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그 같은 신성 모독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셨던 것이며 그러한 일로 인하여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으셨고 결국 죽음의 자리에까지 넘기어 준 바 되었다(마26:57-27:2).
- (5) 바로 이것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말이 지닌 의미이다.
- (6)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집, 즉 예배 처소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며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자(시84:1-12).

15. ㉠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19-22절)

- ㉠ (1)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일을 의미한다(21, 22절).
- (2)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자 유대인들은 ‘네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 네가 성전의 주인, 즉 하나님이라도 된다는 것이냐? 그렇다면 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라’고 힐문(詰問)하였다(18절).
- (3) 그러자 그리스도께서는 이에 대하여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마12:39, 40)는 말씀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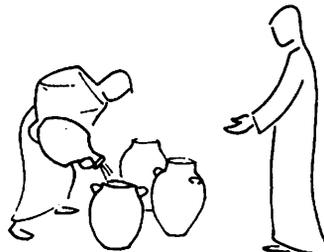
- (4)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와 같이 예표론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을 여자적(如字的)으로만 이해하여 그 말을 예루살렘 성전과 연관지었으니 스스로 그들의 영적 무지를 드러낸 것이다.
- (5) 한편 여기서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어졌다'는 말은 헤롯 대왕(Herod the Great)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을 의미하는데 이 사업은 헤롯 통치 제 18년(B. C. 20-19)에 시작되어 그의 사후(死後)에까지도 계속되었다.

16. **㉠**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조차 그 몸을 의탁하시지 아니한 이유는 무엇인가? (23-25절)

- ㉠** (1)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 (2) 즉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왜 당신을 믿고 따르는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그것은 곧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 (3)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믿음이 온전히 못한 것임도 잘 알고 계셨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과 기사(奇事)를 행하시는 것을 보아야만 그분을 믿었고 그렇지 아닐 때에 도무지 믿지 아니하였다(참조, 4:48). 이와 유사한 경우를 우리는 도마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다(20:24-27).
- (4) 게다가 우리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의 신앙 유형이 이와 같은 형태를 답습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와 신유의 은사 등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
- (5)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밝히셨다. '도마야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도다'(20:29).
- (6) 그렇다. 이것이 곧 참된 신앙이자 복된 신앙이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히11:1)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 (7) 오늘날 우리들은 이러한 신앙의 원리를 바로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가견적(可見的)이고도 현상적(現象的)인 증거를 목격하지 못하는 한 그분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자신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참조, 5:39).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새 생명을 얻자(20:31).

본장의 요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7절).



## 제 3 장 니고데모와의 대화

단락구분 1-2 그리스도를 찾아온 니고데모 / 3-10 니고데모와의 대화 / 11-15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 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심 / 17-21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 22-23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의 사역 / 24-26 세례 요한의 제자들간에 일어난 변론 / 27-36 세례 요한의 증거

1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 나이다

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 두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삽나이까

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7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8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9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11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12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

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8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9 그 징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도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21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22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23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24 요한이 아직 욕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25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26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27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에도 받을 수 없느니라

28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29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30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31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  
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  
시나니

32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  
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33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34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  
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35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36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  
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  
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 1. ㉠ 본장이 지니고 있는 의의(意義)에 관하여 살펴보라.

- ㉠ (1) 본장에는 밤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니고데모와 그리스도 간의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 (2) 그런데 이 같은 대화의 내용은 기독교의 본질 중 하나를 밝혀 주고 있으니 바로 여기에 본장이 지니고 있는 의의가 있다 하겠다.
- (3) 그러면 밝혀지고 있는 기독교의 본질 중의 하나란 무엇인가?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와 거듭남 간의 상관 관계이다. 즉 그 누구든지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3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다(5절).
- (4)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1:14)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가능케 된다(롬10:10).
- (5) 이러한 기독교의 본질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16절).
- (6) 한편 본장에는 이 같은 내용 외에도 메시아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진정(眞情)으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27-36절).

## 2. ㉡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떠한 자인가? (1절)

- ㉡ (1) ‘니고데모’(Nicodemus)라는 이름의 뜻은 ‘백성의 승리자’이다.
- (2) 본질에 의하면 그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관원이다. 여기서 ‘유대인의 관원’이란 산헤드린(Sanhedrin) 공의회회의 일원임을 의미하는 것 같다.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를 가리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지칭한 것에 의해 뒷받침된다(10절).
- (3) 그런데 처음부터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라는 점이 밝혀져 있는 이유는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적 신앙 관념을 염두에 두고서 그리스도와 니고데모 간의 대화 내용을 살필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 (4) 즉 바리새인으로서의 니고데모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되는 자격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계승되는 자연적, 육적 출생에 있음을 강조한 데 반해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에 있음을 강조하셨던 것이다.
- (5) 이러한 대화가 있는 후 니고데모가 즉각적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성경적 기록은 없지만 이 일로 인하여 그가 크게 감화를 받았던 것만은 틀림이 없다(참조, 7:51; 19:38-42).

## 3. ㉢ 니고데모는 어떻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로서 오신 선생’인 줄을 알았는가? (2절)

- ㉢ (1)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표적을 그가 친히 목격하였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 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 (2) 일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친척 관계에 있는 집안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으시고 거기에 참석하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첫번째 표적을 행하

시였다(2:1-11).

- (3) 이후 이 같은 표적을 친히 목격하였던 자들과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참조, 2:11, 23).
- (4) 이와 마찬가지로 니고데모도 역시 그 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예사 사람으로 여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같은 표적은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행하였던 표적 이후로는 전혀 목격할 수 없었던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의 성격상으로도 도저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행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26절).
- (5) 그러기에 그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분에 대하여 ‘랍비’라는 호칭을 서슴지 않고 사용하면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라고 고백하였던 것이다.

4. **㉠ 중생(重生)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하라(3-8절).**

- ㉠** (1) 중생, 즉 ‘거듭나다’는 말은 헬라어로 <제네데 아노덴>인데 이는 ‘위로부터 나다’, ‘하늘로부터 나다’, ‘다시 나다’라는 뜻이다.
- (2) 그렇다면 ‘위로부터 나다’라는 말이 지니고 있는 근본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출생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는 인간으로 말미암은 육적 출생과는 다른 것이다(참조, 1:12, 13).
- (3) 그런데 이처럼 거듭나는 일에 있어 능동적으로 사역하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은 곧 성령이시다. 여기서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난 것’과 같은 말은 바로 이러한 성령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다(5, 8절).
- (4)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켜 주신다. 그리하여 그분은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시며 우리의 의(義)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시고, 말세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예고하여 주신다(16:8-11)
- (5)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외적으로 시인하는 행위가 곧 세례 의식(마3:11; 행8:36)인데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해주시는 분도 또한 성령이시다(엡1:13).
- (6) 결국 이상과 같은 모든 사실이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다’는 말의 근본 의미이다. 그런데 이 같은 중생은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이에 대하여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5. **㉠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삽나이까’라는 말에 나타나 있는 니고데모의 자세는 어떠한가? (4절)**

- ㉠** (1) 부정적이며 인간적일 뿐만 아니라 바리새적 신앙에 충실하다.
- (2) 니고데모는 율법에 능통하다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 바리새인이며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 최종적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다.
- (3) 그러므로 그는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했다.
- (4) 하지만 그는 미처 그와 같은 영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다. 아마도 이는 율법의 근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외식적(外飾的)이며 형식적인 인본주의에 빠져 율법을 피상적으로 이해하는 데 익숙해진 바리새인들의 습성에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인 것 같다(참조, 막7:10-13).
- (5)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하여 설명을 가할 필요성을 느끼셨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신 ‘거듭남’의 의미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분명히 밝히시면서(6, 7절) 그 같은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써만이 가능하다고 선포하셨을 것이다(5절).

6. **㉠**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라는 니고데모의 말은 어떠한 심정을 토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9절)
- ㉠** (1) 이러한 말은 니고데모의 회의적(懷疑的)인 심정을 토로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하지만 그 이면에는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그의 욕구가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 (2) 즉 니고데모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여 그의 경험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고 싶었던 것이다.
- (3) 사실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들은 하나의 고정 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자기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생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일찌기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언약(창17:1-8)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들은 생각하였다.
- (4)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새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 (5) 그러므로 니고데모는 자신이 신봉하고 있는 유대교에서 가르쳐 주고 있지 않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진리’에 관하여 궁금증을 감출 수 없어 하면서 이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설명하여 줄 것을 그리스도께 간청하였던 것이다.
7. **㉠**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에 나타난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라(10-12절).
- ㉠** (1) 우선 예수께서는 니고데모 개인의 영적인 무지를 책망하셨다(10절).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급 인사(人士)요(1절) 선생이었으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영적 진리에 대해서는 아직도 깨달음이 없었다.
- (2) 다음으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책망하셨다. ‘너희’(11절)라는 대명사는 니고데모를 포함하는 바리새인들 혹은 성전 청결 사역에 불만을 표했던 유대인들(2:13-20)을 가리킨다.
- (3) 한편 예수께서 갑자기 사용하신 ‘우리’(11절)라는 1인칭 대명사가 누구를 뜻하는 지에 관해서는 3가지 견해가 유력하다.
- (4) 첫째는 ‘우리’가 성부와 성자를 지칭한다는 견해이다(Abbot). 둘째는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이라는 견해이다(Hendriksen). 세째는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라는 견해이다(Westcott).
- (5) 두번째 견해가 타당한 것 같다. 왜냐하면 성부께서 증거 사역에 직접 가담하신다는 첫째 견해의 표현이 아무래도 어색하고, 세째 견해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직 증거 사역에 구체적으로 나서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역시 부자연스럽기 때문이다.
- (6) 아 물론 예수께서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늘나라의 일에 대한 당신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인해 책망하셨던 것이다.
- (7)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증거하신 ‘하늘 일’은 물론 ‘땅의 일’, 즉 그분의 가르침 및 성전 청결 등의 교훈적 행위마저 배척하였다(12절).
- (8)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교훈과 증거들을 보고 듣고도 깨닫지 못했던 유대인들(마 13:13-15)처럼 되지 말고 그분의 증거와 가르침을 받아들이고(33절), 잘 깨달아 결실하는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마 13:23).
8. **㉠** ‘하늘에 올라간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 (13절)
- ㉠** (1) 여기서 ‘하늘에 올라간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 온 엔 토 우라노>이다. 이 귀절을 여자적(如字的)으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늘에 계시는 자’란 말이 된다.
- (2)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成肉身)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자임을 의미한다(1:14).

- (3) 그러므로 본질 전체의 말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에 계시는 자가 없느니라’는 말로 풀이될 수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 준다(참조, 1:1).
- (4)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품성을 지니신 채 인간 가운데 거하시었다. 따라서 그분께서는 완전한 인간이신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을 감찰하셨으며(1:47; 2:25) 놀라운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그 사실을 증거하셨고, 악에게 시험을 받으시되 그 시험을 이기셨다(참조, 마 4:1-11).
- (5) 한편 ‘인자’(人子)라는 호칭에 관하여는 1장 ④ 22를 참조하라.

9. ㉠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것은 무슨 사건을 예표하는가? (14, 15절)

- ㉠ (1)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대속적 죽음을 예표한다.
- (2) 여기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이란 말은 민 21:4-9에 나오는 사건을 인용한 기사(記事)인데 유대인이면 다 잘 알고 있었듯이 니고데모도 이에 대하여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 (3) 그런데 그 기사에 나오는 뱀뱀은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뱀뱀을 달아맨 장대는 그리스도께서 매어 달리신 십자가를 예표한다(19:18).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니고데모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이다.
- (4) 한편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보혈을 흘리신 것은 누구든지 자신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15절). 이렇게 하여 인간은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결국 인간에게 있어서 사랑할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자(고전 1:30, 31).

10.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에 대하여 주해(註解)하라(16절).

- ㉠ (1) 이 말은 헬라이어 성경의 <후토 가르 에가페센 호 테오스 톤 코스몬>이란 귀절을 번역한 것이다. 그런데 이 귀절을 여자적(如字的)으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라는 말이 된다.
- (2) 이 말 중에 ‘세상’을 뜻하는 <코스모스>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를 가리킨다. 그리고 ‘사랑하다’는 말인 <에가페센>은 무조건적이고 신적인 사랑을 뜻하는 <아가파오>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 (3)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사랑은 남녀간의 애정을 의미하는 ‘에로스’(eros)적인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가장 숭고하고도 희생적인 사랑임을 알 수 있다.

11. ㉠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라(16절).

- ㉠ (1) 여기서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은 <호스테 톤 휘은 아우투 톤 모노게네 에토킨>이라는 헬라이어 성경 귀절을 번역한 것인데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셨다’라는 말이다.
- (2) 그런데 ‘독생자’란 말인 <모노게네스>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낳으신 아들’이라는 의미 외에 ‘그 속성과 성품에 있어서 유일하신 분’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참조, 1장 ④ 11).
- (3)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 세상을 사랑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곧 이 세상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그 같은 영생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영생을 얻는 데에는 요구되어지는 선행 조건(先行

條件)이 있으니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것이다(참조, 롬1:16, 17).

- (4) 따라서 본절에 나오는 ‘멸망하다’(헬, 아풀루미)라는 단어의 의미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18절)는 말과 연관지워 생각할 수 있다.
- (5) 하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은혜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진리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겸손히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때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6:68)라고 고백하자.

## 12. ㉠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심판의 이중적 의미에 관하여 살펴보라(17, 18절).

- ㉠ (1)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인간의 죄를 사실 심리(事實審理)하여 이에 대하여 징계하시려고 함(참조, 창18:20, 21; 21:24, 25)에 있지 않고 인간 스스로가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자신께로 나아올 때에 그 죄를 사(赦)해 주시려고 함에 있다.
- (2) 이러한 점은 인간 사회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비록 국법(國法)을 어긴 범법자(犯法者)라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기색이 역력히 드러나면 그 형벌을 감해 주는 것이 상례(常例)이다.
- (3) 그러나 이러한 사면 제도(赦免制度)가 있다고 할지라도 범죄자가 스스로 이 같은 제도를 부정하고 그 특권 취하기를 거부한다고 하면 그는 여전히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미 선고된 형벌을 감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
- (4)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려고 하는 구원의 은혜에 있어서도 역시 이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그러한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의 의(義)를 힘입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행 16:31).
- (5) 그렇지만 끝까지 이러한 사실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지기를 거부하는 자의 종말은 어떠한가? 결국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12:48).
- (6) 그러므로 이러한 심판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편에서 볼 때는 사면의 특전인데 반하여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편에서는 심판으로 작용하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 13. ㉠ ‘빛’과 ‘어두움’의 의미는 무엇인가? (19-21절)

- ㉠ (1) ‘빛’이란 말은 헬라어로 <포스>이며 ‘어두움’은 <스코토스>이다. 헬라적 사고 방식에 젖어 있던 신약 시대 이방인은 종종 ‘선’을 ‘빛’으로, ‘악’을 ‘어두움’으로 비유하여 이해하였었다.
- (2)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기독교의 진리를 옹호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던 사도 요한은 히브리인들의 종교 관념을 헬라적 사고 관념과 연결지어서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하였다(참조, 서론 ㉠ 6).
- (3) 이러한 그의 의지(意志)가 본절에도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으니 그는 ‘빛’이란 말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어두움’이란 말로써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인간 세상’을 묘사하고 있다(참조, 1장 ㉠ 6).
- (4) 그리고 그는 빛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진리를 좇는 자’, 즉 성도(聖徒)와 ‘악을 행하는 자’, 즉 불신자를 구분하고 있다.
- (5) 이처럼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그가 죄를 지었는지 아니 지었는지에 의해 드러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본래 의인된 자가 1명도 없으니(롬3:10) ‘만일 누구라

도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가 되시기 때문이다'(요일1:10).

14. **㉠** '진리를 좇는 자'는 어떻게 행하는가? (20, 21절)

- ㉠** (1)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온다. 여기서 '빛으로 온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르케타이 프로스 토 포스>인데 '빛에게로 나아온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 말은 곧 성도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 13).
- (2) 그러면 '악을 행하는 자'는 빛에게로 나아오지 않는데 반해 성도들은 왜 빛에게로 나아오는가?
- (3)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지만 성도들은 영원(永遠)을 사모하며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임'(요일1:9)을 믿기 때문이다.
- (4)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16절)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인간은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약속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신·불신에 따르는 결과는 판이하게 다르며(18절) 그에 대하여서는 결국 스스로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15. **㉠** 예수께서는 어디서 어떻게 세례를 주셨는가? (22절)

- ㉠** (1) 예수께서 세례를 베푸신 장소는 '유대 땅'이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베레아의 베다니(1:28) 맞은편 곧 여리고 근방의 강가였을 것이다.
- (2) 여기서 예수께서는 직접 세례를 주시지 않고 제자들을 통해 세례를 베푸셨다(4:2).
- (3) 그것은 아마도 예수께서 세례 요한보다 위대하신 분이심을 알리려는 의도였던 것 같기도 하다(Hendriksen).
- (4) 그렇지만 이러한 행위가 제자들을 위한 배려(配慮)였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한 듯하다.
- (5) 즉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언젠가 성령 세례를 받고(행1:5)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할 사역자들이었다(마28:19).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몸소 세례를 베푸시지 않고 제자들이 대행하도록 분부하셨을 것이다.
- (6) 결국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고(행2:1-4)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베풀게 되었다(행2:37-41).

16. **㉠** 살렘 가까운 애논이란 어떠한 곳인가? (23절)

- ㉠** (1) '애논'(Aenon)이란 지명의 뜻은 '샘들'이다.
- (2) 이곳에 대한 성경상의 언급은 단 한 군데 곧 본절에서밖에 찾아 볼 수 없는데 그 지명의 뜻과 같이 이곳에는 물이 많았던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 (3) 그런데 애논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가장 유력시되는 장소가 두 군데 있을 뿐인데 그중 한 곳은 벳산(Beth-Shan)의 남쪽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수많은 샘이 있던 곳이다. 그리고 다른 한 곳은 세겜(Shechem)에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 위치한 곳이다.
- (4)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여러 가지 고고학적 또는 성경적 증거(참조, 수15:32)에 의거하여 위의 두 지역 중 벳산 남쪽 지역을 애논으로 보고 있다.
- (5) 한편 본절의 '살렘'(Salem)은 '평화'라는 뜻으로 요단 강 가까이에 위치한 지역인데 스구도볼리(Scythopolis), 즉 벳산의 남쪽에 위치해 있다.

17. **㉠**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다는 말은 무엇을 예시하고 있는가? (24절)

- ㉠** (1) 장차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될 것을 예시하고 있다.
- (2)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는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Herod Antipas)와 헤로디아(Herodias) 간의 불륜의 관계를 책망한 결과 옥에 갇힌 후 그곳에서 최후를 맞이

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막6:14-29).

- (3)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의 본래 남편인 헤롯 빌립(Herod Philip)은 헤롯 대왕(Herod the Great)의 아들들로서 이복 형제였다. 그리고 헤로디아는 본래 헤롯 빌립의 아내였다.
- (4) 그러나 그녀는 그와 이혼하고 그의 이복 형인 헤롯 안티파스와 재혼하였다. 하지만 당시 이러한 불의에 대하여 아무도 그들을 힐책하거나 간언(諫言)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그 이유는 왕의 진노를 살까 봐 모두들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 (5) 이러한 때 그와 같은 잘못을 담대히 지적한 자가 있었으니 곧 세례 요한이다. 하지만 그는 그 즉시로 옥에 투옥되었고 그 후 헤로디아의 꾀계로 인하여 목 베임을 당하였던 것이다.
- (6)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성도의 참된 신앙의 자세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된다. 그것은 곧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赤身)이나 위협이나 칼’(롬8:35)과 같은 위험 앞에서도 전혀 굴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다(참조, 행4:1-22).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위협하에서도 결단코 성도로서의 기본 양심만큼은 저버리지 말자.

18. **㉠**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세례 베푸심에 대해 어떻게 증거했는가? (25-28절)

- ㉠** (1)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세례가 정당한 것임을 증거하고 있다.
- (2)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와 한 유대인 간에 결례 곧 물세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25절).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장면을 목격하였다(26절).
- (3)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일전에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셨다(마3:13-15). 그러한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도리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계시니 세례 요한의 세례와 그리스도의 세례 중 과연 누구의 세례가 확실한 권위를 지닌 것인가?
- (4) 이러한 문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자못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 사실을 고(告)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였을 것이다.
- (5) 그러자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는 ‘세례 베푸는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밝혔다(27절). 그리고 그 자신은 그리스도도 아니며 엘리야도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의 앞길을 평탄케 하기 위하여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자일 뿐이라고 고백하였다(참조, 1:20-28).
- (6) 하지만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증거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세례는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강권적 역사가 일어나는 세례이니 아무도 그 권위를 부인할 수 없다(참조, 5-8절).

19. **㉠** 신랑 신부의 비유에서 세례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29,30절)

- ㉠** (1)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 요한 자신과의 관계성이다.
- (2) 물론 우리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부’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는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신부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져야 할 것이다(참조, 엡5:22-32).
- (3) 그러나 이보다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랑의 친구인 세례 요한과의 관계이다. 세례 요한은 신랑의 앞길을 예비하여(1:23) 신랑이 신부를 취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 자이다.
- (4) 그러므로 이제 세례 요한은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광경 곧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사역 행함을 보고서 기뻐하는 것이다.
- (5) 결론적으로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

여야 하리라’(30절). 이 말은 곧 그리스도의 사역이 점차 증대되어야 할 것임에 반해 자기 자신의 사역은 종료되어야 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 (6) 실제적으로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공생애(公生涯)를 시작하실 지 얼마 지난 후 투옥되어 참수형(斬首刑)을 당함으로써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로서의 생애를 마쳤다(참조, 막1:13; 눅3:18-20; 1장 ㉒ 7).

20. ㉒ 그리스도에 대한 본장의 결론적 증거를 요약하라(31-35절).

- ㉒ (1)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이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31절).
- (2) 이러한 그리스도께서는 그 자신이 친히 보고 관찰하신 것, 즉 그 자신이 속해 있던 하늘나라의 일들에 관해 말씀하시는 분으로서 단순히 피상적인 지식을 전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32절).
- (3)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치도 자신의 말을 전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담아 주신 말씀만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신다(참조, 7:14-18).
- (4)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온 세상 만물을 다 주셨다. 즉 인류 구원이란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권위를 부여하신 것이다(참조, 16-18절).
- (5)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나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된다(36절).

21. ㉒ 하나님의 진노란 무엇인가? (36절)

- ㉒ (1) ‘진노’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르게>인데 ‘분노’, ‘노여움’, ‘처벌’, ‘복수’ 등의 뜻을 지니고 있는 단어이다.
- (2)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진노란 갑자기 화를 내거나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 (3) 하나님의 진노란 하나님께서 만족히 여기시지 않는 불쾌한 상태 또는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악한 것을 싫어하시는 상태를 의미한다.
- (4)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요일4:8).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신32:4).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의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신다.
- (5)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의를 저지르는 자이다.
- (6) 따라서 이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18절).

본장의 요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 제 4 장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단락구분 1-2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 / 3-6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 / 7-26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 27-30 제자들의 의문과 여인의 증거 / 31-38 그리스도와 제자들과의 대화 / 39-42 사마리아인들의 개종 / 43-45 갈릴리로 가시는 그리스도 / 46-54 예수 그리스도의 두번째 표적

1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2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3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5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육 시쯤 되었더라

7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8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리에 들어갔음이라

9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10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1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길울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삽나이까

12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1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16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17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

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19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20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23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25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27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28 여자가 풀동이풀 버려 두고 동리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과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30 저희가 동리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1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잠수소서

32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음양식이 있느니라

33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잠수할 것을 갖

다 드렸는가 한대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35 너희가 녀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36 거두는 자가 이미 샅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37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38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었노라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39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리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40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튿날 유하시매

41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압이니라 하였더라

43 이튿날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로부터 갈릴리로 가시며

44 친히 증거하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

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45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 이더라

46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47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48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49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50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듣고 가더니

51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52 그 낮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 칠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53 아비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54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번째 표적이니라

1. **㉠ 본장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의 여러 모습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에 대하여 의미부여하라.**

- ㉠** (1) 유대 땅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신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 시기를 원하셨다. 그리하여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는 도중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 지경을 통과하게 되었다.
- (2) 그런데 그곳에는 우물이 있었고 마침 여행 중에 피곤하게 되신 그리스도께선 그 우물 곁에 앉아 휴식을 취하실 수가 있었다(6절).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느 사람과 닮음이 없는 인간 예수 곧 육체적으로 연약한 존재인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 (3) 또한 본장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그분의 사역의 성격을 드러내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 (4) 그리스도께서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시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相從)을 하지 않는 것이 상례였다(9절).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 여인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셨다(24-26절)
- (5)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꺼려 하는 사마리아인과 세리와 창기 및 각양 죄인들을 부르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마9:13). 그러면 오늘날 그 같은 죄인들은 누구인가? 본래 하나님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을 상실하고 죽음 가운데 처한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누구든 그분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다(3:16).

- (6) 마지막으로 본장에는 두번째 표적을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결국 이것은 육체적으로는 연약한 인간이시지만 신적(神的)으로는 완전한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 자신의 권능을 사람들에게 드러냄으로써 누구든지 이를 보고서 자신을 믿도록 하려는 것이다.

## 2. ㉠ 신약 시대 초기에 있어서 세례를 베풀 수 있는 자들은 누구이었는가? (2절)

- ㉠ (1) 본절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기사가 나와 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살펴볼 것 같으면 우리는 여러 사람들이 세례를 집행(執禮)했음을 알 수 있다.
- (2)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앞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막1:4, 5). 그리스도의 사후(死後) 사도 베드로는 초대 교회 3,000명의 새 신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으며(행2:41) 고넬료(Cornelius)와 같은 이방인에게도 물론 세례를 주었다(행10:47, 48).
- (3) 그리고 초대 교회 일곱 집사 중의 한 명인 빌립(행6:5)과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행6:5; 8:12, 38; 16:15, 33).
- (4) 이처럼 신약 시대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집행하였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치 않는 점은 그들이 무슨 권위로써 그 같은 예전을 집행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 (5) 성경에는 세례를 집행할 수 있는 자의 신분이나 지위, 자격 등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 시대 초기에 있어서 사도든 집사든 간에 성령이 충만한 자로서 교회를 대표하여 일하는 자면 누구든 세례를 집행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6) 하지만 오늘의 교회에서는 세례 예식의 본래적 의미를 준수하며 그 성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개 교회의 지도자로 임명된 목사가 책임을 지고 세례를 집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3. ㉠ 사마리아의 역사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라(4절).

- ㉠ (1) 사마리아(Samaria) 지방은 구약 시대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 거주 하였던 지역이다(수16, 17장). 그런데 B. C. 722년 앗수르의 왕 사르곤 2세(Sargon II, B. C. 722-705)가 이곳을 점령한 후 역사적 비극이 시작되었다.
- (2) 그는 이곳에서 많은 백성들을 자기 나라에 포로로 잡아간 대신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다(왕하17:24).
- (3) 이들은 이방 신들을 가지고 와서 숭배하였으므로 자연히 그곳에 남아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 순수성을 잃게 되었으며 혈통적으로도 잡혼(雜婚)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순수한 히브리 혈통을 견지할 수 없게 되었다.
- (4) 따라서 B. C. 586년 남왕국 유다의 멸망으로 인해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유다 포로들이 B. C. 539년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에는 이미 사마리아 주민들은 종교적, 혈통적으로 이방화(異方化)되어 완전히 서로 상종할 수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러 있었다.
- (5) 이러한 역사로 말미암아 이후부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의 상종을 금하였고 그들을 적대시하게 되었던 것이다(참조, 스4:1-6).

## 4. ㉠ 사마리아의 어두운 과거 역사에도 개의치 않고 그리스도께서 그 지방을 통과하신 것에 대하여 살펴보라(4절).

- ㉠ (1) 사마리아의 어두운 과거 역사(참조, ㉠ 3)로 인하여 빛어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반목 질서는 통행 문제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즉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 바로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는 것이었는데도 모든 유대인들은 한사코 요단 강을 건너는 우회 길을 택하였었다.

- (2)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같은 상례(常例)를 깨뜨리시고 스스로없이 사마리아 지경을 통행하셨으니 이에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 하겠다.
- (3) 즉 사마리아 지방에도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을 통과하시는 것을 조금도 개의치 않으셨다(참조, 39-42절).
- (4) 이러한 행위는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보편성(普遍性)에 대한 그리스도 자신의 증거라고 볼 수도 있다.
- (5) 만일 이 은혜가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었다면 사마리아인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이방인인 우리(참조, 엡2:11, 12)도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엡2:1-3).

### 5. ㉠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란 어떠한 곳인가? (5절)

- ㉠ (1) '수가'(Sychar)라는 성읍은 '야곱의 우물'이 있는 사마리아의 한 마을이다. 그러나 이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 (2) 다만 제롬(Jerome)과 같은 학자의 추정에 따라서 이곳이 오늘날의 '텔 발라타'(Tell Balata) 인 세젼(Shechem)과 동일 지역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 (3) 세젼은 예루살렘 북방 약 50km 지점 그리심 산(Mount Gerizim) 근처의 에브라임 산지에 위치한 고대 가나안의 도시였다(수20:7).
- (4) 그러나 이와는 달리 어떤 사람들은 야곱의 우물에서부터 북쪽으로 약 1km 떨어져 있는 고대 유적지인 '아스칼'(Askar)이 수가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 (5) 하지만 아스칼은 세젼보다도 야곱의 우물에서 훨씬 멀리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충분히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우물이 있었으므로 수가와 동일 지역으로 보기는 어렵다.
- (6) 왜냐하면 수가 성 여인이 자기 마을에 있는 우물을 놓아 두고서 먼 길을 걸어 야곱의 우물까지 물을 길러 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7절).

### 6. ㉠ '야곱의 우물'에 대하여 설명하라(6절).

- ㉠ (1) '야곱의 우물'(Jacob's well)의 오늘날의 명칭은 '빌 야아쿰'(Bir Yaaqub)이다. 이 우물은 비교적 확실성이 있는 팔레스틴 사적지(史蹟地) 중의 하나이다.
- (2) 이 우물은 사마리아인의 예배 중심지였던 그리심 산 기슭에 위치하여 있는데 1866년에 발굴되었다.
- (3) 수가 성 여인은 이 우물에 대하여 깊다고 말하였는데 본래 이 우물의 깊이는 약 30m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오늘날 이 우물의 깊이는 약 23m이다. 이처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아마도 세월이 흐르면서 본래의 우물 바닥에 많은 퇴적물이 메워졌기 때문인 듯하다.
- (4) 오늘날엔 이 우물이 그리스 정교회의 교회당 바닥 밑의 지하실에 놓여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우물 터 위에 교회당이 건축되었기 때문이다.
- (5) 이 우물은 그 명칭에도 나타나 있듯이 야곱이 판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에 대한 성경상의 기록은 없다. 하지만 유목 생활을 하던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자주 우물을 팠던 경우(창26:12-22)에 비추어 볼 때 야곱은 세젼 성에 거주할 당시 이 우물을 팠을 것으로 추정되어진다(참조, 창33:18-20).

### 7. ㉠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시간 구분법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었는가? (6절)

- ㉠ (1)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전략해 있던 팔레스틴에는 두 가지 시간 구분법이 사용되고 있

었다. 그중 하나는 로마식이며 다른 하나는 유대식이다.

- (2) 로마식은 밤을 기점으로 하여 시간을 나누는 것이며 유대식은 새벽을 기점으로 하여 시간을 구분하는 것이다.
- (3) 이중 로마식에 의하면 '제 육 시'는 오늘날의 시간으로 오전 6시가 아니면 오후 6시가 된다. 그리고 유대식에 의하면 '제 육 시'는 정오가 된다.
- (4) 이와 같은 로마식과 유대식 시간 구분법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로마식 시간	오늘날의 시간	유대식 시간
제 6 시	오전 6 시	제 0 시
제 9 시	오전 9 시	제 3 시
제 10 시	오전 10 시	제 4 시
제 12 시	정 오	제 6 시
제 3 시	오후 3 시	제 9 시
제 5 시	오후 5 시	제 11 시
제 6 시	오후 6 시	제 12 시
제 7 시	오후 7 시	제 1 시

### 8. ㉠ 6절에서 말하는 '제 육 시'란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몇 시가 되는가?

- ㉠ (1)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본서의 저자가 사용한 시간 구분법이 로마식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유대식에 의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 (2)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 즉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된 지 오랜 팔레스틴에는 이미 로마 문화가 상당히 유포되어 있었다는 점과 본서의 수신(受信) 대상이 주로 이방인을 겨냥한 것인 듯하다는 점을 들어 사도 요한이 사용한 시간 구분법은 로마식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3) 그렇다면 이제 남은 문제는 로마식에 의한 시간 중에서도 오전 6시였느냐 아니면 오후 6시였느냐 하는 점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서 결국 본장 전체의 내용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새벽 내내 여행하신 끝에 오전 6시경 피로하셔서 우물 곁에 앉아 쉬셨다고 보기는 어렵다.
- (4) 그러므로 '제 육 시'는 오후 6시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근거하여 본장의 내용을 정리해 볼 것 같으면 다음과 같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행을 하였다. 그들은 노상(路上)에서 한 우물을 발견하였으며 때마침 피곤한 몸을 그곳에서 쉴 수 있게 되었다.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여인들이 물을 길으러 나오는 시간인 오후 6시였으며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려고 마을로 들어갔던 것이다.

### 9. ㉠ 6절에서 말하는 '제 육 시'가 유대식에 의한 시간인 정오였을 가능성은 없는가?

- ㉠ (1) 그러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 (2) 아마도 본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7절)은 복잡한 남자 관계(18절)로 인해 마을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을 것이다.
- (3) 따라서 그녀는 평상시에도 마을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 하였을 것이며 그 결과 유대인들이 물을 잘 길지 않는 시간인 정오를 택하여 혼자서 우물로 물을 길으러 나왔을 수도 있다.
- (4) 그러므로 그녀는 공교롭게도 오전 내내 여행을 하신 끝에 피곤하여 그곳 우물가에서 쉬고 계시던 그리스도의 눈에 띄었을 수 있는 것이다.
- (5) 한편 유대인들은 대개 오전에는 일을 하고 정오에는 쉬는 습관이 있음을 기억해 두는 것도 이와 같은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10. ㉠ 본장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원리를 설명하라(7-26절).

- ㉠ (1) 예수께서는 탁월한 전도자였다. 본장에는 예수께서 지니신 유능한 전도자의 면모가 잘 묘사되어 있다. 그분이 보여 주신 전도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 (2) 첫째는 인격적 접촉의 원리이다. 예수께서는 ‘물을 좀 달라’(7절)고 하심으로써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을 열어 놓으셨다.
- (3)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다.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호의(好意)를 베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호의를 베풀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 2가지 방법을 함께 쓰신 셈이다.
- (4) 한편 인종 차별의 관습을 극복한 것도 인격적 접촉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9절). 예수의 제자들도 당시의 관습을 벗어나 수가 성 안으로 들어가 음식을 구했다(8절).
- (5) 둘째는 점진적(漸進的) 주제 발전의 원리이다. 예수께서는 물이 있는 곳에서 ‘생수’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여인의 영적 호기심을 발동시키셨다(10-12절).
- (6) 세째는 초대 또는 초청의 원리이다. 예수께서는 사55:1과 사마리아인들의 유일한 경전이었던 모세 오경 중, 민21:17을 연상케 하는 말씀으로 자신이 주시는 생수를 먹으라고 초청하셨다(13, 14절).
- (7) 네째는 죄 고발의 원리이다. 예수께서 여인이 아직도 영적 진리를 깨닫지 못하자(15절) 그녀의 죄 문제를 자연스럽게 들춰 내심으로써 각성을 촉구하셨다(16-18절).
- (8) 다섯째는 선포의 원리이다. 예수께서는 여인이 그를 선지자라고 인정한 것(19절)에 만족하지 않고 직접 자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셨다(25, 26절).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선포는 복음 전도의 대주제(大主題)이다(행5:42).

## 11. ㉠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는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가? (10절)

- ㉠ (1)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두 단어라고 할 수 있다.
- (2)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영생을 가리키며(롬6:23) ‘생수’란 영생을 상징하는 보조 개념이기 때문이다(14절).
- (3) 그런데 이 영생은 성령으로 거둔 자만이 소유할 수 있다(참조, 3:5). 그러므로 예수께서도 성령을 ‘생수’라고 비유하셨던 것이다(요7:38, 39).
- (4) 또한 성령은 ‘선물’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행2:38). 그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중생 곧 구원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엡2:8).
- (5)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는 모두 성령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세월이 흐른 후, 사마리아 주민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안수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선물’이요 ‘생수’인 성령을 받게 되었다(행8:14-17).

## 12. ㉠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의 특성은 무엇인가? (14절)

- ㉠ (1) 그 특성은 영속성(永續性)과 내면적 자생성(自生性)이다. 즉 이 세상의 물은 다만 일시적으로 사람의 육체적 갈증을 덜어 줄 뿐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는 사람의 영적 갈증을 영원히 그리고 완전히 해결해 주는 것이다.
- (2) 또한 이 생수는 세상의 물과는 달리 이를 취하는 자의 마음속에 들어가 기쁨의 근원을 이루며 영생의 보증(保證)을 이룬다. 그러므로 생수, 다시 말해 성령을 받아들이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같이(시1:3) 끊임없는 내적 평안과 기쁨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5:22, 23; 엡1:13).
- (3)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생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

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그녀는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15절)라고 간구하였다.

- (4) 즉 그녀는 이 세상에 있는 자연수(自然水)밖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녀의 관심은 세상적인 것에 쏠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녀는 먼 길로부터 물 길러 오는 자신의 수고를 덜어 달라고 그리스도께 요청하였던 것이다(15절).

13. **㉠** 생수를 달라고 하는 여인의 요청에 대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어떠한 의도가 담겨 있는가? (15, 16절)

- ㉠** (1)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여 생수를 받을 수 있는, 즉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도록 이끌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2) 생수를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동문 서답일지도 모르겠다.
- (3)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여인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세상적 물이 아니라 보다 내면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영생수(永生水)임을 알고 계셨다.
- (4)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여인의 가장 은밀한 부분 곧 내면의 아픔을 노출시키시어 여인으로 하여금 그 아픔을 시인하게 하시고(17절) 다시금 그녀의 숨은 과거를 밝히심으로써(18절) 죄에 대한 깨달음과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호기심을 갖도록 하여 주셨다.
- (5) 이처럼 여인의 복잡한 남자 관계는 그리스도 앞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그리고 이 같은 죄에 대하여 여인은 전혀 부인할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녀는 그리스도의 비상한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선지자’라고 부르게 되었다(19절).
- (6)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곧 누구든지 간에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과 뉘우침이 없고,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이는 영생의 필요성을 깨달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생수를 받아 마실 수도 없다는 것이다(참조, 마22:1-14).

14. **㉠**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이란 어느 산을 가리키는가? (20절)

- ㉠** (1) 그리심 산(Mount Gerizim)이다.
- (2) 이 산은 오늘날의 ‘예벨 에트 투르’(Jebel et Tur)로서 해발 854.7m에 달하는데 사마리아 성으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진 중부 사마리아에 있다.
- (3) 이곳은 사마리아인들의 예배 중심지로서 사마리아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중요한 곳이었다. 아브라함(창12:6,7)과 야곱(창33:18-20)은 이 산 부근의 셰켄(Shechem)에서 제단을 쌓았으며 가나안 정복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도록 되어 있었다(신11:29; 27:12).
- (4)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 초기에 그 중요성을 간직하였던 이곳도 다윗과 솔로몬 치세하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예배 중심지가 되자 점차 그 중요성을 상실하여 갔다.
- (5)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분열되자 여로보암(Jeroboam)은 세겜을 북왕국의 수도로 정하고 예루살렘에서의 예배를 금하였다(왕상12:25-27).
- (6) 하지만 이때까지는 그리심 산에 사마리아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다. 사마리아인들이 독자적인 성전을 갖게 된 것은 느헤미야 시대 이후인데 이 같은 사실은 느 4장과 13:28 그리고 외경서(마카비상·하서)에 의해 추론되어진다.
- (7)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요야다(Joiada)의 한 아들이 사마리아 통치자였던 산발랏(Sanballat)의 딸과 결혼한 사실은 느헤미야에게 간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느13:28).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요야다의 아들의 직위를 박탈하고 그를 추방하였다.
- (8) 그러자 산발랏이 자신의 사위를 위하여 그리심 산에 독자적인 성전을 만들어 주었는데

이 성전이 바로 사마리아 성전이였다. 이 성전이 건축된 때는 B. C. 330년경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성전은 B. C. 110년경에 요한 힐카누스(John Hyrcanus, B. C. 135-105)에 의해 파괴되고 말았다.

(9) 이상과 같은 역사적 상황으로 인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까지도 사마리아인들은 여전히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렸으니 본질의 내용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

15. **㉠** 예배와 장소의 관계를 논하라(20-24절).

- ㉠** (1) 구약 시대에는 예배가 특정한 장소에서만 드려졌다. 그 이유는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임재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출 40:34, 35; 왕상9:2, 3).
- (2) 한편 하나님께서 예배의 무질서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제사장 제도와 중앙 성소 제도를 세우신 것도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 (3) 어쨌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이다(20절).
- (4) 그런데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가 특정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어디서든지 드려질 수 있음을 선언하셨다(21절).
- (5) 구약 시대와 달리 신약 시대의 예배가 장소를 초월하게 된 까닭은 2가지이다.
- (6) 첫째, 하나님께서 편재(偏在)하시기 때문이다(시 139:7-10). 즉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어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살펴보신다(23b절).
- (7) 둘째, 이제는 성도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다(고전3:16, 17).
- (8)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시간 외에도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생활 자체가 예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참조, 롬12:1). 이런 의미에서 칼빈(Calvin)도 ‘하나님 앞에서’(Coram Deo)를 부르짖은 바 있다.

16. **㉠**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란 말은 무슨 뜻인가? (22절)

- ㉠** (1) 사마리아인들의 예배가 잘못되었다는 뜻이다.
- (2) B. C. 722년 앗수르 왕 사르곤 2세에 의해 성읍이 점령된 이후(참조, ㉠ 3)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조상 때부터 믿어 오던 하나님만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방의 신들을 영입한 혼합주의적 신앙을 받아들였다.
- (3) 그러므로 결국 그들이 믿는 신은 그들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였던 신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신을 섬기는 의식(儀式)마저도 우상 숭배적인 것이 되어 버리고 만 것이다(왕하 17:27-33).
- (4) 그러나 이에 반하여 유대인들은 시종 여일하게 한 분 하나님 곧 그들의 조상 때로부터 섬겨 왔었으며 익히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예배해 왔었다(참조, ㉠ 9장).
- (5)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본질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는 반면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 (6) 한편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은 메시아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미칠 구원의 은혜를 염두에 둔 말로서 그리스도 자신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임을 가리키는 말이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가문을 좇아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세상에 출생하셨다(마 1:1-25; 눅 2:1-21).

17. **㉠**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란 어떤 예배인가? (23, 24절)

- ㉠** (1) ‘신령과 진정으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 프뉴마티 카이 알레테이아>인데 직역하면 ‘영(靈)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예배의 참된 자세를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2) 첫째, 참된 예배는 ‘신령으로’ 드러져야 한다. 즉 영(靈)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적 존재로서 자신을 헌신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도 바울의 신령한 예배 자세가 고전14:15에 잘 나타나 있다.
- (3) 둘째, 참된 예배는 ‘진정으로’ 또는 ‘진리 안에서’ 드러져야 한다. 개역 성경의 ‘진정으로’라는 표현은 예배자의 자세를 자칫 주관적 감상주의(主觀的感傷主義)로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 차라리 ‘진정으로’라는 말을 ‘진리 안에서’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 (4) 다시 말해 예배자는 진리 곧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께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갖추고 예배에 임해야 한다는 뜻이다.
- (5) 한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행해졌던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의 예배 방식을 비교함으로써 참된 예배의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다.
- (6)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예배에 있어 유대인들보다 신령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 안에 있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은 겨우 모세 오경만을 경전으로 갖고 있었기에 하나님에 대한 참지식이 크게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22a절).
- (7) 반면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있어 사마리아인들보다 우월했다. 하지만 그들은 신령하지 못한, 형식적 예배에 머물러 있을 뿐이었다.
- (8) 오늘날에도 이상의 2가지 그릇된 예배 유형에서 벗어나지 못한 교회 및 신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 같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롬12:1).

18. ㉠ 왜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은 이상히 여겼는가? (27절)

- ㉠ (1) 아마도 그들은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행하시고자 할 때부터 놀랐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에 수긍하고 사마리아로 동행했다.
- (2)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께서 낯선 여인과 담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고 더욱 놀랐다.
- (3) 당시 유대인의 율례에 의하면, 랍비(rabbi)가 여자들과 이야기하거나 교육하는 일이 금해져 있었다. 그러므로 상식을 벗어난 예수 그리스도 행동은 제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 (4) 하지만 예수께서는 세인(世人)들의 상식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을 더 귀중하게 여기신다(참조, 눅 15:1-7).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은 사마리아인, 그것도 사람 취급을 못 받던 한 여인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던 것이다.
- (5) 아몽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행동은 인종, 신분, 성별(性別)의 차이를 초월하는 기독교 복음의 평등 사상(갈3:28)을 여실히 보여 준 것이라 하겠다.

19. ㉠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사용하였던 호칭의 변화를 살펴보라(29절).

- ㉠ (1) 제일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면하였을 때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를 평범한 한 유대인으로 여기어 ‘당신’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9절).
- (2)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녀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자 그분에 대한 호칭은 ‘주’, 즉 ‘선생’(Sir)으로 바뀌었다(11, 15절).
- (3)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숨기워진 과거를 밝히 드러내시고 그녀의 부정한 남자 관계에 대하여 정곡(正鵠)을 찌르시자 그분의 능력에 놀란 여인은 그리스도를 가리켜 ‘선지자’라고 칭하였다(19절).
- (4) 그 다음으로 그녀는 일찍부터 궁금히 여기고 있었던 신앙적인 문제에 관하여 그리스도께 질문하였다. 그러자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과 아울러 그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가르쳐 주셨다(24-26절).

- (5) 이상과 같은 대화를 통하여 그녀는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 그러기에 그녀는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29절)라고 외칠 수 있었다.
- (6)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 성숙되어 가는 한 과정을 보게 된다. 그리고 새 신자 교육의 필요성도 새삼 깨닫게 된다. 즉 우리의 처음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으므로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으나 신앙의 연륜(年輪)이 쌓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으며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 되심을 부끄러움 없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고전13:11).
- (7)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는 누군가가 때를 맞춰 물을 주며 젖과 밥으로 양육하는 수고를 해야 한다(고전3:1, 2).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신앙을 받아들인 우리가 마땅히 그와 같은 책임을 지도록 하자.

20. **㉠**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糧食)은 무엇인가? (31-34절)

- ㉠** (1) 예수께서 여행으로 인해 피곤하신 데다가 목마르셨으며 허기가 지셨었다(6-8절).
-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사온 음식을 즉시 잡수시지 않고 제자들이 미처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셨다(32절). 제자들은 의아(疑訝)할 수밖에 없었다.
- (3) 그때 예수께서 자신의 양식을 공개하셨다. 그것은 2가지로 요약된다.
- (4)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즉 순종이며(34a절),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즉 사명 감당이다(34b절).
- (5)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순종과 사명 감당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게 된다. 그것은 다름아닌 복음 전도이다. 이 말씀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하신 후에 그리고 전도에 대한 교훈(35-38절)을 주시기 전에 나온 것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결론은 자명해진다.
- (6) 즉 예수께서 전도를 하시면서 세상 음식에서 얻을 수 없는 포만감(飽滿感)을 느끼셨기에 자신의 양식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도하는 일이라고 선언하신 것이다.
- (7)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도하며 영적 기쁨을 크게 체험하는 생활을 하도록 하자(참조, 시40:9).

21. **㉠** 발이 회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35절)

- ㉠** (1) 이 말씀은 다소 난해하다. 왜냐하면 추수 시기에 하얗게 되는 곡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 (2) 어떤 학자들은 흥미있는 해석을 제시해 본다. 즉 본질의 말씀은 실제적인 발의 곡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 (3) 사실 사마리아인들은 흰 옷을 즐겨 입었고 그들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께 나오는 중이었기에(30절) 예수께서 본절처럼 상징적인 표현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 (4) 하지만 본질에서 중요한 것은 발이 회어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아니라 ‘추수하게 되었도다’라는 말씀의 심각성이다.
- (5) 본절 초두에는 유대인들이 추수 시기에 매우 민감하다는 사실이 잘 드러나 있다. 하지만 칼빈(Calvin)의 말처럼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추수(마 13:24-30, 36-43)에 관해서는 너무나 둔감하다.
- (6) 사람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천국 추수 시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를 바라보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성도가 되자(벧전 4:7).

22. **㉠** ‘거두는 자’와 ‘뿌리는 자’, ‘너희’와 ‘다른 사람’은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가? (36, 38절)

- ㉠** (1) ‘거두는 자’와 ‘너희’란 말이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말인듯이 ‘뿌리는 자’와 ‘다른 사람’이란 말 역시 그러하다.

- (2) 그러면 여기서 ‘거두는 자’란 누구를 가리키며 또한 ‘뿌리는 자’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좁은 의미에 있어서 ‘거두는 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가리킨다. 그리고 ‘뿌리는 자’란 신약 시대가 도래하기 이전까지 주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과 같이 외치는 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구약 시대의 몇 성도들을 가리킨다(38절).
- (3) 하지만 넓은 의미로 볼 때 ‘거두는 자’란 오고 오는 세대에 있어서의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후세대를 가리키며 ‘뿌리는 자’란 신앙의 얼을 심어 놓고 간 예수 그리스도의 전(前)세대의 인물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 (4) 한편 ‘거두는 자가 이미 샅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는 말은 거두는 자와 전도를 받는 새 신자 모두가 다 영생을 얻을 것을 뜻한다.
- (5)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며(3:16) 또한 이들을 하나님의 곳간으로 거두어들이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한 자로서의 상급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참조, 딤후4:5-8).
- (6)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고 하셨던 것이다.

**23. ㉠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는가?(39-42절)**

- (A) (1) 첫째, 그들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29, 39절).
- (2) 여인의 증거는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을 감화시켰음이 분명하다. 이와 같은 사실은 ‘여자의 말이…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39절)는 귀절에 의해서도 여실히 입증된다.
- (3) 그런데 이처럼 복음 증거의 사역에 있어서 증거하는 자는 사람이고 그 증거를 받아들이는 자도 사람이지만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다(참조, 막13:10, 11; 행2:4).
- (4) 둘째, 그들은 친히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41절). 여인의 증거를 듣고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왔다(30, 40절).
- (5) 그런데 이처럼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신앙의 내적 체험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마침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아가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압이니라’고 고백하였던 것이다.
- (6)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롬10:17).

**24. ㉠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두번째 표적의 특징을 살펴보라(46-54절).**

- (A) (1) 첫째, 물리적인 동인(動因)이 개입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표적을 창출한 것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을 생각나게 한다(창1:3).
- (2) 그리스도께서는 첫번째 표적을 행하심에 있어서 물이라는 매개체를 사용하시었다(2:1-11).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 주실 때엔 대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심으로써 병을 낫게 하곤 하셨다(마8:15; 9:29; 막8:22-26).
- (3) 그러나 또 다른 경우(눅 5:24, 52; 17:11-14)에 있어서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두번째 표적을 행하심에 있어서 단지 말씀만으로써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셨던 것이다.
- (4) 둘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요구되는 표적이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첫번째 표적은 순종이 요구되는 표적이었다(참조, 2장 ㉠ 7).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리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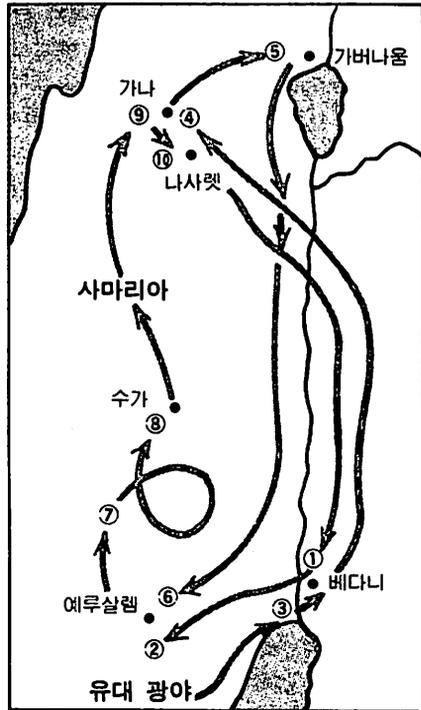
께서는 사람들이 보고 믿게 하시기 위하여 표적을 행하셨다(참조, 2:23; 9:1-38).

- (5) 그러나 두번째 표적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이 요구되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와 주소서’라는 부탁을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신하에게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시었다. 아이의 얼굴을 보지도 않으신 그리스도께서 말씀만으로 아이가 살았다고 하셨을 때 이 말을 믿기란 누구에게 있어서도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 (6) 하지만 이 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는 노중에서 자기 집의 하인들을 만나 아이가 살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 그리고 아이가 나온 때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하신 때가 같은 시각이었음을 알게 되자 그는 온 가족과 더불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신앙을 소유하였다.
- (7)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을 겨자씨만큼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마17:20).
- (8) 한편 ‘제 칠 시’에 관하여는 ㉑7을 참조하라.

지도자료

예수의 공생애(公生涯)  
초기 행적

- ① 나사렛으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세례받음(마 3:13)
- ② 광야로 가 40일간 기도하신 후 마귀의 시험을 받음(마 4:1-11)
- ③ 베다니에서 제자들을 부름(1:35-51)
- ④ 가나에서의 첫 이적(2:1-11)
- ⑤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감(2:12)
- ⑥ 예루살렘에서의 첫번째 성전 청결 사건(2:13-16)
- ⑦ 유대 지방에서의 초기 사역(3:22)
- ⑧ 야곱의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남(1-42절)
- ⑨ 가나에서의 두번째 이적(46-53절)
- ⑩ 나사렛으로 가셔서 사람들을 가르침(눅 4:16-30)



## 제 5 장 예루살렘에서의 사역

단락구분 1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리스도 / 2-9 베데스다 연못에서 행하신 표적 / 10-18 유대인들의 반발 / 19-29 자신의 신성(神性)에 대한 그리스도의 증거 / 30-39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들 / 40-47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1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2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3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4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될지니라]

5 거기 삼십 팔 년 된 병자가 있더라

6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7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내려가나이다

8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10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11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대

12 저희가 물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14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15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16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17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

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19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니라

20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라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히 여기게 하시리라

21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니라

22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3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시니라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5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7 또 인자 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28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30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31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

32 나쁜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쁜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33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34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35 요한은 썬서 비취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36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쁜 보내신 것을 나쁜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37 또한 나쁜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쁜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38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나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40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41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42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43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44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45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46 모세를 믿었던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47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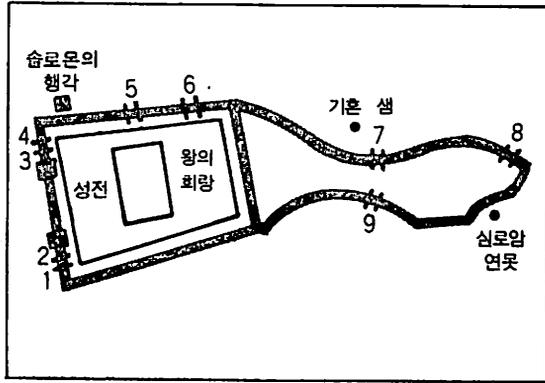
1. ㉠ 본장에 나타나는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인가?

- ㉠ (1)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인들 간의 마찰에 대한 이야기가 본장에 최초로 언급되어 있다(16절).
- (2)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그리스도께서는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동안 병으로 시달려 온 병자를 고쳐 주시고서 그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하셨다(8절).
- (3) 그런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으므로 유대인들은 이 일에 대하여 반감(反感)을 드러내었다. 왜냐하면 철저한 형식적 율법주의에 길들여져 있던 유대인들로서는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도록 지시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 (4) 그러므로 그들은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안식일에도 일할 수 있는 까닭을 밝히셨다(17절). 즉 자신은 근본 하나님이며 안식일의 주인이므로 안식일에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참조, 마12:1-8).
- (5)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믿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신성(神性)을 모독하였다 하여 그분을 잡아 죽이려 하였다(18절). 이렇게 하여 생겨난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목 질시는 더욱더 심화되어 갔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어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던 것이다(19:1-16).
- (6) 여기서 우리는 율법에 대한 그릇된 이해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저지르게 된 엄청난 결과를 살펴보았다. 이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다.

2. ㉠ 양문(羊門)은 어떠한 문인가? (2절)

- ㉠ (1) 예루살렘 성벽에는 어문(魚門), 양문, 마문(馬門), 수문(水門), 샘문, 골짜기문 등과 같은 여러 개의 성문이 있다(참조, 느2, 3장).
- (2) 이 중에서 양문은 예루살렘 북쪽 성곽의 함메아 망대(Tower of the Hundred) 근처에 있는 문으로서 구약 시대에는 이 문을 통해 성전에서 제물로 사용될 짐승들을 성안으로 들여갔다.
- (3) 이러한 사유로 인해 이 문에 양문(the Sheep Gate)이라는 명칭이 붙게 된 듯하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친히 ‘양의 문’(10:7)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곧 하나님의 양인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터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4) 참고로 예루살렘 성벽에 위치해 있는 여러 개의 문들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밑의 그림과 같다.



1. 어문 2. 하나넬 망대 3. 함메아 망대  
 4. 양문 5. 동문 6. 마문 7. 수문  
 8. 샘문 9. 골짜기문

3. ㉠ 베데스다 못이란 어떠한 곳인가? (2절)

- ㉠ (1) ‘베데스다’(Bethesda)라는 말은 ‘자비의 집’ 또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말이 신약 시대 초기의 사본인 베자 사본에는 ‘벤티사다’(Bethzatha, 올리브의 집)로 그리고 벌게이트(Vulgate) 역에는 ‘벤티사이다’(Bethsaida)로 옮겨져 있다.  
 (2) 이 못은 예루살렘 서북쪽 모퉁이에 위치해 있었는데 1888년 헤르 쉭크(Herr Shick)에 의해 발견되었다. 발견되던 당시 이곳에는 본절의 기록과 같은 5개의 행각이 있었으며 행각의 벽에는 못에 내려온 천사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3) 그런데 오늘날 이곳에는 못의 발견을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된 ‘성 안내 교회’가 있다.  
 (4) 한편 이 못의 물은 여러 가지 질병 치유에 좋은 온천수 성분을 지니고 있었는데 지하에서부터 간헐적(間歇的)으로 솟아났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5) 그러므로 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설치되어 있는 행각에 기거하고 있다가 못의 물이 지하로부터 분출되면 그 물로 자신의 몸을 적시곤 하였을 것이다(참조, 3, 4절).

4. ㉠ 4절과 관련된 사본학적(寫本學的) 문제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A. D. 4세기 이전의 권위 있는 사본들(알렉산드리아 사본, 바티칸 사본, 에브라임 사본, 베자 사본 및 프리얼 33사본)과 고대 시리아(Syriac) 역, 애굽(Coptic) 역, 벌게이트(Vulgate) 역과 같은 책에는 본절이 나와 있지 않다.  
 (2) 본절과 같은 기록은 다만 4세기 이후의 사본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들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도 각 사본마다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 같은 사본상의 차이점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 것인가?  
 (3) 터툴리안(Tertullian, A. D. 155?-230?)과 같은 교부는 본절이 성경 원본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믿으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볼 때에도 본절의 내용에는 그 어떠한 오류도 내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4) 하지만 대부분의 초대 교회 교부들은 본절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후대에 이르러서 누군가에 의해 본절이 성경에 첨가된 것으로 믿었다.

- (5) 즉 본질은 일반 서민들이 질병 치유의 효험을 지니고 있던 것으로 인정했던 간헐적인 못의 동함을 설명하기 위하여 삽입된 일종의 주석이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을 후대의 어떤 필사자가 성경 중에 삽입해 놓은 보충 귀절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5. **㉠** 38년 된 병자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식으로 나타났는가? (5-9절)

- ㉠** (1) 첫째,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물음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치유(治癒) 선포의 말씀으로 나타났다.
- (2) 베데스다 못 곁을 지나가시던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병이 이미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것임을 아셨다. 38년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 있었으니 아마도 그 병자는 걸거나 잠시 동안이라도 서 있을 수조차 없을 만큼 쇠약해져 있었을 것이다.
- (3) 그러므로 도저히 고칠 것 같지 않은 병을 닦하며 절망 중에 빠져 있는 병자를 보신 그리스도께서는 연민의 정을 억제할 수 없으셨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물음으로써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셨을 것이다.
- (4) 그러나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병자는 자신의 딱한 사정을 한탄할 수밖에 없었다.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처럼 이 병자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병을 고칠 수 없는 아득한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 (5)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병자에 대하여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 말씀을 선포하셨으니 그 결과 병자는 병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되었다.
- (6) 이상과 같은 사실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영적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첫째,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본래 이 병자와 같이 자신의 힘으로써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에 속박되어 있었다(엡5:8). 둘째,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의 해방을 얻게 되었다(24절).
- (7) 그러므로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새 생명을 누리게 된 우리들은 치유함을 받은 병자가 못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같이(15절)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자.

6. **㉠** 질병과 죄를 서로 관련지워 이야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라 (14절).

- ㉠** (1)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38년 된 병자가 시달려 왔었던 병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생겼던 것이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 (2) 성경에는 사람이 범죄하므로 말미암아 병을 얻게 된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기사(記事)가 나와 있으니 그 예로 민12장과 대하26:1-21 그리고 마9:2-7 등을 들 수 있다. 사실 인류의 모든 불행과 질병, 고통의 근본 원인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있다(참조, 창3:16-19).
- (3) 그러나 모든 병을 인간 개개인이 지은 죄값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에게 자연 질서를 주셨으니 그 같은 자연 질서가 균형을 잃을 때 자연스레 병이 발병할 수 있기 때문이다.
- (4) 이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증거해 주고 있는 귀절은 9:1-3이니 그리스도께서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가리켜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증거하시었다.
- (5)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38년 된 병에서 나음을 입은 자를 만나시자 그에게 ‘보라 네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죄

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심령에 대한 그분의 관심을 단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6) 왜냐하면 비록 병자가 육체적인 질병은 치유함을 받아 깨끗함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심령이 날로 부패해 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7. **㉠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 (16절)**

- ㉠** (1)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주신 후 그 사람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8-12절)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 (2)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율법에는 일상 생활 하나하나에까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세칙(細則)이 나와 있지 않고 유대 랍비들이 율법 실행의 세부적인 항목을 별도로 규정해 놓은 규정서가 있다.
- (3) 그 같은 규정서에는 안식일과 관계된 조항이 나와 있는데 그 조항에 의하면 안식일에는 사람이 1km 이상의 길을 걸어서는 안 되며 환자가 누워 있는 침상을 운반할 수는 있지만 환자가 누워 있지 않는 침상을 운반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 (4)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병자를 고치신 후 그로 하여금 자리를 들고 가도록 명하신 것은 명백히 안식일 규례를 범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 (5)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편협하고도 근시안적(近視眼的)인 율법주의의 한 면모를 엿보게 된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막2:27). 따라서 비록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죽어 가는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행위는 지극히 정당한 것이다(눅14:3-6).
- (6)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의 병을 고쳐 주시고 병에서 나음을 입은 것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그에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하신 것은 안식일 제도를 설정한 본래의 취지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행위이다.
- (7) 아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대하여 철저히 준행하는 것 자체를 무시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에 앞서 무엇보다도 그 같은 말씀의 이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요구, 즉 사랑의 정신을 망각하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다(참조, 마23:23).

8. **㉠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관련하여 스스로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17-30절)**

- ㉠** (1) 본질(本質)의 동등성과 사역 목적의 동일성 그리고 의지의 종속성이다.
- (2)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가리켜 ‘내 아버지’(헬, 호 파테르 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이 본질에 있어서 근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었다.
- (3) 사도 요한도 이에 대해 증거하고 있다. 그는 본서 서두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증거하였다(1:18).
- (4)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사역 목적이 동일함을 드러내셨다. 이처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역 목적이 동일한 것에 대하여서는 롬8:29, 30도 증거하고 있으니 이를 참조하라.
- (5) 셋째,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자신의 의지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음을 증거하시었다.

(6) 그러나 이는 사역에 있어서의 상호 협력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말이지 결코 각 위(位)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종속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9. ㉠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21절)

- ㉠ (1) 이 말은 생사(生死)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더불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셨다(창1:20-2:7).
- (2) 그러나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음이란 형벌을 가하셨다(창3:19). 그러므로 인간은 더 이상 스스로 자신의 삶과 죽음 문제를 좌우할 수 없게 되었다. 즉 이제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육체적 죽음을 겪게 될 것이다(참조, 히9:27).
- (3) 하지만 이러한 일반성을 깨뜨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면 죽은 자를 다시금 살리기도 하신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왕상17:17-22)과 수벰 여인의 아들(왕하4:32-37) 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들이다.
- (4)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권능을 자신도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바 이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권세이다(참조, 22-24절).
- (5) 그리스도께서는 이 같은 말씀을 하신 후 죽은 자를 다시금 살리심으로써 자신의 말의 진실성을 입증하시었다. 즉 그분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11:17-44) 나인성 과부의 아들(눅7:11-17)과 회당장 야이로의 딸(눅8:49-56)을 살려 주셨던 것이다.
- (6) 그러나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는 말에는 이보다 더 넓은 의미가 담겨 있다. 즉 이 말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3:16).
- (7)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인류 대속(代贖)의 피를 흘리시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참조, 롬5:8-10).

10. ㉠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얻게 될 영생과 면하게 될 심판에 대하여 설명하라(24절).

- ㉠ (1)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얻게 되는 영생은 순간적으로 획득되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다.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그는 영생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참조, 눅19:1-10; 23:39-43).
- (2) 또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은 영생은 결단코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켜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많은 실수와 죄를 짓기는 하지만 종국에 가서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참조, 롬8:14-16).
- (3) 그러나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궁극적 심판은 미래적인 것이다(참조, 12:48). 물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심판이란 단지 이미 되어진 일을 확인하는 데 지나지 않는 것이다.
- (4) 이상을 종합해 보면 영생이란 미래의 심판 때에 비로소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이때는 다만 양과 염소가 분류되듯이 성도들과 불신자들이 구분되어 성도들은 영광의 자리에도 인도되고 불신자들은 영벌(永罰)에 처해질 뿐이다(마25:31-33; 제20:4-21:27).
- (5) 바로 이것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3:18)는 말이 뜻하는 바이다.

11. ㉠ 25절에서 말하는 ‘이때’란 어느 때를 가리키며 ‘죽은 자’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 ㉠ (1) 좁은 의미에 있어서 ‘이때’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증거하

시던 공생애 기간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도처에 선포되고 있는 오늘날의 신약 시대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 (2) 그리고 ‘죽은 자’란 말도 좁은 의미에서는 육체적으로 숨을 거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처해 있는 인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3) 이렇게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본질 전체가 의미하는 바를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즉 인간은 본래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 죽음을 선고받고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죽은 자들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을 죽음으로부터 구해 내려는 특사(特使)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 (4) 예수께서는 전인류를 향하여 죽음을 면제하는 사면령을 선포하시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 같은 사면령을 믿고 죽음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들어서기만 하면 그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참조, 3:16).
- (5) 이처럼 전인류에게 선포된 사면령을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또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를 믿는 행위인 것이다.
- (6) 즉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주신 것이지만 이러한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 단 한 가지 요구되는 조건이 있으니 곧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 12. ㉠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때는 언제인가?(28,29절)

- (A) (1) 이 세상 마지막 날이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분명치 아니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때와 관련하여 의로운 자의 부활과 악한 자의 부활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다(29절).
- (2) 그런데 신약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성도들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전15:51, 52; 살전4:16).
- (3) 이때 부활한 성도들의 몸은 변화되며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 그리고 예수의 재림 때 살아 있는 성도들은 산 채로 공중에 들림 받게 될 것이다.
- (4) 그러면 불신자들은 언제 부활하게 되는가? 이들도 성도들과 같은 시각에 부활하게 되는가? 아니면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그보다 조금 후에 부활하게 되는가? 이에 관해서도 성경상의 명확한 언급이 없으므로 우리는 확인(確言)할 수 없다.
- (5) 다만 우리는 전천년주의자(前千年主義者)들이 주장하듯이 사단이 무저갱에 던지움을 받게 되고 그 후에 예수의 재림으로 맞이하게 될 천년 왕국의 통치가 끝나면 비로소 악인들(불신자들)의 부활과 백보좌 심판(참조, 계20:11-15)이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서 어느 정도 판단의 자료를 취할 수 있을 뿐이다.
- (6) 어떻든 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악인이든 의인이든 모든 사람이 다 육체적인 부활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 (7) 이렇게 하여 부활한 그들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악인들은 지옥에 처하여져 영원토록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된다(참조, 마13:49, 50). 그리고 의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통(交通)하게 된다(계21:1-7).
- (8)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는 말의 뜻인 것이다.
- (9) 그러므로 심판의 필연성(참조, 히9:27)과 부활을 확신하고 있는 우리들은 세상 끝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를 항상 고대하며 지금은 마땅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각자가 되어야 한다(참조, 히10:22-25).

13. **㉠**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는 말의 본래 뜻은 무엇인가? (30-32절)

- ㉠** (1)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지니고 계신 능력의 한계성 내지 무능력성, 또는 그분의 신분상에 있어서의 제약성 내지 종속성을 지적하는 말이 아니다.
- (2) 어디까지나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성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이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결코 손끝 하나도 움직이려 하시지 않으셨던 것이다(참조, 2:4; 마 26:39).
- (3) 이러한 사실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으니 그것은 곧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4:32, 33)는 말로써 확인할 수 있다.
- (4)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으며 그 사명자로서 조금도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림 없이 말으신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려 하셨다.
- (5) 이러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20:21)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자.

14.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거와 그밖의 다른 증거들에 관하여 살펴보자 (33-40절).

- ㉠** (1) 일전에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었다. 그때 세례 요한은 밝히 드러내어 말하기를 자신은 그리스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며 다만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한 광야에서의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였었다(1:19-28).
- (2)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그와 같은 사람의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증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분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 그것들은 권위 면에 있어서 사람의 증거와는 비교도 안 될 권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3) 이제 그러한 증거들에 대하여 살펴볼 것 같으면 첫째,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역사(役事)가 있다(참조, 2:9; 4:53; 10:6; 21:6).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큰 권능을 보고서 놀라 말하기를 ‘이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능력을 발휘한다’고 하였다(마 12:24).
- (4)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귀신이 귀신의 왕보다 강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그 같은 권능을 행할 뿐이니(마 12:25-29) ‘누구든지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서 나를 믿으라’고 역설하시었다(14:11).
- (5) 둘째,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이 있다.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던 때(마 3:13-17)와 변화산상에서 몸이 변형되시던 때(마 17:1-8)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다.
- (6) 셋째, 성경 곧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증거서이다.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창 3:15; 사 7:14; 미 5:2)과 인류를 위한 구속 사역을 하실 것(시 78:2; 사 9:1; 32:4; 35:6)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시 31:5) 부활(시 16:10) 승천(시 68:18)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다.
- (7)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 같은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은 하면서도 성경의 주제(主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며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 (8) 이처럼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고 그분의 뜻을 바로 받드는 것은 어떤 훌륭한 교육적 환경이나 지적 민감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분명히 인간의 자의적 고백과 신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참조, 엡2:8).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행할 수 있는 자라고는 전혀 없다.

15. **㉔** 예수께서 자기를 영접치 않는 유대인들의 상태를 한 마디로 어떻게 규정하셨는가? (41-44절)

- ㉔** (1)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들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 근본 이유를 지적하셨다.
- (2) 사실 영적인 교만에 휩싸여 있던 유대인들은 율법과 선지서를 그들 앞에 두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다.
- (3)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아집과 고정 관념보다는 율법과 선지서에 명기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에 게으르지 않았을 것이며 끝내 그 말씀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도래(到來)를 감지했을 것이다.
- (4) 한편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 깊숙이서부터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 메시아를 추종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참조, 살후2:3, 4), 화려하고 외적인 권위를 지닌 존재를 신뢰하려 드는 반면에 외모로서는 별 볼일 없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 (5) 이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대한 관심보다는 세상적이고 화려한 것에만 치중하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발견할 만한 여유가 전혀 없다. 진리 안에 거하여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또한 겸손히 행하는 것이다(참조, 벰전3:15-22).

## 연구자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예수 그리스도. 본장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로 삼는 것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분개한 장면이 나온다(18절). 그렇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점은 부인될 수 없는 기독교의 근본 진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에 대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4:17)는 직접적인 확인(確言)을 해주셨다. 예수와 함께 동고 동락을 하던 그의 제자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점을 고백하였다(참조, 20:31; 마16:16). 심지어 귀신들조차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막3:11)라고 부르짖었으니 이에 대하여 감히 누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도 영적 무지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은 한사코 이 점을 부인함으로써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 말았다(19:7, 16). 그러면 오늘날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점을 부인하는 자들이 없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들에게 이에 대해 힘있게 증거해 줌으로써 그들이 예수를 자신들의 구주로 모시는 제기를 삼게 하자.

## 제 6 장 생명의 떡

단락구분 1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 2-3 따르는 무리 및 산에 오르시는 그리스도 / 4-14 오병 이어(五餅二魚)의 표적 / 15 그리스도께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다 / 16-21 물 위로 걸으신 예수 그리스도 / 22-24 그리스도를 찾아 나선 사람들 / 25-40 생명의 떡 / 41-59 유대인들의 반응 / 60-66 제자들의 반응 / 67-71 시몬 베드로의 고백과 가뭇 유다에 대한 증거

1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2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느 표적을 봄이러라

3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4 마침 유대인의 명철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5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6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7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8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져오니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삽나이까

10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효가 오천쯤 되더라

11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12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13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 두 바구니에 찼더라

14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16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17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

지 아니하셨더니

18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19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 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20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21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22 이른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23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아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24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25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26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28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29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30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31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뭇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33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4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6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지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38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1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리

42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4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44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래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5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46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47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8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49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50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52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끼에게 주어 먹

게 하겠느냐

5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58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59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였느니라

60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61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2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64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진 처음부터 아심이라

65 또 가라사대 이러하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66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 예수께서 열 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69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삽나이다

70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 둘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71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르키심이라 저는 열 둘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1. ㉠ 본장의 주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A) (1) 본장에는 오병 이어(五餅二魚)의 표적과 관련하여 증거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에 관한 교훈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 (2) 갈릴리 바다 건너편의 한 산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좇아 온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표적을 행하시었다(1-14절).
- (3) 그런 후 그리스도께서는 혼자 산으로 떠나가 제시다가 이적적인 방법으로 바다 위로 걸어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과 합류하여 가버나움으로 가시었다(15-21절).
- (4) 그러자 떡으로써 주린 배를 채울 수 있었던 사람들은 저들의 육적 소욕(所欲)을 채우기 위하여 다시금 그리스도를 찾아 나섰다(22-25절).
- (5)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찾아온 무리들에게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27절)고 말씀하시면서 친히 '생명의 떡'이 되시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시었다.
- (6) 그 같은 증거에 있어서의 중심 되는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첫째, 생명의 떡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다(32절). 둘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주리지 아니할 것이다(35절). 셋째, 생명의 떡을 먹지 아니하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53절) 먹는 자는 영생할 것이다(58절)라는 점이다.

2. Q 갈릴리 바다란 어떠한 곳인가? (1절)

- (A) (1) 갈릴리 바다(the Sea of Galilee)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96km 지점인 갈릴리 동쪽, 거대한 요단 계곡에 위치해 있다.
- (2) 이 바다는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어졌는데 구약 성경에는 '긴네렛 바다'(민34:11; 수13:17) 또는 '긴네롯 바다'로, 눅5:1에는 '게네사렛 호수'로 나와 있다. 그리고 본서에는 '디베라 바다'(21:1)라는 명칭으로도 불리어졌다. 오늘날에는 보통 '갈릴리 바다' 또는 '긴네렛 호수'로 불리운다.
- (3) 이 바다는 주위의 지형으로 인하여 마치 하아프 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주변에 둘러서 있는 높은 산들로 인하여 바다 한복판에서는 이따금씩 돌풍 현상이 일어나곤 한다(참조, 막4:35-37).
- (4) 지리적으로 볼 때 이 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중심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곳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불러 자신의 제자로 삼으셨다(마4:18-22).
- (5) 그분께서는 이 바다 근처의 어느 산에서 산상 설교를 하셨으며(마5-7장) 이곳 해변가에서 오병 이어(五餅二魚)의 이적을 비롯한 여러 이적을 행하시었다(마14:13-21; 막4:35-41; 눅4:38; 5:12-16).
- (6) 한편 갈릴리 바다 서편에 위치한 디베라(Tiberias)는 그리스도 당시 로마의 행정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함락(A. D. 70) 이후 새로이 형성된 유대 학문의 중심지로서 탈무드(Talmud)와 같은 유대 랍비 문서가 이곳에서 편찬되기도 하였다.

3. Q 그리스도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5절)

- (A) (1) 자신을 좇아온 많은 무리들이 배고파하는 것에 대하여 제자들이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려 하심이다(참조, 마14:13-16; 15:32).
- (2)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었다. 그 같은 표적 중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 외에 치유 불가능한 병을 고친 이적(4:46-54; 5:1-8)도 포함되어 있다.
- (3)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거나 간접적인 소식을 전해 들은 많은 무리들은 그리스도께서 이

디로 가시든지 곧바로 그 뒤를 쫓았는데 급히 서두르는 터에 그들 대부분은 먹을 음식을 준비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 (4) 이와 같은 사정을 아신 그리스도께서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참조, 막8:1-3) 이 기회를 통하여 사람들을 먹여야 할 책임이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교훈하려고 하셨다.
- (5) 물론 여기서 무리들을 먹인다는 것은 육체적인 에너지가 되는 양식을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까지도 의미한다.
- (6) 바로 이러한 책임이 오늘날 교회가 감당해야 하며 또한 감당하고 있는 사명이다. 즉 교회는 영적인 면에 있어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죽어 가는 못심령을 구원해야 하며, 육적인 면에 있어선 구제와 자선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다(참조, 행 6:1-6).

#### 4. **㉠**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 빌립과 안드레는 각기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7-9절)

- ㉠** (1) 빌립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반응하였으나 안드레는 막연하나마 그리스도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는 자세로 나왔다.
- (2)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빌립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예측하셨던 대로(6절) 산술적(算術的)인 계산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부족하나마 이백 데나리온의 떡은 있어야 할 것이라는 대답을 아뢰었다.
- (3) 빌립과 같은 사람은 대사에 용의 주도하므로 일의 실수는 적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람은 신앙의 기적에 대하여선 쉽게 믿으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인간적인 계산이 아무리 정확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통계 수자 이상의 의미는 지니고 있지 못하므로 별다른 유익이 없게 되는 것이다.
- (4) 하지만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놓고서 비판하는 빌립과는 달리 안드레는 보다 희망적인 자세를 보이었다. 안드레는 한 아이의 도시락, 즉 일반 평민층의 주식이었던 작고 납작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드리었다.
- (5) 이 같은 그의 자세에는 비록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수에 비할 때 터무니없이 적은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가진 것 다 드리는 것이니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그의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이다.
- (6) 아뭏든 이로써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을 시험해 보려고 하신 것은 끝이 났다. 남은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결과는 엄청난 것임을 보여 주는 일뿐이었다. 오병 이어의 이적, 그것은 빌립 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크나큰 교훈을 주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 (7) 우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는가? 있다면 그는 낙심하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한 후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자신의 사정을 고할 것이다. 그리하면 그는 위로부터 오는 무한한 위로와 긍휼을 얻을 것이다(참조, 약5:13-19).

#### 5. **㉠** ‘이백 데나리온’을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해 보라(7절).

- ㉠** (1) 1데나리온(Denarius)을 오늘날의 화폐 단위로 따져서 정확하게 몇 달러 또는 몇 원으로 환산할 수는 없다.
- (2) 다만 1데나리온이 로마 시대에 있어서 별다른 기술이 없는 노동자나 군인의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녔던 점에 비추어 오늘날에도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여기면 될 것이다.
- (3) 그러므로 200 데나리온이란 일반 노동자의 200일 품삯, 즉 한 주일에 엿새 일을 한다고 치면 약 8개월간의 임금에 해당되는 돈이 된다.

- (4) 아마도 빌립은 이와 같은 액수를 예수 그리스도께 제시함으로써 현재 무일푼과 다름이 없는 상태에 있는 제자 자신들로서는 도저히 많은 무리들을 먹일 방도가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려 하였던 것 같다.
- (5) 그러나 예수께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결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 되시는 당신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서 그 향방을 좌우하신다(참조, 롬11:36).
- (6) 한편 신약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주요 화폐 단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발행국	명칭	가치	성경
유대	미나 (Minah)	달란트의 1/60	눅19:11-27
	달란트 (Talent)	금-은의 15배 은-6,000드라크마	마18:24;25:14-30
	세겔 (Shekel)	성전세의 2배 (약1/5파운드)	마17:27
로마	고드란트 (Kodrantēs)	앗사리온의 1/4	마5:26;12:42
	앗사리온 (Assarius)	데나리온의 1/16	마10:29;눅12:6
	데나리온 (Denarius)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	마18:28
헬라	렙돈 (Lepton)	고드란트의 1/2	막12:42;눅21:2
	드라크마 (Drachma)	데나리온보다 약간의 가치가 더 있음	눅15:8

6. **㉠** ‘수효가 오천쯤 되더라’는 말에 대하여 살펴보라(10절).

- ㉡** (1) 이 수효는 여자나 어린아이를 제외한 장정(壯丁)만의 수이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마태는 이에 대하여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마14:21)라고 하였으며 마가는 ‘떡을 먹은 남자가 오천 명이었더라’(막6:44)고 하였다.
- (2) 이처럼 유대인들은 사람의 수효를 계산함에 있어서 여자나 어린아이를 제외시켜 버리는 독특한 계산법을 구약 시대 때부터 이어받아 오고 있었다(참조, 민1:2;26:2).
- (3) 그러나 이러한 인습은 남녀 평등 문제를 떠나서라도 분명히 여자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 풍조로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었다.
- (4) 그러기에 유대적 전통 사고에 물들어 있던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아이나 여인들이 자신에게로 나아오는 것을 금하지 아니하셨으며 오히려 그들을 위해 축복을 빌으셨던 것이다(마 9:20-22;19:13-15).
- (5) 이것이 곧 기독교의 정신이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인데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고전11:12)고 하였다.
- (6) 이러한 기독교의 정신이 온 세계에 끼친 영향은 실로 막대한 것이니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에 있어서 여성들에게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지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영향에 의한 것 중의 하나이다.

7. **㉠** 무리들이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지 않도록 명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어떠한 교훈이 담겨 있는가? (12절)

- ㉡** (1)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코 소홀히 여

겨서는 안 된다는 암시적인 교훈이 담겨 있다.

- (2)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 (3) 그중에서도 꼽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죽음으로 치닫는 인생들에게 새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롬5:12-21) 그 외의 일반적인 것으로도 때를 따라 내려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신11:14) 그리고 결실케 하는 햇빛(참조, 시47:16)을 악인과 의인에게 고루 내려 주시는 은혜(마5:46)를 들 수 있다.
- (4) 그러나 사람들은 이같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어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도리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 (5) 따라서 이러한 때 하나님의 은혜로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들을 결단코 버리지 말고 다 거두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범사에 내려 주시는 크고도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도 말고 잊지도 말라는 권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 (6) 한편 이와 같이 하면, 즉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면 그분께선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셔서 배불리 먹게 하시는 것(신6:4-11)과 같은 은혜로 더욱 우리를 풍족케 하실 것이다.

8. **Q** 우리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하였으며 이에 대해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셨는가? (14, 15 절)

- A** (1)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는 사실을 그분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하였다.
- (2) 여기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란 오래 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하였던 '나와 같은 선지자'(신18:15, 18)를 가리키는데 이는 곧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 때부터 대망(待望)해 오던 메시아를 의미한다(참조, 4:25).
- (3) 그런데 이러한 메시아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은 '메시아는 곧 이스라엘의 국권 회복자'라는 것이었다.
- (4) 그 까닭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이는 못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메시아 예언과 관계된다.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할 위기에 즈음하여,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이 멸망당할지라도 장차 메시아라는 자가 나타나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모으고 다시금 국권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예언하셨다(사11장; 렘30:18-22).
- (5) 이러한 까닭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바벨론→페르시아→그리스→로마로 이어지는 외세하(外勢下)에서 피지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언젠가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리라는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이다.
- (6) 하지만 바로 여기에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근본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며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피하고 무리들로부터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7) 즉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모든 말씀은 비단 육적 이스라엘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서 첫째는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구원을 얻을 것을 뜻하며, 둘째는 그리스도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룩될 신천신지(新天新地)와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다(참조, 37-40절; 계21장).

9. **Q** 17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막 6:45에는 벳새다로 간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설명하라.

- A** (1) 이 같은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벳새다(Bethsaida)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 (2) 성경에 단지 '벧새다'라는 말로만 나와 있는 지역은 같은 이름을 지니고 있지만 사실 다른 지역인 두 곳으로 나누어진다.
- (3) 그중 하나는 '갈릴리 벧새다'(Julias Bethsaida)로서 요단 강이 갈릴리 호수와 합해지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五餅二魚)의 표적을 행하셨던 곳이 바로 이곳으로 추정된다(참조, 눅9:10-17).
- (4) 다른 하나는 '갈릴리 벧새다'(Galilee Bethsaida)로서(12:21) 가버나움에서 서쪽으로 약 2.4km 지점에 위치해 있던 동네이다.
- (5)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가버나움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항구 도시였는데 반하여 갈릴리 벧새다는 그렇게 크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마을이었다.
- (6) 아마도 이러한 연유로 인해 본서의 저자는 '가버나움'이란 말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간 곳이 갈릴리 벧새다였음을 나타내려 했던 것 같다.

10. **㉠** 그리스도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것에 대하여 부정하는 자들의 견해는 어떠한가? (19절)

- ㉠** (1) 그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각종 초자연적인 기사(記事)를 인간 이성에 부합되도록 재해석함으로써 역사적인 성경 기록과 상충되는 부분을 없애려고 한다.
- (2) 이러한 견해를 취하는 현대 신학자로서 독일의 바움가르텐 크루시우스(Baumgarten-Crusius, Ludwig Friedrich Otto, 1788-1843)와 파울루스(Paulus, Heinrich Eberhard Gottlob, 1761-1851)를 들 수 있다.
- (3) 이들은 주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바다 위를 걸으시지 않고 해변을 따라 걸으셨을 뿐인데 훗날 기사가 왜곡되어 마치 그리스도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던 것처럼 되어 버렸다고 한다.
- (4) 이와 같은 견해가 보다 발전하여 새로운 자유주의 신학 형태로 나타난 것이 바로 볼트만(Rudolf Bultmann, 1884-1976)의 '비신화화론'이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초자연적인 기사를 신화로 보고 이를 실존론적으로 해석하려 하였다.
- (5)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듯이 그리스도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본질의 기사도 사실적인 것으로 믿는다.
- (6) 그렇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해변을 따라 걸으셨다면 제자들이 그를 보고 유령(幽靈)으로 착각하였을 리도 없고 두려워하였을 리도 만무하다(참조, 마6:47-52).
- (7) 결국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되어진 성경 기사를 믿지 아니하고 이를 신화로 간주하는 자들은 인간 이성 및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자인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는 자라고 할 수밖에 없다.

11. **㉠**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나선 까닭은 무엇인가? (22-26절)

- ㉠** (1)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서 그분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표적으로 인하여 그들이 유익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금 그러한 유익을 얻기 위하여 찾아 나섰던 것이다.
- (2) 아마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금 강권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찾아 나선 것인지도 모른다(참조, 14, 15절).
- (3)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그리스도께 나아와 병 고침을 받거나 또다시 기적적인 방법으로 배풀어지는 음식을 먹고서 배부름을 얻기 위하여 찾아 나선 것인지도 모르겠다.
- (4) 아뭏든 표면적인 이유야 어떠하든간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이 아직껏 표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려고 하는 바를 깨닫지 못하고 그분께로부터 현세적이며 물질적인 유익을 얻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 (5) 이러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

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27절)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은 물질 만능주의의 세태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가장 정확한 교훈이 될 것이다.

12. **㉠**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27절)

- ㉠** (1) 여기서 ‘인치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프라기조>인데 ‘봉인(封印)을 하다’는 뜻이다.  
 (2) 그러므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소유물,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의미이다.  
 (3)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당신의 아들 되심을 인증하셨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 강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하늘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들려 옴으로 확인되었다(마3:16, 17).  
 (4) 한편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인데 이로써 그들은 온전히 구속(救贖)함을 얻게 된다(고후1:22; 엡1:13; 4:30).  
 (5) 이처럼 하나님의 소유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의 일군이 되었다는 뜻도 있다. 왜냐하면 본래 죽을 수밖에 없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옮기움을 받은 성도들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사람들에게 증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엡3:8).  
 (6) 그러므로 성도들의 한결같은 신앙 고백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라’(빌1:20, 21)는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다.

13. **㉠**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라고 묻은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말로 답하셨는가? (28, 29절)

- ㉠** (1)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나라’는 말로써 대답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2) 그리고 ‘믿는다’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투에테>로서 믿음의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믿는 것을 의미한다.  
 (3)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따르는 결과는 무엇인가? 첫째, ‘의롭다’하심을 얻는다(롬3:26). 모든 사람은 아담의 범죄 이후 죄의 영향 아래 들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은총이 주어진다(롬3:23, 24).  
 (4) 둘째,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을 의탁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된다(14:12, 13).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여야 할 사실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욕을 좇아 쓰러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약4:3).  
 (5) 셋째,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거든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으며(21:15-17)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 20)고 하셨다.

14. **㉠** 30-36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와 무리들 간의 대화와 수가 성 여인과 그리스도 간의 대화(4:9-26)를 서로 비교해 보라.

- ㉠** (1)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 수가 성 여인은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삽나이까’라고 대답하면서 ‘야곱의 우물’을 들먹이고 있다.  
 (2) 이와 유사하게 본절에 나오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으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라고 반문하면서 ‘만나’를 들먹이고 있다.

- (3) 또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 수가 성 여인은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간청하였다.
- (4) 그런데 무리들은 수가 성 여인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자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간청하였다.
- (5) 이상과 같은 대화에서 우리는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영적 진리에 대하여 무지해 있었으며 아울러 세상적인 것에만 몰두해 있었는가를 부분적으로나마 간파할 수 있다.
- (6) 하지만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연민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는 권유의 말씀으로 표출되고 있으니(27절) 이것이 인류를 향한 그리스도의 본마음이자 사랑인 것이다.

15. **㉠** 예수께서는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이라고 밝히셨는가? (37-40절)

- ㉠** (1) 예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39절)이라고 말씀하셨다.
- (2) 예수의 이 같은 말씀은 구원의 절대 안전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는 결코 버림 받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이다(참조, 롬8:33-39).
- (3) 더우기 이 구원의 주도권(initiative)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분명 구원의 기득권을 내세우던 유대인들의 교만을 꺾기에 족할 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반영한 것이다(참조, 44절; 갈1:15; 엡1:4).
- (4) 또한 ‘내게 오는 자’(37절), ‘아들을 보고 믿는 자’(40절)라는 말은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께 와서 회개하며 자신의 지난 허물을 버리고 자기를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영원히 거하게 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 (5) 즉 비록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벽하다 하더라도 인간은 단지 드러누워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참생명의 길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필요하다(참조, 롬10:9-21; 계3:20).
- (6)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동역적인 행동으로 구원을 얻게 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륜에 의해 결코 하나님의 심판 날에도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즉 택함 받은 자는 ‘영생’하게 될 것이다(참조, 3:16).
- (7) 이처럼 ‘영생’이라는 확실한 보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순간적인 세상의 유희와 만족에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영원한 것에 대한 기대와 하늘의 일을 사모하는, 즉 치관과 인생관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참조, 고후4:16-18).

16. **㉠** ‘마지막 날’이란 언제를 가리키는가? (39절)

- ㉠** (1)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날’을 가리킨다(계20:11-15).
- (2) 이에 대하여 5:28에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라는 말로 묘사되어 있으며, 12:48에는 그리스도의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심판을 당할 날로 묘사되어 있다.
- (3) 이날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하여 사망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獨生子)를 주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게 하셨기 때문이다(3:16).
- (4) 바로 이러한 사실을 가리켜 그리스도께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

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 속에는 마지막 날에 있을 성도들의 부활 사건까지도 함축되어 있다.

(5) 한편 이와 같은 부활 및 심판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5장 ㉒ 12를 참조하라.

17. ㉒ 44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예정 및 선택 교리에 대하여 살펴보라.

- ㉒ (1) '예정'(predestination)이란 인간의 구원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은혜로 구원하실 모든 사람들을 선택해 놓은 것을 의미한다(엡1:3-6).
- (2) 이와 같은 예정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롬 8:29)고 하였다.
- (3) 그리고 본서의 기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예정의 성격을 규정짓고 있다.
- (4)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자를 영원 전부터 선택해 놓으셨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영원 전부터 구원받지 못할 자도 따로 예정해 놓으셨다는 말이 된다(유1:4).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유기'(遺棄)라고 한다.
- (5) 따라서 혹자들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불평을 하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치 않으시는 것은 그분의 사랑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 (6) 그러나 그러한 불평은 저들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아담의 범죄 이후 모두가 다 죽어야 마땅한데도 그중에서 일부나마 살려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입각한 행위인 것이다(참조, 롬9:6-16).

18. ㉒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하여 '나는 ...이다'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본서에서 찾아 보라(48절).

- ㉒ (1) '나는...이다'(I am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의 신성(神性) 및 인간을 위한 구원 사역의 성격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 (2) 즉 '나는 선한 목자라'(10:11)는 말에서 우리는 이리나 도적이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삷꾼과는 달리 자기 목숨을 버려 양들을 구원해 내신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분의 구원 사역을 생각할 수 있다.
- (3)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8:12)라는 말에서 우리는 근본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발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된다.
- (4) 이처럼 간단 명료하면서도 우리들에게 깊은 뜻을 전해 주고 있는 표현법인 '나는 ...이다'라는 말로서 본서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들로써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장 절	내용
35, 48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51절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8:12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7	나는 양의 문이다
10:11, 14	나는 선한 목자다
11:25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6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1, 5	나는 참포도나무다

19. ㉒ 예수 그리스도의 삼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53-58절)

- ㉒ (1) '살'이란 말은 헬라어로 <사룩스>인데 이는 곧 '몸'(헬, 소마)이란 말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1:14에는 <사룩스>란 말이 '육신'으로 번역되어 있기도 하다.
- (2) 그리고 '피'는 헬라어로 <하이마>인데 실제적으로 몸을 이루고 있는 한 성분이다.

그러므로 ‘살’과 ‘피’는 다 같이 ‘몸’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 (3)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혹은 이를 성찬 예식과 관련시켜 ‘살을 먹는 것’은 성찬 예식 중의 ‘떡을 떼는 행위’(마26:26; 고전11:24)를 가리키고 ‘피를 마시는 것’은 ‘포도주를 나누는 행위’(마26:27; 고전11:25)를 가리킨다고도 한다.
- (4) 그러나 이것은 그보다 좀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 여기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성도가 육신을 입으셔서(1:14)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행위를 의미한다.
- (5)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으니 그분 외에는 천하 인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룰 자가 없다(행4:12).
- (6) 사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신 당신의 살과 흘리신 당신의 피를 믿는 것 이외에 참생명의 길은 없는 것이다(참조, 갈2:20).
- (7)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는 본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거듭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다.
- (8) 그러므로 결국에는 소멸되고 부패해 버릴 육신의 양식(49절)에만 너무 급급해 있는 우리들은 이제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되신 예수를 더욱 깊이 더욱 확실히 사랑함으로 영원한 생명체로서 살아야 할 것이다.

## 20. ㉠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에 대하여 살펴보라(60-65절).

- ㉠ (1) ‘생명의 떡’과 관련된 믿음의 원리 및 영생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즉 예수의 가르침에 깊이 동조하고 추종하던 무리들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수군거렸다.
- (2) 이러한 그들의 반응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한 교훈을 듣고서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서로 수군거렸던 그리스도의 12제자들의 태도와 유사하다(마16:5-7).
- (3) 뿐만 아니라 이는 비유로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라고 물었던 제자들의 태도와도 유사하다(마13:10).
- (4) 그러한 때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들에게만 허용된다고 하시면서(마13:11)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반문하셨다(마16:9).
- (5)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도 서로 수군거리는 제자들에 대하여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62절)라고 반문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자신에게로 나아올 수 없음을 강조하셨다(65절).
- (6) 그러자 제자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는 자가 많이 생겼는데(66절) 여기서 ‘제자’란 그리스도의 12제자를 뜻하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던 무리들을 의미하는 말이다.
- (7) 이처럼 십자가의 놀라운 효력에 의심을 품었던 그들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1:18)는 바울의 외침에 걸맞게 예수를 떠나갔던 것이다. 만약 그들이 예수의 신성(神性)을 인정하고 그분의 부활과 승천(62절)을 확신할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확실한 증거 위에 굳건히 설 수 있었을 것이다.
- (8) 이처럼 구원은 인간이 수납할 수 있는 논리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해석될 수도 없는 것이다. 분명 구원은 온전한 믿음에서 출발한다(참조, 5:24).

21. ㉠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63절)

- ㉠ (1) 첫째, ‘육은 무익하니라’는 말은 무조건적인 의미에서 ‘육신’의 가치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영’과의 관계하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영혼’이 떠난 인간 육체는 죽은 것으로서 무가치한 것같이 성령의 역사를 떠나서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본질이 뜻하는 바이다.
- (2) 둘째,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시는 복음이 성령의 감화하시는 역사로 인해 사람의 마음속에 뚫고 들어가 옛 사람을 벗기워 버리고 새 사람의 성품을 입히어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한다는 뜻이다(참조, 엡4:21-24; 히 4:12).
- (3)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가견적(可見的)인 그의 육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인성(人性)과 신성(神性)을 공유하고 계시는 ‘마지막 아담은 신’ 주는 영’(고전15:45)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4) 이처럼 성도 각자에게 필요한 것은 현상을 바라보는 육안 뿐만 아니라 권상의 배후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신령한 영안(靈眼)이 더욱 진실히 요구된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 (5) 그러므로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68절)라고 한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감흥과 의미를 안겨 주는 감동적인 신앙 고백으로서 거듭 되풀이되어야 할 것이다.

22. ㉠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하여 간략히 음미해 보라(66-71절).

- ㉠ (1)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그리스도의 결을 떠났던 것(66절)과 비교할 때 베드로의 태도는 참으로 대조적이다.
- (2) 그는 ‘영생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시다’라고 고백함으로써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자기 헌신을 나타내 보였다.
- (3) 그런데 이 같은 고백을 들은 그리스도께서는 느닷없이 ‘내가 너희 열 들은 택하였지만 그중 하나는 마귀니라’(70, 71절)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동문 서답 격인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
- (4) 아마도 이는 입으로 시인하면서도 마음으로 믿지 않는 신앙은 자신을 구원치 못하고 결국은 멸망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듯하다. 더우기 이 말씀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만을 인정하며 그의 가르침을 좇아야 한다는 사실과 함께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도구로 전락하여 멸망 받을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 (5) 한편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또 하나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16:16)는 것이다.
- (6) 이때 그리스도께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마16:17)고 말씀하셨는데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 수 있다(참조, 엡2:8).

# 제 7 장 초막절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행적

단락구분 1-5 그리스도께 대한 형제들의 권유 / 6-9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 / 10-13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리스도 / 14-24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그리스도 / 25-32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 / 33-36 잠시 물러나시는 그리스도 / 37-39 예수를 믿는 자에게 약속된 생수의 강 / 40-44 사람들의 반응 / 45-49 그리스도를 잡으려 하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 50-53 니고데모의 가르침

1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2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3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4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5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 이러라

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7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 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 함이라

8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9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10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11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12 예수께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됨 미혹하게 한다 하나

13 그러나 유대인들은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14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15 유대인들이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16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17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18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19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20 우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21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이히 여기는도다

22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23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24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25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26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27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28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29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30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31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32 예수께 대하여 무리의 수군거리는 것이 바

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3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34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35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흠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36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37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40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41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

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42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43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44 그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45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 오지 아니하였느냐

46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47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48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49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50 그중에 한 사람이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51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52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53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 1. ㉠ 전장(前章)과 관련하여 본장의 주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전장(前章)에는 오병 이어(五餅二魚)의 표적과 아울러 ‘생명의 떡’에 관한 교훈이 나온다. 그런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예수에 의해 주어진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도(6:1-13)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그의 결을 떠나고 말았다.
- (2) 그런데 본장에서 이와 유사한 일이 또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초막절을 맞이한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14절).
- (3) 분명히 그분의 가르침에는 신적인 권위가 있었고 못 사람의 중심을 찌르는 생명력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같은 말씀에는 사람들의 영적 갈증을 해결해 주는 근본적인 진리가 담겨 있었을 것이다(참조, 4:20-29).
- (4) 그런데도 이 같은 가르침을 받은 무리들은 기꺼이 그분을 메시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분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 이상히 여기며(참조, 마13:54) 귀신들린 자로 몰아붙이기만 하였다(20절).
- (5) 이처럼 영적으로 무지하여 자기를 배척하기만 하려는 자들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다시금 ‘생수의 강’에 대한 교훈(37-39절)을 들려주시는 것뿐이었으니 결국 들을 귀 있는 자만이 듣고 볼 수 있는 눈 있는 자만이 볼 수 있게 된다(참조, 마13:10-17).

## 2. ㉠ ‘이후에’라는 말에 대하여 살펴보라(1절).

- ㉠ (1) ‘이후에’ 또는 ‘그 후에’(2:12; 5:1; 6:1)와 같은 표현은 본서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는 사건 전환 방식이다.
- (2) 그러므로 ‘이후’ 또는 ‘그 후’라는 말이 가리키고 있는 때가 언제인지는 분명치 않음

때가 많다.

- (3) 본서 역시 이와 동일한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후에’라는 말이 어느 때를 가리키고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아뭏든 새로운 사건의 시작을 표시하는 말임에는 틀림없다.
- (4) 본서의 저자는 전장(前章)에 이은 갈릴리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에 대하여서 기록하지 아니하고 ‘이후에’라는 말로 새로운 사건을 기술하면서 다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므로 그리스도께서 유대로 가지지 않을려고 하셨다는 설명을 담고 있다.
- (5) 추측컨대 유대인들이 계속하여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 까닭은 그분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던 일(5:1-18) 때문인 듯하다.

3. **㉠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에 대하여 설명하라(2절).**

- ㉠** (1)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중 맨 마지막으로 지키는 절기이다(출23:14-16).
- (2) 이것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였던 사실을 되새기기 위하여 가나안 땅에 새로운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거처하던 것(레23:42, 43)으로부터 유래된 절기이다.
- (3) 이 절기는 모든 추수, 즉 농산물의 수확과 과일의 수확을 끝마친 때인 가을에 지키게 되는데 보다 정확히 말해서 히브리 종교력으로 7월(디스리 월) 15일부터 1주간 동안 지키게 된다(레23:34).
- (4) 한편 예루살렘에서는 이 기간 동안 매일 아침마다 헌수식(獻水式)이 거행되었는데 제사장들은 실로암의 못에서 물을 길어 와 제단에 바쳤으며 저녁에는 성전 전역을 촛불로 밝히었다(참조, 8장 ㉠6).
- (5) 그런데 이 절기는 한 해에 추수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 감사제의 성격도 띠고 있었으므로 ‘수장절’이라고도 불리웠다(출23:16).
- (6)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계속적으로 기억하기 위해 기념 절기를 제정하고 그때가 돌아오면 즐거이 그것을 기념하였다. 이 같은 사실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 (7) 즉 매일의 삶에서 확인되고 체험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뇌리 속에 항상 간직하고 또한 그 은혜를 시마다 때마다 감사하는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것이다(참조, 고후1:3, 4).

4. **㉠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초막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그리스도에게 간청한 이유는 무엇인가? (3-5절)**

- ㉠** (1) 자신들의 이기심과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 (2)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중앙 성소이기 때문에 각종 절기 때에는 팔레스틴 각처의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게 된다(참조, 신12:4-14).
- (3)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형제들은 이번 초막절이야말로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못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취하실 수 있는 명성에 편승하여 자신들도 영예를 누리기를 원하였을 것이다.
- (4)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려는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자 그들은 그리스도의 태도에 대하여 빈정거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을 간청하였던 것이다.
- (5)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전통적인 메시아관을 연연중에나마 찾아볼 수 있는데 그들은 대부분 강력한 통치권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메시아가 나타나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시키리라고 기대하였다(참조, 6장 ㉠8).

- (6)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면서도 이스라엘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실제적인 행동은 전혀 하지 않자 그리스도의 형제들까지도 그분을 참된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5. **㉠**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 때’와 ‘너희 때’는 어떻게 다른가? (6절)

- ㉠** (1) 여기서 말하는 ‘때’란 헬라어로 <카이로스>인데 이는 2:4에 나오는 ‘때’(헬, 호라)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일정한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고 어느 ‘한 시점’을 가리키는 단어이다.
- (2) 2:4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혼인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해 달라는 어머니 마리아의 간청에 대하여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라고 대답하였었다.
- (3) 즉 그리스도께서는 그 같은 대답으로써 자신의 행위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뜻을 좇아 행하여야 하므로 항상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때를 기다려야 함을 밝히신 것이다 (참조, 2장 ㉠4).
- (4) 이와 마찬가지로 본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 때’도 역시 동일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다. 주로 이 말은 당신의 고난의 시간을 예고할 때 나타내신 것으로 본절에서는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날을 가리킨다.
- (5) 이처럼 예수께서 생각하시는 당신의 삶과 예수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영예를 확보하려 했던 무리들의 예수에 대한 기대는 일치하지 못했다.
- (6) 바로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 때’와 ‘너희 때’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며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 (7) 우리도 예수를 신앙한다고 하지만 가끔 자신의 행복과 안녕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의 뜻이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성급한 결정과 설부른 판단을 할 때가 많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시각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순수하고 겸손하고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한다.

6. **㉠**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은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고 하신 말씀과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 (8-10절)

- ㉠** (1) 결코 상반되지 않는다.
- (2)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아직은...아니라’(헬, 우포)라는 말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아직은’이란 말은 ‘그러나 지금은’(헬, 눈 테)이란 말과 동일한 의미이다.
- (3) 그러므로 8절은 ‘지금 당장은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 왜냐하면 아직은 나의 때가 차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는 말로 다시금 의역될 수 있다.
- (4) 이렇게 되면 본문의 상황은 간단 명료해진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는 ‘이번 명절에는 아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가지만 지금 당장은 올라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 (5) 그 후 그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가 되었음을 알고 홀연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이다.
- (6) 그런데 올라가시되 비밀히 올라가신 것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함이 아니고 다만 무리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피하시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때까지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기 때문이다(1절).

7. **㉠** 13절에서 말하는 ‘유대인’이란 어떠한 자들을 가리키는가?

- ㉠** (1)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여 그를 죽이려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과 사두개

- 인들(18:3-24; 눅11:53) 및 그들의 의견을 좇아 공공연히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였던 유대인들(5:18; 19:12)을 가리킨다.
- (2) 그러나 이처럼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였던 것은 아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하여 좋게 여겼던 자들이 있었다(12절).
  - (3) 하지만 그러한 자들도 당시의 유대 사회를 지배하던 종교 계급들이 공식적으로 그리스도를 적대하였기 때문에 감히 드러내 놓고 그리스도를 옹호하지는 못하였다.
  - (4)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마10:32, 33).
  - (5) 이 같은 말씀은 비단 당 시대에 살던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경귀(警句)는 아닐 것이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기독교의 신앙을 간과해 버리려는 사회 풍조 속에서 알게 모르게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 (6) 그러므로 인생 여로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불신앙의 구덩이로 빠지지 않기 위하여서는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 경고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 좌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8. **㉠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15절)**

- (A)** (1) 기이히 여기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하였다.
- (2) 즉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정식적인 랍비(rabbi)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와 같은 지식을 가질 수 있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 (3) 유대인들의 이 같은 반응에 대하여 마가 요한(Mark John)은 ‘못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막1:22)고 기록하였다.
  - (4) 한편 유대인들이 이처럼 놀라와하자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원하는 교훈과 행하는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다(16절).
  - (5)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곧 참인간이자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들이 발하는 탄성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 드렸다.
  - (6) 이러한 그리스도의 태도에서 우리는 성도들이 마땅히 취하여야 할 자세를 배우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고전10:31) 자의 표본이셨다.

9. **㉠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나를 죽이려 한다’고 공박하신 것에 대하여 살펴보라(19절).**

- (A)** (1)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라는 말에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모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진 사실(참조, 출19장 이하)을 인정하고 계셨으며 또한 그 율법의 귀중성과 권위를 인정하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 (2)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마5:17)고 말씀하셨던 것이다.
  - (3) 그러나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율법의 옹호자들이라고 칭하면서도 인간이 만든 각종 전승과 규례를 따라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서슴지 않고 어겼다(참조, 막7:6-13). 따라서 예수께서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라고 공박하셨던 것이다.
  - (4) 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고 있다’고까지 말씀하셨는

데 이 말씀은 명절이 끝날 무렵에 행한 유대인들의 행동(32, 44, 45절)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었다.

- (5) 한편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살인에 대한 것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중에는 제 6계명에 대한 해석도 있는데 거기에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마5:21, 22)고 되어 있다.
- (6) 그러므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는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살인 행위(19:18, 34) 뿐만 아니라 증오와 반목, 질시, 적대 행위와 같은 것까지도 포함시켜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7) 이처럼 불건전한 명예욕과 경쟁심 때문에 참생명되신 예수를 마음으로 살인한 자들이 받을 보상은 전인격적인 완전한 멸망밖에는 없다. 예수와 불화하는 자가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을 극진히 사랑하는 것이다.

10. **㉠** 그리스도의 공박을 들은 유대인들이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니까’라고 반문한 사실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20절)

- ㉠** (1) 이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의 종교적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과 같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공모, 결정한 사항이 온 유대인들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 (2) 한편 여기서 ‘귀신이 들렸다’는 말은 ‘미쳤다’는 의미로 사용된 말인데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증거하시며 자신의 신성에 대하여 스스로를 변증하실 때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다’고 비난하였다.
- (3) 게다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각종 표적까지도 ‘귀신의 힘’을 빌어 행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를 서슴지 아니하였다(마9:34; 12:24; 막3:22; 눅11:15).
- (4)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그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활동 목적(참조, 8:44; 마2:16; 16:23)이고 보면 그와 같은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야말로 실제로 귀신의 힘을 빌어 행동하는 귀신들린 자들인 것이다.
- (5) 이와 같이 신앙 세계에는 회색 지대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를 귀신의 아류로 보거나 유일한 구세주로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선택되어야 한다. 과연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이해하며 믿고 있는가?

11. **㉠**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한 가지 일’이란 어떠한 일을 가리키는가? (21-24절)

- ㉠** (1)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신 일(5:1-9)을 가리킨다(참조, 23절).
- (2)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신 일은 두 고두고 유대인들간의 논쟁 및 비난, 고소(告訴)거리가 되었다.
- (3) 즉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의술 행위를 함으로써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생각한 것이다.
- (4)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같은 주장과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저들이 행하고 있는 할례 제도와 관련지워 일깨워 주셨다.
- (5) 즉 원칙적으로 할례는 생후 8일 만에 행하여져야만 하였다(창17:12; 레12:3).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러한 규례를 범하지 않기 위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였다(22, 23절).
- (6) 이에 그리스도께서는 몸의 일부분을 정결케 함으로써 온몸을 깨끗케 하는 할례 의식도 안식일에 행하는데 하물며 사람의 온몸을 직접적으로 깨끗케 하는 치유 행위를 안식일에 행하지 못할 것 같으냐고 역설하셨던 것이다.
- (7) 한편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야말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마12:8).

- (8) 이처럼 세상과 질서와 인류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다. 예수를 바로 알 때 우리의 삶은 참기쁨과 풍성한 생명으로 넘쳐날 것이다(참조, 호6:1-3).

12. **㉠ 27절에 나타나는 메시아관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이것은 메시아의 출현과 관계되는 사상이다.  
 (2) 성경에는 분명히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헬에서 탄생하리라고 예언되어 있었다(미 5:2). 이 같은 사실에 대하여서 대제사장 및 서기관(마2:4-6) 그리고 정통적 유대 신앙에 투철한 자들(40-42절)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사회에는 또 다른 ‘메시아 출현설’이 유포되어 있었으니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비성경적인 견해로서 당시의 통속적인 전설에서 생겨난 것인 듯하다(참조, 외경 에스드라하13:51, 52).  
 (4) 여하튼 이상과 같은 두 견해에 비추어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지론(持論)이었다. 더우기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헬에서 출생하셨던 사실을 모르고 다만 그가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출신(마22:22, 23)이라는 사실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오해했던 것이다(41절; 1:45, 46).  
 (5)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격하게 된 여러 가지 원인 중의 하나가 무엇이었던지를 새로이 깨닫게 된다.  
 (6)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신앙하는 내용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지 자신의 경험과 이성적 판단에 의한 것인지를 살펴 항상 바른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13. **㉠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고 말하자 그리스도께서 어떤 말씀으로 응수하셨는가? (28, 29절)**

- ㉠** (1) 일단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에 대하여 그 사실성을 인정하셨다. 사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이란 마을에서 자라나셨으며 그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이고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것 등을 알고 있었다(6:42; 마 13:55, 56).  
 (2)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승인에서 오히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고 있다 하는데 그것이 정말이나?’라는 뜻의 역설적인 반문이 내포되어 있다.  
 (3)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신적 기원을 설명하여 들려주기를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왔으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상은 그분에 대하여 알지 못하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고 하셨다.  
 (4) 결국 여기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겉절과 같은 것뿐이었음이 드러나는데 사실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 즉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더라면 그리스도를 배척하지 않았을 것이다.  
 (5) 이처럼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에게 따르는 위험은 자신의 편협한 사고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분을 제한시키는 일이다. 인간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으나 그분이 조성하신 만물과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참조, 롬1:20; 요일1:1-3).

14. **㉠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는 말은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가? (33-36절)**

- ㉠** (1)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가 가까워졌음을 암시하고 있다.

- (2) 사실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신 초막절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맞이하셨던 유월절(마26:17-29)까지의 사이에는 단지 6개월간의 기간밖에 남아 있지 않았었다.
- (3) 그런데 이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그 말씀의 본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 자가 팔레스틴을 떠나 헬라인들 가운데 흠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로 갈 것인가' 하고 의아해 하였다(35절).
- (4) 한편 이러한 유대인들의 추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서가 기록되던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 당시에는 팔레스틴 밖에 흠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본향인 팔레스틴을 왕래하며 친척과 친구들을 상면할 수 있었다.
- (5) 그러기에 그들은 팔레스틴에서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팔레스틴 밖으로 전해 주는 간접적인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어느 정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 (6) 이와 같은 상황에 입각하여 유대인들은 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팔레스틴 밖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로 가서 도(道)를 가르치려나 하고 추정하였던 것이다.
- (7)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이 추측했던 바대로의 떠남이 아니라 그들이 전혀 보지도 감지할 수도 없는 상태 곧 초자연적으로 그들에게서 떠나가실 것을 강조하셨다(34, 36절). 즉 예수께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일체의 삶을 사시기 위해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시려 했던 것이다. 그 결과 인간들은 육신의 눈으로는 도저히 그분을 발견할 수 없게 되었다(34, 36절).
- (8)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을 나타내는 말씀으로서 인간과 그분 간의 좁힐 수 없는 간격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런 간격을 없애시고 날마다 당신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재미를 맛보게 하셨다(참조, 14:21).

#### 15. ㉠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대하여 설명하라(37절).

- ㉠ (1) 이날은 초막절이 끝나는 제 7일제(참조, ㉠3)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날인 제 8일제를 가리킨다.
- (2) 유대인들은 7일간의 초막절을 지킨 후 제 8일째 되는 날에도 성회로 모여 여호와께 화제(火祭)를 드렸다(참조, 레23:36). 요세푸스(Josephus, A.D. 37?-?)는 말하기를 '제 8일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화목 제물로 소, 수양,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어린 염소를 바쳤다'고 하였다.
- (3) 본래 초막절은 출애굽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과 음식이 없는 광야에서 방랑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으나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을 기념하여 모이는 명절이다.
- (4) 그러므로 초막절의 행사 가운데에는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들이 줄을 지어 성전에서부터 실로암 못까지 행진하는 의식이 들어 있었는데 그들은 그 못에서 성전 제단에 물을 물을 길었다(참조, ㉠3). 바로 이때 그들이 불렀던 노래가 사12:3인데 거기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이다'라고 되어 있다.
- (5)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절기인 명절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수의 강'(38절)에 대한 교훈을 하셨다는 것은 그 말씀의 내용을 한층 더 의미 깊게 해준다.

#### 16. ㉠ 38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란 어느 성경 귀절을 가리키는가?

- ㉠ (1) 정확하게 어느 성경의 어느 귀절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 (2)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말은 갈급한 영혼에게 완전한 해갈을 보장해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참조, 계7:16, 17; 21:6). 한편 여기서 '배'란 인간의 가장 심층부를 나타내는 성경적 표현이다(참조, 욕15:35; 잠18:8).

- (3) 구약 성경에는 물과 관계된 언급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그 어느 것도 본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 (4) 그러나 본절과 관련지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성경 귀절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출17:6; 사44:3; 58:11; 젤47:1-12; 욥2:28-32; 3:18 .
- (5) 이중 출17:6은 모세가 호렙 산 반석으로부터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사건과 관계되는 귀절인데 거기에는 ‘내가 거기서 호렙 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 (6)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써 인간들에게 삶과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준 것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 (7) 절망할 수밖에 없고 공허한 나날을 보내야만 하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분명 마르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생명력을 공급하셔서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참조, 4:14). 이 모든 변화의 원동력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다(39절).

17. **㉠ 39절에 제시된 성령에 관한 설명적 묘사를 해석하라.**

- ㉠** (1)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 즉 영광을 받기 전에는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지 않았거나 인간 개인의 회심(回心)을 주도하시는 성령께서 아직 이 땅에 임재하시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다.
- (2) 그리스도께서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오실 때 성령은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임하셨으며(마3:16)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개개인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셨다(참조, 마16:16; 눅7:50).
- (3) 다만 본절의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까지 욥2:28, 29에 예언되어 있는 ‘오순절의 성령 임재’(행2:1-4)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고 있을 뿐이다.
- (4) 이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성령과 중요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죽음이야말로 기독교사(基督教史)에 있어서 율법 시대와 은혜 시대(성령 시대)를 갈라 놓는 분수령이 되었기 때문이다(참조, 1:17; 16:7).
- (5) 한편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곧 그리스도 자신의 영광이 되는 까닭은 빌2:5-11에 잘 설명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죽기까지 복종하시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18. **㉠ ‘그 선지자’라는 말은 누구의 예언을 염두에 둔 말인가? (40절)**

- ㉠** (1) 모세의 예언(신18:15, 18)을 염두에 둔 말이다(참조, 6장 ㉠ 8).
- (2) 일찌기 모세는 후대에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선포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신18:19).
- (3) 그런데 그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선택될 것이다. 이 말은 곧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좇아 날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보다 친밀하게 될 것이다.
- (4) 이러한 모세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가계(家系)를 따라 유대인으로 베들레헬에서 출생하셨다(마1:1-16).

- (5) 그리고 그는 자신의 교훈이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누차 강조하면서(16절 ;3:34) 누구든지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순종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고 선언하셨다(3:18,36).
- (6) 뿐만 아니라 그는 항상 유대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심으로써(참조, 마11:19) 유대인들과의 인간적 유대 관계(紐帶關係)를 돈독히 하셨으니 결국 모세의 예언은 다 성취된 것이다.

19.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지자’로 여긴 것과 ‘그리스도’로 여긴 것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41절)**

- ㉠** (1) 40절에서 말하는 바 ‘그 선지자’의 신명기적 본래 의미는 ‘메시아(Messiah)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참조, 6장 ㉠ 8)이다. 이는 곧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왕 되시며(사32:1), 참선지자 되시며(눅24:19), 거룩한 대제사장 되심(히9:11)을 의미한다 하겠다.
- (2) 그러나 40절에 나오는 ‘선지자’란 말에서 그대로의 의미 외에는 다른 뜻이 없다. 즉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으며(막1:22) 성경을 힘입어 선언적인 교훈을 하시는 것(37-39절)을 듣고서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모세가 예언하였던 것과 같은 선지자 중의 한 사람으로 여겼던 것이다(참조, 마16:14; 눅9:8).
- (3) 그런데 또 한 무리의 유대인들은 본질에서와 같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Christ)로 여기었는데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특별히 그가 행하시는 놀라운 표적과 관련지워 생각하였기 때문이다(참조, 31절).
- (4) 즉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권능을 보고서 그 같은 권능일 것 같으면 자신들을 지배하던 당시 로마 제국의 권세로부터 그가 능히 자신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메시아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 (5) 바로 여기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지자로 여긴 것과 그리스도로 여긴 것과의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
- (6)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을 로마 제국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러 온 정치적 해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6장 ㉠ 8에서 살펴보아 익히 알고 있다.
- (7) 이와 같이 편협한 신앙인들은 항상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실을 너무 중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참된 신앙인은 항상 자신의 선입 관념과 고집을 떨쳐 버리고 오직 예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참조, 마 16:24).

20. **㉠ 그리스도에 대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적대 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라(45-49절).**

- ㉠** (1) 앞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하속(下屬)들을 보냈었다(32절).
- (2)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the Sadducees)였으니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즉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연합했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3) 왜냐하면 이 두 파는 부활 및 천사 등과 같은 교리에 있어서 서로 두드러진 차이점을 보이고 있었지만(행23:7) 이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공통된 악의(惡意)로 인해 일시적이거나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 (4) 그러나 그들이 파견하였던 하속들은 그리스도를 잡아 오기는커녕 ‘어찌하여 잡아 오지 아니하였느냐’는 그들의 물음에 대하여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을 이 때까지 없었나이다’라고 대답하였다.
- (5) 하지만 이처럼 객관적인 진리를 확인하고서도 바리새인들은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라고 반문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다른 그 누구도 그리스도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종교적인 독선(獨善)을 나타내 보였다.

- (6) 바로 이러한 점이 그들의 영적 무지였으니 저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는 책망을 들은 것이다(마15:14).
- (7) 이와 같이 한번 종교적 독선에 사로잡히면 참된 진리마저 무시해 버리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윤리관과 지식을 절대시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날마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작업을 계속해 가야 한다(참조, 갈2:20).

21. **㉠**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라는 니고데모의 항변은 어느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말인가? (51절)

- ㉠** (1) 신1:16 및 19:15-20에 근거하고 있는 항변이다.
- (2) 즉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을 송사할 때에는 피고와 원고 쌍방의 주장을 다 듣고 증인들의 증언을 엄격히 사실(查實)해 본 후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율법 조항을 들어 하속들의 주장을 무시해 버리는 바리새인들의 처사가 잘못된 것임을 공박하고 있는 것이다.
- (3)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니고데모에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즉 '너도 하찮은 사람들 중의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느냐'는 식의 말(참조, 1장 ㉠ 21)로 편견을 주며 그의 말을 일축해 버림으로써 율법을 수호한다고 자처하면서도 서슴지 않고 율법을 어기는 불의를 자행하였다.
- (4)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일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 그분께로부터 중생(重生)의 교훈을 듣고서도 깨닫지 못하여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책망을 받고서 물러갔던 니고데모(3:1-21)가 이제는 간접적으로나마 예수 그리스도를 옹호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 신앙이 성장하였음을 보게 된다.
- (5) 이처럼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겸손히 자신을 의탁한 자는 그 가르침 받은 것으로 또 남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복음의 역동성이다(참조, 딤후2:2).

연구자료

예수의 형제들. 예수께서는 야고보, 요셉(또는 요세), 시몬, 유다라는 형제들이 있었다(마13:55; 막6:3). 이들은 예수의 형제 이면서도 예수 생전에는 그를 믿지 않았었다(5절). 그러나 예수의 부활, 승천을 목격한 이후 그들은 충실한 예수의 일군이 되었다(참조, 고전15:7). 이들은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으며(행1:13,14) 자신의 아내들과 더불어 전도사역에 나섰다(참조, 고전9:5). 이중 특히 야고보는 바울로부터 '사도'로 불리움 받기까지 하였으며(갈1:19)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행15:13). 한편 야고보서는 그의 저작물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유다서는 유다가 쓴 것으로 추정된다(참조, 유1:1). 아문든 이처럼 예수의 형제들이 처음의 자세와는 달리 초대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제 8 장 인간을 자유케 하는 진리

단락구분 1-6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으로 그리스도를 시험하다 / 7-11 간음한 여인을 정죄치 않으시는 그리스도 / 12-20 공박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자기 변호 / 21-22 자신의 죽으심에 대한 예고 / 23-30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그리스도 / 31-36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 37-40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무리들 / 41-47 진리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 / 48-53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귀신들린 자로 몰아붙이다 / 54-59 아브라함 이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 1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 2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더니 백성이 다 나오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 3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 4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 5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 6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 7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 8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 9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 10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 11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 12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13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하니 네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도다
- 1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아이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시니라
- 15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 16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 17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 18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 19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 20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연보레 앞에서 하였으나 잠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 21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 22 유대인들이 가로되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
- 23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 24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저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 25 저희가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 26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 27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 28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 29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

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 30 이 말씀을 하시매 많은 사람이 믿더라
- 31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 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 33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 3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 35 좋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 36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 37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 38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 39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어늘
- 40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 41 너희는 너희 아버지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스로다
- 42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 43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 44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음이니라

- 45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 46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 47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 48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나
- 4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어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 50 나는 내 영광을 구치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 51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 52 유대인들이 가로되 지금 내가 귀신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 53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 5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네게 영광을 들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어니와 내게 영광을 들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 55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 56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불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 57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오심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 58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 59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1. ㉠ 본장과 관련된 사본상의 문제를 설명하라.

- ㉠ (1) 우리는 전장(前章)의 마지막 절인 53절과 본장 1-11절의 앞과 뒤에 [ ]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사본에, 7:53부터 8:11까지 없음'이라는 난하주가 부기(附記)되어 있다.
- (2) 이 같은 난하주에 밝혀져 있듯이 몇몇 성경 사본(알렉산드리아 사본, 에브라임 사본, 불기안 사본 등)에는 이 부분이 나와 있지 않다. 반면에 그러한 성경 사본들은 이 부분을 21장 마지막 부분(37, 38절)에 수록하고 있다.

- (3)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된 사본들간의 상이성 때문에 본기사(本記事)의 역사성마저도 부정해야 하는가?
- (4) 그럴 수는 없다. 본기사의 일관된 통일성과 사상은 일찍부터 제롬(Jerome, 345?-420), 어거스틴(Augustine, 354-430), 칼빈(Calvin, 1509-1564) 등과 같은 교부 및 신학자들에 의해 지지를 받아 왔다. 뿐만 아니라 본기사는 이미 알려진 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도 잘 부합된다. 그러므로 본기사의 역사성은 부정될 수 없다.
- (5) 다만 본기사의 위치가 각 사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은 성경 원문을 복사한 필사자가 자신의 이해에 따라 본기사의 위치를 달리 설정하였기 때문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다.
- (6) 한편 본장의 나머지 부분인 12-5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인들 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극렬한 논쟁이 기록되어 있다.

## 2. ㉠ 본장 초두에는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 기록되어 있는가? (1절)

- ㉠ (1) 요한은 본장 초두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라고 기록하였다.
- (2)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위치한 높은 구릉으로서 석회암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 곳은 예수께서 당신의 지상 생활, 특히 최후의 일주일 동안 들르셨던 곳이다(참조, 마 26:30; 막 14:26; 눅 21:37).
- (3) 예수께서는 전장(前章)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간계로 영육이 매우 피곤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7:53) 한적한 감람산을 찾아 그곳에서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새로운 힘을 공급받기를 소원하셨던 것 같다(참조, 눅 21:37; 22:39-44).
- (4) 이와 같이 복음 사역자들에게는 이따금씩 영육간의 피곤함을 느낄 때가 있다. 그런데 한국 교계의 현실로 보아서는 이런 피곤함이 사역자들에게 닥쳤을 때 실 만한 여유와 시간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 그렇지만 순간순간이나마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 닦쳐 온 피곤함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제공하실 것이다(참조, 사 40:31).

## 3. ㉠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동원하였는가? (1-5절)

- ㉠ (1) 간음한 여자를 그리스도께로 끌고 와서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둘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라고 질문하였다.
- (2)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란 레 20:10이나 신 22:22-24과 같은 규례를 가리키는데 거기에는 간음한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을 모두 둘로 쳐죽이도록 규정되어 있다.
- (3)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규례에 의거하여 그 여자를 둘로 치라고 명하실 것 같으면 이는 평소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가르치신 그리스도 자신의 교훈(마 5:38-48)을 저버리는 행동이 될 것이니 분명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점을 책잡을 것이었다.
- (4)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신 그리스도께서 개인적으로 사형 집행을 명하시는 것은 모든 처형 권한을 로마 정부로 귀속시키고 있는 로마법을 어기는 행위이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를 로마 관원들에게 고소할 수 있는 고소거리가 될 것이었다.
- (5)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간음한 여자를 용서해 주라고 명하실 것 같으면 이는 분명히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될 것이니 오히려 그리스도 자신이 유대인들로부터 정죄를 당할 것이었다.
- (6) 이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하려고 갖은 책략을 짜내고 있었으니 실로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잠 12:6)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

(7) 진리와 거리가 먼 채 살아가는 자들은 진리를 사랑하며 진리를 말하는 자들에게 항상 불건전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까닭에서이다.

#### 4. ㉠ 간음한 여인을 고소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행동 하셨는가? (6-9절)

- ㉠ (1)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고 다만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기만 하셨다. 여기서 ‘쓰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그라펜>인데 이는 단지 한 차례 글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미완료 시상일 뿐이다.
- (2)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고 단지 여러 가지 추측만이 있을 뿐이다. 혹자는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서 있는 무리들의 죄목(罪目)을 기록하셨을 것이라고 하며, 또 혹자는 그리스도께서 쓰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서 단순히 자신의 난처함을 감추기 위해 글을 썼을 뿐이라고 추측한다.
- (3) 어쨌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대답할 것을 강요하자 마침내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다.
- (4) 그러자 간음한 여자를 고소했던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서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모두 다 물러가 버리고 말았다.
- (5) 율법의 본질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해주어 의(義)의 길로 인도하는 것인즉(참조, 롬3:20) 한 사람만이 율법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적은 실로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 (6) 이러한 견지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마7:1-3)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교훈은 새삼 우리를 각성시키기에 족하다.
- (7)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 가운데 불법한 일을 저지른 자가 발견되면 그를 정죄하기에 앞서 온유한 마음으로 견책하고 또한 자신도 혹시 그러한 잘못에 빠져 있지 않음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참조, 갈6:1). 그리해서 모든 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다(참조, 갈6:2-5).

#### 5. ㉠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말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11절).

- ㉠ (1) 이 같은 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 (2)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3:17).
- (3)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마9:13)고 하셨으며 ‘건강한 자에서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마9:12)고 말씀하셨다.
- (4)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간음한 여자에 대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연하나 거기에는 한 가지 단서가 붙어 있다. 그것은 곧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것이었다.
- (5) 이러한 점에 있어서 모든 성도들은 간음한 여자와 똑같다고 할 수 있다. 즉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기 전에는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무자비한 자’(롬1:29-31)였다.
- (6)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자들, 즉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

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4:22-24)는 것이다.

- (7)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아직도 죄악의 노예로 전전 궁궁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잘못임을 깨닫고 거기서 돌아설 수 있어야 한다(참조, 히10:29).

6. **㉠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는 그리스도의 자증(自證)에 대하여 살펴보라(12절).**

- ㉠** (1) 이 말은 '나는...이다'(I am ...)라는 말로 그리스도께서 스스로에 대하여 증거하신 것 가운데 본서에 나타나는 두번째의 것이다(참조, 6:48).
- (2)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이 되신다는 사실은 이미 사도 요한이 본서의 서두에서 밝힌 바 있다. 즉 그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1:4)고 하였으며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니 곧 그리스도'(1:9)라고 하였다.
- (3) 뿐만 아니라 빛되신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Logos)이기도 하다(1:1). 시편 저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119:105)라고 고백하였다.
- (4) 그런데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가리켜 빛이라고 증거하신 예증은 초막절 기간 동안 켜 놓아 성전 내의 '여인의 뜰'을 비추게 했던 일곱 가지 금촛대에서 빌어 온 것 같다(참조, 7장 ㉠ 3).
- (5) 여하튼 영적·도덕적으로 무지한 그리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항상 진리로 이끄는 참생명의 빛이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 빛으로 오셔서 죽어 가는 영혼에 새 힘을 공급하셨고 저주받아 마땅한 이 세대에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참조, 엡2:1-7).
- (6) 이와 같이 세상의 빛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계신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므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5:14, 16).

7. **㉠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은 무엇이라고 반박하였는가? (13절)**

- ㉠** (1)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에 대하여 증거하는 증거는 참되지 못하다고 반박하였다. 즉 자기가 자기 자신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주관적이거나 편견에 사로잡히기 쉬우므로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반박 논리였다.
- (2) 이러한 사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도 앞서서 인정하신 바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거 하면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되'(5:31)라는 말씀에 명시되었다.
- (3) 그러나 여기서는 그것과 상반되는 듯한 내용을 강력하게 주장하셨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된 이유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다(14절).
- (4)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간이 자기 자신에 관해서 증거하는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주관이나 편견에 사로잡히기 쉬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보다 자신의 성격 및 특성에 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도 자신이 어디서 왔으며 또한 자신의 한 치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 (5)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셨다. 즉 그분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참조, 13:3).
- (6)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는 참될 수밖에 없

는 것이며 그의 대적들이 증거하는 외적 증거보다 더 정확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7) 더우기 예수께서는 자신보다 더 높은 권위를 지닌 자가 없었기에 최고의 권위자인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예수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만 비로소 그분의 증거를 수납할 수 있게 된다(참조, 1:49; 마16:16).

8. **㉠ 바리새인들의 반박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반박이 옳지 못한 것임을 어떻게 밝혀 주시고 있는가? (15-18절)**

- ㉠** (1) 우선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판단 기준(육체를 따라 판단함)에 의거하여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신의 증거에 대한 타당성을 판결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밝히셨다.
- (2)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판단하려면 먼저 올바른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인간의 판단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여기서 ‘인간의 판단 기준’, 즉 ‘육체’(헬, 사룩스)라는 말은 ‘인간 본성’을 가리키는 말로서 곧 ‘인간 본성에 의거하여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주장이 인정을 받으려면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율법의 규정(참조, 신17:6)을 들어 자신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로써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는 이는 두 사람임을 밝히셨다.
- (4) 즉 그리스도께서 스스로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만도 참된 증거로 채택될 수밖에 없는 데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거하시고 계시니(참조, 5:32) 이 같은 증거의 진실성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 (5) 한편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증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5장 **㉠** 14를 참조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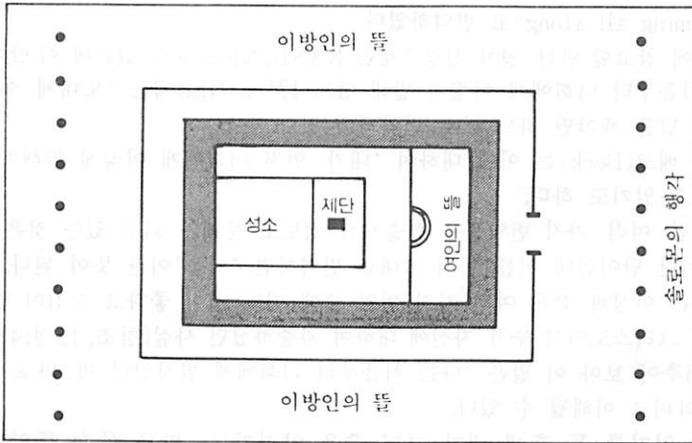
9. **㉠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셨는가? (19절)**

- ㉠** (1) 예수께서는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말씀하셨다.
- (2)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자신의 메시야성을 극구 주장하므로 더 이상 예수의 권위에 대해 힐난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예수가 주장하는 그 아버지를 목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던 것이다(참조, 14:8-11).
- (3) 이것은 철저한 영적 무지의 소산으로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도저히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 영적 소경의 외침에 불과하다(참조, 9:30).
- (4) 예수께서는 자신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일체성을 강조하시기 위해 ‘나를 알았더라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고 꾸지람 섞인 대답을 하셨던 것이다(참조, 1:18; 14:7).
- (5) 이처럼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은 뚜렷한 증거가 없어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만한 영적 지혜, 즉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 무지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믿음은 분명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다(참조, 히11:1).

10. **㉠ ‘연보케 앞’이란 어느 곳을 가리키는가? (20절)**

- ㉠** (1) 성전 내의 여인의 뜰을 가리킨다.
- (2) 성전 내에서 여인들의 출입이 허용되는 곳은 ‘여인의 뜰’뿐이었다. 이곳에서는 남자의 출입이 자유로우나 그밖의 다른 지역에선 여자들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연보케는 자연히 여인의 뜰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는 남자든 여자든 자유롭게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 (3) 한편 이곳에 놓여 있던 연보케는 13개였는데 모두 나팔 모양을 하고 있었으며 각 궤

마다 현금의 용도가 기록되어 있었다(아래 그림을 참조하라).



11. **㉠**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과 관련지워 하신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라(21-24절).

- ㉠** (1)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조금 더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즉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며 자신이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7:33, 34).
- (2) 그때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이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다.
- (3) 그런데 이처럼 그리스도와 유대인들의 운명이 다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나신 자’인 반면에 유대인들은 ‘아래서 난 자’이기 때문이다. 한편 여기서 ‘위’란 말은 헬라어로 <아노>로서 ‘하늘’을 가리키며 ‘아래’란 말은 <카토>로서 ‘세상’을 가리킨다. 이것은 신성을 지니신 예수와 인간과의 차이점을 강조한 말이라 할 수 있다.
- (4) 하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점을 극복하고 인간들이 그리스도가 가시는 곳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의 피이며 또한 그 피의 공로를 우리가 믿는 것이다(롬3:25).
- (5) 그러나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과 그가 인간의 구세주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데 결국 그는 자기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 (6) 한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예고하시자 이번에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은 ‘저가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저가 자결하려는가’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비양거렸다.
- (7) 이처럼 영적인 소경은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인 줄도 모르고 계속 걸으며, 자신들의 잘못된 길을 교정하려는 자들을 향해 도리어 비난과 조소를 퍼붓게 된다. 이런 현상은 복음과 교회를 모욕하며 조롱하는 오늘날의 불신 세계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일이다(참조, 고전 1:18).

12. **㉠**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25절)

- ㉠** (1) 헬라어 성경 원문에 <텐 아르켄 호 티 카이 라로 휘민>으로 나와 있는 이 말은 정확하게 그 뜻이 무엇이라고 밝히기 어렵다.
- (2) 이에 대해 KJV는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것과 동일하다’(Even the same that I said unto you from the beginning)라고 번역하였다.
- (3) 그리고 RSV는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 온 자’(Even what I have told you from the beginning)로 번역하였다.

- (4) 뿐만 아니라 NIV는 ‘나는 내가 계속하여 주장하여 온 자니라’(Just what I have been claiming all along)고 번역하였다.
- (5) 이외에 참고할 만한 영어 성경으로는 NASB, NEB 등이 있는데 이 말이 NASB에는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어떻게 말해 왔느냐?’로 NEB에는 ‘도대체 어쩌서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해야만 하느냐?’로 번역되어 있다.
- (6) 한편 벡(Beck)는 이에 대하여 ‘내가 먼저 너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느냐?’로 번역하고 있기도 하다.
- (7) 이처럼 여러 가지 번역문을 산출시킬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원문 중의 <아르켄>이란 단어인데 이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처음’이란 뜻이 된다.
- (8) 아뭏든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번역 중에 어느 것이 좋다고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차 자신에 대하여 자증하셨던 사실(참조, 12절; 4:25, 26; 6:35, 51)에 비추어 보아 이 말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였던 바, 바로 그와 같은 자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13. **Q**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리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28-30절)

- A** (1) 여기서 ‘들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취소오>인데 3:14에서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민21:9의 기사를 인용하여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매달았던 장대’가 곧 ‘자신이 달리실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음을 밝히셨다.
- (2) 그러나 <취소오>란 단어의 일반적인 의미는 ‘높이다’ 또는 ‘잘 보이는 곳에 세우다’이다.
- (3) 그러므로 본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았던 자들이 그리스도가 메시아였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 (4) 한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하시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 되는 이유에 관해서는 7장 **Q** 17을 참조하라. 아뭏든 이와 관련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12:23),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12:32)는 말씀을 하셨다.
- (5) 그런데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유대인들은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이 열리어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며 그분의 부활 후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는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달았다(마27:50-54).
- (6) 또한 예수께서 자신의 메시아성을 강조하신 결과 즉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었다(30절). 그러나 그들의 이 같은 믿음은 전인적인 신뢰가 아니라 단순히 예수의 가르침을 지식적으로 수납했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 (7) 이와 같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는 예수를 자신의 전인격으로 의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신자가 있는 반면에 단순히 지적인 호기심에 의해 교회를 출석하는 자들도 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각각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다.

14. **Q**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신 말씀은 무엇인가? (31-33절)

- A** (1)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것이다.
- (2) 여기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란 말은 헬라어로 <에안 휘메이스 메이네테 엔 토 로고 토 에모>인데 이는 곧 ‘너희가 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산다면’(공동 번역)이란 뜻이다.
- (3) 그러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에서의 ‘진리’는 바로 예

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킨다(참조, 14:6). 그러므로 이 말은 곧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인즉 내가 너희를 각종 죄와 그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뜻이 된다.

- (4)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바 ‘영적 자유’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로서 결코 종교적 자유를 잃어버려 본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였다(33절).
- (5) 여기서 우리는 참감람나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 가지를 아끼지 아니하신다는 사실(롬11:20, 21)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단지 그들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자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영적 교만을 보게 된다.
- (6)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아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겸손과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랑만으로 우리 신앙 생활을 영위해 가야 할 것이다(참조, 갈6:14; 빌3:3)
- (7) 더우기 우리는 예수께서 제공하신 자유를 자신의 이익과 쾌락을 확보하기 위한 자유로 전락시키지 말고 그 자유가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가 될 수 있도록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참조, 갈5:1).

15. **㉠ 종과 아들의 관계에 빗대어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진리에 대해 살펴보라(35,36절).**

- ㉠** (1) 주인에게 예속된 종은 주인과의 혈연 관계가 없는 자이므로 주인의 가정 내에서 아무 권한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주인의 아들은 그 가정에서 영원한 지위가 보장된다.
- (2) 이러한 예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아브라함의 여종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결국 아브라함의 가정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하였지만 여주(女主) 사라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권한을 이어받았다(창21:8-14).
- (3)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비론(比論)을 확대시키어 한 가정의 아들이 그 가정의 특권을 정당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인 자기도 그 같은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 (4) 즉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듯이 자기 자신도 인간을 각종 죄와 그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밝혀 주시었다(참조, 갈 5:1).
- (5) 그러므로 불공평과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자유와 정의를 회구하는 자들은 그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한다. 그분은 단순히 불의한 정복의 정복이나 압제하는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압제와 속박의 원초적인 원인이 되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십자가를 선택하셨던 것이다(참조, 사 61:1-3).

16. **㉠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고 말씀하셨으면서도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하신 까닭은 무엇인가? (37-44절)**

- ㉠** (1) 분명히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지만 그들의 행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찬받을 수는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 (2) 유대인들은 일찍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였었고(5:18) 현재도 할 수만 있으면 죽이려 하며(참조, 59절) 앞으로는 그를 죽여 버리고 말 것이었다(19:14-30).
- (3) 이 같은 행동은 아브라함의 정상적인 자손들이 할 수 있는 행동으로는 도저히 간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며 어떻게 해서든지 소돔 성에 남아 있을 듯한 의인들을 구해 내려고 하였으니(창15:6; 18:22-33) 만일 유대인들이 정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일 것 같으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로부터 육적인 피[血] 뿐만 아니라 그의 믿음까지도 계승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 (4) 그러나 그들은 그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려 의인이신 그리스도를 죽이려고만 하였으니 이는 사단의 행동과 다름없는 것이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육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지라도 행위적으로는 마귀의 자손이라 칭할 수밖에 없다고 하신 것이다.
- (5) 이러한 사실을 조금 색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자가 곧 사도 바울이다. 그는 그의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갈 3:28, 29).
- (6)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자신의 권위와 지위를 내세울 수 없다. 요즈음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분당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의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참조, 고전 1:10; 빌 2:1-3).

**17. ㉠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의 아브라함 자손 됄을 부정하자 유대인들은 무엇이라고 하였는가? (41절)**

- (A) (1) 첫째, 그들은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이 말은 그들이 남녀간의 부정한 관계에서 태어난 사생자가 아닐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서자(庶子) 제열도 아니라는 뜻이다.
- (2) 그런데 혹자는 유대인들의 이 같은 주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여 이 말을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지만 당신은 음란한 데서 났다’라는 뜻으로 풀이하기도 한다.
- (3) 하지만 이러한 풀이는 신빙성이 없다.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던 것 같다(참조, 7장 ㉠ 12).
- (4) 그러므로 그러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사건을 알고서 ‘당신은 아버지께서 누구인지도 모르는 가운데 출생한 사생자가 아니냐’는 식으로 이에 대해 조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 (5) 둘째, 그들은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라고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됄을 주장하였다. 이는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선민(選民)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뜻이다(참조, 신32:9).
- (6)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42절)고 말씀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칭함 받기에는 너무나 부적합함을 드러내셨다.
- (7) 이처럼 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자신이 지닌 과거의 경력이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족보와 전통에 얽매이지 말고 먼저 예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삶에서 나타내 보여야 한다(참조, 요 14:23).

**18. ㉠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 음미해 보라 (46절).**

- (A) (1) 여기서 ‘책잡다’는 말은 헬라어로 <엘렘케이>인데 단순한 ‘비난’이나 ‘힐책’ 이상의 뜻을 지니고 있다. 이 단어는 ‘본인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증거로 제시하여 잘못을 지적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
- (2) 따라서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다 인격적 결함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감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 (3)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담대히 이 같은 말씀을 하시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최소한 한 가지만의 죄목이라도 들고 나와 그리스도를 고소하지 못하였다.
- (4) 다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달리 고소할 죄목이 없자 상투적으로 그러하듯이 이번에도 그리스도를 미친 자로 몰아붙이였다(48절).
- (5) 이처럼 진리를 왜곡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은 어떤 핑계를 제시하여서라도 자신의 고집을 관철하려 드는 것이 그 특징이다. 그러나 진리와 예수를 자세히 알고 있는 자는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솔직이 인정할 줄 아는 겸손을 그 특징으로 한다.

19. **㉠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사마리아인’으로 몰아붙인 이유는 무엇인가? (48절)**

- ㉠** (1)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전통적인 율법에 대한 해석을 부정하셨기 때문이다.
- (2) 사마리아인들의 신앙은 유대인들의 신앙과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비극적인 역사(참조, 4장 ㉠3)로 인해 종교적으로 유대교와 이교가 혼합된 혼합 종교를 갖게 되었지만 그들은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 (3)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과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또한 이방 종교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유대인들과는 달리 상당히 개방적이었다.
- (4) 따라서 그들은 안식일에 대한 해석 문제라든가 아브라함의 자손 등과 같은 문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견해가 자신들과는 다른 점을 들어 그리스도를 사마리아인으로 몰아붙인 것이다.
- (5) 이와 같이 불의한 세력은 집단적인 힘을 행사하여 전혀 흠이 없는 자를 매도해 버릴 경향성을 항상 지니고 있다. 이 집단의 힘이 오늘 우리 주변에도 종종 발휘되곤 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과 그에게 나오는 힘을 분쇄하신 예수를 더욱 의뢰해야 하며 자신의 힘만으로 그 세력과 대처하려는 무모한 시도는 삼가해야 한다(참조, 16:33; 롬 12:19-21).

20. **㉠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들린 것으로 확신할 수 있는 증거로서 유대인들이 내세운 것은 무엇인가? (51, 52절)**

- ㉠** (1)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는 말을 증거로 내세웠다.
- (2) 그리스도께서는 이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부언(附言)까지 하셨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아멘 아멘 레고 휘민>으로서 변할 수 없는 진리와 그 진리의 귀증함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말이다.
- (3)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못 선지자들도 죽음을 겪었는데 보잘것없는 갈릴리 사람이인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간의 생사 문제를 주장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였다.
- (4) 그러면서 그들은 네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니 귀신들렸음이 틀림없다고 하며 그리스도께서 마치 과대 망상중에 걸리신 분이더라도 하듯이 업신여겼다.
- (5) 이처럼 세상의 구주로 오신 예수께서는 어리석고 우둔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막상 구원받아야 할 자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적극적으로는 그분을 저주까지 하는 추악함을 보였다(참조, 1:5, 11). 오늘 우리는 과연 예수를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그분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면 그분은 분명 귀신들린 자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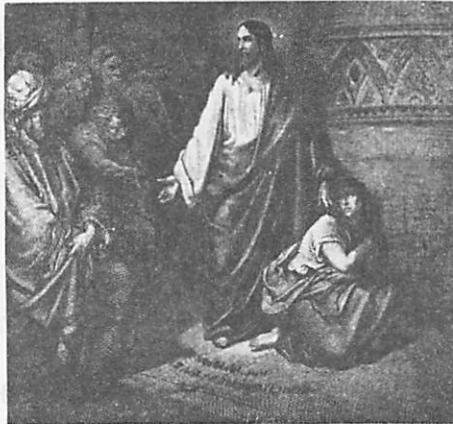
21. **㉠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배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는 말**

## 은 무슨 뜻인가? (56절)

- Ⓐ (1)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여기서 '나의 때'(헬, 텐 헤메란 텐 에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구속 사업을 시작할 때를 가리키고 있는 듯하다.
- (2) 따라서 본절은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사역을 보고 기뻐하였던 사실을 뜻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본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것(창12:3)과 연관이 있게 된다.
- (3)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이 같은 약속을 성취시키실 '씨'로 택정한 자가 곧 이삭의 후예임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기에 그는 이삭이 출생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시작된 것으로 여겨 크게 기뻐하였을 것이다.
- (4) 사실상 이삭의 기적적인 탄생과 아브라함에 대한 이삭의 무조건적인 복종, 즉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려고 한 일 및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등(창21:5-7; 23:1-14)과 같은 사실들은 그리스도와 관계되는 모든 일을 예표하고 있다.
- (5) 즉 그리스도께서는 동정녀 탄생이라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세상에 나셨으며(마1:18-25), 하나님께 복종하되 무조건적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19:30) 그 후 부활하십시오로 말미암아 죽음을 정복하셨다(20장).

## 화보자료

간음하다 붙잡힌 여자와 예수. 정죄하는 무리들로부터 간음한 여자를 보호하시면서 '너희 중에 죄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7절)고 명하시는 예수의 모습이다.



모세의 율법에 의거하면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 돌로 쳐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신22:22-24).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11절)고 명하셨다. 이 말씀에는 '다시금 죄를 범할 시엔 이전 죄까지 소급하여 정죄하겠다'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다.

# 제 9 장 소경을 고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

단락구분 1-5 소경에 대한 물음과 그리스도의 답변 / 6-7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경을 고쳐 주시다 / 8-12 블라와하는 이웃 사람들 / 13-17 바리새인들간의 논쟁 / 18-23 소경되었던 자의 부모의 태도 / 24-34 그리스도에 대한 소경되었던 자의 증거 / 35-38 예수 그리스도들을 경배하다 / 39-41 소경과 관계된 그리스도의 교훈

1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2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 죄로 인함이었나이까 그 부모오나이까

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4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라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6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8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걸인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9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로라 하니

10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12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13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14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15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16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

었다니

17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나이다 한대

18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19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나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20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21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니이다 저에게 물어 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22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 함이러라

23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 보시오 하였더라

24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25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26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27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했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들으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28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29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30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31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

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니이다  
 32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33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34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35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를 믿느냐  
 36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나이

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39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40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41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 되었더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제 있느니라

1. **㉠ 본장이 지니고 있는 의의는 무엇인가?**

- ㉠ (1) 본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셔서 그를 고쳐 주신 기사가 나온다.
- (2) 그리스도께서 소경을 고쳐 주신 경우는 이번 외에도 여러 번 있었지만(마9:27-31; 12:22; 15:30; 21:14; 막8:22-26; 10:46-52) 그 가운데에서도 이번 경우는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다.
- (3) 왜냐하면 이번 경우에는 그리스도께서 고쳐 주신 자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였을 뿐 아니라 소경을 고친 표적이 소경의 운명에 관한 논쟁과 관련되었기 때문이다(1-3절).
- (4) 그런데 앞서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8:12)고 말씀하셨다.
- (5)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소경의 눈을 고쳐 주시기 전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고 말씀하셨다(5절).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소경을 고쳐 주신 사건은 이러한 자신의 말들을 입증해 보이는 한 실례(實例)라고 할 수 있다.
- (6) 바로 여기에 소경을 고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기록하고 있는 본장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2. **㉠ 예수 그리스도 당시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운명관에 대하여 살펴보라(1-3절).**

- ㉠ (1)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활약하고 있던 대표적인 유대 분파(the Jewish sect)들은 바리새파(the Pharisees), 사두개파(the Sadducees), 엷세네파(the Essenes) 등이 있었는데 이들 모두는 운명에 대하여 서로 견해를 달리 하였다.
- (2) 바리새파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 안에서 예정되어 있긴 하지만 어떤 것은 인간의 의지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는 것으로 보았다.
- (3) 그러나 엷세네파는 철저하게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예정에 귀속시켰으며 이와는 달리 사두개파는 인간의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 (4) 길을 가던 중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서 그의 운명에 대하여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질문한 것도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연유된 것이다.
- (5) 제자들은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라고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子與孫) 삼사 대까지 보용하리라’(출34:7)고 하신 말씀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아뉘튼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선천적인 결합조차 전세(前世)에서 지은 죄나 혹은 그 부모가 지은 죄의 보용으로 여기는 헬라 사상이 유대적 율법 사상과 아울러 당시의 인간 사고(思考)를 지배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6)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견해를 배격하시기를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그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요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다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하시었다.
- (7) 이처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격과 사건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깃들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한 인격, 한 사건도 소홀히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인격, 한 사건을 바라볼 때 단순히 외적인 현상에만 집착하지 말고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해야 한다(참조, 시 19:1).

### 3. ㉠ '나를 보내신 이의 입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어떠한 가르침이 들어 있는가? (4절)

- ㉠ (1) 소경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기 보다는 그와 관련된 신학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인 제자들의 태도를 책망하는 가르침이 들어 있다.
- (2)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신 그리스도의 사명은 '소경을 보게 하며 앓은병을 일으키며 문둥이를 깨끗케 하며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마11:5)이었다.
- (3) 그런데 이러한 사역은 비단 그리스도 자신만의 사명이 아니고 그의 제자들도 함께 나누어야 할 사명이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참조, 마4:17-22).
- (4) 그러나 제자들의 주된 관심이 이에서 벗어나 있자 그리스도께서는 저들을 각성시키신 것이다.
- (5) 한편 그리스도께서는 '낮에는 일할 수 있으나 밤에는 일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제자들을 깨우치셨는데 여기서 '낮'이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머물러 계시는 때를 의미하며 '밤'이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때를 의미한다.
- (6) 이 말은 곧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지만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시는 때에는 지상에서의 사명이 종료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데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 있는 동안에 자신에게 맡겨진 지상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드려야 할 것이다(참조, 빌2:15).
- (7) 사실 우리의 생명력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매우 짧다(참조, 약4:14). 이 유한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 얼마나 일을 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나치게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 4. ㉠ 그리스도께서 소경을 고쳐 주시면서 굳이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도록 하신 것에 대하여 설명하라(6, 7절).

- ㉠ (1) 예수께서는 다른 경우에 있어서 소경을 고쳐 주실 때에 말씀만으로 명하여 고쳐 주시거나(막10:46-52) 손으로만 만지시거나(마9:27-31)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시는 것만으로 고쳐 주시었다(막8:22-26).
- (2) 그런데 굳이 이번 경우에는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바르신 까닭은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셨다(창2:7). 이와 관련하여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고친다는 것은 치유 행위라기 보다는 새로운 창조 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상징적으로 흙을 바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3) 또한 이와는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 즉 그리스도께서 다정스럽게 손으로 그의 눈 부위를 만지신 것은 치유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진흙을 바르신 것은 그에게 이미 어떠한 일이 행하여졌다는 표를 주는 것이며 이로써 그리스도의 명령

을 기꺼이 따를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 (4) 한편 실로암 못에 가도록 명하신 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믿음과 아울러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5) 그리고 못에 가서 씻도록 한 것은 그 사람이 새롭게 탄생하는 것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영적, 육체적으로 성결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사람이 물로써 세례를 받는 것과 비슷한 의미이다(참조, 뱀전3:21).
- (6) 이처럼 예수께서는 어떤 굳어진 틀 안에서만 자신의 권능을 발휘하시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육신과 정신이 병들어 있는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은 분명 예수께서 온 인류의 주인이시며 모든 생명의 구원자이심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참조, 마8:16, 17).
- (7) 그러므로 우리가 병들고 연약해져 있을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시는 손길에 자신을 의탁하는 산 믿음이 필요하다. 물론 과학적인 의술마저도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은혜의 한 방편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의 치료 행위는 절대 삼가해야 한다(참조, 약5:13-16).

5. **㉠ 실로암 못이란 어떠한 곳인가? (7절)**

- ㉠** (1) ‘실로암’(Siloam)이란 말은 <실로하>라는 히브리어에서 온 말인데 이는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 (2) 그런데 이에 대한 명칭이 본서에는 ‘실로암 못’으로 나와 있는데 반해 느3:15에는 ‘셀라 못’(the pool of Shelah)으로, 사8:6에는 ‘실로아 물’(the waters of Shiloah)로 나와 있다.
- (3) 이 못은 수로(水路)로서 B. C. 701년에 아수르의 산헤립(Sennacherib)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자 히스기야 왕이 물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하여 지하에 판 것인데 시온 산 암굴을 지나 서남쪽으로 흘러 예루살렘 중앙 두로베온(Tyropoeon) 골짜기로 물이 나오도록 되어 있다.
- (4) 한편 1880년에는 이곳에서 ‘실로암 비문’(Siloam Inscription)으로 불리우는 비문이 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실로암 수로 공사 현황이 기록되어 있다. ‘뚫는 일은 전부 끝났다...일꾼들이 서로 정질을 할 때 관통하기까지는 아직 3규빗이 남았으나 서로 동료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물이 수원(水源)에서 못까지 1, 200 규빗이 나 굽이쳐 흘러내려왔다...’.

6. **㉠ 눈을 뜬 소경을 본 이웃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8-12절)**

- ㉠** (1) 이웃 사람들과 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가 정상적인 시력을 회복하고서 걸어오는 것을 보자 모두를 의아해 하였다.
- (2) 그러면서 그들은 ‘이 사람이 전에 구걸하던 그 소경이 아니냐’라고 반문하기도 하고 ‘아니라 그 사람과 비슷한 사람이다’라고 부정하기도 하였다.
- (3) 그러자 소경되었던 자는 자기가 바로 그들이 이전에 알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임을 밝히어 그들의 의심을 풀어 주었다.
- (4) 이에 호기심에 가득 찬 이웃 사람들은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물었다.
- (5) 소경되었던 자는 자기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사실 그대로 설명하면서 평범한 어조(語調)로 대답하였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 (6) 이러한 그의 대답을 통해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을 액면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그의 초기 단계적 신앙을 엿볼 수 있다. 즉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이나 신성(神性)에 대

하여 평가하려 하지 않고 단순히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는 말로 사실을 증거하기 시작하였다.

- (7) 그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피상적인 소식만을 전해 들었을 뿐 그에 대하여 정확히 아는 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그도 일단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접한 이후로는 점차 성숙된 신앙을 갖게 되었으니 결국은 '주여 내가 믿나이다'(38절)라고 고백하는 단계에까지 이를 수 있었다.
- (8) 이처럼 어떤 영혼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만나게 되면 그의 죽어 버린 영성(靈性)이 되살아나고 성장하여 끝내 그리스도를 주(主)로 고백하기에 이른다.
- (9) 여기서 우리는 전도의 효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사람의 임무이지만 그 씨가 사람의 마음 밭에서 싹을 내고 꽃을 피워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이와 같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게으름이 없어야 할 것이다(참조, 행 5:42).

7. **㉠ 그리스도께서 소경을 고쳐 주신 것과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신 것(5:1-18)을 서로 비교해 보라(14-16절).**

- ㉠** (1)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경을 고쳐 주신 것과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신 것 간에는 서로 유사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 (2) 우선 유사점으로는 첫째, 두 사건 다 안식일에 관한 율법 문제로 논쟁이 일어나게 된 점이다. 둘째, 두 사건 다 사람의 인술로써는 고칠 수 없는 병에 관계된 점이다. 셋째, 두 사건 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과 관계된 점이다.
- (3) 그러나 이와는 달리 소경이 소경된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었는데 반해(3절) 38년 된 병자에게는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5:14)는 말이 주어졌으니 그 사람이 죄를 지었던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병에 걸렸을 수도 있다는 점이 암시되어 있다.
- (4) 이외에도 소경은 고침을 받은 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반면(35-38절), 38년 된 병자는 고침을 받은 후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언급이 전혀 없다.

8. **㉠ 그리스도께서 소경을 고쳐 주신 것으로 인해 바리새인들간에서 일어난 논쟁은 무엇에 관한 것이었는가? (16절)**

- ㉠** (1) 안식일에 관한 것이었다.
- (2)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소경의 눈을 고쳐 주신 것을 정죄하여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라'고 하였다.
- (3) 이러한 논리는 바리새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편견과 율법에 대한 오해(참조, 7:21-24)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니 바리새인들로서는 이러한 결론 외에는 달리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없었을 것이다.
- (4) 그런데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는 식으로 조심스레 의문을 제기하였다.
- (5) 한편 여기서 '표적'이라는 단어가 <세메이아>라는 복수형의 헬라어로 사용된 것은 그들이 이번 경우의 표적 외에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다른 여러 표적들(2:1-11, 23; 4:46-54; 5:1-9; 6:1-15)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다.
- (6) 즉 그 사람들은 단지 이번 경우만의 표적을 쳐도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행해졌던 여러 표적의 근원을 숙고해 보아 그리스도를 판단하였던 것이다.
- (7) 아뭏든 바리새인 가운데서 피차 쟁론이 생겼다는 것은 그들 중에도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않은 최소한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아마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Arimathea Joseph)이 그러한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간에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는 그들의 반문은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3:2)라고 아뢰었던 것과 매우 유사하다.

- (8) 이와 같이 오늘날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이런 불신의 틈바구니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들의 논리에 동조하지 말고 항상 **죄**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 계시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 모양으로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행 17:16-34). 왜냐하면 그 같은 자세야말로 성도가 취하여야 할 바른 자세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마 10:28-33)

9. **㉠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의 결론을 내리는 때 도움을 얻기 위하여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17-22절)**

- ㉠** (1) 우선 소경되었던 자를 재차 다그쳐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사람으로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질문한 것은 곧 ‘너는 그 사람에 대하여 선의(善意)의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암시적인 위협이었다고 할 수 있다.
- (2) 그러나 소경되었던 자는 ‘나는 그를 선지자로 생각합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유대인들의 기대를 묵살시켜 버리고 말았다.
- (3)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번에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표적 자체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서 소경되었던 자의 부모를 소환하여 그들의 아들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는지의 여부와 어떻게 하여 치유되었는지를 알아보려 하였다.
- (4) 이에 대하여 그 부모는 고침을 받은 자가 자기의 아들인 것과 그가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실을 시인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표적이 결코 부인될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책잡혀 출교(黜敎)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누가, 어떻게 아들을 치유하였는지에 관해선 알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 (5) 이처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표적을 부인하고 그를 정죄하려고 하였지만 그들의 모든 수고가 허사로 돌아가고 만 것은 곧 어두움이 아무리 빛을 가리우려 하여도 아침과 함께 밝아 오는 빛을 가리우지 못함과 같다.
- (6) 이와 같이 비록 진리가 거부당하고 악한 세력들이 다방면으로 활약하는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은 끝내 진리가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이 모두 성취되고야 만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현실의 불만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약 5:7-11).

10. **㉠ 유대인들간에서 행하여졌던 출교(黜敎)의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라(22절).**

- ㉠** (1) 유대인들간에서 행하여졌던 출교가 어떠한 절차에 의해 시행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구약 시대 때는 의식법(儀式法)을 어겼거나(출 12:15; 레 17:4) 공동 사회의 규율을 저버린 경우(스 10:8)에 출교가 시행되었다.
- (2) 신약 시대에 와서는 중한 도덕적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단(異端) 사상을 퍼뜨리는 자에 대하여 출교가 시행되었다(33절; 12:42). 우리는 사도 바울도 교회 내의 질서와 정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출교를 명하였던 것을 성경에서 찾아 볼 수 있다(고전 5:13; 딤후 전 1:20).
- (3)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형제가 죄를 범할 경우 먼저 개인적으로 권고해 보고,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두세 사람이 권고할 것이며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출교하여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셨다(마 18:15-17).
- (4) 아뭏든 이상과 같은 경우에 시행되었던 출교의 종류로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네지

파'(neziphah), '니두이'(nidduy), '헤렘'(herem), '삼마타'(shammattah)이다.

- (5) 이중 '네지파'는 비공식적인 징계로서 일반적인 '책망'을 뜻한다. 그러나 '니두이'는 공식적인 징계로서 적어도 30일 동안 종교적인 공동 생활이 금지되는 벌이다. 그런데 30일이란 기간이 끝나도 근신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으면 다시금 30일간의 징계 처분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이 '니두이'의 특징이다.
- (6) 한편 '헤렘'은 보다 가혹한 징계로서 무기한 동안 출교를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징계를 당한 자는 마치 문둥병에 걸린 자처럼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이보다 더 혹독한 징계가 있었으니 그것은 곧 '삼마타'였다. 이것은 영구적으로 출교를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징계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간주되었다.

11. ㉠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는 유대인들의 말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24절)

- ㉠ (1) 이 말은 유대인들의 소경되었던 자에게 눈을 고침 받은 데 대한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돌리라고 촉구하는 것이 아니다.
- (2) 이 말이 뜻하는 바 본래의 의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도 죄인인 줄 알고 있으니 너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실을 시인하라'는 것이다.
- (3) 이러한 본의미를 알 수 있는 까닭은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말이 히브리 인들간에서 어떤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자백하도록 촉구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 (4) 우리는 이 같은 예를 수 7:19과 외경인 에스드라상 9:8 그리고 에스드라하 10:11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수 7:19에는 범죄한 아간(Achan)에 대하여 여호수아가 '내 아들이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숨기지 말라'고 촉구한 대목이 나온다.
- (5) 그러기에 리우(Rieu)와 같은 학자는 본질을 풀이하기를 '유대인들이 소경되었던 자를 불러 서약시키기를 너는 진실을 이야기하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고 하였다.
- (6) 이처럼 불의한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무고한 사람에게 거짓 증언을 강요하곤 한다. 특별히 오늘날 고문(拷問) 등으로 죄없는 사람을 희생시키까지 하는 악독과 만행이 구조적인 악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최후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하고 계신다(참조, 약 5:4). 그리고 그에 대하여 반드시 보응하실 것이다(렘 17:10).

12. ㉠ 그리스도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하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촉구에 대하여 소경되었던 자는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25절)

- ㉠ (1) 유대인들의 편견에 맞서 '그리스도가 죄인인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나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은 그분으로 인해 보게 되었다는 사실만은 확실하다'라고 자신의 소견을 강력하게 표명하였다.
- (2) 이러한 소경의 순수한 지론(持論)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삼고 있는 율법 해석전(장로들의 유전, 마 15:2) 자체의 허구성을 잘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 (3) 즉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를 건져 냄으로써도 쉽게 안식일을 범하는(참조, 마 12:11) 유대인들이, 소경되었던 자신의 눈을 고쳐 준 사실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고 정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암시적인 항변이 그의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 (4) 여기서 우리는 이전과는 달리 한 단계 더 성장한 그의 신앙을 감지(感知)할 수 있다. 즉 조금 전까지만 하여도 그의 신앙은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단계에만 머물러 있었으나(참조, ㉔6) 이제는 진리와 비진리를 분간하여 스스로 진리의 편을 들 수 있는 지식적 신앙 단계에까지 이른 것이다.
- (5)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부모와는 달리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당할 수 있는 위협을 무릅쓰고 진실을 밝혔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고로 위협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 굴하지 않고 계속하여 진리를 증거한 것(행4:13-21)을 연상시켜 준다.
- (6) 이와 같이 참진리를 깊이 깨달은 자는 어떤 불의의 세력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으며 바른말을 증거할 수 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발견한 우리들은 악한 세력 앞에서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는가? 베드로처럼 거짓으로 자신의 생명을 부지할 것인가? 아니면 스테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진리 편에 설 것인가.

13. ㉔ 거듭되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소경되었던 자는 어떻게 반문하였는가? (26-28절)

- ㉔ (1) 우선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라고 반문하였다.
- (2) 이 같은 말에서 우리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들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사6:9, 10; 마13:14, 15)고 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생각하게 된다.
- (3) 유대인들은 이미 소경되었던 자의 이웃 사람들과 그를 아는 자들의 증거를 접하고 그와 그의 부모로부터 사실적인 증언을 들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의심을 버리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를 책잡을 거리를 찾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참으로 완악한 심령을 소유하고 있었다.
- (4) 다음으로 그는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라고 반문하였다.
- (5) 이러한 그의 말에는 유대인들을 낚시 비꼬는 비난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지만 이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였다는 암시적인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 (6) 그러나 글자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모세의 율법에 정통하여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같이 반문하자 그들은 분명히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재빨리 ‘너는 그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반박하였다. 이처럼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와 ‘모세의 제자’를 구분하고 있는 것은 곧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짓 선지자로 여기고 있다는 한 증거이다.
- (7)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진리와 비진리는 전혀 합치될 만한 유사점을 찾을 수 없다(참조, 고후6:15). 그러므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세상과의 타협을 피하려는 시도보다는 항상 주의 뜻과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노력해야 한다(참조, 요이1:7-11).

14. 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29절)

- ㉔ (1) 모세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한 선지자이므로(출33:12) 그의 직분과 권위를 인정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인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선지자가 된 자인지 알 수 없으므로 그의 직분과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다.
- (2)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레라레켄>인데 이는 현재 완료형 동사로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도 알고 있다’라

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 (3) 그리고 ‘이 사람’이란 말은 헬라어로 <투톤>인데 ‘이 녀석’이란 경멸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조소어(嘲笑語)이다.
- (4) 이처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출신 성분이 모호하므로 그의 권위와 직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은, 일전에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7:27)고 주장하였던 것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 (5) 이와 같이 진리를 배격하려 하는 자들은 그때그때마다 진리를 배격하기 위한 필요 적절한 논거를 끌어대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 같은 논리 사이에 모순이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그들의 주장이 비진리임을 스스로 증명하게 된다.
- (6)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에 의해 예수께서는 철저히 모욕당하셨다. 만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올바른 지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한 예수를 모독할 수 있는 경향성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의 말씀에 착념하여 그분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15. **㉠** ‘하나님께서 죄인을 듣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성경 귀절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31절)

- ㉠** (1) 욥27:9; 35:13; 시66:18; 잠15:29; 28:9; 사1:15 등이 있다. 이러한 성경 귀절들은 한결 같이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지만 악인의 기도는 들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 (2) 그런데 이러한 말로써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옹호하고 있는 소경되었던 자는 여기서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으니 이는 곧 위의 사실을 유대인들도 알고 있음을 지적해주는 것이라 하겠다(참조, 16절).
- (3)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죄인이라면 그 어떠한 표적도 행할 수 없었겠지만 자신의 눈을 고쳐 주는 것과 같은 표적을 행하셨으니 그분께서는 분명히 죄인이 아니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33절)라는 자연스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
- (4) 한편 ‘하나님께서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신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한 근거가 된다. 그러나 그분의 뜻에 어긋나는 간구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시행되지 않는다(참조, 약4:3). 우리는 삼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롬12:2)이 무엇인지 분별하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16. **㉠** 창세 이후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자가 없었던 사실에 대하여 음미해 보라(32절).<sup>9</sup>

- ㉠** (1) ‘창세 이후’라는 말은 헬라어로 <엑크 투 아이오노스>인데 이는 곧 ‘영원부터’(헬, 아포 톤 아이오논)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이다.
- (2) 사실 본질이 밝히는 바와 같이 창세 이후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각종 이적(출17:6; 수10:13; 왕상17:19-22; 왕하4:1-7)을 행하였지만 그중에 소경의 눈을 고쳐 준 이적은 없었다.
- (3) 하지만 성경에는 장차 메시아가 나타나 소경의 눈을 고치며,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이 예언되어 있다(사29:18; 35:5; 42:7).
- (4)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에 나타나셔서 소경의 눈을 고치시며(마9:28; 막3:22; 7:35; 8:23; 눅18:42)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 주셨으니(막7:32-35; 9:25-27) 이는 곧 그리스도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입증해 주는 객관적인 증거라고 하겠다.
- (5) 한편 여기서 소경되었던 자가 이 같은 말을 한 것은 이러한 구약의 예언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한 것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 (6) 이와 같이 예수의 사랑을 체험한 자는 그가 체험한 그 사랑을 근거로 하여 예수의 메

시아 되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 신앙은 단순히 간직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항상 표현되어야만 그 신앙이 정상이라 할 수 있다(참조, 마10:32; 롬10:9, 10).

17. **㉠**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라는 말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34절)

- ㉠** (1) 소경되었던 자가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것은 필시 그 부모의 죄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 자신의 죄 때문이었다(참조, 2절)는 것이다.
- (2) 유대인들이 소경되었던 자에게 이처럼 허구에 찬 인신 공격을 가한 것은 다른 말로 써는 도저히 그의 논지(論旨)를 깨뜨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 (3) 그러므로 그들은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그에게 가함으로써 그의 말문을 막고 그 다음으로 그에게 출교(黜敎)라는 제재 조치를 가하였을 것이다.
- (4) 그런데 여기서 가해진 출교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참조, ㉠10). 다만 확실한 것은 소경되었던 자가 출교 조치를 당한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과 같은 사교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던 점으로 보아 그 출교령이 ‘삼마타’가 아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 (5) 어쨌든 율법을 교묘히 이용하여 올바른 말을 하는 한 인격을 매장시키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이것도 율법의 권위를 무시하는 처사일 뿐 아니라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다(참조, 벨후1:20,21).
- (6) 오늘 한국의 강단에서는 이러한 잘못이 자행되고 있지는 않는가? 성경을 자신의 생각과 연결시켜 해석하는 악행을 그만두고 오직 그분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데 힘쓰자.

18. **㉠** 소경되었던 자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라(35-38절).

- ㉠** (1) 어느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경되었던 자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할 수 있었던 것도 먼저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이다.
- (2) 그리스도께서는 소경되었던 자가 유대인들로부터 출교 조치를 당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를 만나셨다. 여기서 ‘만났다’(헬, 휴로)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제자의 도’를 가르쳐 그의 신앙을 견고히 해주시기 위해 그를 찾으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3)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만나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즉 ‘너의 눈을 고쳐 준 인자라 하는 사람을 믿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이다. 그런데 ‘인자’, 즉 ‘사람의 아들’(헬, 휘오스 투 안드로푸)이란 말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지칭하실 때 사용하시는 호칭이다. 그런데 이 단어가 본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헬, 휘오스 투 데우)로 나와 있다.
- (4) 한편 그리스도의 질문을 받은 소경되었던 자는 그 즉시로 ‘내가 그분을 믿으려 하니 그분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간청하였다. 이에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바로 그라’고 대답하셨다. 이로써 그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를 영접하게 되었으니 성도의 반열에 들게 된 것이다.
- (5) 이처럼 소경되었던 자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경위는 못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경위와 동일하다.
- (6)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속죄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롬3:25). 다음으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변화를 일으키신다(참고, 3:3-8). 그러기에 사람은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롬1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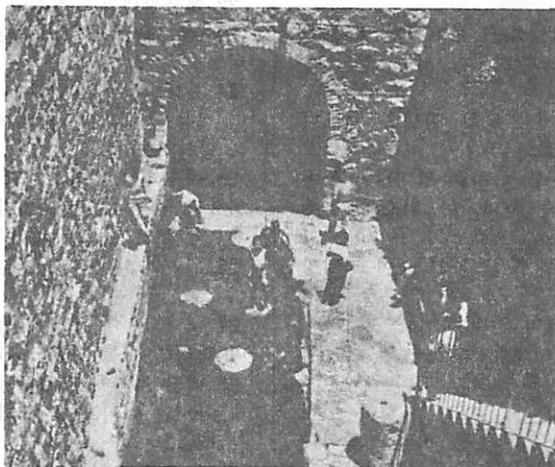
19. **㉠**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성격은 어떠한가? (39-41절)

- ㉠** (1)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 (2) 즉 자신이 영적으로 눈먼 자임을 시인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치유함을 받을 것이지만 정말로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결코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 (3) 우리는 이러한 원리에 입각한 가르침을 눅5:31, 32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거기에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 (4)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심판’(헬, 크리마)은 ‘정죄’(judgement)하여 영벌에 처하려는 것이라기 보다는 치유하여 생명을 주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5)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서 ‘우리도 소경인가’라고 빈정거렸으니 이에 대해 그리스도께서는 단적으로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고 경책(警責)하셨다.
- (6)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코 자신의 의(義)를 내세우거나 자신이 전혀 죄가 없다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 사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의롭지 못한 존재이다(참조, 롬3:9-18).
- (7)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철저히 겸손한 자, 다시 말하면 자신의 무가치성과 죄악됨을 인정하는 자에게만이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덧입을 수 있다(참조, 욥22:29).

### 화보자료

실로암 못 (the Pool of Siloam). 더위를 피하여 실로암 못으로 나온 아이들이 먹감고 있는 광경이다.



실로암 못은 B. C. 701년 히스기야 (Hezekiah, B.C.728-697) 왕이 앗수르의 침략에 대비하여 예루살렘 성내로 뚫은 지하 수로이다 (잠3, 대하32:1-4, 30). 그런데 본장에는 예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명하시어 이 못에 가서 눈을 씻도록 하심으로써 그 눈을 고쳐 주신 사건이 나온다(1-7절). 이 같은 사건에서 소경의 눈이 나온 것은 실로암 물에 어 떠한 영험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다만 예수의 말씀에 순종한 소경의 믿음이 그의 눈을 뜨게 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믿음은 엄청난 결과를 낳는다.

## 제 10 장 선한 목자와 그의 양

단락구분 1-6 선한 목자와 그의 양 / 7-10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도적 / 11-13 선한 목자와 샅군 / 14-18 선한 목자의 사명 / 19-21 유대인들간의 분쟁 / 22-30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 / 31-34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다 / 35-39 성경에 입각한 증거 / 40-42 요단 강 건너편으로 가시는 그리스도

1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2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3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들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5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6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니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7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8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모두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10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 샅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헤치느니라

13 달아나는 것은 저가 샅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14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6 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7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18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19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20 그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21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22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23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24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케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2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어늘

26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7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28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30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대

31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32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33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람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34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 성경은 폐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36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람하다 하느냐

37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나 나를 믿지 말려니와

38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

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39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40 다시 요단 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41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42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 1. ㉠ 본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 비유를 공관 복음서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 비유와 비교해 보라.

- ㉠ (1) 본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 비유는 공관 복음서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 비유와 어느 정도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
- (2) 즉 마18:12-14과 눅15:3-7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 비유와 본장에 나오는 '선한 목자' 비유에서는 모두 양에 대한 극진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목자상이 강조되고 있다.
- (3) 하지만 본장의 비유에서는 단순히 그러한 목자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공관 복음서에서보다 더 넓은 의미를 나타내 주고 있다.
- (4) 본장의 비유에서는 양에 대한 단순한 관심보다는 양을 치는 일(참조, 3, 4, 10, 15절)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로써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잘 드러나 있다.
- (5) 즉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참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4절) 그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공급하시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실 것이며(15절) 또한 세상 끝날까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다(18절).

## 2. ㉡ 1-6절에 나오는 양의 우리, 문, 양의 목자, 문지기, 양은 각각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 ㉡ (1) 이에 대하여 확실한 단정을 내리기는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7절) 또는 '선한 목자'(11절)라 하셨기 때문이다.
- (2) 그러나 '양의 문'과 '선한 목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각기 다른 사역 내지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해할 때 본절에 나오는 각 용어들은 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3) 우선 '양'은 '성도'를 가리키며 '양의 우리'는 '교회'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 (4) 하지만 '문'은 '그리스도'를 가리킬 수도 '하나님'을 가리킬 수도 있다. '양의 목자' 역시 '그리스도' 내지는 '목회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문지기'는 '하나님' 내지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 (5) 어떻든 간에 이러한 비유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으며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양과 그 목자와의 관계인데 목자는 자기 양을 부르며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목자의 뒤를 따른다는 것이다.
- (6)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자들 모두는 항상 선한 목자되신 그분의 뒤를 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뒤따르는 자에게는 풍성한 풀(생명)과 잔잔한 물가(평안, 쉼, 시23:2)가 약속되어 있다.

## 3. ㉢ 양의 우리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자는 어떠한 자들인가? (1절)

- ㉢ (1) 절도나 강도이다.

- (2) 팔레스틴의 양 우리는 대개 거친 돌이나 진흙을 이겨 만든 벽돌로 벽을 만들었고 그 위에 부분적으로 지붕을 덮은 것일 뿐이다. 그런데 때로는 인공적인 우리 외에도 산에 있는 자연적인 동굴이 양 우리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 (3) 이러한 우리에는 문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양들은 낮이면 초장으로 나갔다가 저녁이 되면 이 문을 통하여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도적들은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 (4) 한편 ‘절도’와 ‘강도’는 의미상 차이가 있다. ‘절도’(헬, 클레프테스)는 ‘몰래 속임수를 쓰는 자’를 의미하며 ‘강도’(헬, 레스테스)는 ‘폭력을 사용하여 약탈하는 자’를 뜻한다.
- (5) 하지만 이들은 모두 양을 탈취하여 사리 사육을 채우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자들이므로 양을 보호하는 목자와는 다른 자이다(참조, 10절).
- (6)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선한 목자가 있는 반면 교인들의 헌금과 봉사를 착복하고 악용하며 심하게는 그 영혼까지 침몰시키는 절도와 강도들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7) 그러므로 성도들은 목회자들의 그릇된 권위 의식에 압도되거나 말씀과는 무관한 가르침에 귀기울이지 말고 그 가르침이 항상 주의 말씀에 기초한 가르침인가를 판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참조, 요일4:1).

4. **㉠ 목자는 자기 양을 어떻게 불러 인도해 내는가? (3,4절)**

- ㉠** (1) 자기 양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인도해 낸다.
- (2)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불러내시는 방법이 어떠한 것인지 감지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성도들을 인도하여 내심에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指目)하여 불러내신다(참조, 마4:18-22; 갈1:15).
- (3) 왜냐하면 인간의 구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과 개인이라는 1대 1의 관계에서 결정지워지는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젤 18:2-4).
- (4) 한편 이와 같이 하여 양들을 불러낸 목자는 이제 앞에 서서 양들을 초장으로 인도해 낸다. 이처럼 앞에 서서 양들을 인도해 내는 목양법(牧羊法)은 소 떼나 양 떼를 뒤에서부터 앞으로 끌고 가는 일반적인 사육법과는 사뭇 다르다.
- (5)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과정을 보게 된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천국으로 향하는 인생 길에서 만날 모든 어려움을 앞장 서서 해결해 주시며 목적지까지 무사히 인도해 들이신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 같은 환난이 결코 우리를 삼키우지 못한다는 사실(참조, 16:33; 롬8:35-39)을 믿고 담대히 행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을 확고히 해야 하겠다.

5. **㉠ 양은 어떻게 하여 자신의 목자가 부르는 음성을 분별해 내는가? (4,5절)**

- ㉠** (1) 인간과는 달리 특별히 발달되어 있는 청력(聽力)에 의해 분별해 낸다.
- (2) 오늘날에도 팔레스틴을 여행하는 자면 이러한 사실을 체험할 수 있는데 목자와 옷을 바꿔 입었다 할지라도 양들은 낯선 자의 음성을 청중치 않고 목자의 음성만을 청중한다고 한다.
- (3) 아마도 이러한 능력은 다른 방법으로는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길이 없는 양과 같은 연약한 짐승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여해 주신 본원적 능력일 것이다.
- (4)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으로서 우리는 ‘신지식’(神知識)을 간파해 버릴 수는 없다.
- (5) 여기서 ‘신지식’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생득적(生得的)인 능력을 의미한다(롬1:19). 그러나 이러한 능력도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 거의 흐려져 버렸다.

(6) 그렇다면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 귀를 열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회개케 되며(참조, 16:7-13) '나를 따르라'(1:43)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서 의(義)의 길로 들어 서게 되는 것이다.

(7) 한편 이미 하나님의 음성에 익숙해 있는 우리들도 가끔 세상의 유혹하는 소리에 마음을 빼앗길 때면 하나님의 음성은 희미하게 들리거나 아니면 아주 들리지 않게 된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영육의 귀를 주의 음성을 듣는 데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6. **㉠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양의 문'으로 비유하신 것은 어느 측면을 강조한 말인가?(7-10절)**

- ㉠** (1) 자신만이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생명 길'임을 강조한 말이다. 따라서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말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16:6)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다.
- (2) 이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인간의 대속 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롬3:25). 따라서 그분의 피 공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참조, 롬5:9).
- (3)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며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쫓을 얻게 된다'. 여기서 '들어가며 나오며'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되어 있는 완전한 자유(참조, 8:32)와 보호를 의미한다. 그리고 '쫓'은 그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풍성한 은혜'(참조, 6:35)를 의미한다.
- (4)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 (5) 영적으로 심각한 가뭄에 직면한 오늘날 우리들은 날마다 자신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오락과 돈놀이와 권력의 쟁취 등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것은 더 깊은 영적 고갈을 가져올 뿐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가뭄을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것이다(참조, 사55:1-5).

7. **㉠ 그리스도께서는 자신보다 먼저 온 자를 누구로 단정하셨는가?(8절)**

- ㉠** (1) 절도나 강도로 단정하셨다.
- (2) 그런데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자'란 그리스도보다 앞서 온 구약 시대의 예언자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장차 올 메시아(사7:14; 미5:2; 스9:9)에 대하여 예언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 (3) 그러므로 '나보다 먼저 온 자'란 신·구약 중간 시대(B. C. 400-4)로부터 그리스도 당시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출연한 거짓 선지자와 거짓 메시아들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
- (4) 사실 신·구약 중간 시대 말기에는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하며 많은 무리들을 현혹하던 자가 있었다. 행5:36, 37에 나와 있는 '드다'(Theudas)나 '갈릴리 유다'(Judas the Galilean)도 그 같은 부류 중의 하나였다.
- (5)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마23:13).
- (6)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도적으로 보시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혹독히 책망하셨다(10절).
- (7) 이처럼 그 가치가 크면 클수록 진짜에 대한 모조품이 다양하게 생산되는 것이 상례이다. 이것은 영계(靈界)에서도 발견되는 일로서 우리 성도들이 경성해 있지 않으면 그

진위(眞僞)를 분별하기 힘들다.

(8) 오늘날 자신이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재림주라고 하는 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의 오심이 오직 하나님의 소관임을 명백히 해두고 있다(참조, 마24:42-44).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된 주장에 미혹되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4절).

8. **㉠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신 것은 어느 측면을 강조한 말인가? (11-15절)**

- ㉠** (1) 인간을 위한 자신의 대속 사역(代贖事役)을 강조한 말이다.
- (2)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기 위함이었다(참조, 마20:28). 그런데 여기서 ‘목숨’(헬, 프슈케)이란 말은 단순히 ‘육체적 현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말에는 ‘인격’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말에는 그리스도께서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시킬 것이 암시되어 있다.
- (3) 한편 하나님께서 ‘목자’이시라는 개념은 구약 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시23편은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다. 겔34:11-15에는 ‘나 주 여호와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고 예언되어 있다.
- (4) 이러한 목자 개념은 분명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이었다(참조, 겔34:23).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호칭을 자신에게로 돌리기에 주저치 않으셨던 것이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예수를 우리의 목자로 삼고(참조, 사53:6)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켜 끝내 그분의 뜻하시는 바대로 발걸음을 옮겨 가야 할 것이다(참조, 마16:24).

9. **㉠ 샅군을 절도 및 강도 그리고 목자와 비교하여 설명하라 (12, 13절).**

- ㉠** (1) ‘샅군’(헬, 미스토토스)은 절도나 강도처럼 양을 탈취해 그 생명을 해하는 자는 아니다.
- (2) 비록 품삯을 받은 대가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의 임무는 양을 돌보며 지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 샅군은 ‘목자’(헬, 포이멘)와 다를 바 없다.
- (3) 하지만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샅군은 양들을 버려 두고 자신의 안전만을 도모하여 달아나 버린다. 그러므로 양들은 쉽게 이리에게 늑탈당하고 만다.
- (4) 이처럼 샅군은 양들을 초장으로 인도하기는 하지만 참목자처럼 양들을 위하여 그 자신이 위험을 무릅쓰지는 않는다.
- (5)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 내에는 이와 같은 샅군 교역자, 샅군 교사들이 없는가? 진정으로 양들을 사랑하며 돌보는 것에 마음을 쏟기 보다는 그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유익만을 도모하는 자들이 현존하지는 않는가? 이제라도 그러한 자들은 정녕 거짓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목자의 심령을 덧입어야만 할 것이다.

10. **㉠ 그리스도께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까닭은 무엇인가? (14, 15절)**

- ㉠** (1) 그리스도께서 자기 양을 알고 양도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이다.
- (2)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말은 헬라어로 <기노스코>로서 단순히 어떠한 사실을 안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이 단어에는 친밀하며 신뢰할 만한 인격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 (3) 한편 그리스도께서 양과 자신 간의 이러한 상호 관계를 명확히 밝힐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한 상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 (4)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성부, 성자,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

이로소이다'(17:23)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같은 상호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 것이다.

- (5) 이러한 상호 관계성을 허물어뜨릴 만한 세력이라고는 이 세상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참조, 롬8:33-39). 더우기 이 상호 관계를 먼저 설정하신 예수께서는 이 관계성의 보증으로서 당신 스스로를 희생시키셨던 것이다.
- (6) 이처럼 양들을 사랑하시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시기에 앞서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15:12)는 새 계명을 주시었다. 그러므로 그의 제자된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한 것같이 먼저 내 이웃을 사랑하자(참조, 요일4:19-21).

## 11. Q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여야 할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16절)

- A (1) 이스라엘 밖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이방 교인들을 가리킨다.
- (2) '우리'(헬, 아올레)가 '교회'를 가리킨다는 사실은 이미 본장 Q 2에서 살펴보았다.
- (3)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앞서 말씀하셨던 우리(1절)를 가리켜 '이 우리'라고 하신 것은 '유대 교회'를 가리키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같은 말에서도 유대인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남다른 사랑을 엿볼 수 있다(참조, 마10:5,6).
- (4)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유대인들만을 구원하러 오신 것은 아니다. 그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이 세상에 오셨다(3:16).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 외에 아직 인도하여야 할 이방 백성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 (5) 우리는 이미 구원 얻은 자로서 '우리'(cage) 안에 거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정하시어 '우리'에 들어가 마땅한 자들 중에 아직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이 많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 안으로 인도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 (6)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남겨 놓으셨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20).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과 사랑에 빛진 자로서 누구에게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전심 전력하자(참조, 롬1:14-16).

## 12. Q 아직 우리에게 들지는 아니하였지만 결국은 한 무리를 이룰 다른 양들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16절)

- A (1) 아직 교회의 일원이 되지는 아니하였지만 결국에는 일원이 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세계 각 도처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 (2) 바로 이러한 사실을 가리켜 하나님의 예정설(豫定說)이라고 하는데 그분께서는 창세 전부터 자기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해 놓으셨다(엡1:4,5).
- (3)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려 이 세상에 오셨으며(6:38,39) 저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대속 제물로 드리셨다(마20:28; 빌2:8).
- (4) 이로써 하나님께서 미리 정해 놓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으니(롬8:30) 비록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을 보고 들으며 그를 믿은 당대의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십자가의 도'(고전1:18)를 믿기만 하면 그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 (5) 이상과 같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함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모두 다 그리스도를 주(主)로 시인하는 '하나님의 교회'(고전1:2)의 일원이 되는데 이는 하나님의 예정의 불변성에 기인한다(참조, 삼상15:29; 롬9:6-18).
- (6) 이런 사실은 우리들로 하여금 복음 전파의 무용론(無用論)을 주장시키기 보다는 그리

스도의 재림을 대망하는 우리로서 마땅히 그리고 적극성을 띠고 복음을 전파해야 할 당위성(當爲性)을 조장하기에 족하다.

13. **㉠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중요한 특색들에 대하여 살펴보라(17, 18절).**

- ㉠ (1) 첫째, 그리스도의 죽음은 전적으로 자발적인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그분께 손을 대지 못할 만큼의 능력과 힘을 그분께서는 소유하고 계셨다(참조, 7:43, 44:8:20). 그러므로 그가 친히 ‘때가 왔도다’(12:23)라고 말씀하셨을 때 에야 비로소 대적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었다(18:1-12).
- (2)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었다. 여기서 ‘권세’(헬, 엑수시아)란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자신의 결정권 내지는 행동권(行動權)을 의미한다.
- (3) 이처럼 생사(生死) 문제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유할 자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생로병사(生老病死)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이며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맞볼 수 없는 영원자이시기 때문이다.
- (4) 세째, 그리스도께서는 다시금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즉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것이면서도 또한 그 이후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신 행위였던 것이다.
- (5)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만 하시고 다시 사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는 바 모든 소망은 헛 것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맛보며 천국 생활을 누리게 된 것이다(참조, 고전15장).

14. **㉠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이란 무엇을 가리키는가? (18절)**

- ㉠ (1)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다시 얻을 수도 있는 권세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Living Bible에는 ‘계명’(commandment)이란 말이 ‘권세’(right)로 번역되어 있기도 하다.
- (2) 그런데 이러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신 ‘계명’(헬, 엔톨레이)으로 이해하고 있는 까닭은 그리스도께서 한번 죽으시고 다시금 사시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기 때문이다.
- (3) 즉 그리스도께서는 자의적으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시기는 하셨지만(참조, 마26:39)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고 보면(참조, 4:34; 6:38, 39) 죽고 다시 살 수 있는 권세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드릴 수밖에 없는 책무로 화(化)하는 셈이다.
- (4) 한편 여기서 ‘계명’을 ‘책무’(charge)로 바꿔 말한 까닭은 <엔톨레이>라는 말이 ‘계명’, ‘명령’, ‘책임’, ‘의무’ 등과 같은 다양한 말로 번역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뜻하는 바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이다.
- (5) 이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과 봉사와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였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도 예수의 삶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데 있어야 한다(참조, 마6:10).

15. **㉠ 예수께서 자신에 관해 설명을 하시자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19-21절)**

- ㉠ (1) 유대인들 중에 분쟁(紛爭)이 일어나 혹자는 예수가 귀신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고 또 다른 이는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예수가 귀신들리지 않았음을 주장했다.
- (2) 이처럼 예수의 권위 있는 메시지와 표적들 앞에서 불신의 세력은 여전히 그분을 불신할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 (3) 그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사가 모자라서 예수를 귀신들렸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주장을 했던 것이다.
- (4)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듯이 믿음은 경험과 학식과 전통적인 분위기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즉 그분의 자애롭고 자발적인 선물임이 분명하다(참조, 엡2:8).
- (5) 특별히 같은 공간에서 동일한 표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확연한 차이를 보인 것은 예수의 권위가 다양하게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 (6) 즉 예수는 어떤 자에게 있어서는 생명으로, 어떤 자에게는 심판과 멸망으로 받아들여진다(참조, 고후2:15, 16). 이와 같은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화평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검 곧 불화를 제공하시기 위함이라 하셨다(참조, 마 10:34-37).
- (7) 예수를 믿고 난 후 성도가 많은 불신자들로부터 조소를 받고 그들과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생명과 심판의 이중성을 띠고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영향력에 의해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난과 핍박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16. ㉠ '수전절'(修殿節)이란 어떠한 절기인가? (22절)

- ㉠ (1) 기슬르 월(the month of Chileu, 양력11-12월) 25일부터 시작되는 8일간의 유대 명절이다.
- (2) 이 명절은 B. C. 165년 기슬르 월 25일에 유다 마카비(Judas Maccabee)가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Antiochus Epiphanes)에 의해 더럽혀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봉헌식을 가진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다(참조, 마카비상4:53).
- (3)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는 작은 병에 깨끗한 기름을 담아 불을 밝히는 의식이 거행되었으므로 이 절기를 '빛의 축일'(the Feast of Lights)이라고도 한다.
- (4) 한편 오늘날 유대인들간에서는 이 '수전절'(the Feast of Dedication)이 '하누카'(Hanukkah)라는 명칭으로 불리어지고 있다.

17. ㉠ 솔로몬 행각이란 어떠한 곳인가? (23절)

- ㉠ (1) '솔로몬 행각'(Solomon's Porch)은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 유개 주랑(有蓋柱廊)이다. 이 행각은 일명 '솔로몬의 현관'(Portico of Solomon)으로도 불리우는데 기드론 계곡 위에 축성된 거대한 헤롯 성벽과 접하고 있다.
- (2) 그런데 이 행각이 '솔로몬 행각'으로 불리우게 된 연유는 솔로몬이 이와 유사한 회랑을 건축한 적이 있었다는 전승 때문이다.
- (3) 이곳에는 넓은 보도가 길게 뻗어 있었을 뿐 아니라 여러 개의 대리석 기둥 위에 지붕이 덮혀져 있었으므로 햇볕을 피하거나 비를 피하는 곳으로 사용되었다.
- (4) 그러므로 이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곳을 거니시며 사람들과 이야기하셨고, 훗날에는 그의 제자들도 이곳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다(참조, 행5:12).
- (5) 한편 이곳의 정확한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8장 ㉠ 10에 나오는 그림을 참조하라.

18. ㉠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고서 행한 유대인들의 질문에 나타난 저들의 심적 상태를 살펴보라 (24절).

- ㉠ (1) 우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에워쌌다는 말에서 우리는 즉각적이고도 분명한 대답을 요구할 정도로 촉급해 있는 그들의 심경을 읽을 수 있다.
- (2) 다음으로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케 하려나이까'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자로 단정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서 고심해 하는 그들의 심경

을 읽을 수 있다.

- (3)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표적이 인간의 능력이 아닌 그 이상의 능력이라는 사실과 그의 가르침은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이 지닌 권위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권위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하였다(7:14, 15, 46; 9:16).
- (4) 그러나 그들의 판단 기준, 즉 그들의 메시아관에 입각해 볼 때 그리스도께서 취하고 계시는 행동은 메시아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으니 바로 여기에 의문점이 있었던 것이다(참조, 6장 ㉔ 8).
- (5)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라는 요청에서 우리는 앞으로 그들이 취하려 하는 행동 양태를 간파해 낼 수 있다.
- (6) 즉 그들은 만약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임을 인정한다면 그분께 유대 국가의 독립을 성취시켜 달라고 요구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은 또 다른 메시아를 고대할 것이었다(참조, 마11:3).
- (7) 이처럼 불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진리를 믿으려는 자세보다도 어떻게 하면 그 진리를 무너뜨릴까 하는 악한 꾀만을 생각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우리가 접하는 세상은 분명 불신자들이 그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들의 진리에 대한 왜곡된 태도를 간파하고 날마다 진리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참조, 11:16, 17).

19. ㉔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25-28절)

- ㉔ (1) 그리스도께서는 이전에 자신이 하신 말씀(4:25, 26; 5:17; 6:27; 8:58)과 행한 일만으로도 그가 메시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 (2) 여기서 ‘일’이란 헬라어로 <에르가>인데 이는 곧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표적(행, 세메이온)을 의미한다.
- (3)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도 명백한 증거들을 듣고 보았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나를 따르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 (4) 이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기준은 혈통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 (5)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를 따르며, 그에게 충성하는 자는 다 그의 양이 되는 것이다. 한편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그의 양이 된 자에게 영생을 보장해 주신다.
- (6) 이런 사실을 간파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1:18)고 설교하였다. 구원 문제는 분명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의 비밀이다(참조, 엡1:9, 10).

20. ㉔ 29절과 관련된 사본상의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라.

- ㉔ (1) 본절 상반절과 관련하여 한글 개역 성경의 난하주(欄下註)에는 ‘어떤 사본에,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만물보다 크매’라는 주(註)가 달려 있다.
- (2) 본절 상반절이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본으로는 B. C. 5-4세기경의 ‘바티칸 사본’을 들 수 있다. 즉 거기에는 이 부분이 <호 데도켄 모이 판톤 메이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하반절과 연결지워 번역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은 무엇보다도 크니 아무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는 말이 된다.
- (3) 그런데 이 같은 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나타난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 양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가 분명치 않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 주신 것이 양이라면 ‘양이 무엇보다도 크다(위대하다)’는 말은 무슨 뜻

인가?

- (4) 이처럼 바티칸 사본의 기록은 전후 문맥 관계상 그 의미 전달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절을 한글 개역 성경의 기록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한편 한글 개역 성경과 같은 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본으로는 ‘풀피리안 사본’이 있다.

21. **㉠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돌로 쳐려 한 이유는 무엇인가? (30-33절)**

- ㉠** (1)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기 때문이다.
- (2) 유대인들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자를 돌로 쳐서 사형한다(참조, 신 13:10; 22:21, 24).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알기로는 한낱 인간에 불과한 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 여긴 것은 돌로 쳐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불경죄(不敬罪)를 범한 것이었다.
- (3) 즉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그리스도의 언행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와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출20:7)고 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행위였던 것이다.
- (4)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었다 라면 이와 같이 그분을 정죄치 않았을 것이니 실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 (5)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러한 영적 무지로 인하여 결국 그리스도를 죽음에까지 내주고 말았으니(19:1-16) 저들의 중국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능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 (6) 이와 같이 영적인 무지는 자신을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기에 족하다. 이런 무지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참빛 곧 세상에 오셔서 진리를 전하신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참조, 1:4, 12, 13).

22. **㉠ 불경죄를 지었다는 명목으로 그리스도를 죽이려 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자기를 변호하셨는가? (34-38절)**

- ㉠** (1)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즉 제사장들도 신(神)이라 불림을 받았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인 그리스도 자신이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지 못하겠느냐고 반문하셨다.
- (2) 즉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도 다시 한번 자신이 임의(任意)로 온 거짓 선지자나 거짓 메시아(8절)가 아닌 하나님께서로부터 보냄을 받아 온 참 메시아야임을 주장하신 것이다(참조, 6:38, 39, 57).
- (3) 둘째로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하여서는 믿지 못할지라도 자신이 행하는 하나님의 일만큼은 믿고 그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됨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다.
- (4) 여기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은 곧 자신의 신성(神性)을 드러냄으로써 그것을 보는 못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됨을 믿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참조, 11:39-48).
- (5)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분이 곧 하나님 그 자체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믿어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다(참조, 빌2:5-11; 요일 1:1-3). 그러므로 단순히 표적과 기사만을 좇아가려는 종교 생활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알아 우리는 항상 이적 뒤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준비하여야 한다.

23. **㉠ 34절에서 말하는 ‘울법’이란 어느 성경 귀절을 가리키는가?**

- ㉠** (1) 시 82:6을 가리킨다.
- (2) 이제 그 귀절을 그대로 옮겨 볼 것 같으면 다음과 같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 (3)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내’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시 82편의 저자인 아삽(Asaph)을 가리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 (4) 어떠한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신’으로 불리움을 받았던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중요시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성경은 영원히 폐하여질 수 없다는 것(참조, 마5:18)을 강조하셨다.
- (5) 한편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신’이라 불리울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던 듯하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신’이라는 말은 ‘신의 대리자’, 즉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6)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칭함 받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성도들을 가리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벧전2:9)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 (7)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본질이 단순히 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할 사명을 가진 자라는 자의식(自意識)을 소유하고 자신감과 경건한 생활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참조, 창12:1-3).

24. **㉠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마친 후 예수께서 가신 곳은 어디인가? (40-42절)**

- ㉠** (1) ‘요단 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이다.
- (2) 이를 좀더 자세히 밝히자면 베레아(Perea) 지방의 베다니(Bethany)이다(1:28).
- (3) 이곳은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던 곳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곳이기도 하다.
- (4)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이곳으로 오신 까닭은 유대인들이 그를 잡으려 하는 음모로부터 벗어나시기 위함이었다(39절).
- (5) 사실 당시의 베레아는 헤롯 안티파스(Herod Antipas, B. C. 4-A. D. 39)가 통치하던 지역이었으므로(참조, 눅3:1-3) 본디오 빌라도(Pontius Pilate, A. D. 26-36)의 지배하에 있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베레아 지방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력도 행사하지 못했다.
- (6)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 계시는 동안 만큼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비교적 안전한 생활을 하셨을 것이다.
- (7) 특별히 그곳에서는 약 3년 전 요한에 의하여 복음을 접한 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곳을 들리시자 그들은 요한의 증거를 확증할 수 있었으므로 곧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 (8) 이처럼 예수는 가는 곳마다 당신의 생명력을 못 심령에게 전파하였으며, 확신과 기쁨을 제공하기까지 하셨다. 이러한 사실로써 우리는 간혹 사람들로부터 배척받기도 하지만 결코 복음 자체가 사라지고 상처 입는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된다.
- (9) 예수와 그분의 메시지는 이 세상 끝까지, 아니 영원히 존재할 것이며 그것을 믿는 자들 역시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참조, 벧전1:3-5, 23-25).

본장의 요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9절).

# 제 11 장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 예수 그리스도

단락구분 1-4 나사로가 병이 들다 / 5-10 유대로 가시려는 그리스도 / 11-16 나사로가 이미 죽었음을 밝히시다 / 17-27 그리스도와 마르다의 대화 / 28-34 그리스도와 마리아의 대화 / 35-37 죽은 나사로와 관계된 유대인들의 반응 / 38-44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다 / 45-46 표적의 결과 / 47-53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종교 지도자들 / 54-57 은거(隱居)하시는 그리스도

1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2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러라

3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4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5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6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를을 더 유하시고

7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8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니까

9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 두 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10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11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려 가노라

12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낮겠나이다 하더라

13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14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5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16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17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지 이미 나흘이라

18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19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20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21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23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24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25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니라

27 가로되 주여 그러하되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28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29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30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맞던 곳에 그져 계시더라

31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꼭꼭 숨어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32 마리아가 예수 계시던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아래 엎드리어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33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34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6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37 그중 어떤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38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39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홀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41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들리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3 이 말씀을 하시고 큰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45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믿었으나

46 그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47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48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49 그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50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51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흠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53 이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54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여기를 떠나 빈 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리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유하시니라

55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56 저희가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저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57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

1. **㉠ 본장에 기록된 표적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라.**

- ㉠** (1) 본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금 살리신 표적이 기록되어 있다(43, 44절). 이 같은 표적은 참으로 본서의 정점(頂點)을 이루는 표적 중의 하나이다.
- (2) 이 표적은 본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8대 표적(43, 44절; 2:9; 4:53; 5:8; 6:10, 19; 9:6; 21:6) 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행하신 마지막 표적이다.
- (3) 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이 표적은 그리스도에게 죽음을 이기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좋은 증거이기도 하다.
- (4) 그러므로 이것은 앞으로 그리스도 자신이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할 것을 미리 암시해 주는 예고편이라고도 할 수 있다.
- (5) 더구나 이 표적은 그리스도의 원수들로 하여금 그를 잡아 죽이려 하는 일을 더욱 촉진시키게 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사실 이 일 이후 모든 사건은 그리스도의 죽음 및 부활이라는 종국으로 거침없이 치닫게 된다.

2. **㉠**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란 어디를 가리키는가? (1절)

- ㉠** (1)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베다니이다(참조, 1장 ㉠ 16). 그런데 본서의 저자가 이를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로 칭하고 있는 까닭은 앞장에 나오는 베레아 지방의 베다니와 구분하기 위함이다(참조, 10장 ㉠ 24).
- (2)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남동쪽 약 2-3km 지점에 있는 마을로서(18절) 예리고(Jericho)로 향하는 길이 있는 감람산 옆에 위치하고 있다.
- (3)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에 있는 동안에 대개 이곳 베다니에 거처를 정하고 지내신 듯하다(참조, 마21:17; 막11:11). 뿐만 아니라 누가(Luke)의 기록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곳도 이곳 부근이었음을 알 수 있다(눅24:50, 51).
- (4) 오늘날도 이곳에는 사람들이 정착하여 살고 있는데 마을 이름은 ‘엘 아지리예’(el-Aziriyeh), 즉 ‘나사로의 마을’로 알려져 있다.

3. **㉠**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2,3절)

- ㉠** (1) 예수 그리스도와 두터운 교분(交分)을 가진 자들이었을 뿐 아니라 그의 사랑을 받았던 자들이다(참조, 5절).
- (2) 그리스도께서는 종종 저들의 집에 초대되어 대접을 받으셨다(12:1, 2; 눅10:38-41).
- (3) 특히 그리스도에 대한 마리아(Mary)의 섬김은 극진하였는데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의 머리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어 줄 정도였다(참조, 12:3; 마26:6-12; 막14:3-9).
- (4) 한편 ‘나사로’(Lazarus)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인데 이는 <엘르아잘>이라는 히브리어가 축약된 것이다. 이 나사로는 눅16:19-31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는 동명 이인(同名異人)이다.
- (5) 이와 같이 예수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고독한 삶이라 하겠으나 간혹 그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평안과 안식을 제공한 헌신적인 인물들이 있었다. 목회자와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헌신과 소명만을 강조하고 인간적인 사랑과 동역 의식을 제공해주지 못하는 오늘날의 한국 교회 현실에 이 같은 사실은 좋은 귀감이 된다(참조, 갈6:6).

4. **㉠**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와 그의 누이를 사랑한 것은 어떠한 사랑인가? (3,5절)

- ㉠** (1) 개인적인 교분에 의한 우애(友愛)였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
- (2)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3절의 ‘사랑하시는 자’(헬, 혼 필레이스)란 말과 5절의 ‘사랑하시더니’(헬, 에가파)라는 말을 통하여 알 수 있다.
- (3) 왜냐하면 <필레이스>의 원형인 <필레오>는 ‘친구간의 우정’이나 ‘개인적인 우정’을 뜻할 때 사용되는 동사이며 <아가파오>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할 때 사용되는 동사이기 때문이다.
- (4)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은 이와 같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두 동사는 사복음서에서 서로 교체하여 사용되고 있을 때가 많았다는 점이다(참조, 12:25; 15:19; 21:5; 막10:21; 눅6:32).
- (5) 이처럼 예수께서는 어떤 목적이나 조건 그리고 가능성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지 않고 그들을 순수하고 완전하게 사랑하셨던 것이다(참조, 13:1). 이는 자신의 이익과 결부된 자만을 사랑하고 교체하는 불건전한 현대의 윤리관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우리도 예수처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이 마땅하다(참조, 마22:36-40).

5. **㉠** 나사르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 (4-7절)

- ㉠** (1) 그 같은 소식을 들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우선 나사르가 걸린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이 영광을 받도록 하는 병이라고 밝히셨다.

- (2) 이러한 말에서 우리는 지난번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와 관련지워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그 자신이나 부모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9:3)고 말씀하셨던 것을 생각해 된다.
- (3) 그런데 그 같은 사실을 밝히신 그리스도께서는 곧바로 나사로의 집으로 가지지 않고 시고 계시던 곳인 배레아 지방(참조, 10:40)에서 이튿을 더 머무시었다.
- (4) 이러한 그리스도의 행동은 아이로(Jairus)의 딸(눅8:40-42, 49-56)이나 나인(Nain) 성 과부의 아들(눅7:11-16)을 즉각적으로 살려 주셨던 것과는 꺾이나 대조적이다.
- (5)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이튿간이나 행동을 지연하신 까닭은 아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때를 기다리시기 위함이기도 하였지만(참조, 2:4)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을 연단시키시기 위함이기도 하였을 것이다(참조, 21-27 절).
- (6) 한편 이와 같은 식의 연단은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허락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는 것 같더라도 그분이 반드시 적절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의 자세를 견지하여야겠다.

6. **㉠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낮’과 ‘밤’ 그리고 ‘빛’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라(9, 10 절).**

- ㉡** (1) 이 같은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앞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9:5)는 말씀과 ‘때가 아직 낮이때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9:4)는 말씀을 기억하여야 한다.
- (2) 그리고 그러한 말에서 ‘낮’은 그리스도 자신이 이 세상에 계시는 때를 의미하며 ‘밤’은 그 반대의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참조, 9장 **㉠** 3).
- (3) 따라서 이 같은 의미를 염두에 둔다면 본절에서 말하는 ‘낮’과 ‘밤’ 그리고 ‘빛’의 의미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즉 ‘사람이 낮에 다니면 태양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한다’는 말에서 우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품안에 거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빛이 되므로 멸망치 않게 된다’는 내적인 의미를 간파해 낼 수 있는 것이다(참조, 8:12).
- (5) 또한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한다’는 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빛되신 그리스도를 영접치 않는 자이므로 결국은 멸망케 된다’는 의미를 읽어 낼 수 있다(참조, 3:18-21).
- (6) 쾌락과 추악한 일들로 깊은 어둠을 맞은 오늘날, 세상에 시각을 고정시키고 살아가면 반드시 실족하게 마련이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이 그 효용성을 지니듯이 영적, 도덕적 밤이 깊을수록 우리는 빛되신 예수께 삶을 맡기고 그분의 지도하심에 자신을 의탁하자(참조, 롬13:12-14).

7. **㉠ ‘낮이 열 두 시’란 말은 무슨 뜻인가? (9 절)**

- ㉡** (1) 이 말은 현재 시간이 열 두 시, 즉 정오이거나 아니면 오후 6시라는 뜻이 아니다(참조, 4장 **㉠** 7).
- (2) 헬라어로 <우키 도데카 에이신 호라이 테스 헤메라스>인 이 말의 뜻은 ‘낮은 열 두 시간이나 되지 않느냐?’(공동 번역)이다.
- (3) 사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해가 뜨는 새벽을 기점으로 하여 해가 지는 저녁까지의 시간을 12시간으로 규정하여 그 시간들을 낮으로 삼았었다.
- (4)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유대로 다시 가려고 하시는 것을 그의 제자들이 만류하자 ‘낮이 열 두 시가 아니냐’라고 반문하신 점으로 보아 우리는 이 말속에 ‘내가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라'는 역설적인 암시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참조, 7:30).

- (5) 이 말씀은 결국 당신의 제자들의 두려움(8절)을 말끔히 해소하는 것으로서 당신은 앞날을 모두 알고 계시는 전지(全知)하신 분일 뿐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심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주는 말씀이다.
- (6) 이처럼 예수께서는 두려움과 절망에 처한 당신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속성을 계시하시으로써 그들에게 용기와 삶의 의미를 제공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그분의 어퍼하심을(존재에 대한 확인) 알아가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참조, 호 6:3).

## 8. **㉠** 그리스도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어떠한 상태로 이해하셨는가? (11-14절)

- ㉠** (1) 잠이 든 상태로 이해하셨다.
- (2)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잠들다'(헬, 코이마오)라는 말은 '죽음'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 (3) 따라서 죽은 나사로를 '잠든 자'로 비유하시고 '그를 깨우러 가겠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우리는 '부활 사상'을 엿볼 수 있다.
- (4) 사람들의 육체적인 죽음은 그것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종국(終局)이 아니다. 죽음은 최후의 심판을 앞두고서 일시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수면 상태이다.
- (5) 이것은 물론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연옥(煉獄)에서의 대기 상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비록 육체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는 죽은 상태(잠자는 상태)인지 모르지만 그 영혼,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의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 것이다(참조, 고후 5:8; 빌 1:21-23).
- (6) 한편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죽은 성도들 뿐 아니라 죽은 악인들까지도 부활하게 되며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에 의해 성도들은 영생에, 악인들은 영벌(永罰)에 처하게 된다(고전 15:51-53; 계 20:11-15).
- (7)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한 잠을 자기 전에 항상 영원한 세계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게 될 것인가를 기대하며 자신을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9. **㉠**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잠'의 의미를 제자들은 어떤 것으로 오해하였는가? (12, 13절)

- ㉠** (1)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의 '잠'인 것으로 오해하였다.
- (2) 그러기에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라고 그들의 소감을 피력하였다.
- (3) 왜냐하면 중한 병에 걸린 환자들이 겪는 고통 중의 하나가 '잠'을 못 이루는 것인데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것은 곧 병에 차도(差度)를 보이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 (4) 이처럼 제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잠'의 의미를 오해하게 된 데에는 앞서 그분께서 나사로가 걸린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것(4절)에서도 크게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 (5) 즉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는 나사로의 죽음이 단순히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죽음에서 되살아나 하나님과 그리스도 자신으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는 것임을 뜻하는데 반해 제자들은 그 말의 뜻을 '이 병으로는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으로 오해하였을 소지가 있다.
- (6) 이처럼 우리는 주의 말씀을 단순히 문자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려 들 때 그분의 뜻하시는 바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는 항상 자신의 판단력보다 성령께서 조명(illumination)하시는 대로 그 말씀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14:26; 벧후 1:20, 21).

10. **㉠** 죽은 나사로가 있는 곳에 계시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5절)

- ㉠** (1) 그의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기뻐하셨다.  
 (2) 만일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었다면 그분께서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죽석에서 그 병을 고쳐 주셨을 것이다.  
 (3) 그렇게 되면 당사자인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은 큰 기쁨과 함께 위안을 얻었을 것이지만 저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 및 부활에 대한 신앙(참조, 21-27절)을 더욱더 돈독히 할 수 있는 계기는 얻지 못하였을 것이다.  
 (4)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나사로가 죽은 곳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셨던 것이다.  
 (5) 이같이 제자들과는 완전한 관점의 차이를 가지신 예수께서는 혼자 기뻐하실 수 있었다. 인간의 조급한 눈은 하나님의 포괄적이고 완전하신 계획을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날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시 119:18)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다.

11. **㉠** 도마는 어떠한 자인가? (16절)

- ㉠** (1) ‘도마’(Thomas)라는 히브리식 이름은 ‘디두모’(Didymus)라는 헬라식 이름과 함께 ‘쌍둥이’(twin)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2) 초대 기독교 시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동방 교회의 전승(傳承)에 의하면 이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와 쌍둥이 형제였다고 하는데(참조, 신앙 외경 도마 행전[Acts of Thomas])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설’과 대치되는 견해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본질에는 도마의 성격의 일면이 잘 나타나 있는데 그는 강직한 자였던 것 같다. 즉 그리스도께서 유대교로 가려 하시자 모든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돌로 쳐죽이려 할 것이라고 꺼려 하였으나(7, 8절) 도마만은 낙관적인 태도와 강한 충성심을 보이며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였던 것이다.  
 (4) 또한 그는 자신이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일도 믿지 않는 실증주의적(實證主義的) 성격을 지닌 자였다. 그러기에 그는 다른 제자들이 전하는 그리스도 부활의 소식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그분의 몸에 난 상처를 만져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다(20: 24, 25).  
 (5)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뵈고서는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니이다’(20: 28)라고 고백하였다.  
 (6) 한편 그의 최후 행적에 대하여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유세비우스(Eusebius)의 기록에 의하면 그는 바대(Parthia)에 가서 전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도마행전에 의하면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되어 있다.

12. **㉠** 그리스도께서 나사로의 집에 도착한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며칠째였는가? (17절)

- ㉠** (1)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째였다.  
 (2) 이 같은 기간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3)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약 2-3km이다(참조, 18절).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베레아 지방의 베다니까지 거리는 약 35km이다. 그러므로 베다니에서 베다니까지 여행하는 데는 하루가 소요되는 셈이다.  
 (4)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전갈을 가지고 심부름꾼이 그리스도께로 오기까지는 하루가 소요되었는데 심부름꾼이 출발한 지 얼마 안 되어 나사로는 죽었을 것이다(참조, 11절).

- (5) 그런데 전갈을 전해 받은 그리스도께서는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6절).
- (6) 그 후 그리스도께서 그곳을 떠나 나사로의 집으로 오시기까지는 역시 하루가 소요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도합 4일,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라는 기간이 성립된다.
- (7) 한편 유대인들은 시체를 떠난 영이 3일간 무덤 주변을 떠돌아다닌다고 간주하며 이 3일간을 애곡의 날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4일이 되면 시체가 썩기 시작하고 영은 무덤을 떠난다고 생각했다.
- (8) 이처럼 요한이 특별히 나사로의 죽은 날짜를 지적한 것은 나사로가 완전히 회생할 수조차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절망의 늪에서 건져 내신 예수의 크신 능력을 대비하기 위해서라 할 수 있다. 예수는 어떤 세력이 방해한다 하더라도 당신의 주권을 행사하신다. 이것을 믿는 자는 영생에 거할 것이다(참조, 롬 8:33-39).

13. **㉠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태도는 어떠한가? (20절)**

- ㉠** (1) 마르다는 즉시 집 밖으로 나가 그리스도를 맞이하였으나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 (2) 이러한 태도에서 우리는 마르다가 활동적인 여성인 반면, 마리아는 조용하고도 내성적인 성격을 지닌 여성임을 알 수 있다.
- (3) 이와 같은 두 여성의 성품은 눅10:38-42에 나타난 이들에 관한 묘사와도 일치한다. 즉 그리스도를 자신의 집으로 영접한 마르다는 식사 준비를 하느라고 분주하였지만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기에 여념이 없었던 것이다.
- (4)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두 성품을 공유한 자들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음에 있어서는 마리아와 같은 면이 필요하며 그 말씀을 좇아 행함에 있어서는 마르다와 같은 활동적인 면이 요청되기 때문이다(참조, 약1:22-25).

14. **㉠ 나사로가 죽은 후에야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오시자 마르다는 어떠한 심적 반응을 보였는가? (21, 22절)**

- ㉠** (1) 원망과 아울러 기대감을 보였다.
- (2) 즉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는 그녀의 말에는 그녀가 그리스도께 나사로가 병들어 있음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곧장 오시지 않았던 것에 실망한 나머지 이를 원망하는 감정이 담겨 있는 것이다.
- (3) 하지만 그녀는 원망의 감정만으로 그리스도를 대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라고 고백함으로써 그리스도께 대한 기대감과 믿음을 잃지 않았다.
- (4) 이러한 기대감과 믿음은 나사로가 병든 소식을 전한 심부름군에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4절)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녀 자신이 심부름군으로부터 전해 듣고서 이를 기억하였기 때문에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 (5) 한편 우리들도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마르다가 품었던 것과 같은 원망의 감정을 가질 때가 있다. 즉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해주셨으면 좋을 터인데'라는 감정을 품을 때가 있는 것이다.
- (6) 그러나 우리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사55:8, 9)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분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사실을 굳게 믿자.

15. **㉠ 마르다가 갖고 있었던 부활관(復活觀)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23, 24절)**

- ㉠** (1) 그녀의 부활관은 미래적인 것이었다.
- (2) 마르다의 원망 섞인 말과 기대감이 들어 있는 말을 들은 그리스도께서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고 하셨다. 그러자 마르다는 그 말을 미래에 있을 일반적인 부활을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라고 대답하였다.

- (3) 즉 그리스도께서는 일전에 자신이 나인 성 과부의 아들(눅7:11-17)과 회당장 야이로(Jairus)의 딸(눅8:49-56)을 살리셨듯이 지금도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이를 관례적인 위안의 말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 (4) 여기서 우리는 방금까지도 마르다가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라고 고백하였으면서도 실제적인 믿음을 갖지 못한 채 관념적이고도 교리적인 믿음만을 가진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 (5) 그리고 우리는 마르다의 대답에서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던 바 '마지막 날에 있을 의인의 부활 교리'(행23:8)가 이미 당시의 일반인들 사이에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었음도 알 수 있다.
- (6) 이상과 같이 우리들도 간혹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과 자신의 삶에서 발견되는 행위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은 믿은 바를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다(참조, 약2:26).

16. **㉠** 그리스도께서는 마르다의 관념적인 신앙을 실제적인 신앙으로 바꿔 주시기 위하여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25-27절)

- ㉠** (1) 첫째, 그리스도 자신이 '부활이자 생명'임을 밝히셨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먼저 강조하신 것은 부활 자체가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 (2) 둘째, 자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임을 밝히셨다. 이 같은 영생은 그리스도 자신이 죽음을 정복하시고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케 된 것이다(벧전1:3).
- (3)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는 마르다에게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물으셨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네가 아느냐'라고 하지 않으시고 '네가 믿느냐'라고 하신 것은 마르다에게 실제적인 믿음을 촉구하시기 위함이었다. 왜냐하면 이론적인 지식은 인간의 전인격을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 (4) 그러나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지식적인 신앙의 단계에서 한 단계 뛰어넘은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면모를 보여 주었다.
- (5) 이처럼 예수께서는 어린 신앙을 소유했던 마르다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녀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깨우치셨을 뿐 아니라 마침내 그녀의 입술에서 당신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셨다. 이는 오늘날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는 자 뿐 아니라 모든 교육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좋은 귀감이 된다(참조, 롬 14:1-3).

17. **㉠**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25, 26절)

- ㉠** (1) 이 말의 뜻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 (2) 즉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표현은 미래에 있을 성도들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강조한 말이며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성도들에게 약속된 '영생'을 강조한 말이라는 것이 첫번째 해석이다.
- (3) 그리고 두번째 해석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말의 의미에 있어서 첫번째 해석과 동일하게 '성도들의 부활'로 보지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살아 있는 성도들이 쫓겨 될 '휴거'(擄擧, 살전 15:17)로 본다.
- (4)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본절과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재림을 염두에 두고 제셨는지의 여

부와 또한 마르다가 이 말을 재림과 관련하여 이해했었는지의 여부가 확실치 않다.

- (5) 오히려 본질은 부활이자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점(25절)에 연이어 그를 믿는 자가 받게 될 영생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 (6) 그러므로 본질의 의미는 첫번째 해석이 밝히고 있는 바에 가까울다고 하겠다.
- (7)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 신앙'은 우리가 믿는 것의 요체(要諦)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영생도 구원도 모두 무의미하기 때문이다(참조, 고전 15:19).

#### 18. ㉠ 마르다의 신앙 고백에 대하여 살펴보라(27절).

- ㉠ (1) 첫째,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Christ), 즉 메시아(Messiah)이심을 고백하였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식 이름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식 이름이지만 모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으로서 '구세주'(救世主)를 가리킨다.
- (2) 둘째,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기다려 왔던 분, 즉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신 자이심을 고백하였다.
- (3) 이 점은 구약 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바인데 특히 선지자 이사야는 훗날 구속자(救贖者)가 시온(Zion)을 위해 올 것이라고 예언하였다(사59:20).
- (4) 셋째,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였다. 이 점에 대하여서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누차 강조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전혀 믿으려 하지 않았었다(5:17, 18; 8:16-20, 54-59; 10:30, 31).
- (5) 그런데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 마르다의 신앙 고백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마 16:16)과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1:49)을 떠올릴 수 있다.
- (6)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상과 같은 고백을 '내가 믿나이다'라는 말로 확언함으로써 더 이상 지식적인 신앙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차원으로 도약하였다. 이러한 신앙은 모든 성도가 마땅히 견지(堅持)하여야 할 바이니 우리는 항상 지식으로써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외식을 경계하자.

#### 19. ㉠ 예수 그리스도께 한 마리아의 첫번째 인사말은 무엇이었는가? (32절)

- ㉠ (1)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는 말이었다.
- (2) 사실 이러한 말은 마르다가 하였던 말(21절)과 별 차이가 없다. 다만 헬라어 본문상에 나타난 차이점이라고는 마르다의 말에선 '나의'(헬, 무)라는 말이 '오라비'라는 말 뒤에 가 있는 반면, 마리아의 말에선 '내 오라비'(헬, 무 호 아텔포스)라는 말이 문장 순서상 강조되어 있을 뿐이다.
- (3) 따라서 비록 마리아가 그리스도께 나아가 발 앞에 엎드림으로써 그에 대한 경외의 표는 하였지만 그녀 역시 마르다와 마찬가지로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에만 집착하여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눅7:11-17; 8:49-56)은 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 (4) 이처럼 인간은 자신에게 뜻밖의 재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곧잘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와 능력을 잊어버린 채 낙망하기 쉽다. 그러나 형 에서(Esau)의 낫을 피해 밧단아람으로 달아나던 이삭(Isaac)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보증(창28:15)은 모든 성도들에게도 약속된 것이니 우리들은 환난 중에라도 낙심치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자(롬12:12).

#### 20. ㉠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눈물을 흘리시며 애퐁해 하신 경우를 찾아 보라(35절).

- ㉠ (1) 첫번째 경우는 본질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나사로의 죽음을 동정하여 눈물을 흘리신 것이다.

- (2) 여기서 ‘눈물을 흘리다’(헬, 에다크루센)는 맑은 눈물을 흘리며 나지막히 우시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큰소리를 내며 꾸며서 우는 유대인들의 울음(헬, 클라이온타스, 33절)과는 다른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인정미(人情味)를 잘 드러내 주는 것이다.
- (3) 두번째 경우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서 큰소리를 내어 우신(헬, 에클라우센) 것이다(눅19:41).
- (4) 이러한 울음은 A. D. 70년에 있을 로마 황제 디도(Titus)의 예루살렘 함락 사건을 예견하시고서 우신 울음으로서 유대인이셨던 그리스도의 충정심(忠情心)과 아울러 당신의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셨던 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 (5) 세번째 경우는 그리스도께서 겐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되(마26:36-39)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던’(히5:7) 것이다.
- (6) 여기서 통곡하며(헬, 크라우게스)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처절한 울부짖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 하는 그리스도의 절연한 자세와 인간적인 고뇌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 (7) 이와 같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께서는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롬12:15) 참사랑의 모범을 보여 주셨다. 이러한 모범은 형제의 고통을 나누지 못하는 삭막한 오늘의 우리들에게 눈물의 의미를 재천명해 주고 있다.

**21. C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르다에게 무덤의 돌을 옮기도록 명하신 내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39, 40절)**

- A (1) 마르다의 신앙을 최종적으로 완전케 하시기 위함이다.
- (2)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영생의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처음에 마르다는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로 알고 있는 관념적인 신앙을 나타내었다(24절).
- (3)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거듭 그에 관하여 교훈하시자 그녀는 한 단계 도약된 신앙 자세를 보여 주었다(27절).
- (4)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완전히 성숙된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 믿고 결단하며 행할 수 있는 의지력이 결합된 지(知)·신(信)·의(意) 삼위 일체의 신앙이라야 완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 (5) 즉 그리스도께서 마르다에게 나사로의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치우라고 명하신 것은 자신이 나사로를 다시금 살려 주실 것을 믿고 기꺼이 그 명령에 따르는 의지력과 결단을 촉구하신 행위이다.
- (6) 그런데 마르다는 이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 임하여서 다시금 주저거림과 아울러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려 하였으니 이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녀가 했던 신앙 교백을 상기시켜 줌으로써 마침내 돌을 옮겨 놓는 의지적인 신앙을 낳게 하였다(40, 41절).
- (7)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과감한 용단을 내려야 할 순간은 험난한 신앙 생활의 노정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가끔씩은 닥칠 것이다. 이러한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참된 용기와 지혜를 잃지 않음으로써 보다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자.

**22. C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 까닭은 무엇인가? (41, 42절)**

- A (1)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 즉 기도와 간구를 이미 들어주셨기 때문이며 또한 나사로가 다시 사는 것이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 받은 자임을 믿게 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 (2) 그런데 본장에는 그리스도께서 언제 어떻게 나사로를 살려 달라고 기도하였는지 전혀 언급이 없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자신의 말을 들으셨다는 것은 나사로가 다시

금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이미 알고 계셨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 (3) 왜냐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참된 믿음은 항상 태산을 옮기우는 결과를 동반하기 때문이다(마17:20; 눅17:6). 그러므로 나사로가 다시금 살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감사해야 할 기정 사실이다.
- (4) 이러한 자세는 우리 모두에게도 요구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있으면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자'(빌4:6).
- (5) 특별히 예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이적을 베푸시는 것은 결국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무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밝히셨다.
- (6)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최종적인 목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당신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참조, 6:40; 요일5:11, 12).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이적과 기사가 눈앞에 전개된다 하더라도 그 이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그 이적의 배후에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 23. ㉠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나자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하였는가? (45, 46절)

- (A) (1) 그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에 근거하여 그를 믿는 무리들이 새로 일어난 것이며,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려 주려고 한 자들이 나타난 것이다.
- (2) 이처럼 이적의 결과가 상반된 결과를 가져온 것은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표적이나 교훈을 행하실 때마다 유대인들은 항상 믿고 따르는 것과 배척하며 박해하는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다(6:60-69; 7:12, 31-52; 8:35-41; 10:19-21).
- (3) 이와 같은 현상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고 있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까닭은 하나님께 속한 빛의 아들(살전5:5)과 사단에 속한 어두움의 자식(엡5:8)이 세상에 공존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4)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증거하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박대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환난을 이겨나가도록 하자(16:33).

### 24. ㉠ 공회(公會)로 모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인가? (48절)

- (A) (1)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본 군중들이 그를 증심하여 소요(騷擾)를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고, 둘째는 그렇게 되면 혁명을 염려한 나머지 로마인들이 유대 땅에 들어와 유대인 자치 체제를 해체시키고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 (2)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염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표적의 동기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기우(杞憂)에 불과하다.
- (3)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스스로 왕이 되실 것을 거부함으로써 로마에 반란을 일으키는 일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 주셨다(6:15).
- (4)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가이사(Caesar)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정당하다고 묻는 바리새인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답하셨었다(마22:17-21).
- (5)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정치적 야망이나 물욕(物慾)이 그들의 영안(靈眼)을 가리웠기 때문일 것이다.
- (6) 이와 유사한 실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범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고수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우도록 애쓰며 힘쓰자(참조, 딤후전3:9).

## 25. ㉠ 가야바는 어떠한 인물인가? (49절)

- ㉠ (1) 본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가야바(Caiaphas)는 ‘그 해’, 즉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던 해에 유대인들의 대제사장으로 있던 자이다.
- (2) 그는 안나스(Annas)의 사위로서(18:13)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에 관여하였으며(마 26:57-68) 예수 한 사람이 죽음으로써 모든 백성이 로마인들의 압제를 면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공언한 자이기도 하다(50절).
- (3) 안나스는 A. D. 7-14년에 대제사장직을 역임한 후 그의 아들들에게 직분을 계승하였고 18년부터 가야바가 위를 계승하여 36년까지 재임하였다.
- (4) 가야바에 대한 또 다른 기록으로는 행 4:6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심문하였던 공회원 중의 한 사람으로 나와 있다.

## 26. ㉠ 본서의 저자는 유대 민족을 위하여 예수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좋다고 한 가야바의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50-52절)

- ㉠ (1) 일종의 이중 암시(二重暗示)로 이해하고 있다. 즉 본서의 저자는 가야바가 무의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민족을 위해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을 예언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 (2)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적인 죽음임을 밝힌 가야바의 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막 15:31)고 조롱하였던 대제사장들 및 서기관들의 말과 다를 바 없다.
- (3) 그러나 가야바의 말과 대제사장 및 서기관들의 말은 둘 다 조롱조의 말이긴 하지만 그 속에는 그들이 알지 못한 진리가 담겨 있었던 것이다.
- (4) 그런데 가야바는 예수가 유대 민족을 위해 죽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본서의 저자는 이 말을 유대 민족 뿐 아니라 온 세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까지 적용하고 있으니 처음부터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하겠다.
- (5) 이처럼 동일한 인격, 같은 사건이라 하더라도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각각 다르게 해석된다. 즉 불신의 눈으로 예수의 죽으심을 바라보면 그것은 예수가 죽을 만한 죄가 있어 죽었다고 볼 것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예수의 죽음은 분명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임을 발견하게 된다(참조, 롬5:19).
- (6)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건과 인격을 만나든지 항상 신앙의 눈으로 그것들을 조망(眺望)함으로써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27. ㉠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는 어떠한 곳인가? (54절)

- ㉠ (1) 에브라임(Ephraim)이라는 지명의 뜻은 ‘수확이 풍성한 땅’이다. 이곳은 오늘날의 ‘엠타이베’(Et Taiyibeh)로 추정되어지는데 벧엘 북동쪽 약 6.5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다.
- (2) 에브라임이라는 지명은 한때 ‘아파이레마’(Aphairema)로 불리웠던 것 같기도 한데 마카비 전쟁에 대한 기록에 의하면 이곳은 사마리아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였음을 알 수 있다(외경 마카비상 11:34).
- (3) 또한 이곳은 유대 광야와도 인접해 있는 곳이었으니 재난을 피하여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는 좋은 망명처이기도 했다.
- (4) 아마도 이러한 입지적 여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을 피해 곧장 에브라임으로 가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셨을 것이다.
- (5) 물론 이런 행적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예수와 그 제자들의 도피 행각이 아니라 당시의 때를 기다리시는 예수의 자의적 휴식이라 할 수 있다.

(6) 복음 사역자들에게도 가끔은 이러한 휴식이 필요할 때가 있다. 복음 사역은 하나님의 때를 무시한 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주의 때를 기다리며 휴식하고 재무장하는 일련의 시간들에 대해 정죄하거나 불필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28. **㉠ 유월절 예식 때문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무리들이 예수의 신변을 궁금해 한 이유는 무엇인가? (55-57절)**

- ㉠** (1) 그들이 예수의 행적에 관심을 보인 것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고하여 잡게 하라’는 체포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 (2) 즉 유대인들은 유월절의 정결 예식(머리를 깎거나 옷을 빠는 결례, 2:13; 행21:26)을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으나 그들의 주 관심사는 자신의 정결보다는 공식적으로 체포령이 내려진 예수의 신변에 대한 것이 었다.
- (3) 그들이 이렇게까지 관심을 보인 이유는 그들이 예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보다 예수께서 준엄한 체포령이 두려워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믿는, 즉 예수의 비겁함을 흉잡아 조롱하려는 의도가 더 컸다.
- (4) 더우기 예수의 신변에 누구보다 더 큰 관심을 보인 자들은 체포령을 내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었을 것이다.
- (5) 이처럼 유월절을 맞은 예루살렘 내에서의 관심사는 ‘예수의 어디 있느냐’는 점이었다. 즉 그들은 마치 예수의 피에 굶주린 이리 떼와 같이 예수의 행적에 관심을 보였던 것이다.
- (6) 이와 같이 진리에서 떠난 사회와 공동체는 한 인격, 한 생명을 너무 쉽게 취급할 때가 많다. 자신들이 목적하는 한 생명의 매장을 쉽게 생각하는 구조적인 악(惡)은 끝내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의 비명을 외면하지 않으신다(참조, 약5:1-6).

## 연구자료

산헤드린(Sanhedrin). 본장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公會)로 모여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한 사실이 나온다(47-57절). 여기서 말하는 공회가 곧 산헤드린인데 이는 구약 시대(참조, 민11:16)부터 예루살렘 멸망 때(A. D. 70)까지 존속한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議決) 기관이다. 이 산헤드린은 대제사장인 의장 한 명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구성된 70인의 위원으로 조직되었으며 필요시 언제라도 회합을 가질 수 있었다. 그들의 임무는 모세의 율법 및 장로들의 전승(마15:2)을 수호하며 이를 어기는 자를 치리, 계도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로마 지배하에 있는 관계로 해서 사형권은 갖지 못했지만 사소한 민사 문제는 처리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들의 임무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 사회적으로 바른 생활을 하게끔 지도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그들은 형식적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나머지 갖은 술수를 부려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니 그것은 그들이 추구해야 할 본연의 임무에서 벗어난 행동이었다.

## 제 12 장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단락구분 1-3 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붓는 마리아 / 4-8 못마땅히 여기는 가롯 유다 / 9-11 나사로와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 / 12-19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 / 20-27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는 그리스도 / 28-33 하늘로서의 증거 / 34-36 유대인들의 의문 / 37-43 이사야의 예언 / 44-47 그리스도의 사역 목적 / 48-50 하나님의 명령

1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의 있는 곳이라

2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3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 하더라

4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5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배 테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계를 달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

7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 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8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9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10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11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12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13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14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15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16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17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18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

19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불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하니라

20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21 저희가 갈릴리 벳새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뵈옵고자 하나이다 하니

22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2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26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27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28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29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리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31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 나리라  
 32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33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34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35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36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37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희를 믿지 아니하니  
 38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뉘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39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40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

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다  
 41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라  
 42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희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43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44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45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46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47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48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팔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49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50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1. ㉠ 본장의 주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라.

- ㉠ (1) 본장에서부터는 그리스도께서 공적(公的)인 사역을 마무리지으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시는 내용이 다루어져 있다.  
 (2) 그 첫번째로 1-8절에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장사(葬事)를 준비한 기사가 나온다(참조, 마26:6-13).  
 (3) 그리스도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신 것은 그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 중의 첫번째 금요일에 생긴 일이며(12절) 마리아가 향유 부은 사건은 그 다음날인 토요일에 생긴 일이다.  
 (4) 그리고 주일에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는데 이것은 12-19절에 기록되어 있다.  
 (5) 20-50절의 나머지 부분에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시자 하늘로부터 이를 인증하는 소리가 울려 퍼진 기사가 실려 있으며(28절) 또한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역 목적을 밝히시면서 유대인들의 믿음을 촉구하시는 내용이 실려 있다.

2. ㉠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도표화하라.

㉠

요 일	행 적	장 소	성 정 귀 절
금 요 일	베다니에 이르심	베 다니	1절
토 요 일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부음	"	2-9절; 마26:6-13; 막14:3-9

주 일	예루살렘 입성	예루살렘	12-19절; 마21:1-11; 막11:1-10; 눅19:28-40
	성을 보고 우심	"	눅19:41-44
	베다니로 물러가심	베다니	막11:11
월 요 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	예루살렘 길 목	마21:18, 19; 막11:12-14
	두번째 성전 청결 사건	예루살렘	마21:12, 13; 막11:15-18; 눅19:45, 46
화 요 일	그리스도께서 비유로 무리들을 가르치심	"	마21:28-22:14; 막12:1-12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 학자의 질문	"	마22:15-46; 막12:13-37; 눅20:20-44
	과부의 헌금	"	막12:41-44; 눅21:1-4
	자신의 죽으심 예고	"	20-36절
	감람산에서의 교훈	감람산	마24:1-25:46; 막13:1-37; 눅21:5-36
	가롯 유다의 배반	예루살렘	13:2; 마26:14-16; 막14:10, 11; 눅22:3-6
수 요 일	베다니에 은거(隱居)하심	베다니	참조, 눅22:7-13
목 요 일	유월절을 위한 준비	예루살렘	마26:17-19; 막14:12-16; 눅22:7-13
	최후의 만찬	마가의 다락방	13:3; 마26:20; 막14:17; 눅22:14-16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	"	13:4-20
	가롯 유다의 배신 예고	"	13:21-30; 마26:21-25; 막14:18-21; 눅22:21-23
	성찬 예식 제정	"	마26:26-29; 막14:22-25; 눅22:19, 20
	베드로의 부인 예고	감람산 길 목	13:36-38; 마26:30-35; 막14:26-31; 눅22:31-38
	마지막 교훈	"	13:31-35; 14:1-16:33
	중보 기도	"	17:1-26
	갓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갓세마네	마26:36-46; 막14:32-42; 눅22:39-46
	체포당하심	"	18:2-9; 마26:47-50; 막14:43-46; 눅22:47-49
금 요 일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침	"	18:10, 11; 마26:51, 52; 막14:47; 눅22:50, 51
	산헤드린의 심문	예루살렘	18:12-24; 마26:57-68; 막14:53-65; 눅22:63-65
	베드로의 그리스도 부인 및 회개	"	18:15-18, 25-27; 마26:69-75; 막14:66-72; 눅22:54-62
	빌라도의 심문	"	18:28-38; 마27:11-14; 막15:1-5; 눅23:1-5
	헤롯의 심문	"	눅23:6-12
	빌라도의 재심문	"	18:39, 40; 마27:15-26; 막15:6-15; 눅23:13-25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넘겨 줌	"	19:1-3; 마27:27-30; 막15:16-19
	그리스도를 구하려는 빌라도의 거듭된 노력	"	19:4-16
	가롯 유다의 자살	"	마27:3-10

십자가를 지고 가심		골 고 다	19:17; 마27:31-34; 막15:20-23; 눅23:26-32
십자가에 달리심		"	19:18-24; 마27:35-38; 막15:24-28; 눅23:33-38
십자가 위에서의 말씀	저들을 용서하소서 낙원에 있으리라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십 자 가 위	눅23:34 눅23:43 19:26, 27 마27:46; 막15:34 19:28 19:30 눅23:46
	운명하시다	"	19:30; 마27:50; 막15:37; 눅23:46
무덤에 장사됨		예루살렘 근 교	19:38-42; 마27:57-61; 막15:42-47; 눅23:50-56

3. **㉠** 에브라임에서의 휴식을 마친 예수께서는 어디로 거처를 옮기셨는가? (1, 2절)

- ㉠** (1) 예수께서는 유월절 옛새 전에 나사로를 살리셨던 베다니로 거처를 옮기셨다.  
 (2) 즉 예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맞기 전에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하신 후 A. D. 30년 니산 월(태양력 3-4월) 제 8일(오늘날의 금요일)에 예루살렘에서 과히 멀지 않으며 사랑하는 친구들(나사로와 그의 두 여동생)이 있는 베다니를 찾으셨다.  
 (3) 여기서 예수께서는 베다니 주민들의 안식일 잔치에 주빈(主賓)으로 초대되었으며 그 자리에는 나사로가 동석했다.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연회가 벌어졌던 집은 옛날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었던 시몬의 집이었음을 알 수 있다(마26:6).  
 (4) 이처럼 베다니 전체는 생명의 주인이시며 모든 부정한 것들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의 권능을 찬양하는 축제로 들떠 있었다. 이와 같이 생명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기쁨과 찬양이 넘친다.  
 (5)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선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를 소개함으로 쾌락과 살인과 인권 유린 등으로 죽음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오늘을, 기쁨과 찬양이 만발하는 천국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4. **㉠** 3-8절의 기사(記事)는 눅7:36-50의 기사와 동일한 것인가?

- ㉠** (1) 동일한 것이 아니다.  
 (2) 그 증거로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지적할 수 있다.  
 (3) 첫째, 사건 발생의 시각에 있어서 본절의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마지막 주간에 일어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반해(1절) 누가복음의 기사는 그리스도께서 한창 공적 사역을 수행하시던 때에 일어난 것으로 나와 있다(참조, 눅7, 8장).  
 (4) 둘째, 본절과 동일한 기사인 마26:6-13; 막14:3-9에는 향유를 부은 마리아가 ‘한 여자’로 나와 있는데 반해 누가복음에는 ‘죄인인 한 여자’로 나와 있다(눅7:37).  
 (5) 셋째, 본절에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에 대해 가롯 유다가 이의를 제기한 기사가 나오는데 반해 누가복음에는 이 같은 기사가 없고 그 대신 그리스도께서 집주인인 바리새인을 꾸짖는 기사가 나온다(눅7:40-47).  
 (6) 넷째, 본절과 동일 기사인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이 일로 인해 마리아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반해(마26:10-13; 막14:6-9) 누가복음에는 이 일의 결과 그 여자가 ‘죄 사함을 받았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눅7:48, 50)라는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들은 것으로 나와 있다.  
 (7) 이상과 같은 차이점에 의해 우리는 비록 이 두 기사가 유사한 면들을 지니고 있기는

하지만 동일한 기사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 **㉠ 마리아가 그리스도께 향유를 부은 사건의 의의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3-8절).**

- ㉠** (1) 첫째, 이것은 그리스도의 장사(葬事)를 예비한 행위였다(마26:12).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향품(香品)으로 그의 시신을 싸서 무덤에 장사지냈었다(19:38-42).
- (2) 그러므로 비록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임박하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향유를 부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그분께서 향품으로 감싸인 채 장사되는 것을 예표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 (3) 둘째, 이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철저한 헌신이었다. 마리아가 소비한 향유의 값은 300데나리온(Denarius)이었다. 1데나리온은 당시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것이었으니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약 1년 동안 벌어야 하는 큰 액수이다.
- (4) 그런데도 마리아가 이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하였다는 것은 곧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아낌없이 바쳤다는 말이 된다.
- (5) 세째, 마리아가 머리털로 그리스도의 발을 씻어 준 것은 자신을 철저히 낮춘 반면, 그리스도께 최고의 영광과 경배를 돌린 행위이다(참조, 시 23:5).
- (6) 유대인들의 풍습 중에는 집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을 때 주인이 대야에 물을 떠다가 손님의 발을 씻어 주는 풍습이 있는데 이것은 손님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에 반해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털로 그리스도의 발을 씻어 주었다는 것은 과연 어느 정도의 경의를 표한 것이 될까!
- (7) 이상과 같이 자신의 오라비를 죽음에서 구해 내신 예수께 대해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준비와 경의를 포함으로써 자신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사를 최초로 예비한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이다.
- (8)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께 최대의 경의와 헌신을 바치는 자의 그 헌신의 양과 경의의 화려함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정신을 인정하시며 그 헌신자로 하여금 자신도 알지 못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 이것이 헌신의 아름다운 결말이다(참조, 마 19:29).

6. **㉠ 나드는 어떠한 향품인가? (3절)**

- ㉠** (1) '나드'(nard) 또는 '나드향'(spikenard)이라고 하는 것은 동인도의 '나르도스타키스 자타만시'(Nardostachys jatamansi)라는 식물에서 채취되는 향료이다.
- (2) 이 식물은 '취오줌풀'(valerian) 과(科)에 속하는데 향내가 나는 기름은 바로 이 식물의 섬유 근(纖維根)에서 채취된다.
- (3) 솔로몬의 아가서에는 이 나드향에 대한 언급이 3번 나온다(아 1:12; 4:13, 14). 그리고 신약에서도 본절 외에 막 14:3에서 1번 나온다.
- (4) 로마인들과 히브리인들은 시신(屍身)에 이 향유를 발라 악취가 나는 것을 방지하였으며 자기 집에 귀한 손님이 방문하였을 때 이것을 그 머리에 발라 주기도 하였다.
- (5) 그런데 이 나드향이 팔레스틴에서 비싼 가격에 매매되는 이유는 이것이 원산지인 인도에서 수입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7. **㉠ 가룟 유다에 대하여 살펴보라(4-6절).**

- ㉠** (1) 가룟 유다에 대한 언급은 이미 6:70, 71에 나와 있는데 거기서 그리스도께서는 유다를 가리켜 '마귀'라고 하였으며 본서의 저자는 '예수를 팔 자'라고 평하였다.
- (2) 그리스도께서는 가룟 유다의 성품을 이미 알고 제셨으며 장차 그가 자기를 배반하고 온 30에 팔 것(마 26:14-16)도 예견하고 계셨다.
- (3) 한때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교훈을 이해하지 못하고서 물러

가 버린 일이 있었다(6:60-66). 그러나 이때도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를 이용할 목적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다.

- (4)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서 재정을 담당하였다(참조, 13:29). 그런데 본절에 의하면 유다는 이 직책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치부(致富)를 하였었다.
- (5) 그러기에 그는 마리아가 그리스도께 향유를 부은 헌신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재정적인 척도로써 이를 평가하고 자신이 은닉할 수 있는 몫이 사라져 버렸음을 아쉬워했다.
- (6)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딤후 6:10)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우리로 하여금 의의 길에서 떠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비단 돈뿐이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분수 이상의 욕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에 감사하며 자족하자.

#### 8. ㉠ 그리스도께서 뜻하러 하신 8절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 ㉠ (1) 본절의 의미는 결단코 이웃에 대한 구제 행위를 경홀히 여기려는 데 있지 않다. 다만 이 말은 마리아가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선 언제라도 구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장사(葬事)를 예비하여 그의 몸에 향유를 붓는 것은 단 한번밖에 할 수 없는 행위라는 사실을 뜻할 뿐이다.
- (2)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행위는 다시는 되풀이될 수 없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들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 (3) 그러면 왜 이 땅에는 항상 가난한 자들이 존재하게 되는가? 그 이유로서 첫째, 게으름(잠 6:6-11), 향락 추구(잠 21:17), 술 취하고 탐식하는 것(잠 23:21)과 같은 본인의 무절제를 들 수 있다.
- (4) 둘째, 사기(암 5:11), 탐욕(삼하 12:1, 2), 부정 부패(사 10:2) 등과 같은 행위가 이웃의 재산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번째 이유로서 가뭄, 홍수, 질병과 같은 천재 지변(출 10:5; 렘 50:38)과 전쟁이 재정적 수입 요인을 상실케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 (5) 이상과 같은 이유 때문에 성경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리라’고 밝히면서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고 명하고 있다(신 15:11).
- (6) 따라서 우리는 본절의 의미가 결코 이웃에 대한 구제 행위를 경홀히 여겨도 된다는 데 있지 않음을 바로 깨닫고 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씨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정신을 구현(具現)하자(참조, 마 25:40).

#### 9. ㉠ 대제사장들이 예수 뿐 아니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한 이유는 무엇인가? (9-11절)

- ㉠ (1)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 사실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이다.
- (2)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말로써는 대중들을 가르칠 수 있었으나 예수만큼의 능력을 행사할 수 없었기에 자연히 그들에게 불건전한 경쟁심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다.
- (3) 더우기 부활을 절대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던(참조, 행 23:8) 대제사장 계층에서는 나사로의 회생(回生)이 그들의 교리와 기반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것이었기에 예수와 부활의 증거인 나사로를 살려 둘 수 없었다.
- (4) 이처럼 부패한 종교인들의 심성(心性)에는 진리를 믿으려는 마음보다는 자신의 이권과 배척되는 것이면 그 무엇도 용납하지 못하는 악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독선(獨善)은 자신과 함께 이웃의 인격과 생명을 파괴해 버린다(참조, 눅 11:52).
- (5)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어떠한 편견이나 자기만을 위하는 그릇된 해석도 삼가하여 온전히 진리가 진리되게 해야 할 것이다. 진리 앞에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아

이'가 되어야 한다.

10. **㉠**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12-16절)

- ㉠** (1) 첫째,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은 비록 유대인들의 기대에 부응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죽을 때가 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 (2) 둘째,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정복자가 아닌 평화의 사자(使者)의 모습으로서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관(참조, 6장 ㉠ 8)을 배격하셨다는 의미가 있다.
- (3) 즉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듣고서 '호산나'(Hosanna, 이제 구원 하소서)를 외치며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낼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저들의 허황된 꿈을 깨우쳐 주시려는 듯이 당시 평민들이 여행할 때 사용하던 나귀를 타고 나타나신 것이다.
- (4) 셋째, 그리스도께서 입성하실 때 길가에 서 있던 많은 무리들로부터 대대적인 환영을 받은 것(마21:6-11; 막11:7-10; 눅19:35-38)은 자신이 부활 후에 받을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해 준 것이었다는 의미가 있다(참조, 빌2:5-11).
- (5)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은 스가라의 예언(슌9:9)을 성취한 사건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스가라는 장차 한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인즉 그가 인류를 구원할 자라고 예언하였으니 이로써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사역은 인간 구원에 있다는 것이 증명된다.

11. **㉠** 그리스도께서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그를 맞이한 까닭은 무엇인가? (13절)

- ㉠** (1)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런 승리자 또는 정복자로 맞이한다는 예우(禮遇)를 갖추기 위함이었다.
- (2) 종려나무(palmtree)는 열대 식물로서 '포에닉스 텍티리페라'(Phoenix dactylifera)라는 학명을 지니고 있다. 이 나무는 키가 약 40m 이상까지 자랄 수 있는데 완전히 자라기까지는 약 30년이 걸리며 그 수명은 약 200년 정도가 된다.
- (3) 이러한 종려나무는 팔레스틴 지역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데 특히 예리고(Jericho)는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이 나무가 흔하다.
- (4) 따라서 성경에는 종려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나무는 승리(계7:9; 외경 마카비상13:51), 번영(시92:12)과 아름다움(아7:7, 8) 그리고 기쁨(레23:40)을 상징한다.
- (5)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리스도를 맞이한 것은 그를 왕으로 맞이한다는 표시인 동시에 그들 자신의 크나큰 기쁨을 나타낸 행위라 하겠다.
- (6) 이처럼 예수는 영원한 찬양의 대상이며 우리의 왕이시다.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높아지거나 낮아져서는 안 된다. 그분이 영원하듯이 그분에 대한 감사의 노래는 영원해야 한다.(참조, 고후1:3-5).

12. **㉠**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무리들은 무엇이라 찬양하였는가? (13절)

- ㉠** (1) 예루살렘 주민들은 예수를 향하여 '호산나 찬양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외쳤다.
- (2) 여기서 '호산나'란 말은 히브리어로서 '구원하다'(히, 야샤)라는 동사와 '자', '제발', '청컨대'(히, 나)라는 감탄사와 결합하여 생겨난 말로 '오 구원하소서', '원하오니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이다.
- (3) 이것은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 및 예언자들에 의해 예언된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오셨으므로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는 간절한 요청이다(참조, 시

118:25).

- (4) 더우기 그들은 주로 유월절 기념 때에 노래하는 시118:26의 말씀에서 빌어 온 찬양 시귀(여호와와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음이여)를 통해 예수께서 부인할 수 없는 메시아이심을 찬양하였다.
- (5) 이와 같이 예루살렘 거민들의 마음속에는 예수의 메시아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메시아를 통해 얻어질 로마로부터의 해방과 정치적으로 완전한 자유인이 될 것에 대한 기대를 지니고 있었다.
- (6) 즉 인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과 더불어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는 순수치 못한 욕심이 발견되기도 한다. 이렇게 순수치 못한 신앙심은 자신의 이익과 기대가 무너질 때 철저히 변질되교야 한다(참조, 19:15). 그러므로 신앙 세제는 회색 지대가 허용될 수 없다(참조, 계 3:16).

### 13. Q '시온 딸'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15절)

- A (1) 예루살렘 성의 거민(居民)을 가리키는 말이다.
- (2) 이처럼 한 성의 거민이나 국가 또는 국민들을 의인화하여 부르는 표현은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즐겨 사용하던 비유법이다.
- (3) 그 대표적인 예를 몇 개 들 것 같으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처녀 딸 시온(사 37:22), 처녀 딸 바벨론(사 47:1), 처녀 예루살렘(애 2:13), 처녀 에돔(사 4:21), 유다의 딸(사 48:11) 등.
- (4) 이러한 호칭들 중에서는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이 있는데 곧 '처녀 딸 시온'이다. 왜냐하면 '시온'(Zion), 즉 예루살렘 거민들이 '처녀 딸'로 불리우는 있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순결성을 잃지 않은 처녀와 같이 종교적 순결성을 잃지 않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 (5) 그러나 본절에서 예루살렘 성의 거민을 가리켜 '시온 딸' 또는 '예루살렘의 딸'(속 9:9)이라고 부른 것에는 별다른 뜻이 담겨 있지 않고 단지 예루살렘 거민을 향하신 예수의 격없는 부르심이라 할 수 있다.

### 14. Q 나사로의 부활 사건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좇게 되었을 때 이를 목격한 바리새인들은 무엇이로 서로 수군거렸는가? (17-19절)

- A (1) 그들은 '불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라고 서로 수군거렸다.
- (2)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크나큰 충격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신기한 능력 앞에 압도될 수밖에 없었으며 자신들이 목격한 기적적인 사건을 이웃에게 전파하지 않을 수 없었다.
- (3) 유대 지경 전체는 이러한 소문으로 술렁이게 되었으며 예수의 메시아성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사실에 직면했던 바리새인들은 절망적이었으며 끝내 그들의 입에서는 '온 세상'이 예수를 좇는다고 하는 놀라운 고백이 새어나오게 된다.
- (4) 비록 그들의 이런 고백에는 '모두가 다 예수에게 미쳐 버렸구나'라는 비양거림이 담겨 있었지만 그들의 말속에는 진리가 숨어 있었다.
- (5) 즉 예수께서는 '온 세상'의 사람을 당신의 품으로 부르실 것이며(참조, 11:28) 끝내 '온 세상'이 예수가 과연 만유의 주인이심을 인식하고 그분을 좇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무의식 중에 한 것이다.
- (6) 이처럼 예수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다.

### 15. Q 무리들이 그리스도의 입성을 환영하자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19

-19절)

- (A) (1) 서로에 대하여 한탄하며 아쉬워하기를 이제는 온 무리가 열광적으로 예수를 좇으니 그를 제어하기에는 때가 너무 늦었다고 안타까와하였다.
- (2) 본기사와 동일한 기사이면서도 보충적인 인용을 실고 있는 마 21:1-17과 눅 19:28-44을 살펴보면 우리는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자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좀더 자세히 알 수 있다.
- (3) 나귀를 타신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이르자 길가에 서 있던 그의 추종자들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찬양하였다(눅 19:38).
- (4) 그러자 무리 중에 섞여 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그의 추종자들을 진정시키도록 요구하였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지라’고 말씀하셨다(눅 19:39, 40).
- (5) 또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들어가 병자들을 고쳐 주시자 그곳에 있던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쳤는데 바리새인들은 이를 매우 분히 여기었다(마 21:14, 15).
- (6)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때도 너희들은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라는 시 8:2 말씀을 읽어 보지도 못하였느냐’라고 반문하심으로써 바리새인들의 분노를 일축(一蹴)해 버리셨다(마 21:16).
- (7) 이상과 같이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로부터 영광받으시는 것에 대하여 노심 초사하며 못마땅해 하였는데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저들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참조, 11장 Q 24). 그러므로 율법에 가장 정통하다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이 제일 먼저 그리스도를 배척하였던 점에 대해서 우리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16. Q 유월절 규례를 지키러 왔다가 빌립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뵈게 해 달라고 요청한 헬라인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20, 21절)

- (A) (1) 이들은 이방 지역에서 태어나 헬라어를 사용하게 된 유대인들(일명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헬라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다.
- (2) 비록 이방인이긴 하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구약 시대부터 허용되어 왔던 일이니(왕상 8:41-43; 대하 6:32, 33; 사 56:3-8) 이들 헬라인들이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은 새삼스런 일이 아니다.
- (3) 아마도 이들은 북으로 다메섹(Damascus)에서부터 남으로 필라델비아(Philadelphia)에까지 이르는 갈릴리 동부 지역과 데카볼리(Decapolis)에 있는 여러 개의 주요 이방인 성읍(가다라, 거라사, 디온, 힌보 등)에서부터 온 자들인지도 모른다.
- (4) 만일 그렇다면 이 지역에는 그리스도의 공생애 초기부터 그분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으니(참조, 마 4:23-25) 이들도 쉽게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번 기회에 꼭 그리스도를 뵈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된 것이다.
- (5)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이 ‘온 세상이 예수를 좇는도다’란 말을 한 직후에 이방인인 헬라인들이 예수를 찾게 된 것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예수는 국경을 초월하여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 필요한 존재이시다.

17. Q 빌립과 안드레로부터 헬라인들의 요청을 전해 들은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이라고 응답하셨는가? (23, 24절)

- (A) (1) 이러한 요청을 받는 그리스도께서 헬라인들에게 접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는지 아니면 어떤 응답의 말씀을 주어 보내셨는지에 대해서는 본문상의 언급이 없기 때문

에 알 수 없다.

- (2) 그러나 본문상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하의 말은 그리스도께서 헬라인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 (3) 즉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자신의 죽음이 곧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아무라도 거리낌없이 한 형제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해준다는 사실을 뜻하는 말이다.
- (4) 특별히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당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기쁨의 풍성함을 제공하실 것인데(참조, 10:10) 이 원리는 지역과 인종을 초월하여 적용될 것이다.
- (5) 그러므로 이 같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분께서 헬라인들의 요청에 대하여 들려줄 수 있는 최상의 답변이라고 하겠다.
- (6) 이런 희생의 원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놀라운 생명력을 부여받은 우리들에게도 요구된다. 우리의 조그마한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신 당신의 계획을 실현해 가신다(참조, 마 19:29).

18. **㉠ 예수께서 당신을 따를 자들에게 충고하신 말이 지닌 의미는 무엇인가? (25, 26절)**

- ㉠** (1) 먼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란 자신에 대한 자학(自虐)이나 자살을 피하는 자를 가리키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니 자신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를 의미한다.
- (2) 그러므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라는 말은 곧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 (3) 즉 희생의 모범이 되신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돌아보는 것 이전에 먼저 예수의 뜻을 받드는 일에 힘쓸 것이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자는 결코 예수에게 함당하지 않을 뿐더러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에 적합하지 못하다(참조, 갈 6:8).
- (4) 더우기 예수를 사랑하여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비록 이 세상에서 풍요한 낙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셔서 영원한 생명과 안식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참조: 14:2, 3, 23).
- (5)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결과인 영생만을 기대할 뿐 정작 제 몫에 해당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 한다. 혹시 그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닐런지? 정녕 그렇다면 늦기 전에 반성하고 비록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 하면서 제 몫에 해당되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을 향하여 한걸음씩 나아가자.

19. **㉠ 자신의 죽음을 앞둔 그리스도의 심정은 어떠하셨는가? (27절)**

- ㉠** (1) 심히 민망스러우셨다.
- (2) 여기서 ‘민망스러워하다’(헬, 타라소)라는 말은 ‘당황하다’, ‘동요를 일으키다’, ‘혼란을 일으키다’ 등의 의미이니 이는 곧 그리스도께서는 피로움 가운데 처해 있다는 말이 된다(참조, 막 14:34).
- (3) 그러면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피로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자신에게 곧 닥칠 죽음의 죄목이 강도나 대역죄(大逆罪)와 같은 천만 부당한 것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참조, 19:14-22; 마 27:38-44)
- (4) 아니면 그리스도께서도 인간의 성정(性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당할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하셨기 때문이 아닐런가?
- (5) 어쨌든 그 이유에 대하여선 이처럼 분분하게 추측해 볼 수 있다. 예수께서는 할 수만

있으면 이러한 죽음을 면해 불려고 하실 정도로 그 고통과 괴로움은 컸었다는 것만은 사실이다(참조, 마 26:39; 막 14:36; 눅 22:42).

- (6) 그러나 이 같은 순간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망각치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좇으려 하셨으니(막 14:36)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다’고 하신 말 한 마디에는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삶이 압축되어 있다.
- (7)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도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서 애쓰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더욱 열망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있는 일이다(참조, 마 16:24).

20. **㉠**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하늘부터 소리가 난 경우는 몇 번 있었는가? (28-30절)

**㉡** (1) 3번 있었다.

- (2) 그 첫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마 3:17; 막 1:11; 눅 3:21, 22)이며 두번째는 변화산에서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하셨을 때(마 17:5; 막 9:7; 눅 9:35)이고 마지막은 본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지을 때이다.
- (3) 그 어느 경우든 하늘로부터 난 소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사실과 그 권위를 공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그의 활동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을 밝혀 주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무리들에게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 (5) 왜냐하면 그들이 하늘로부터 난 소리의 뜻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나 천사의 음성 정도로 이해하였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간구에 응답하여 즉각적으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난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도록 하기에 충분하였기 때문이다.
- (6) 이처럼 영적으로 귀가 먹어 있고 아직도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아 세상적인 기대를 하고 있던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께서는 ‘믿음의 선물’, 즉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자 하셨던 것이다(참조, 11:42).
- (7) 오늘 예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들 주위에도 영적인 귀머거리와 소경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 비난과 조소를 퍼붓기 이전에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제 공하셨던 ‘믿음의 선물’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1. **㉠** ‘이 세상의 심판’과 ‘이 세상 임금’은 각각 무엇을 뜻하는가? (31절)

- ㉡** (1) 본절에서의 ‘이 세상의 심판’이란 ‘최후의 심판 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할 때가 임박했다는 의미이다.
- (2)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이란 사단(참조, 14:30; 16:11; 고후 4:4; 엡 2:2)을 지칭한다. 이 사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의해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였다.
- (3) 뿐만 아니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사단의 뒤를 좇는 불신자들에게 이전부터 선고되었던 심판(3:18; 8:24)은 이제 어느 때라도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 (4) 그러므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가리켜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 (5) 이와 같은 ‘세상의 심판’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완전히 면제된 것이다(참조, 5:24). 예수는 분명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우리의 생명을 위해 부활하셨다(참조, 롬 4:25; 6:10, 11).

22. **㉠** 그리스도께서 땅으로부터 들리움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32절)

- Ⓐ (1) 첫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가리킨다. 그리스도께서는 일전에 자기를 찾아왔던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3:14)고 말씀하셨다.
- (2)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으로 인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가 장대 끝에 매달았던 뿔뿔은 이제 자신이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릴 것을 예표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는 이 같은 상징으로써 니고데모를 교훈하셨다(민 21:4-9).
- (3) 둘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昇天)하실 것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땅에서 들리웠다’(헬, 휩소토 에크 테스 게스)는 말은 십자가상에서와 같이 땅 위로 들리워져 있거나 매달려져 있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땅에서 위로 완전히 올리워진 것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이다.
- (4) 한편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들리면 그 결과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데 이는 곧 그리스도의 죽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관계 없이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을 의미한다.
- (5)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은 모든 자들의 신앙의 요체가 되어야 마땅하다(참조, 행17:31).

23. Ⓞ 그리스도께로부터 그가 들리워야 한다는 말을 들은 무리들은 어떠한 의문을 가졌는가? (34절)

- Ⓐ (1) 영원히 죽지 않으시어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통치하실 메시야는 누구이며 한 번 죽음을 맛보셔야 할 메시야는 누구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었다.
- (2) 유대인들은 일찍부터 메시야의 나라와 그의 영원한 통치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는 시 89:4; 110:4; 사9:7; 겔37:25; 단7:13, 14 등을 익히 알고 있었다.
- (3)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가리켜 ‘인자’(人子)라고 지칭하면서 인자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거듭 밝히셨던 것(1:51; 5:27; 6:27)에 대해서도 들어 알고 있었다.
- (4)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죽어야 하리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들이 전통적으로 지녀 왔던 메시야관에 혼란을 일으킨 것이다.
- (5) 따라서 그들은 그리스도께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인자란 도대체 어떠한 인자나?’라는 물음을 던졌는데 이는 그분의 죽으심에 대한 구약의 예언(시22편; 사53장 등)을 미처 깨닫지 못한 그들의 영적 무지의 소산이라 하겠다.
- (6) 사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메시야로서의 그의 영광도 없었을 것이며 그의 영원한 의(義)의 왕국도 없었을 것이니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오묘한 진리가 있다.

24. Ⓞ ‘빛’과 ‘어두움’ 그리고 ‘빛의 아들’이 뜻하는 바에 대하여 살펴보라(35, 36절).

- Ⓐ (1) ‘빛’과 ‘어두움’의 의미에 대하여선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참조, 11장 Ⓞ 6).
- (2) ‘빛’은 그리스도를 의미하니(참조, 46절) 그분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빛’(1:8)이다. 그리고 ‘어두움’은 그리스도가 없는 혼돈과 암담한 상태를 의미하니 이런 상태에서의 인간의 삶은 목적지가 없이 바다를 떠도는 난파선과 같다.
- (3)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이니 곧 ‘빛의 아들’이요 ‘빛의 자녀’인 것이다(엡5:8).
- (4) 그러면 빛의 자녀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여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마5:14-16).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증거할 뿐만 아니라 언행(言行)을 삼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김으로써 이를 보고 내 이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자.

25. **㉠** 그리스도께서 많은 표적과 교훈을 행하셨으나 유대인들이 그를 믿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37-41절)

- ㉠** (1) 그들이 영적으로 눈이 멀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완고하였기 때문이다.  
 (2)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면서 본서의 저자는 사6:9, 10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행위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강조해 주고 있다.  
 (3) 즉 예수께서는 사53:1의 메시지를 인용하여 유대인들의 불신앙(‘들은 바’와 ‘주의 팔이 나타난 바’를 믿지 않은 것)을 지적하셨다. 여기서 ‘주의 팔’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적을 의미한다(참조, 눅1:51).  
 (4)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불신앙의 깊은 늪에 빠져서 도저히 빠져 나올 수 없었으며 끝내 그들은 그곳에서 영원한 심판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참조, 롬10:16).  
 (5)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자유 의지적 행동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자기 백성이 그에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참조, 눅15:11-32). 그러나 유대인들은 참된 믿음과 회개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아니한 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6) 그러므로 이제 그 같은 불신앙으로 인해 따르는 결과는 그들 스스로가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데 그 결과는 곧 진노의 심판이다(참조, 3:17-21).  
 (7) 이처럼 우리는 불신앙이 낳는 폐해를 깊이 인식하여 항상 주의 교훈과 그분의 삶을 생활 속에서 인정하는 작업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주께 대한 순종이야말로 최상의 헌물이 되는 것이다(참조, 삼상15:22).

26. **㉠** 본서의 저자가 유대인들의 관원 중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많음을 밝히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42절)

- ㉠** (1) 본서의 저자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 실로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일부 유대 관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은 희망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참조, 19:38, 39).  
 (2) 따라서 본서의 저자는 이러한 사실을 기록상으로 남겨 두고 싶었을 것이다. 바로 이것이 저자가 본질을 기술(記述)한 까닭일 것이다.  
 (3) 그러나 이들에 대하여서까지도 저자는 한 가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저들이 출회(黜會)를 두려워하여 드러내 놓고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 그러므로 저자는 ‘이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는 말로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5) 한편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행해지던 출회의 종류와 그것이 지니고 있는 의미에 관하여선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는 바 9장의 ㉠10을 참조하라.  
 (6) 아뭏든 이상과 같은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확실히 깨닫고, 행여 욕욕을 좇아 그리스도보다 그 무엇을 더 사랑하거나 어떠한 압력에 꺾이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7) 우리가 날마다의 이러한 도전 앞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매일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지혜와 힘을 덧입어야 할 것이다(참조, 엡6:10-18).

27. **㉠**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 되며 그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은 일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44, 45절)

- ㉠** (1)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간의 관계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2)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두 인격체이기는 하지만 그 활동과

기능의 목적에 있어서는 완전히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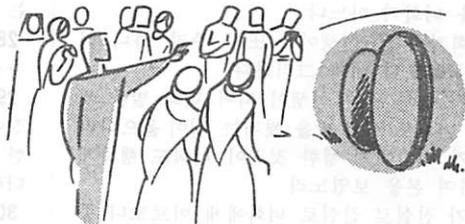
- (3) 비록 적합한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눈, 코, 입, 손과 발 등이 별개의 것으로 분류되어지는 지체(肢體)이긴 하나 모든 지체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다.
- (4) 이러한 관계성에 있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으니 그것은 한 몸을 이루고 있으나 역시 독립된 인격체이신 성령이다(참조, 마 28:19).
- (5) 이 같은 사실을 가리켜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 일체’(三位一體)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나 단일한 신성(神性)에 있어서는 동일한 삼위가 계시니 본체에 있어선 하나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구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6) 따라서 우리는 이상과 같은 사실에 유념하여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며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요일 3:23)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닫자.

## 28. Q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교훈에 대하여 살펴보라(47-50절)

- (A) (1)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명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일깨워 주고 그들을 어둠으로부터 구원해 내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 (2)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명은 곧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명령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절망과 죽음으로부터 건져 내어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 (3)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나 그렇지 않는 자에겐 심판이 임하리라’고 거듭 말씀하셨다(3:18; 8:24; 11:25, 26).
- (4) 그러나 이 같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결국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던 말씀이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 (5) 예수께서는 자신의 이 같은 경고가 사사롭고 허탄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될 권위에 찬 것임을 보이시기 위해 자신이 말한 것이 자의(自意)에 따르지 않고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음을 밝히셨다(참조, 14:10).
- (6) 더우기 예수께서는 자신이 소개하는 성부 하나님의 메시지가 모든 죽어 버린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생명’ 그 자체임을 강조하시기 위해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 (7) 이처럼 예수가 전하는 메시지에는 분명한 신적 권위가 있는데 그 말씀은 곧 생명의 능력이라 할 수 있다(참조, 6:68).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기갈에 허덕이는 오늘의 세대 앞에 주의 말씀을 공급해야 할 뿐더러 자신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도 날마다 말씀을 섭취해야 할 것이다(참조, 행 5:20; 딤후 3:14-17).

### 본장의 요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우리가  
증거한지라’(17절).



# 제 13 장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다

단락구분 1-17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리스도 / 18-30 주께서 배반자로 유다를 지목하시다 / 31-35 사랑의 새 계명 / 36-38 예수께서 베드로가 주를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다

1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3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4 저녁 잠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6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8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9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 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10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1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12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15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6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

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17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18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아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19 지금부터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를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

20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2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민망하여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22 제자들이 서로 보며 뉘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23 예수께서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24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한대

25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니이까

2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27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 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28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고

29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을 팔았으므로 명절에 우리의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30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31 저가 간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

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32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33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6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37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38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라

### 1. ㉠ 본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본장에서부터 끝장(21장)까지는 본서 전체의 후반부를 구성하며 그 내용으로는 최후의 만찬에서 부활 이후까지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해 기록되어 있다.
- (2) 특히 본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말씀하셨으며 당신을 팔 자로 유다를 지목하시고 베드로에 대하여 당신을 세 번 부인할 것을 예언하신 그리스도의 행동과 말씀은 그 모두가 십자가 위에서의 당신의 죽음을 준비하시는 것이었다.
- (3) 따라서 본장은 여태까지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남은 생(生)을 통해 천국의 비밀을 더욱 알차고 함축적으로 깨우쳐 주시기 위해 몸소 그 교훈들을 실천해 보이시고 또한 더욱 강조할 부분에 있어서는 심혈을 기울이시는 것을 역력히 찾아볼 수 있다(14, 15, 17, 34, 35절).
- (4) 그러므로 우리는 본장을 통하여 진리를 친히 실천함으로써 모범을 보인 그리스도의 인격과 끝없는 사랑을 강조하시는 그분의 뜻을(1, 34절) 배울 수 있다.

### 2. ㉡ 1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모습에 대하여 설명하라.

- ㉡ (1) 예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 (2) 여기서 ‘끝까지’(헬, 에이스 텔로스)라는 말은 원래 ‘완전히’, ‘절대로’라는 뜻으로서 본절에서는 ‘최대한으로’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3) 즉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까지만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당신의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셨다(참조, 살전2:16).
- (4)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막8:23; 9:25) 말씀을 가르치시며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일 등, 즉 그리스도의 사역 전부가 깊은 사랑에 근거한 일이었다(롬5:8; 엡5:2; 요일 4:16).
- (5)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성도들은 외형적인 모습만 갖춘 사랑을 가져서는 안 되며(요일2:9) 오직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요일4:18) 완전한 사랑으로 주를 섬기며(신6:5) 이웃과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살전3:12; 뱀전1:22).
- (6) 왜냐하면 이렇게 사랑으로 행하는 신앙은 주께서 명령하신 바요(신10:12; 엡5:2; 골3:14) 또 성도의 마땅한 임무(요일3:16)이기 때문이다.

### 3. ㉢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절)

- ㉢ (1) 이는 예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구원 사역을 다 이루고(참조, 19:30) 곧 이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를 아셨다는 의미이다.

- (2) 이와 같이 본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지(豫知)를 나타내는 여러 기록이 있다(6:64; 18:4; 19:28).
- (3) 이러한 사실은 예수께서 비록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지만 신성(神性)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 준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대할 때에 그분의 인성과 신성 모두를 고려하여 주의 깊게 살펴보고 연구해야 한다.

4. **㉠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목적을 설명하라(3-17절).**

- ㉠** (1) 첫째, 제자들을 최대한으로 완전하게 사랑하심을 증거하시기 위함이다.
- (2) 둘째,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자발적인 겸손의 예를 보여 주시기 위해서이다(3-5절).
- (3) 셋째,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영적인 정결의 중요성을 가르치시려는 목적이 있었다(6-11절).
- (4) 넷째, 제자들에게 실천의 본을 보여 주시려는 목적도 있었다(15절).
- (5) 이처럼 예수께서는 당신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을 단순히 언어의 전달만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몸소 실천해 보임으로써 모범적인 교사 상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 가르치는 자는 항상 전인격의 가르침을 통해 진리를 전해야 한다.

5. **㉠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의 모습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3-14절)**

- ㉠** (1) 첫째, 우리는 제자의 발을 씻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울 수 있다.
- (2) 둘째, 성경에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이미 마귀의 하수인이 된 가룟 유다(2절)의 발까지도 씻겨 주신 그리스도의 인내와 사랑을 배울 수 있다.
- (3) 즉 예수께서는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며 갖은 모욕을 다 당하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게 하는 사단의 하수인이라는 사실을 이미 아셨지만(참조, ㉠ 3)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발을 씻겨 주신 것이다(12절).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와 같은 예수의 모습을 본받아 선으로 악을 이기며(롬12:20, 21) 또한 발을 씻기듯이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 주어야 한다.

6. **㉠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의 모습은 어떠한가? (4,5절)**

- ㉠** (1) 저녁을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걸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 (2) 예수의 이런 행동 직전에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가장 위대한 자인가 하는 논쟁이 있었다(참조, 눅22:24). 이렇게 교만하고 무지한 그들에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당신의 사람이 지녀야 할 덕목인 겸손과 봉사를 가르치실 필요를 느끼시고 친히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
- (3)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여행으로 인해 모래와 먼지에 더럽혀진 손님의 발을 그 손님에 맞는 주인의 종들이 씻겨야 했다(비교, 삼상25:41).
- (4) 즉 예수께서는 종들과 같이 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다.
- (5) 이 같은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바로 성도들의 행동 규범이다(롬12:16). 성도들은 자신의 뛰어난 재질과 학식과 부 등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형제들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 (6)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와 더불어 결코 일하시거나 당신의 은혜를 그에게 공급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외적인 조건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당신과 형제들 앞에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참조, 대하7:14, 15; 잠22:4; 29:23; 사57:15; 약4:10)을 주실 뿐 아니라 당신의 동역자요 하늘나라에서 큰 자로 삼으신다(참조, 마18:4).

7. **㉠** 주께서는 왜 이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가? (4-30절)

- ㉠** (1) 먼저 유다가 이미 사단의 음모에 걸렸으며 또 사단이 다른 제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했기 때문이다(비교, 눅22:24-31).
- (2) 그래서 예수께서는 겸손을 행동화하심으로써 다른 제자들의 심령을 바로잡으시고 또 강건케 하신 것이다.
- (3) 또 주를 배반하여 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라는 사실을 밝히시기 위해서였다(10절). 유다는 예수와 동료로부터 신임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서 돈계를 담당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자였다(29절).
- (4) 그 같은 사실을 주께서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모두의 발을 씻기셨다.
- (5)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 내에 위선자와 가라지 같은 자들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시며 아끼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해 가면서 여러 가지 유희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더욱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으며 모든 이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해야 한다(엡6:10-18).
- (7)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안에서도 악인이나 위선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며 그로 인하여 실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비교, 마13:24-30).

8. **㉠**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행동에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6-10절)

- ㉠** (1) 이 행동의 문자적인 의미(8절)는 스승이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겸손의 실천을 가르치시는 것이다.
- (2)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이 행동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피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한다(참조, 히9:22)
- (3) 또한 발만을 씻기신 그리스도의 행동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죄를 지을 수 있으나(참조, 요일1:8-10) 그럴 때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이 이미 깨끗하여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더러운 죄를 피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설령 범죄했다 하더라도 숨기거나 묵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를 내어 놓고 진심으로 회개하여 용서함 받는 정결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

9. **㉠** 자신의 발을 씻기시는 이유를 묻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는가? (7절)

- ㉠** (1)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고 대답하셨다.
- (2) 여기에서 앞에 나온 '안다'(헬, 오이다스)는 말은 원래 '이해하다', '경험하다', '관계를 가지다' 등의 뜻으로서 절대적이고 완전한 인식을 가리킨다.
- (3) 그리고 뒤에 나오는 '안다'(헬, 그노세)는 말은 단순하고 체험적인 지식을 가리킨다.
- (4) 따라서 본절에 표현된 그리스도의 대답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깨달을 수 없으나 체험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한 설명이며 성령 사역(요14:26; 롬8:16)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 (5) 또한 주께서 '이후에는 알리라'고 하는 확신에 찬 표현은 베드로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다.
- (6)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처참한 죽음을 당하신 사실을 아는 것은 곧 구원받은 증거이며 성령이 내주(內住)하신다는 분명한 증표이다(참조, 14:26).

10. **㉠**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8절)

- ㉠** (1)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죄에서 깨끗하게 되지 못한다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 (2) 헬라어 성경에는 ‘상관이 없다’는 말이 ‘너는 내게 분깃을 갖지 않는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다.
- (3) 따라서 이 말씀은 죄인들로 하여금 속죄함을 입고 또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리스도의 증보자적인 역할을 설명하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 자신이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언행(言行) 가운데 그분을 나타내야 할 것이다.

11. **㉠** 발 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달라고 요청한 베드로의 성품에 대하여 설명하라 (9절).

- ㉠** (1) 이는 주의 말씀을 듣자마자(8절) 나온 요청으로 그의 급한 성격을 여실히 보여 준다.
- (2) 그리고 그의 급한 성격은 마14:28-30에 나타난 대로 용감하게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물에 빠져 살려 달라고 외치는 모습에서도 볼 수 있다.
- (3) 또 마16:16-22에서는 예수께 대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는 놀라운 신앙 고백도 했지만 그 말의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사단의 생각을 지녔다고 꾸중을 듣기도 했다.
- (4) 더우기 본장에서처럼 그리스도와 최후의 만찬을 나눈 후에도 주를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는(18:17, 25; 마26:69-75) 비겁함도 가지고 있었다.
- (5) 그러나 베드로에게는 예수를 따르려는 열심과 적극적인 사랑이 있었다(참조, 18:10).
- (6) 또한 전승(傳承)에 의하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로마에서 열심히 전도하다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린 채로 순교했다고 한다.
- (7)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 우리는 그의 열심을 배울 수 있다. 비록 실수는 많았지만 그의 뜨거운 사랑과 적극적인 믿음은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참조, 제3:15).

12. **㉠** ‘온몸이 깨끗하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은 무슨 뜻인가? (10절)

- ㉠** (1)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고 성화(聖化)의 단계에 놓여짐을 뜻한다.
- (2) 또한 본절에서 ‘온몸이 깨끗한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중생(重生)한 사람도 이 땅에 사는 이상, 일상 생활에서 죄를 범할 수 있으며 아울러 그러한 죄들을 빠르게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요일1:8-10).
- (3) 따라서 성도들은 이미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어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지만(already) 한편으로는 아직도 땅에 ‘발’을 디딘 육신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지속적인 싸움이 완전히 끝나지 않고 아직(not yet) 남아 있는 상태이다.
- (4) 그러므로 성화(聖化)의 과정 속에 있는 성도들은 삶 가운데 사단과 죄, 육신과 안목의 자랑, 세속적인 욕심과 정욕 등에 대항하여 싸워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항상 깨어 기도와 간구를 쉬지 말아야 한다(엡6:10-18).

13. **㉠**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설명하라(11절).

- ㉠** (1) 여기에서 그리스도께 ‘아신다’는 말은 헬라어로 <에데이>로서 이 앎은 지식적인 앎이 아니라 절대적이고도 완전한 깨달음을 뜻한다.
- (2) 따라서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리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계셨다는 의미로서 그리스도의 전지성(全知性)을 나타낸다(참조, 1:48; 마28:19; 고후13:14).

- (3) 또 이 표현 가운데 ‘팔 자’(NIV, who was going to betray him)라는 말은 헬라이로 현재 분사형인 <파라디돈타>로서 진행의 뜻이 있기 때문에 ‘팔고 있는 자’로 해석되어야 한다.
- (4) 즉 가룟 유다는 지금 단순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신앙이 타락한 상태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위장한 사단의 앞잡이다(참조, 눅22:3).
- (5)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전절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고 하신 말씀은 가룟 유다에 대한 1차 경고이며 회개를 촉구하는 부르심이었다.
- (6) 이와 같은 상황으로부터 우리는 비록 사단의 음모에 걸려 당신의 목숨을 노리는 악한 일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유다를 붙잡히 여기시고 권고하시는 주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배우게 된다(참조, 롬2:4).
- (7) 예수의 제자인 우리들도 자신을 모함하고 비난하는 자들에게 정면 공격이나 악한 방법에 의한 양갈음을 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악인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궁극적인 승리를 택해야 한다(참조, 롬12:21).

#### 14. ㉠ 예수께서 제자들의 말을 씻기신 후 말씀하신 교훈은 무엇인가? (12-17절)

- ㉠ (1) 그 교훈은 먼저 겸손이었다. 지금과 같은 만찬이 있기 전에 제자들 사이에는 그들 중에 누가 큰 자인가 하는 논란이 있었다(눅22:24-27).
- (2) 그래서 예수께서는 실제적인 행동으로써 섬기는 자의 모범을 보이셨던 것이다. 사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섬기려 오셨다(참조, 마20:28; 막10:45).
- (3) 또한 이 행동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왜냐하면 사랑은 베푸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 (4) 더우기 본귀절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실천이다. 예수께서는 사랑과 겸손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행하셨으며 행함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17절).
- (5)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모범은 곧 성도들이 배워야 할 덕목이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고 닮아가서(고후5:14-17) 더욱 온전케 되기를 힘써야 한다(히12:2).

#### 15. ㉠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른 호칭은 무엇이었는가? (13절)

- ㉠ (1)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선생’과 ‘주’(主)라 불렀다.
- (2) 여기에서 호칭으로 쓰인 ‘선생’(헬, 호 디다스칼로스)과 ‘주’(헬, 호 퀴리오스)는 호격인 <디다스칼레>와 <퀴리에>가 아니라 모두 주격으로 쓰였다.
- (3) 이처럼 개인의 호칭을 호격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격으로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단지 제자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나 종들이 섬기는 ‘주’가 아닌 그보다 초월하신 존재인 ‘하나님’이심을 나타낸다.
- (4) 즉 관사가 들어가 강조된 ‘그 선생’(헬, 호 디다스칼로스)은 그가 가르치신 신적이고도 영혼에 관계된 말씀과 관계가 있으며 ‘그 주인’(헬, 호 퀴리오스)은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신적인 능력과 연관된 호칭이다.
- (5) 예수께서 갑자기 이러한 문제를 언급하신 것은 당신의 제자들이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당신께서 철저히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셨음을 보이시고 제자들마저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였다(14절).
- (6) 이와 같이 예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입술만으로 이뤄지는 훌륭한 신앙 고백보다는 그 신앙 고백에 걸맞는 삶과 당신의 뜻을 따라 겸손히 행하는 것이다(참조, 14:21).

16. **㉠**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는 주의 말씀은 무슨 뜻인가? (14절)

- ㉠** (1) 이는 주께서 겐손의 본을 보여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과 같이 제자들도 서로 용서 하며(5: 23, 24; 엡4: 32)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2) 여기서 ‘옳다’(헬, 오페이레테)는 말은 ‘빛지다’, ‘의무가 있다’, ‘해야 한다’ 등의 의미로서 명령의 뜻이 내포되어 있다(참조, 요일3:6). 그런 의미에서 본질의 ‘너희도 마땅히 서로 발을 씻겨야 한다’는 주의 명령이라 할 수 있다.
- (3) 이 같은 당위적(當爲的)인 주의 권면은 그 기초를 그리스도의 모범에 둠으로써 서로 간의 용납과 사랑하는 것 역시도 그리스도와의 관계하에서 성립된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 (4) 즉 성도의 사랑과 봉사, 겐손은 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그 의무는 영적인 기초를 가져야만 참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뜻이다.
- (5)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실제적인 선행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목표는 오로지 주를 닮아 가며 그분의 명령을 행하여 주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참조, 15:5-8).

17. **㉠** 주께서 보이신 모범(example)에 대하여 설명하라(15절).

- ㉠** (1) 본장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 겐손과 희생의 모범을 보이셨다.
- (2) 이외에도 예수께서는 은유(마11:29), 자비(고후8:7, 9), 용서(골3:13), 순종(15:10), 인내(마26:67; 27:27)의 본을 보이셨다.
- (3) 이와 같이 본을 보여 주신 이유는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실천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러한 실제적인 모습을 통하여 진리를 알면서도 행치 않는 인간의 완악한 본성을 깨우치시려는 의도도 있다(비교, 약2:14-26).
- (4)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진리를 아는 데 그치지 말고 안 것을 행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모범은 그저 행한 의미 없는 몸짓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실천과 고난에의 동참을 요구하시는 거룩하신 부름인 것이다(참조, 마16:24).

18. **㉠**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18절)

- ㉠** (1) 이는 친근한 척하고 가까이 접근했다가 상대가 마음을 놓고 있을 때에 공격한다는 뜻의 비유적인 표현이다(참조, 시41:9).
- (2) 즉 그리스도와 3년 동안이나 같이 생활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롯 유다가 주를 배반했다는 의미이다.
- (3)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한 다윗의 경우도 이와 흡사하다. 즉 다윗의 두터운 신임을 받던 아히도벨(Ahitophel)이 다윗을 저버리고 압살롬의 반란에 참가하여 다윗을 죽이려 하였던 것이다(삼하16:15; 17:4).
- (4) 그러나 아히도벨이 반역 행위 이후에 목매어 죽었던(삼하17:23) 것처럼 가롯 유다도 주를 배반한 후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 목매어 죽었다(마27:5).
- (5) 이처럼 성도들도 가까운 자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을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낙심하거나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되며 오히려 사람이나 세상의 것들로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위로하고 감싸주시는 주만을 바라보아 기쁨을 얻고, 나아가서는 신앙이 성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시23:1-6; 사40:10, 11).

19. **㉠**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팔뚝을 미리 예고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9절)

- ㉠** (1) 예수께서는 곧 있게 될 가롯 유다의 배신으로 인한 충격으로부터 제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시려는 의도에서 당신의 앞날을 예고하셨다.
- (2) 이것은 1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신의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배려였다. 흑자(Meyer)는 만약 예수께서 이러한 예고를 해두시지 않았다면

훗날 제자들은 예수의 메시아성을 부정했음지도 모른다고 했다.

- (3) 그러나 예수의 이 예고를 통하여 당신의 수욕과 죽으심을 제자들이 수용할 수 있게 만드셨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예수께서는 ‘일이 이를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하셨다.
- (4)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신앙)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확실히 ‘듣고’, ‘아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참조, 롬10:14, 15).
- (5) 예수께서 지금도 요구하시는 신앙은 그에 관한 지식을 듣고 확실히 안 그것을 믿는 믿음이다.

20. **㉠** ‘진실로’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20절)

- ㉠** (1) 이 말(히, 아멘)의 신약적인 의미는 ‘반드시’, ‘참으로’ 등의 뜻을 가지며 구약적인 의미는 ‘지지하다’, ‘굳게 되다’, ‘...을 신뢰하다’ 등의 뜻을 지니고 있다.
- (2) 구약에서 <아멘>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응답자가 그 기도의 내용에 참여하고 약속하는 것을 뜻하며(왕상1:36; 렘28:6) 때론 맹세의 의미도 있다(민5:22).
- (3) 신약에서는 구약의 용례와 거의 비슷하게 쓰였으며 특히 송영(頌榮)의 초두에 쓰이기도 하고(계7:12) 편지를 끝맺을 때 축복의 기원(祈願)과 같이 사용되기도 하였다(갈6:18; 유1:25).
- (4) 그리고 공관 복음과 본서에 나타난 <아멘>은(1:51; 마5:18) 거의 맹세와 흡사한 의미로서 그리스도와 사역에 대한 선포에 사용되었다.
- (5) 그러므로 본절의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서도 특히 그 사역과 관계된 말씀임을 알 수 있다.

21. **㉠** 예수께서는 당신을 영접하는 자와 당신과의 상관 관계를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20절)

- ㉠** (1) 예수께서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
- (2) 이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당신의 수욕으로 인해 동요하게 될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결코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였다(16절). 또한 이 말씀은 예수를 배반한 가롯 유다의 배반은 단순히 한 스승에 대한 배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크나큰 범죄임을 주지시키는 것이기도 했다.
- (3) 한편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일해 오셨던 예수께서(참조, 3:17) 이제부터 당신의 사람들을 온 땅에 보내시는 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시겠다는 공적인 선언이기도 하다(참조, 마10:40; 28:18-20; 행1:8).
- (4) 오늘, 이 땅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사는 우리들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의 나라 건설을 위해 보냄을 받은 복음 전파자들이다.

22. **㉠** 주를 팔 자로 가롯 유다를 지목하신 그리스도의 행동을 설명하라(21-30절).

- ㉠** (1) 예수께서 떡 한 조각을 찢어 가롯 유다에게 주시으로써 그의 활동을 인정, 방임하셨다.
- (2)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전지성으로 이미 오래 전에 가롯 유다가 자신을 팔게 되리라는 사실을 아셨다(6:64).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그를 꾸짖으시거나 두드러지게 미워하시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그의 발까지 씻겨 주셨다(12절).
- (4) 또한 여러 차례에 걸쳐 그를 경고하시어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자비스럽고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셨다(참조, 막14:18-21).
- (5) 그리고 끝내 돌이키지 않는 가롯 유다에게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방임하신 주

께서는 이미 그가 자신의 악의(惡意)대로 하는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었다(27절).

- (6)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내와 사랑, 순종을 배우게 된다(눅23:34; 빌2:8; 히2:17).
- (7) 더우기 가롯 유다의 행동을 간과해 버린 듯한 예수의 행동에서 우리는 비록 악한 세력이 제아무리 날뛰다 하더라도 그 모든 활동 위에 제쳐서 섭리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하게 된다.
- (8) 그러므로 우리는 악이 횡행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이 땅에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날마다 주어진 삶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참조, 약5:7-11).

23. **㉠** 제자들 가운데 자신을 배신할 자가 있다고 하신 그리스도의 선언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21, 22절)

- ㉠** (1)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당황하여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서로 의심하기도 했다.
- (2) 또한 눅22:23에 따르면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서로 묻기도 하였다.
- (3) 그리고 마26:22의 기록을 보면 제자들은 매우 근심하면서 각자가 주께 자신이 그 배반자인지를 여쭙어 보았다.
- (4) 물론 가롯 유다도 뻔뻔스럽게, 또한 자신의 진실을 다른 제자들로부터 숨기기 위하여 주께 자신이 배반자냐고 여쭙어 보았다(마26:25).
- (5) 이렇게 질문하는 가롯 유다는 위선의 죄와 함께 주께서도 모르시리라는 어리석음 곧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을 무시하는 우(愚)를 드러냈다.
- (6) 즉 제자들은 주와 같이 생활하는 동안 그분의 사역과 권능을 많이 보았기에 그러한 주의 선언을 듣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들 의논도 하였지만 사단의 사주(使囑)를 받은 가롯 유다는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하여 위장을 하였다.
- (7) 이러한 제자들의 여러 가지 반응으로부터 우리는 주와 같이하는 자들과 주로부터 떨어진 자들이 범죄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때 대응하는 방식의 차이를 보게 된다.
- (8) 즉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은 죄에 대한 지적을 받았을 때 일단 자신을 돌아보고 죄 자체에 대한 혐오를 나타내나(참조, 삼하12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은 자신의 죄를 더럽게 여기지 않으며 도리어 자신의 죄악을 부인한다(참조, 행5:1-11).
- (9)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을 보호하여 인격적인 손상을 받지 않으려는 자세를 배제하고 항상 자신의 온전한 성숙을 위해 마음과 귀를 하나님께 열어 놓고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참조, 갈6:1).

24. **㉠**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23절)

- ㉠** (1) 많은 사람들은(Barclay, Bernard 등) 그가 본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본다.
- (2)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은 골고다 언덕에서(19:26),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20:2), 부활하신 예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 나타나셨을 때(21:7) 나온다.
- (3) 물론 주께서는 요한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제자들을 사랑하셨으나(15:9) 본서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자신을 묘사한 의도는 자신이 주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가를 나타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 (4) 이와 같이 신앙인들은 자신이 부족한 점이 있고 나약한 점이 있어도 담대하게 자신이 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자라는 것을 자랑해야 한다.
- (5) 왜냐하면 그것은 교만이 아니며 도리어 주께서는 자신같이 낮고 약한 사람까지도 한 없이 사랑하시고 감싸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25. **㉠** 주께서 가롯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신 의미는 무엇인가? (26절)

- ㉠** (1) 이 행동은 주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끝까지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모습이다.
- (2) 원래 동방의 식사 예절 가운데 주인이 초대된 손님들에게 빵 조각을 나누어 주는 것은 특별한 우정의 표시였다.
- (3) 따라서 이 행동은 주께서 그에게 친밀한 정을 표시함과 동시에 그가 회개하기를 사랑으로 권면하시는 것이다.
- (4) 물론 주께서는 가롯 유다를 통하지 않고서도 당신의 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으셨기에 주께서는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다.
- (5)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이웃 특히 자신과 좋지 못한 관계에 있는 형제들을 끝까지 용납하고 친절히 대하는 사랑이 필요하다. 우리는 원수를 원수로 갚는 악순환의 늪에서 빠져 나와야 할 것이다.

26. **㉠** 사단은 유다에게 언제 들어갔는가? (27절)

- ㉠** (1) 본절에 의하면 사단은 주께서 떡 한 조각을 건내 주신 후에 유다에게 들어간 것으로 나타난다.
- (2) 그러나 눅22:3에는 유월절 전의 만찬 이전에 이미 사단이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 (3) 이는 성경의 잘못된 기록이 아니라 눅22:3 이후에 간간이 가롯 유다의 마음을 틈타던 사단이(참조, 12:5, 6) 주께서 한 조각의 떡을 건내 주심을 계기로 완전하게 그의 마음에 들어가 역사(役事) 한다는 의미이다.
- (4) 즉 주께서는 이제 사단이 마음대로 가롯 유다를 주장하도록 방임하신 것이다.
- (5)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작은 죄라도 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27. **㉠** 가롯 유다가 맡고 있었던 직분은 무엇이었는가? (29절)

- ㉠** (1) 가롯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 돈계를 맡는 회계(會計)의 임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 (2) 따라서 그는 수리(數理)에 밝았으며 바로 그 점이 그의 약점이 되어 사물의 본질보다는 외부로 드러난 겉에 온 정신을 빼앗겼으며 그 결과 예수보다는 물질을 선택하는 자가 되었다(참조, 12:1-6).
- (3) 즉 그는 자신이 맡은 직분의 노예가 되었으며 나아가서는 자신의 직분을 이용하여 탐욕을 채우는 자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참조, 막14:10, 11).
- (4) 이러한 가롯 유다의 모습은 오늘날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성직(聖職)을 맡은 교역자들에게 큰 경종을 울린다.
- (5) 즉 자신이 맡은 직분은 하나님께서 당신만의 영광을 위해 허락하신 것이므로 그 지위나 명예에 급급해서는 안 되며 더구나 직권을 남용(濫用)한다든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탐욕을 채워서는 안 된다.

28. **㉠** 주로부터 떡 조각을 받고 난 후의 가롯 유다의 행동을 설명하라 (30절).

- ㉠** (1) 그는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갔는데 그때는 밤이었다.
- (2) 여기서 그가 곧 나갔다는 말은 그가 자신의 의도가 이미 드러났음을 의식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는커녕 자신의 악한 계획을 수행하려고 즉시 행동을 취했다는 의미이다.
- (3) 또한 밤이라는 표현도 빛이 되신 그리스도와는 반대로(8:12) 그는 어두움이 가득한 밤에 자신의 일을 하려 하는 죄에 거하는 자라는 뜻이다(3:19; 잠4:19).
- (4) 이러한 가롯 유다의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죄에 거하는 악한 자들의 특

성을 엿볼 수 있다.

- (5) 즉 그들은 자신의 의도와 욕심이 나쁘다는 하나님과 양심의 지적을 받지만 회개할 줄 모르며 그저 자신들의 탐욕만이 지상(至上)의 목적이므로 그 욕심에 끌려다닌다.
- (6) 그리고 그들은 빛되신 주의 경고를 받아도 계속 자신들의 어두운 죄악 가운데 거하려는 이상한 습성이 있다(1:5; 12:35).
- (7) 바로 이러한 점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차이점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은 어두운 죄악을 싫어하고 비록 자신이 범죄하였다 하더라도 그 죄악을 벗어버리고 싶어하며 벗어나기를 간구한다(미7:8; 롬13:2).

29. **㉠** 예수께서는 자신과 성부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하여 영광을 얻으신다고 했는가? (31-33절)

- ㉠** (1) 예수께서는 당신의 죽으심을 통해 당신과 성부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고 말씀했다(31절).
- (2) 다시 말하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최고의 고통과 고생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계획하신 것으로서 그 계획의 실행자로서 예수께서 사역하심으로 인해 두 분이 동시에 영광을 얻게 되신다는 것이다.
- (3) 더우기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죽으심으로 인해 얻으시는 영광의 보응으로 예수를 부활시키심으로 예수께 더할 수 없는 영광(32절)을 제공하실 것이다(참조, 빌2:6-11).
- (4) 위와 같은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는 아직도 미성숙한 신앙 인격을 소유하였지만 당신이 지금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별의 메시지를 주셨다(참조, 7:33, 34; 8:21; 14:28). 즉 예수께서는 당신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의 길을 함께 떠날 수 없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이다.
-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에게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연단과 사명을 제공하셔서 그것으로 인해 끝내 당신께서 영광받으시기를 원하신다(참조, 16:12; 고전10:13).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주어진 여건에 만족하고 그 주어진 사역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한다.

30. **㉠** 예수께서 가르치신 새 계명은 무엇인가? (34, 35절)

- ㉠** (1) 주께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 (2) 구약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이 여러 번 나온다(신 6:5; 시31:23).
- (3) 한편 예수께서는 이 사랑에 대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총망라한 것이라고 하셨다(참조, 마22:27-40; 막19:29-31).
- (4) 또한 사도 바울도 율법에 관해 논하면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였다(롬13:10).
- (5) 본질에 표현된 '새' [新]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네>로서 결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계명은 옛 것(레19:18; 눅10:27)과 대조되어 새로우며, 새로운 동기('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와 범위를 갖는다.
- (6) 또 이 사랑의 새 계명은 그리스도께서 실천하셨듯이 우리들도 실천해야 그 가치가 나타나는 실제적인 사랑이다(참조, 요일3:16, 18). 온 세상은 우리 속에 나타나는 서로간의 사랑과 관심(요일3:14)을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구별할 것이다.

31. **㉠**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의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36절)

- ㉠** (1) 이 말씀은 예수께서 받으실 수욕과 죽음 그리고 끝내는 성취될 부활이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만 얼마 후에는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

를 따라갈 수 있을 것임을 의미한다.

- (2) 결국 이 말씀은 이 땅에서 베드로가 해야 할 사역이 아직 남았음을 뜻한다.
- (3) 그리고 베드로가 아직까지는 죽음을 감당할 만큼의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의미도 된다.
- (4) 사실상 베드로는 주께서 승천하신 다음 성령께서 오신 후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참조, 행1:8; 2:14-42). 그리고 그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끝내 로마 정부에 의해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박혀 죽고 말았다고 전해진다.

### 32. **㉠** 이별을 예고하시는 주께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항변했는가? (37, 38절)

- ㉠** (1) 베드로는 주께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고 항변했다.
- (2) 그러나 주께서는 이 대답을 들으신 후에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당신을 부인하리라고 예언하셨다.
- (3) 이 같은 베드로의 모습을 분석해 보면 먼저 그는 아직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또한 자기 목숨을 주를 위하여 내놓는다고 인간적인 자신감만을 나타냈던 것이다.
- (4)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할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무지와 인간적인 자만이 깨어져야만 했으며 그러기 위하여 닭 울기 전에 주를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결정적인 사건이 필요했다.
- (5) 이 대화는 인간적인 자신감과 능력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으며 성도는 오로지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참조, 빌4:13).

### 33. **㉠** 베드로의 항변에 대한 주의 답변은 무엇인가? (38절)

- ㉠** (1) 주께서는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하셨다.
- (2) 사실 베드로는 이 예언대로 닭 울기 전에 세 번 주를 부인했다(눅22:55-62).
- (3) 이는 바로 베드로의 무지였으며 또한 이 사건은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무능력을 철저히 깨닫고 험기 많던 자신의 모습을 신중하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참조, 눅22:62).
- (4) 또 이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널 사랑하느냐'고 세 번이나 물으셨던 것과 묘한 대조를 이룬다(21:15-19).
- (5) 즉 주를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를 만나서 세 번이나 주를 사랑하며 그 사실을 주께서 아신다고 진실한 사랑의 고백을 한 것이다.
- (6) 이와 같이 신앙의 연단과 실패는 더 큰 성장과 깊이를 낳는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성도들을 당신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끌어 올리시기까지 놓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참조, 시37:24). 이것이 그분의 성실하심이다.

#### 본장의 요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뉘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22절).

# 제 14 장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다

단락구분 1-4 처소를 예비하시는 그리스도 / 5-6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 7-15 하나님과 하나이신 그리스도 / 16-17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 18-20 생명의 주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도와 항상 더불어 계신다 / 21-24 예수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 / 25-26 성령의 사역 / 27-31 평안의 약속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4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5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삽나이까

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यो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도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8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니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4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17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8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20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2 가뭇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2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24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25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28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29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를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30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31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 1. ㉠ 본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라.

- ㉠ (1) 본장은 16장까지 계속되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강화(講話) 가운데 첫번째 것으로서 주된 메시지는 '위로'이다.
- (2) 그리스도께서는 이별을 당혹해 하는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保惠師)께서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가르치시라고 말씀하셨다.
- (3) 즉 여태까지 선포되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부터 실행될 것이며 성령께서 강림하시어 영원토록 성도들에게 거하시리라는 말씀이었다(16, 17절).
- (4) 또한 남겨진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거로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21, 24절).
- (5)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위로와 명령은 오늘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

## 2. ㉠ 본장의 메시지를 요약하여 설명하라(1절).

- ㉠ (1) 이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본장의 전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
- (2)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요구가 담겨 있는데 하나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권면이며,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또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명령이다.
- (3) 여기에서 '마음'이란 헬라어로 <카르디아>로서 행동과 감정, 신앙의 중심이 되며 종종 혼(헬, 프쉬케), 영(헬, 프뉴마) 등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참조, 16:6; 마12:34; 15:19; 롬10:10).
- (4) 따라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위로는 영적으로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의미이다. 죽음 앞에 서신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위로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자들을 위로하신 그분의 사랑은 과연 끝이 없는 사랑이었다(참조, 고후1:4).
- (5) 그리고 이 위로는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는 권고와 연결되어 여태까지 지켜보았던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신앙을 지켜 근심하지 말라는 권면이 된다.
- (6) 주께서는 동료 중 한 사람의 반역과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될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스승이 고통과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여러 사실 때문에 낙담해 있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위로와 권면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담대하게 그 환난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 (7) 이같이 주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이 시험과 환난 가운데에서도 담대하고 깨끗하기를 원하시며 또 그렇게 되도록 격려하신다(참조, 16:33; 고후1:3, 4).
- (8)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일시적으로 흔들리고 낙담하기도 하나 그 신앙 자체가 흔들려서는 안 되며 주께서 말씀하신 위로를 기억하여 담대히 이를 대처해 나가야 한다(참조, 시86:17; 고전10:13).

(9) 더우기 우리의 주위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도저히 견뎌 나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믿을 때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신앙)은 어떠한 도전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된다.

3. **㉠**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은 무슨 뜻인가? (2점)

- ㉠** (1) 이 말씀은 천국에 안식할 처소가 넉넉하게 마련되었다는 뜻이다.  
 (2) 여기에서 ‘거할 곳’이란 헬라어로 <모나이>로서 ‘머물다’라는 동사 <메노>에서 나온 말로 ‘안식처’, ‘거처’를 가리킨다(비교, 시23:6).  
 (3) 이 ‘거할 곳’은 영역 성경에서 ‘저택(KJV, mansions), ‘가정’(Living Bible, homes) ‘장소’(NIV, RSV, rooms) 등으로 표현되었다.  
 (4) 이와 같은 표현들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이(벧전2:11) 안식을 얻게 될 ‘거할 곳’, 즉 천국이 얼마나 편안하며 온화한 곳인가를 잘 묘사해 주고 있다.  
 (5)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의 물질이나 인간에게서 안식을 구하기 보다는 하늘의 영원한 안식처를 추구하는 소망과 신앙이 있어야 한다.

4. **㉠**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2점)

- ㉠** (1) 이 말씀은 천국에 거할 곳이 많지 않았더라면 구태여 당신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안식할 곳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2) 이 귀절은 영어 성경에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으리라’(KJV, NIV, if it were not so, I would have told you)고 표현되어 있어서 한글 개역 성경보다 뜻이 명확하게 전달된다.  
 (3) 즉 이 말씀은 천국이 그리스도만 가시는 곳이 아니고 그와 ‘연합’한 모든 자들에게 개방되어 있다는 뜻이다(17:21, 22 ; 롬6:5).  
 (4)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이전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어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같이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5)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고 그분과 연합한 성도들은 모든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그분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참된 ‘천국에 속한 자’로서의 생을 살게 되는 것이다(롬6장).

5. **㉠**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2점)

- ㉠** (1) 그것은 주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천국에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함이다.  
 (2) 주께서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는 제자들과의 인간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온 인류를 위하여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이 선행되어야만 했다.  
 (3) 따라서 이러한 은혜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것이다.  
 (4) 한편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신부로 묘사하여(3:29; 계21:2,9) 최후의 심판이 행해진 다음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예비된 새 예루살렘에서(계21:2) 영원토록 함께 지내게 된다고 말한다.  
 (5) 그러므로 신앙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처소를 예비하시는 것과 같이 신부된 성도들도 천국에 들어가시기까지 믿음과 의로운 행실로 단장하여 주님과 만나는 그날을 부끄러움 없이 맞아야 하겠다(욥29:14; 마22:11; 계3:18).

6. **㉠** 주께서는 언제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가? (3점)

- ㉠** (1) 주께서는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오셔서 그를 따르는 자들을 영접하시어 당신이 계신 곳에 그들도 같이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2) 여기에서 ‘내가 다시 온다’는 말은 헬라어로 <팔린 에르코마이>로서 이는 성령의 오

심이나 신자가 죽은 후 주와 만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말이다(참조, 살전 4:13-18).

- (3) 또한 영접한다는 말은 주께서 예비하신 처소에서 당신을 믿는 자들을 기쁨으로 맞아들이신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 큰 확신과 위안을 제공하는 말임에 틀림없다(참조, 행 7:59; 살전 4:17).
- (4) 즉 그리스도께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며’, ‘영접하시는’ 이런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요 사랑인 것이다(참조, 히 11:16).
- (5)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세(來世)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참조, 롬 14:6-9).

7. **㉠** 주께서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4절)

- ㉠** (1) 이는 바로 예수가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안다는 뜻이다.
- (2)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암시하셨다(참조, 10:1, 7, 9; 12:26, 44, 45). 그러나 예수께서는 아직까지 자신이 곧 길이라 말씀하시지 않고 있다(참조, 6절).
- (3) 한편 ‘내가 가는 곳’이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에서 ‘내가 현재 가고 있는 곳’(NIV, RSV, Living Bible, where I am going)이라 하여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 (4) 즉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말씀을 하시는 중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으니 제자들에게 자신이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는 사실(6절)을 가르치시는 것도 그분의 임무였던 것이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 위해 선행을 한다, 헌금을 많이 한다, 교회에 열심히 봉사한다는 등의 일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참조, 히 12:2, 3).

8. **㉠** 예수께서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6절)

- ㉠** (1) 주께서는 자신이 ‘길’이고 ‘진리’이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에서 ‘길’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된 의미의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심을 가리킨다(참조, 히 9:28).
- (3) 또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인간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케 되고(8:31, 32) 거룩하게 되어(17:17-19)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 (4) 그리고 ‘생명’이라는 말은 사망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하나님과 일체이신 당신 안에 그 생명의 원천, 즉 영생을 소유하고 계심을 가리킨다(3:16; 6:33; 10:28; 11:25). 그리하여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와 관계를 갖게 하신다(참조, 5:24; 6:35; 20:31)
- (5) 따라서 죄인들이 죄를 벗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 외에는 없다(참조, 롬 8:2; 딤후 1:1; 요일 5:11).
- (6)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자들임을 깨닫고 경계해야 한다(참조, 딤후 1:10-14).

9. **㉠**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나타내신 바는 무엇인가? (6절)

- ㉠** (1) 예수께서는 이 대답을 하시면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당신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래서 당신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사실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셨다(6, 7절).

- (2) 또한 하나님께로 ‘갈 자’라는 말 대신 ‘올 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심으로 당신께서 하나님 곁으로 가서서 그곳에 계시게 되리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밝히셨다(엡 1:20; 빌 2:9, 10).
- (3) 그러므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대답은 곧 자신의 신성(神性)을 나타내시는 것이며 또한 앞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증보자적인 역할을 수행하실 것을 미리 나타내신 말이다(히 2:9; 벰전 3:18).

10. ㉠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이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7절)

- ㉠ (1)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를 몰랐다는 것을 전제하지는 않는다.
- (2) 즉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생활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받는 동안 그분의 신성(神性)을 알았을 것이며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4:24)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 (3)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 주의 말씀에 대해 충분한 이해력을 갖지 못했고 신앙적으로도 미숙했다. 그래서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곧잘 의심했던 것이다.
- (4) 예수께서는 이러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시며 확실한 신앙 가운데 거하기를 바라신 것이다.
- (5) 오늘날 예수가 사라져 버린 헌신과 예수를 뒷전으로 미뤄 놓은 선교 그리고 예수보다는 자신의 의견이 더 많이 제시되는 강단이 한국 교회 내에 팽배해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가 빠져 버린 그 어떤 희생도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기를 기원해야 한다(참조, 엡1:12-23).

11. ㉠ ‘이제부터는’이란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7절)

- ㉠ (1) 이 표현은 헬라어로 <아프 아르티>로서 ‘지금부터’라는 뜻을 갖는다.
- (2)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밝히신 때부터 제자들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 영생을 확실하게 안다는 뜻이다.
- (3) 또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일어날 십자가의 사건과 그와 연관된 부활과 승천, 성령의 강림 등 앞으로 있게 될 일련의 사건을 염두에 두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다.

12. ㉠ 빌립의 질문에 대하여 설명하라(8절).

- ㉠ (1) 빌립은 예수께 하나님을 보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 (2) 즉 여태까지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구약에서와 같은(비교, 출 24:9-11; 33:18) 하나님의 현현(theophany)을 요구한 것이다.
- (3) 또한 빌립의 질문 가운데 ‘우리에게’, ‘죽하겠나이다’ 등의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심정은 제자들의 공통된 마음이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 (4) 그러나 문제가 되는 사항은 빌립이 주께서 앞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집’, ‘처소’, ‘예비’, ‘영절’ 등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죽하다’는 어리석음과 빛나간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 (5) 이런 빌립의 질문은 복음의 본질을 망각한 채 현세의 물질적인 축복으로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껴 보려는 현대의 잘못된 신앙인의 모습과 매우 흡사한 일면을 갖고 있다.
- (6) 따라서 우리들은 본질과 같은 질문을 한 빌립을 비웃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러한 어리석은 기도와 신앙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매일 깊이 묵상하여 주께서 일러 주시는 뜻대로 살아야 한다.

13. ㉠ 빌립의 질문에 대한 주의 응답을 설명하라(9-21절).

- ㉠ (1) 주께서는 미련한 질문에 한 빌립을 안타깝게 여기시면서(9절) 다시 자세히 가르쳐 주신다.

- (2)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는 일체(一體)의 원리를 말씀하셨다(10, 11절).
- (3) 또 주께서 하나님께로 가신 후에 보혜사(保惠師) 성령이 오실 것도 말씀하셨다(16절).
- (4)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생을 누리게 됨을 말씀하셨다(17, 19절).
- (5) 이와 같은 주의 응답은 곧 복음의 요지(要旨)로서 구원과 생명, 성령의 내재와 성도의 견인(21절)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14. **㉠** 빌립의 질문에 대하여 주께서 어떻게 대답해 주셨는가? (9절)

- ㉠** (1) 주께서는 빌립에게 ‘알지 못하느냐’고 도리어 물어봄으로써 빌립의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을 깨우치셨다.
- (2) 그러나 주께서는 그 말씀 이후에 자세한 가르침으로 그를 납득시키셨다(9-21절).
- (3) 이러한 주의 모습은 비록 잠시 후에 닥칠 고난이 있을지라도 제자들을 사랑하시어 바른 진리를 가르치시려는 참된 교육자의 자세이다.
- (4)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바로 이러한 인내와 사명감을 지녀야 한다.
- (5) 즉 영적으로 어리석고 빨리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경멸하거나 가망이 없는 자로 여겨 멀리해서는 안 되며 인내와 사랑 가운데 더 자세하게 가르쳐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며 또한 성장시켜야 한다(참조, 롬 15:1-3).

15. **㉠**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과 활동은 곧 누구의 일인가? (10, 11절)

- ㉠** (1)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 (2)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참조, 17: 11, 22).
- (3) 이 원리는 삼위 일체(三位一體)의 교리로서 삼위이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은 서로의 사역에 있어서 통일성을 기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목적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가리킨다.
- (4)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반영한 것이 된다.
- (5)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명령만 수행하는 기계와 같은 존재는 아니시며 도리어 자신의 신적 지위를 낮추어 인간을 구원하는 사역을 스스로 맡으신 분이므로 서(빌 2:5-8) 충동적으로 사역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 (6) 왜냐하면 하박국의 삼위(三位)는 서로 종속되거나 그 활동이 귀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 (비교, 마3: 16, 17; 28: 19). 즉 각 위의 하나님은 독립적인 인격(person)을 지니신 한 분이시다.

16. **㉠** 주께서 말씀하신 ‘큰 것’이란 무엇인가? (12절)

- ㉠** (1) 이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의미한다.
- (2) 그런데 본질의 표현대로 주의 일보다 크다고 한 것은 복음의 전파가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던 시대보다 양적으로 확대될 것을 의미한다.
- (3)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는 적은 수의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나 오순절 이후에는 사도들을 통하여 넓은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참조, 행 2장).
- (4) 즉 주께서 크다고 표현하신 것은 질적인 면에서 향상된 위대한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양적인 팽창을 지적하신 것이다.
- (5) 이처럼 예수께서는 당신을 의뢰하고 당신의 사역을 이어받을 자들에게 놀라운 능력과 보람을 안겨 주실 것이라 하셨다(참조, 롬 1: 16). 그러므로 그 약속을 받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으로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다(참조, 마 28: 18-20).

17. **㉠** 우리가 주께 간구할 때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13, 14절)

- ㉠** (1) 기도의 응답에 대한 근거는 주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시행(施行)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이다(참조, 15:7).
- (2) 또한 구하는 것이 응답받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구하는 기도가 시행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 (3)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부르는 단순한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께 구할 수 있는 근거, 즉 보혈의 피로 우리를 값 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는 것을 의미한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사적(私的)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참조, 약 1:6, 7; 4:3)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눈앞에 나타나면 주저하지 말고 예수께 고함으로 그분의 약속이 단순한 약속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실현된 약속이 되게 해야 한다. 기도는 모든 믿는 자의 특권이요 의무이다(참조, 마18:19; 약1:5, 6; 요일5:14).

18. **㉠** 주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15절)

- ㉠** (1) 주를 사랑하는 자는 그분이 가르치신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하셨다.
- (2) 사랑이란 어떤 구체적인 정형(定型)이 있는 행위가 아니라 사랑하는 상대방을 아끼고 상대가 원하는 행동을 하는 관계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 (3)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며(3:16)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인간을 위해 죽으심으로써 인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롬5:8).
- (4)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서 당연히 주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이는 의무라기 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사랑의 표현인 것이다(엡3:17-19; 5:2; 골3:14).

19. **㉠**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위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시리라 하셨는가? (16절)

- ㉠** (1)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保惠師)를 보내 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라 말씀하셨다.
- (2)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로서 '곁에'라는 뜻을 가진 <파라>와 '부른다'라는 의미의 <클레토스>가 합쳐진 단어인데 '도움을 받기 위해 곁으로 부름 받은 자'라는 뜻이 있다.
- (3) 이 낱말은 영어 성경에서 상담자(NIV, RSV, counselor), 위안자(KJV, comforter), 돕는 자(Modern Language Bible, helper)로 번역되기도 하였다.
- (4) 예수의 이 간구는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던 주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보혜사 곧 성령께서 강림하심(참조, 행2장)으로 성취되었다.
- (5) 더우기 성령께서는 항상 믿는 자들의 인격과 삶 속에 거하시면서 각자의 필요와 고충을 이해하시며 적절한 은혜로 채워 주신다(참조, 롬8:26).
- (6)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며 날마다 그분의 뜻하심에 자신을 복종시켜 나가야 한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참조, 행11:24).

20. **㉠** 진리의 영이란 무엇인가? (17절)

- ㉠** (1) 진리의 영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며(15:26) 그를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우치고 구원받은 자들이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을 가리킨다(참조, 요일4:6).
- (2) 이외에도 성경에서는 성령을 여러 다른 표현을 써서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번호	명 칭	성경 귀절
1	하나님의 신	창 2:1
2	주 여호와와의 신	사 61:1
3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속 12:10
4	아버지의 성령	마 10:20
5	보혜사	14: 16, 26
6	진리의 영	14:17
7	성결의 영	롬 1:4
8	생명의 성령	롬 8:2
9	그리스도의 영	롬 8:9
10	양자의 영	롬 8:15
11	아들의 영	갈 4:6
12	영원하신 성령	히 9:14
13	영광의 영	벧전 4:14
14	대언의 영	제 19:10

(3) 이와 같은 성령의 여러 별명으로 보아 우리는 성령께서 다양한 역할을 통하여 우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21. **㉠ 세상과 진리의 영과의 관계를 설명하라(17절).**

- ㉠** (1) 세상은 진리의 영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을 받을 수 없다.  
 (2)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진리의 영 곧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오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안다.  
 (3) 이처럼 세상은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의 하시는 일도 알 수 없다(참조, 17:3) 그러기에 세상은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가질 수 없게 된다.  
 (4) 따라서 성령을 알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도 구원받은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22. **㉠ ‘같이 제십’에 관한 주의 가르침을 설명하라(18-20절).**

- ㉠** (1) 보혜사께서 오시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거하시게 된다.  
 (2) 이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령의 강림과 성도들에게 내주하심으로 완성됨을 가리킨다.  
 (3) 즉 구원받은 자가 삼위 일체이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한다(참조, 갈 2:20).  
 (4) 그리고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자와 영원토록 같이 계시(16절) 이 연합을 보존하신다.  
 (5) 따라서 구원은 취소되거나 소멸되지 아니하며 일단 구원받은 영혼은 모든 영적 축복을 소유한(엡 1:3) 하늘나라의 상속자(벧전 1:4)가 된다(참조, 롬 8:28-39; 엡 4:30).

23. **㉠ ‘그날’이란 구체적으로 어느 때를 가리키는가? (20절)**

- ㉠** (1) ‘그날’이란 말에 대해서 혹자는 19절과 연관시켜서 주께서 부활하시는 날로 또는 18절과 관련시켜 주 예수의 재림 및 새 하늘과 새 땅(제21:1)이 있어지는 날로 보기도 한다.  
 (2) 그러나 16절부터 계속되고 있는 성령과 예수 그리고 성도와의 상관 관계에서 본다면 이는 분명히 예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있을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예수께서는 ‘그날’, 즉 성령께서 이 땅에서 완전한 지배권을 가지시고 활동하시는 때

에 성부 하나님과 예수와 성도 사이에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진정한 연합과 하나 됨을 이루신다.

- (4) 이러한 관계성은 영원히 유지될 뿐더러 이런 관계 속에 거하는 성도들도 예수의 영원한 생명력에 흡수되어 영생하게 될 것이다(19절).
- (5)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자로서 결코 세상이나 그에 속한 세력들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굽히지 말아야 한다(참조, 히13:5-8). 비록 우리의 세상적인 기대는 사라진다 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은 여전하실 것이다.

**24. C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가? (21절)**

- A** (1) 주께서 가르치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주를 사랑하는 자이며 주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다.
- (2) 그런데 요일 4:10, 19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내어 주셨다는 기록이 있다.
- (3) 이 같은 차이는 구원에 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셨으며 인간들이 그 놀라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후 감사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된다는 논리로써 설명되어질 수 있다.
- (4) 즉 태어나면서부터 죄악에 거하여(참조, 잠 1:24; 렘13:23; 마 15:19)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인간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 (5) 따라서 인간들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로서 항상 감사의 생활을 해야 하며 또한 그 사랑을 베풀 의무도 지니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요일 4:11, 16, 20, 21).
- (6) 또한 주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이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 그들을 결길로 나가지 않게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시 73:24; 사 30:21).
- (7)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만으로서의 신앙 생활에 만족하지 말고 날마다 주의 말씀에 자신을 의탁하고 모든 판단과 가치의 근거를 그 말씀에 두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참조, 마7:21).

**25. C 22절에 나오는 '유다'는 누구인가?**

- A** (1) 본질의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야고보의 아들이며(눅 6:16) 다대오라고도 불리운 자이다(마10:3; 막 3:18).
- (2) 유다라는 이름은 유대 사회의 흔한 이름이며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명의 유다가 등장한다.
- (3)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유다(눅 3:30), 가롯인 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유다(마 13:55), 갈릴리 사람 유다(행 5:27), 초대 교회의 신도인 다메섹 유다(행 9:11),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행 15:22) 등이다.
- (4) 본서의 기자(記者)가 '가롯인 아난'이라는 수식어를 쓴 이유는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 (5) 또한 가롯 유다에 대한 본서 기자(記者)의 강한 적대감을 은연중에 나타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26. C 유다는 주께 무엇이라고 질문했는가? (22절)**

- A** (1) 유다는 주께 왜 당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나타내지 않으시냐고 물었다.
- (2) 이는 3년 동안이나 주를 좇은 유다가 아직도 그분의 영적 사역을 파악하지 못한 증거로서 유다는 주를 세속적인 왕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 (3) 즉 유다는 주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세상을 지배하게

되기를 바랬다.

- (4) 물론 이 같은 메시아관(觀)은 잘못된 것으로서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한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많다.
- (5) 물질의 축복이나 세속적인 명예를 얻기 위한 신앙 생활이 바로 그러한 잘못된 신앙관 중의 하나이다.
- (6) 따라서 우리들도 이런 엉뚱한 신앙관을 갖고 있거나 않은지 성경을 통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한 신앙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을 택해야 한다.

27. **㉠ 유다의 질문에 대한 그리스도의 응답은 무엇인가? (23, 24절)**

- ㉠** (1) 주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대답하셨다.
- (2) 이 말씀은 본장에서 이미 여러 번 등장한 말씀이다(15, 21절)
- (3) 그러나 이 말씀이 반복될 때마다 약간씩 강조되어 중요한 의미를 설명한다.
- (4) 즉 15절의 말씀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의 명령에 대한 단순한 순종이 아닌 주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승화된 개념이다(참조, ㉠ 18).
- (5) 또 21절의 말씀은 15절보다 더욱 확대되어 계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가르친다(참조, ㉠ 24).
- (6) 그리고 본절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성령께서 내주(內住)하시는 성도라는 사실을 밝힌다.
- (7)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그 어떤 봉사나 희생 이전에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를 묻고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참조, 시119:105).

28. **㉠ 보혜사(保惠師)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26절)**

- ㉠** (1) 보혜사, 즉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바른 신앙을 유지하도록 가르치신다.
- (2) 이외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아래와 같다.

성령의 사역	성경 귀절
악과 대항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심	마10:17-20
거듭나게 하심	3:3, 5
진리로 인도하심	16:13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열심과 능력을 주심	행 1:8
죄를 깨닫게 하여 회개하게 하심	행 5:31, 32
전도를 명하심	행 8:29
성도들을 위로하심	행 9:31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심	롬 8:16; 히 10:15
기쁨을 주심	롬 14:17
거룩하게 하심	롬 15:16; 살후 2:13
영적인 분별력을 주심	고전 2:10-16; 요일 4:1-6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심	고전 12:3-11
하나님을 믿는 여러 증거를 나타내게 하심	갈 5:22, 23

- (3) 또한 이 보혜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이므로 성령의 역사는 곧 삼위 일체의 사역임을 알 수 있다.
- (4) 이러한 성령의 사역으로 보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에서 역사(役事)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칼빈(Calvin, 1509-1564)은 성도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이러한 성령의 활동을 ‘성령의 내재적 조명(照明)’이라고 칭했다.

29. **㉠** 주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평안에 대하여 설명하라(27절).

- ㉠** (1)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평안’을 주셔서 근심과 두려움이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서 ‘평안’이란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 <shalom>이라 하는데 심적인 굳건함과 평화를 갖는 상태를 의미한다.
- (3) 유대 사회에서 ‘평안하시기를’(히, shalom 라크)하고 말하는 인사는 만났을 때(20:19, 26; 눅10:5), 헤어질 때(엡6:23; 벧전5:14) 그리고 떠나 보낼 때(삼상1:17; 행16:36) 사용되었다.
- (4) 그러나 본절에서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인사의 말씀이 아니고 헤어짐을 슬퍼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심과 더불어 성령의 오심으로 인하여 누리게 될 평화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
- (5) 또 여기에서 말하는 근심이나 두려움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헤어지므로 인하여 갖게 될지도 모르는 어지러운 심적 상태를 의미한다.
- (6) 그리고 주께서 주신다는 ‘그리스도의 평안’은 십자가에 달리실 일을 앞에 두고도 평온하신 그리스도의 영적인 평화를 가리킨다.
- (7) 즉 이 ‘평안’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신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어떤 외부로부터의 원조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그런 ‘평안’이 아니다. 이는 ‘나의 평안’ 곧 예수께서 지금 지니고 계신 그 평안을 주시겠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이 ‘평안’을 해치거나 빼앗을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 (8) 이와 같이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참된 평화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빌4:7; 딤후1:7).
- (9) 또한 성도들이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도 배울 수 있다(벧전5:7).

30. **㉠**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슨 뜻인가? (28절)

- ㉠** (1) 이 말씀은 얼핏 보아 그리스도는 하나님보다 그 지위가 낮으며 능력이 열등한 것처럼 느껴진다.
- (2) 그러나 이는 잘못된 해석으로 하나님의 삼위는 동등하시며(참조, 마28:19; 고후13:14) 서로 종속되지도 않는다.
- (3) 그런데 본절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성의 질서에 의한 성부에 대한 성자의 복종을 의미한다.
- (4) 즉 성자는 성부의 보내심을 받고(3:17) 성부의 말씀을 들으며(8:26) 성부의 뜻을 이행하신다(8:29).
- (5) 그리스도께서는 그 신성(神性)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을 인성(人性)을 지닌 존재로 낮추셨다(빌2:7, 8)
- (6) 따라서 본절의 말씀은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成肉身]께서 구원 사역을 실행하는 자의 신분으로서 하신 말씀이다.

31. **㉠** 주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의 일을 미리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인가? (29절)

- ㉠** (1) 앞으로의 일이란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수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가리킨다.
- (2) 주께서 이러한 일들이 있으리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 그러한 일들을 당할 때에 주께서 이전에 가르치신 말씀이 진실이었다 라고 믿게 하려는 의도에서였다.
- (3) 이러한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예지를 가지신 분임을 보여 준다.

- (4)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의 일들이 우발적이거나 돌발적으로 일어날 사건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임을 나타내신 것이다.
- (5) 따라서 제자들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안다면 막상 그 일이 닥쳤을 때에 당황치 않고 도리어 믿음이 굳게 될 것이다.
- (6)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 앞에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이 신앙을 성장시키는 훈련이라는 사실을 믿고 시험이 왔을 때에 낙망치 말고 도리어 그 시험을 굳게 이겨나가자(참조, 약1:12; 벰전4:12, 13).

32. **㉠** 앞으로 주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겠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30절)

- ㉠** (1) 그것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임금이 오기 때문이다.
- (2) 여기에서 '이 세상의 임금'이란 공중 권세 잡은 자인 사단을 가리키는 말이다(12:31; 엠6:12).
- (3) 즉 주께서 사단의 활동을 아시고 계셨던 것과 또한 당신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게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시사(示唆)하는 것이다.
- (4)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신 예수께서 더 이상의 많은 말을 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은 일종의 비겁한 침묵이 아니라 앞날에 닥칠 모든 일들을 당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기꺼이 받아들여시겠다는 단호한 결의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 (5) 예수께서는 비록 당신의 사역 말기에 별로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당신의 행동(고난당하심, 죽으심, 부활하심 등)으로 우리에게 무한한 말씀을 해주셨다.

33. **㉠** 주께서 이 세상 임금과 관계할 것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인가? (30절)

- ㉠** (1)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분께 권세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모욕을 받으시고 처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함이다(고후5:18, 19, 21).
- (3)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죄의 삯인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마28:6; 행17:31) 사단의 권세는 그분 앞에서 무력해졌다.
- (4) 또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하였기에 역시 사단은 성도들을 멸망시키거나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다(15:1-7; 17:21, 22; 롬6:5).
- (5)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확고하며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고 어떠한 두려움과 유혹이라도 물리쳐야 할 것이다(참조, 딤후3:5-7; 벰전3:7).

34. **㉠** 그리스도의 행동은 누구의 명(命)에 의한 것인가? (31절)

- ㉠** (1)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명령 때문이다.
- (2)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사단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 때문인 것이다.
- (3)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자발성은 '떠나자'라는 뜻의 헬라어 <아고멘>이 의지를 나타내는 가정법 능동태의 형태로 표현된 사실로도 알 수 있다.
- (4)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감에서 보다는 사랑에 근거한 행동이었음을 알 수 있다.
- (5)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생활도 의무나 강제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여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며 자신보다 그분이 영광을 받는 것을 더욱 기쁘게 생각하는 사랑에 근거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참조, 시73:25, 26; 고전10:31).

35. **㉠** 주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라고 하신 말씀을 설명하라(31절).

- ㉠** (1)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자신과의 동행을 요청하신 말씀이다.
- (2) 주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나라'(헬, 에게이레스테), '떠나자'(헬, 아고멘)라고 권유하신

말씀은 모두 복수형으로 쓰였다.

- (3) 즉 주께서는 ‘나는 간다’라고 하시지 않고 ‘일어나 같이 가자’고 말씀하신 것이다.
- (4) 이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은 것이 두려워 제자들과 같이 가시자고 한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직접 보여 주기 위한 권유였다.
- (5) 그러나 막상 주께서 고난받으실 때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은 많지 않았다(참조, 16:32; 막15:40; 눅23:49).
- (6) 이렇게 겁이 많고(참조, 눅22:54-62) 약했던(참조, 막14:37-41) 제자들이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담대하게 진리를 증거하였다(참조, 행2장).
- (7) 따라서 우리들도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들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담대함과 인내로써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참조, 엡3:12; 벧전3:14).
- (8) 또한 진리를 위하여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은(딤후1:8)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며 후에는 영광으로써 그 상급을 받게 되는 값진 것이다(롬8:17, 18).

## 연구자료

인간 구원에 있어서 보혜사(保惠師)의 사역. 본장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승천하신 후 보혜사를 보내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언급되어 있다(16절). ‘보혜사’(Paraclete)에 해당되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대언자’, ‘변호인’, ‘옹호자’, ‘중재자’, ‘조력자’ 등과 같은 다양한 뜻을 지니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성령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 것 외(16, 26절; 15:26; 16:7)에 단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을 뿐이다(요일 2:1). 그러면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시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의 뒤를 이어 계속해서 인간을 위한 구속 사역을 수행케 하시기 위함이다. 이 일을 위하여 세상에 오신 보혜사께서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택정(擇定)해 놓으신 자(롬8:30; 엡1:4)의 마음속에 내주(內住)하신다(17절). 그리고서 그들에게 예수에 대하여(15:26),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가르침에 대하여(26절), 기독교의 모든 진리에 대하여(16:13)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해주신다. 그 결과 그들은 죄 가운데 살아온 지난날을 뒤우치며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된다(참조, 행2:37, 38). 이렇게 볼 때 우리는 그들을 가리켜 ‘이미 구원의 반열에 든 자’라고 칭할 수 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3:16). 그렇지만 인간을 위한 보혜사의 구원 사역이 이로써 끝나는 것은 아니다. 그분께서는 계속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돌보신다(참조, 갈5:16-23).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성도들이 온전히 구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참조, 히6:11, 12).

# 제 15 장 그리스도께서 연합에 대하여 말씀하시다

답락구분 1-10 포도나무 비유로 상징된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 / 11-15 예수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는 예수의 친구이다 / 16-17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리스도 / 18-25 세상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를 미워할 것이다 / 26-27 성령과 성도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 1 내가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 2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
- 3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 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 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 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 8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 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 1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 12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 13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 14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 15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

- 니 좋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 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 17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 18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 19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 20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 21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 22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 23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 24 내가 아무도 못 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 25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옹하게 하려 함이니라
- 26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 1. ㉠ 본장의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하라.

- ㉠ (1) 본장은 13장에서부터 16장에 이르는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의 그리스도께서 하신 강화(講話) 가운데 한 부분으로서 주된 메시지는 ‘연합’이다.
- (2) 주께서는 연합의 개념을 포도나무의 비유로(1-8절) 설명하시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다(9절).
- (3) 또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데 이는 세상이 그리스도와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18, 24절).
- (4) 즉 주께서는 육신적인 헤어짐으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고민하는 제자들에게 연합의 원리를 가르쳐 주셔서 그들과 영원토록 헤어지지 않음을 확신시켜 주셨다(참조, 26절).
- (5) 이 같은 연합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모든 자들에게 적용되는 신앙의 원리이다.

## 2. ㉠ 포도나무의 비유가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1-9절)

- ㉠ (1) 이 비유는 구원받은 성도들과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 (2) 성도들은 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포도나무로, 하나님은 농부로 묘사된 이 비유는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좋은 가지라는 뜻이 아니다.
- (3) 이 비유는 ‘연합’의 원리를 나타내어 가지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 (4) 즉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결된 상태일 때 살아 있는 것이며 그 삶이 의미 있는 것이라는 뜻이다.

## 3. ㉠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무엇으로 비유하셨는가? (1절)

- ㉠ (1) 주께서는 자신을 참포도나무로 비유하셨다.
- (2)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종종 포도나무로 표현되었다(참조, 시80:8-13).
- (3) 그러나 선택된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은 부패하고 타락하여 들 포도나무가 되었다(참조, 렘2:21; 호10:1).
- (4) 주께서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시고 자신의 완전하시고 변함없으신 신성(神性)에 의거하여 자신을 참포도나무로 비유하신 것으로 보인다.
- (5) 또 포도나무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더불어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흔한 식물이다.
- (6) 그래서 주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사실은 자신을 한낱 초목에 비유하신 그분의 겸손과 함께 어려운 신앙의 원리를 쉽게 가르치시는 능력 있는 교육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한다.
- (7) 그리고 포도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듯이(삿9:13)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마3:17)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밝히시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14:27).
- (8) 그러므로 자신을 참포도나무로 비유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무도 적확(的確)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9) 따라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한 말씀, 한 말씀을 주의 깊게 묵상하면 더욱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4. ㉠ 포도나무 비유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로 표현되었는가? (1절)

- ㉠ (1) 하나님은 농부로 비유되었다.
- (2) 농부는 나무의 소유주이며 또한 관리자이기도 하다.

- (3)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교회(헬, 에클레시아)의 주관자시며 또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키우시고 관리하시는 분이시다(참조, 고전3:23).
- (4) 그러므로 교회와 그에 속한 개개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통치하심을 인정해야 한다.

5. **Q 농부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2절)**

- A** (1) 농부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 내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잘 가꾼다(참조, 고전3:9).
- (2) 농부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 내는 이유는 열매를 잘 맺는 가지로 하여금 더욱 많은 영양분을 섭취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 (3) 이러한 사실은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한 달란트 비유를 연상케 한다(마25:14-30).
- (4) 즉 영적으로 강건하여 성령의 열매를 잘 맺는 성도들은 농부이신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입게 되나 영적으로 무익하고 불성실한 자들은 버리워지게 된다(마25:30).

6. **Q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제해 버리시는 가지는 어떤 가지인가? (2절)**

- A** (1) 농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해 버린다.
- (2) 여기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여 아무 쓸모 없는 죽은 상태의 가지를 가리킨다.
- (3) 이는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와 아무 연관이 없는 명목상의 신자를 가리킨다.
- (4) 이와 같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자들이 교회 내에 있긴 하지만 심판 날에는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모른다고 하시게 된다(마7:21-23).
- (5) 이러한 구분은 그 행함에 달린 것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자들은 더 많은 은혜와 보살핌을 받게 되고 행함이 없는 자들은 버림을 받게 된다.
- (6) 그러나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성도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성령께서(13:16; 고후1:22)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주장하시기 때문이다(참조, 갈2:20).
- (7) 따라서 본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란 교회 내의 가라지를 가리킨다.
- (8) 그런데 성도들은 안심해서는 안 되며 때때로 나타나는 옛사람의 죄악된 본성을(롬7:17-23) 죽이는 경건 생활에 힘써야 한다(롬8:1-15; 딤후4:7).

7. **Q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는 주의 말씀은 무슨 뜻인가? (3절)**

- A** (1) 이는 칭의(justification)를 의미한다.
- (2) 즉 이 깨끗함은 완전한 성화(sanctification)가 아니고 주로부터 깨끗하다고 인정을 받는 단계를 뜻한다(참조, 13:10).
- (3) 또 깨끗함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헬, 디아 로곤) 거룩하게 된 것을 말한다(17:17).
- (4)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죄로 더러워진 영혼을 깨끗케 하는 능력이며(히4:2) 듣는 자들이 말씀을 믿을 때에 영혼 속에서 그러한 능력을 행사하시기 때문이다(참조, 8:31, 32; 12:48; 행15:9).
- (5) 이 같은 말씀의 역사(役事)는 오늘날에도 계속되어 말씀은 믿음의 근거가 되며(롬10:17) 성도들이 살아가는 바른 도리를 가르쳐 준다(시119:18, 105, 130).
- (6) 따라서 우리는 삶의 기준을 성경 말씀에 두어야 하며 그 말씀을 전해야 한다(참조, 롬10:14, 17; 행1:8).

8. **Q 가지와 그 열매와의 관계를 설명하라(4,5절).**

- A** (1)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 (2) 주께서는 이 연합의 원리를 ‘거한다’(헬, 메이나테)는 말로 표현하셨다.
- (3) 그 원어(原語)의 뜻은 ‘영존하다’, ‘계속 머물다’로서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의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한다(참조, 6:56).
- (4)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참조, 빌1:11) 이는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이다(갈2:20; 3:5).
- (5) 그렇다고 하여 가지인 성도들은 가만히 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비록 성도라 하더라도 악한 본성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만약 자신을 방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 보다는 육신의 정욕을 좇는 일에 점점 더 몰두하기 때문이다(마15:19).
- (6) 그럴 때에 성령께서는 근심하시지만(엡4:30) 그래도 결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 떠나 시지는 않고(참조, 14:16) 바로 돌아오도록 말씀으로 권유하시거나 환난으로 치시기도 하면서 영적인 깨우침을 주신다.
- (7) 따라서 성도들은 육신의 정욕적인 본성을 날마다 죽이면서(고전15:31) 새롭게 되어(고후4:16)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갈 6:9, 10; 벧전 2:11; 요일2:15, 16).

9. **㉠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되는가? (5,6절)**

- ㉠** (1) 그 가지들은 포도원 밖에 버리우게 되고 말라서 결국은 불에 던져 태워지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참조, 마13:40-42).
- (2) 원래 포도나무의 가지는 굵거나 끝지가 얇아서 목재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빨감으로밖에 쓰이지 않았다.
- (3) 이러한 가지를 주께서는 ‘나를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고 말씀하셨다.
- (4) 즉 가지로서의 결모양은 있지만 그 내용과 실속이 없는 무가치한 존재인 것이다.
- (5) 계시록에 나타난 사데 교회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서 신앙에 근거한 선한 행위가 없이 의식적(儀式的)인 행위만을 가진 교회였다.
- (6) 그래서 사데 교회는 주께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는 책망을 들었다(계3:1).
- (7) 결국 그 신앙이 주를 떠난 자들은 그들의 행위가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와도 그것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일인 것이다(비교, 마7:24-27).
- (8) 한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포도원 밖에 버리움 당함 :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만다(고전9:27).
  - ② 버려진 가지는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곧 말라 버림 : 생명되시는 예수와 무관한 자는 절망과 죽음밖에는 발견할 수 없게 된다(참조, 6:58).
  - ③ 쓸모없게 된 가지는 마침내 불에 던져져 태움 당하게 됨 : 이미 영원한 죽음이 예비된 자에게 전인격으로 자각할 수 있게끔 죽임에의 형벌이 가해지게 된다(참조, 마 25:46; 계 20:10).
- (9)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행위를 뒤돌아보아 그것이 그리스도에 기초한 것인가 아닌가를 검토해 보아야 하며 앞으로의 신앙 생활도 그리스도에 근거한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되도록 해야 한다(눅9:23; 갈2:20).

10. **㉠ 예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을 하시면서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신 것은 무엇인가? (7절)**

- ㉠** (1) 예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셨다.

- (2) 여기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첫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즉 예수로 힘입어 살며(참조, 빌4:13) 그의 뜻을 추종하고(참조, 요일 2:6) 거룩함을 유지할 때(참조, 요일 3:6)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적절히 응답해 주신다(참조, Q8).
- (3) 둘째 조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다. 즉 예수의 말씀을 가장 귀한 보배로 알아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참조, 14:21, 23) 주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다.
- (4) 사실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신다면 우리는 분명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 (5) 이러한 삶을 사는 자가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필연적으로 그분의 뜻과 일치될 것이며 그럴 때 그 기도는 확실한 응답이 주어질 것이다(참조, 16:24; 약1:5).

### 11. Q 가지가 과실을 맺는 목적은 무엇인가? (8절)

- A (1) 그 목적은 나무의 주인이시며 관리자이신 농부, 즉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는 것이다.
- (2) 또한 가지는 열매를 맺음으로서 자신이 어떤 나무에 속하였는가를 나타낸다(참조, 마 7:20).
- (3) 따라서 가지는 열매를 맺어 농부를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아 있는 존재이며 보살핌과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 존재임을 실제로 나타내야 한다.
- (4) 즉 성도는 믿음의 선한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실을 증거하며 자랑해야 한다(참조, 고전10:31).
- (5) 그러므로 성도가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의무라기 보다는 일차적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성도의 자기 확인과 성장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 (6)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성도가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자아(自我)를 죽이고 바르고 선한 신앙 행위를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며 나아가서 성도 자신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됨을 알 수 있다(참조, 골1:10-12).

### 12. Q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9, 10절)

- A (1) 이 말은 주의 계명을 지키라는 의미이다.
- (2) 주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제자도 그리스도의 계명을 준행할 것을 부탁하셨다.
- (3) 여기에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주께서 사랑의 외적인 표현을 요구하신다는 뜻이다.
- (4) 즉 주를 따르는 자들은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며 주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싫어하는 모습으로써 주께 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또한 주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 (5) 더 자세한 내용은 14장 Q24, 27을 참조하라.

### 13. Q 주께서 제자들에게 위와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1절)

- A (1) 그 이유는 주의 기쁨이 제자들 안에 있어서 제자들의 기쁨을 넘치게 하기 위함이다.
- (2) 또 주께서 앞서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신다고 하신 말씀으로 인하여(14:2, 3)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기 위해서이다.
- (3) 주께서 말씀하신 기쁨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즐거움이며 하나님과의 사랑이 유지되는 데서 오는 기쁨이다.
- (4) 따라서 기쁨을 소유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신 시점에서도 이같이 평은하시며 도리어 제자들을 위로하실 수 있으셨다.
- (5) 이와 같이 참된 기쁨은 세상이 주는 순간적인 쾌락이나 흥분과는 달리 영적이고 지속

적이며 하나님을 위한 용기와 열심을 내게 하는 역동적인 것이다.

- (6) 그리고 이 영적인 기쁨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만이 참된 의미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 (7)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하며(빌4:4) 또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한다.
- (8) 따라서 우리들도 슬픔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와 기쁨을 얻도록 간구해야 한다. 또 고난을 통하여 신자를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役事)를 기억하면 위로와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된다(시30:5; 히12:2).

**14. Q 주의 제명은 무엇인가? (12절)**

- A** (1) 주의 제명은 주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같이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다(참조, 13:34).
- (2) 여기에 쓰인 ‘같이’(헬, 카도스)라는 말의 원어는 ‘만큼’, ‘그대로’, ‘처럼’ 등의 의미를 갖고 있다.
- (3) 따라서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께서 베푸신 만큼의 깊고 큰 사랑을 서로에게 베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 (4)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하여 서로 사랑할 것과 사랑을 베푸는 일은 곧 율법의 완성이라고 가르쳤다(롬13:8-10).
- (5) 또 이 말씀은 앞서 등장한 포도나무의 비유에도 연결되어 가지가 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가지가 자기와 연결된 나무와는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 (6) 그러므로 성도들은 진실된 사랑을 베풀어 자신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임을 증거해야 하며 그 사랑의 깊이와 폭이 주의 사랑과 흡사할 정도로 깊고 넓어야 한다.
- (7)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한다.
- (8) 즉 다른 형제가 자신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물질적 동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정신적이고 영적인 사랑의 고귀함을 인정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아는 마음도 역시 사랑을 나누는 귀한 태도인 것이다.

**15. Q 주께서는 어떠한 사랑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셨는가? (13, 14절)**

- A** (1) 주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다.
- (2) 그리고 주의 제명을 행하는 자가 주의 친구라 칭함 받는다고 말씀하셨다.
- (3) 따라서 주께서는 자신의 죽음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대속적 죽음이 될 것임을 나타내신 것이다.
- (4) 친구를 위한 한 사람의 죽음은 자신의 생명을 던지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의미가 있으나 그리스도의 죽음은 친구와 함께 자신도 살리는 죽음이었기에 대속의 의미를 지닌다(10:11, 17, 18).
- (5) 결국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것은 결코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죽음이 ‘대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가르치시는 것이다.
- (6) 그리고 주의할 점은 요일 3:16에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한 말씀이 있는데 이는 실제로 목숨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실천적인 형제 사랑의 행위를 강조하는 귀절이다(요일3:17, 18).
- (7) 왜냐하면 자신이 죽음으로써 친구와 자신의 목숨을 살리는 대속적 죽음은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 (8)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역은 당신께서 스스로 가장 큰 사랑이라고 일컬을 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었다.

## 16. ㉠ 주의 친구란 어떠한 사람을 가리키는가? (14절)

- ㉠ (1) 주의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2) 여기에서 친구라는 말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분과 지위가 주와 동등하다는 뜻이 아니고 주께서 성도들을 대우하시는 사랑과 그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3) 즉 지금까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던 자들이 이제 주의 명령을 행하여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관계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4) 그리고 이러한 명칭을 갖는다는 사실은 유아기적 신앙이 스스로의 행위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였다는 의미도 된다.  
 (5) 따라서 우리는 주의 명령을 행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 자신의 성숙된 신앙과 함께 주와의 긴밀한 관계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엡4:13, 15).

## 17. ㉠ 주의 말씀 가운데 친구와 대비(對比)되는 대상은 무엇이었는가? (15절)

- ㉠ (1) 본절에서 친구와 대조되어 설명된 것은 종이다.  
 (2) 본절의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들로스>로서 자신을 전적으로 타인의 뜻에 맡기는 사람이나 섬기는 신분의 사람, 즉 노예를 뜻한다.  
 (3) 또 친구라는 뜻의 헬라어는 <필로스>로서 <들로스>의 대비어인데 ‘친절이나 긍휼의 행동을 나타내다’라는 뜻의 동사 <필레오>로부터 파생된 말이다.  
 (4) 이렇게 본절에서 ‘친구’와 ‘종’이 대비된 이유는 그 신분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말하려 함이 아니고 주인과의 가까운 정도를 나타내려는 의도 때문이다.  
 (5) 즉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의 이유나 목적을 모르지만 친구는 주인의 마음속을 다 알고 또 주인과 사랑을 주고 받는다.  
 (6)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부터 친구의 대접을 받는 성도들은 주의 일을 알고 주의 마음을 이해하며 주와 사랑을 주고 받는다.  
 (7) 따라서 신자들이 신앙의 눈을 떠서 주께서 원하시거나 싫어하시는 일을 구분할 수 있으며, 자신이 주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주를 사랑하여 그분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든다면 이는 자신이 벌써 주의 친구로 대접받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 18. ㉠ 주께서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신 이유는 무엇인가? (15절)

- ㉠ (1) 그 이유는 주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모두 전하였기 때문이다.  
 (2) 즉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범위 안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친구라 불릴 수 있게 된다.  
 (3)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종’(롬 1:1; 벧후 1:1)이라고 불렀다.  
 (4) 이는 그들이 노예 신분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자신들이 스스로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분의 말씀대로 따르는 자라는 뜻에서 붙인 겸손한 칭호였다.  
 (5) 이같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고 사랑하는 자들은 스스로를 낮추게 된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6) 결국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이다.  
 (7) 그러므로 신자들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 자기가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기에 힘써야 한다(미6:8; 약4:10).

## 19. ㉠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일에 대하여 설명하라(16절).

- ㉠ (1) 먼저 제자들이 자신들을 가르칠 스승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가르치고 일을 시킬 제자들을 택하셨다는 점이 중요하다.

- (2) 왜냐하면 이는 선택의 주권이 어느 쪽에 있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 (3) 이렇듯이 주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뽑혀진 제자들 가운데에는 미친한 어부도 있었으며(막1:16-20)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동족을 착취하여 자신의 사육을 채우던 세금 걷는 자의 직업물 가졌던 사람도(마9:9) 있었다.
- (4) 물론 이들의 교육 수준이나 사회적 경험 등의 차이는 천차 만별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었다.
- (5) 즉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셔서 모으실 때에는 저마다의 부족하고 모자라는 점이 있었지만 후에 그들은 훌륭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것이다(참조, 행2장).
- (6) 그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성장한 때문이었다. 즉 그리스도와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이전의 무지하고 약했던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었으며 더구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남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단계에까지 도달할 수 있었다.
- (7)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 우리는 약하고 천한 자들을 들어 쓰셔서 부하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다(고전1:26, 27).
- (8)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로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들은 신앙의 공동체(교회) 안에서 자신의 과거 경력과 능력을 과시하는 어리석음을 삼가해야 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를 찬양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20. **㉠** 주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세우신 이유는 무엇인가? (16절)

- ㉠** (1) 그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이다.
- (2) 여기서 ‘세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데카>로서 ‘임명하다’라는 뜻을 가진다.
- (3) 즉 주께서는 제자들을 복음의 증거자로 임명하시어 하나님의 일군이 되게 하셨다.
- (4) 이렇게 귀중한 임무를 맡은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신분은 본래 자랑스러운 것이 못 되었으며 자신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참조, 눅5:8).
- (5) 주께서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을 택하시고 세우셨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부족함을 잘 알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이다(고전1:29).
- (6) 이러한 자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며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마5:3).
- (7) 결국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명을 맡기시는 자들은 부한 자도, 못한 자도 아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21. **㉠** 제자들이 맺을 과실에 대하여 설명하라(16절).

- ㉠** (1) 이 과실은 믿는 자들이 행하는 주의 일을 의미하며 또한 맺은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항상 그 과실이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 (2) 즉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수행할 때에 결과만 중요시할 것이 아니고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직분 그 자체에도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 (3) 사울 같은 사람은 기쁨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제사를 자신이 드리는 죄를 범했으며(삼상13:8-14), 또한 아말렉의 모든 가축을 죽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 왕이라는 자신의 직분을 상실하고 말았다(삼상15:17-23).
- (4) 그리고 가룟 사람 유다도 여러 해 동안 주와 동행하면서 복음을 듣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는 그리스도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하나였지만 자신의 스승인 그리스도를 팔아 넘겨 죽게 함으로써 역시 자신의 직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자가 되었다.
- (5) 오늘날에 있어서도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기 보다 그 직분만을 자랑하거나 혹은 이전에 행했던 자신의 업적만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다.
- (6)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 본질은 그 맡은 직분에 충실할 것과 또한 그러한 충실한 태도를 통하여 계속 열매를 맺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7)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전의 충성이나 자신의 직분에만 안주(安住)해서는 안 되며 계속 주의 일에 힘써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2. Q 주께서 제자들에게 계명을 지킬 것을 명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7절)**

- A** (1) 이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2) 이는 계명과 사랑과의 관계를 설명해 준다. 즉 신자들은 계명대로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인들에 대하여 그 진노를 참으시며 사랑을 베푸시는가를 깨닫게 되고 그러한 깨달음은 다시 이웃과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  
 (3) 물론 계명을 지키는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목적을 갖지만 한편으로는 계명을 지키므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태한 백성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나타내기도 한다.  
 (4) 따라서 성도들이 주의 계명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과 동시에 자신의 신앙에 대한 긍지를 나타내는 귀한 일이다.  
 (5)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거나 제약이 많다고 귀찮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도리어 계명을 준수(遵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수준까지 신앙이 성장해야 한다(참조, 엡4:13).

**23. Q 신자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18, 19절)**

- A** (1) 그 이유는 신자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에 속하였기 때문이다.  
 (2) 또 세상이 신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3) 여기에서 세상(헬, 코스모스)은 사단의 권세하에 있어서(고후4:4) 죄와 불의에 속한 세계를 말하며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다.  
 (4)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고자 할 때에 멸시와 비웃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요 나아가서 핍박을 받는 경우도 있다.  
 (5) 그러나 성도들은 그럴 때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16:33) 기억하여 곳곳하게 신앙을 지켜야 한다.  
 (6)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당하는 환난을 오히려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받아들여 기뻐하며 인내해야 할 것이다(참조, 약1:2-4).

**24. Q 성도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 (19절)**

- A** (1) 성도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택함을 입어 그에게 속한 자들이다.  
 (2)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택함을 입었다는 말이 영어 성경에서는 '세상 밖으로 이끌어 내기 위하여 택하셨다'(Living Bible, I chose you to come out of the world)고 자세하게 표현되었다.  
 (3) 아뭏든 택함을 입은 자의 신분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신분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신분이다.  
 (4) 따라서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과는 분명히 다른 행동 양식과 사고 체제가 있어야 한다.  
 (5) 즉 세상 사람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죄하고 불의와 타협하며 또 그러한 행동들을 자연스러운 인간의 생존 방식이라고 합리화시킨다 할지라도 그들과는 소속과 신분이 다른 성도들은 그러한 죄를 용납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된다.  
 (6) 성도들은 이렇게 죄와 불의를 피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마5:13-16).  
 (7) 물론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나이 많은 어른들이 세상은 고지식하게 살아서는 안 되며 그

저 등글등글하게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못 본 척해야 한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 (8) 그러나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의한 삶을 원치 않으시며(시48:10; 고전15:34) 그렇게 불의와 타협한 자들을 엄중히 심판하신다는(벧후 2, 3장; 계 20:12-15) 사실이다.
- (9) 인생이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으며(벧전2:11) 죽음 후에 전개될 삶에 비하면 너무도 짧은 것이다(약4:14).
- (10) 따라서 우리는 짧고 단편적인 인생의 경험보다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주의 말씀을 기준삼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벧전1:24, 25).

25. **㉠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20-22절)**

- ㉠** (1)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비교, 고전1:18).
- (2) 한 부류의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켰다(20절). 이들은 또한 제자들이 전할 복음도 역시 듣고 지킬 것이다.
- (3)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주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주를 폄박하고(눅5:21) 미워하였다.
- (4) 이러한 두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고도 주를 폄박했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22절).
- (5) 이와 같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나타난 두 가지 반응은 주의 재림 때에도 그대로 재현될 것이다.
- (6) 즉 주의 재림을 기다리던 자들은 그분의 오심을 기뻐할 것이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멸망의 길을 가던 자들에게는 주의 재림이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다(마16:27; 19:28).
- (7) 이와 같은 양상은 지금도 계속되므로 우리는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을 경계하면서 약속된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마16:28).

26. **㉠ 그리스도를 미워한 자들이 주를 폄박한 이유는 무엇인가? (23-25절)**

- ㉠** (1) 그들은 아무런 정당한 이유없이 주를 미워하고 폄박하였다.
- (2) 물론 그들은 자신들이 신앙에 투철한 사람들이며 반면에 예수는 하나님을 모욕하였기에(마26:56; 눅5:21) 당연히 징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3)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참되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닌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명예와 욕심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폄박했다고 지적하셨다(마15:7-10).
- (4) 결국 주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던 그들은 완전한 영적 소경이었으며(마15:14) 사단의 미혹을 받는 가라지와 같은 자들이었다(마7:15).
- (5) 이들은 시35:19; 69:4의 말씀을 옹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미워한 자들이었으며 그러한 일을 하도록 그들의 마음이 악해진 것을 하나님께서도 그냥 놓아 두셨던 것이다(비교, 출4:21; 10:27).
- (6)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견책과 인도를 받지만 멸망당하기로 예정된 자들은 그들의 완악함대로 계속 멸망의 길을 가도록 방기(放棄)되어진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 (7) 따라서 우리가 어긋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견책(譴責)이 있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므로 도리어 기뻐해야 한다(히12:5-13).

27. **㉠ 이유없이 마음을 받으신 그리스도의 태도에 대하여 설명하라(23-25절).**

- ㉠** (1)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 (2) 단지 그들은 사단이 권세 잡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었기에 그들의 악한 본성대로 빛이신 그리스도를 미워하였으며 끝내는 그분을 죽였던 것이다(참조, 1:5, 11).

- (3) 이렇게 그리스도는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 가운데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으며 또한 자신의 사역에 대하여 아무런 불평도 없이 죽기까지 묵묵히 감당하셨다.
- (4) 이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도수장(屠獸場)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고 묘사했다(사53:7).
- (5)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미움과 따돌림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6) 그러나 그러한 슬픔을 당해도 참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훌륭한 일이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다(벧전2:19-21).
- (7)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핍박을 이겨 내야 하며 또한 이렇게 핍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큰 상이 마련되어 있음을 기억하면(마5:10-12)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28. ㉠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자는 누구인가? (26, 27절)

- ㉠ (1) 예수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후 이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자는 ‘성령’과 당신의 ‘제자들’이라고 말씀하셨다.
- (2) 먼저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진리이신 그리스도(14:6)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8:40; 17:17)을 비진리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마음 마음에 전하실 것이다(참조, 14:17).
- (3) 여기서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헬, 파라 투 파트로스)이란 표현 때문에 성령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헬라어 <파라>는 유출이라는 행위적 의미보다는 ‘...곁에’, ‘옆으로부터’라는 위치적 의미가 더 짙다. 그러므로 위의 표현은 성령의 존재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에 대한 표현이라 함이 옳을 것이다.
- (4) 한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두번째 사역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처음부터 함께 있었고 그분의 가르침과 인격과 목적하신 바를 알게 된 제자들이다. 물론 이러한 사명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담당해야 할 부분이다(참조, 마28:18-20; 행1:8).
- (5) 그런데 그 당시 예수의 제자들 또는 오늘의 우리들은 독자적인 능력으로 예수를 증거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역은 항상 성령의 깨우침(14:26)과 내재하심(행5:32)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성령과 성도의 연합적 사역임에 분명하다.

### 본장의 요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5절).



## 제 16 장 성령의 사역에

## 대하여 말씀하시다

단락구분 1-4 제자들이 앞으로 받을 고난에 대한 말씀 / 5-6 예수의 떠나심에 대한 제자들의 근심 / 7-11 성령께서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 12-13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 / 14-15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는 성령 / 16-22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제자들의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될 것이다 / 23-24 기쁨의 근원이 되는 기도 / 25-27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 / 28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그리스도 / 29-30 제자들이 예수께 신앙 고백을 하다 / 31-33 세상에 대하여 담대할 것을 요구하시는 그리스도

1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2 사람들이 너희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3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4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 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5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6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하므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7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10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11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12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13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15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16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17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18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리라 하거늘

19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20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꼭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21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22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3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5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26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27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는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28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29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30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니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31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2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 1. ㉠ 본장의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하라.

- ㉠ (1) 본장은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하신 말씀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제자들이 앞으로 당할 고난과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 그리스도의 부활 등에 관하여 예언하신 내용이 들어 있다.
- (2) 또한 주께서는 말씀을 끝맺으시면서 이러한 모든 말씀이 제자들을 위로하여 평안을 누리게 함이었다는 것을 밝히셨다.
- (3) 따라서 본장은 모든 믿는 자들에 대한 경고와 위로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세상에 대하여 담대하라는 당부를 하심으로써 끝을 맺으셨다.
- (4)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치는 세상의 환난이 있을지라고 최후의 승리는 성도들에게 약속된 것이므로(참조, 마10:22; 례3:8-10)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나가야 한다(요일5:4).

## 2. ㉠ 주께서 제자들에게 본장 및 14,15장의 내용과 같은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그 이유는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 (2) 여기에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신 말씀은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성령의 오심,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합 등에 관한 모든 말씀을 가리킨다.
- (3) 또 본절에서 '실족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로서 '걸리게 하다', '넘어뜨리다', '죄를 짓게 하다'의 뜻이 있으며, NIV에서는 '길을 잃다', '타락하다'(go astray), Living Bible에서는 '비틀거리다'(be staggered)로 번역하였다.
- (4) 결국 제자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여 길을 잃고 타락하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이다.
- (5) 하지만 여러 해 동안 주와 동행하면서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에게 주께서는 왜 다시 기적을 보여 주심으로써 자신에 대한 확신을 주지 않으시고 말씀으로만 가르치시는 것일까?
- (6) 그 이유는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의 말씀이시며(1:1; 요일1:1), 기적은 이 생명의 말씀을 보다 확실하게 하는 보조 역할을 하는 이차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 (7) 즉 기적을 본다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며(비교, 마11:20, 21) 오히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롬10:17).
- (8) 그러므로 성도들은 기적과 불가사의한 병 고침 같은 것만을 좇는 무리들에게 미혹당하여 진리를 버리고 헛된 길로 빠져서는 안 되며 오로지 말씀에 근거한 신앙과 판단력을 가져야 한다.

(9) 더구나 말세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여(제13:13, 14) 사람들을 실족케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듦으로(제16:14) 성도들은 더욱 경계하여 눈앞에 일어나는 놀라운 사단의 이적에 현혹당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만을 굳게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이다(8:32; 벰전1:23-25).

3. **㉠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받게 될 고난과 박해에 대하여 설명하라(2절).**

- ㉠** (1) 제자들은 출회(黜會)당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라는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 (2) 여기에서 말하는 '출회'란 유대인들의 정신적 집합체인 회당에서 쫓겨 나는 것을 의미하며 쫓겨 난 자들은 유대인의 종교적, 사회적인 모임에서도 소외되어 생계에 위협을 받고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도외시되는 죽음보다 더 괴로운 치욕스러움을 겪게 된다.
- (3) 따라서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사회적인 따돌림과 심한 인격적 모독을 받게 될 것이다.
- (4) 한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유대인들의 그릇된 열심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해야 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스테반의 순교이다(행7:54-60).
- (5) 그리고 많은 사도가 순교를 당했는데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고 안드레는 X형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으며 바돌로매는 산 채로 살갓이 벗겨졌고 도마는 쇠못등이에 맞아 순교했으며 빌립은 기둥에 묶인 채로 맞아서, 마태는 칼에 찔려,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활에 맞아 순교했다고 전한다.
- (6) 이외에도 중세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음은 교회가 증명하고 있다.
- (7) 물론 오늘날에도 언어와 풍습이 다른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거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몰래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많은 순교자들이 있다.
- (8) 그러므로 우리들은 지금처럼 편하고 안전한 환경 가운데 신앙 생활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한다.
- (9) 그러나 외적인 핍박이라는 사단의 가시 대신 교회의 세속화와 신앙의 나태라는 또 다른 가시를 주의해야 할 것인데 이는 어쩌면 외적인 환난보다도 더 극심하고 효과적인 사단의 공격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성도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4. **㉠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의 편견에 대하여 설명하라(2,3절).**

- ㉠** (1)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방법이라고 여겨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였다.
- (2) 이러한 예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여겨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사울의 경우에서 찾아 볼 수 있다(행8:1,3; 9:1,2).
- (3) 또한 중세 시대에 형식적이고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던 많은 종교 개혁자들도 역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순교당하였다.
- (4) 이러한 핍박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영적 무지와 교만에서 비롯된다(3절).
- (5) 즉 자신의 단점이나 불경건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핍박하는 것은 자신의 영적 미성숙과 무지를 드러내는 행위라는 의미이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신앙 형태가 절대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여 남의 신앙을 잘 못되었다고 판단하거나 핍박해서는 안 되며, 오로지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의 눈에 들보가 들어 있지는 않은가 확인하는 신앙적 자기 성찰(自己省察)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참조, 눅6:42).

5. **㉠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같이 핍박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4절)**

- ㉠** (1) 이는 제자들이 후에 핍박을 받을 때 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 때문

이다.

- (2) 이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을 받을 일이 있겠다는 것과 그러한 박해를 받을 때에는 주의 말씀만이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은연중에 시사되고 있는 장면이다.
- (3) 이와 같이 주께서 미리 가르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환난 때에 도리어 강했으며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켰다(참조, ㉑ 3).
- (4) 그러므로 우리들도 환난과 박해가 올 때에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야 한다.

6. ㉑ 주께서 처음부터 핍박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4점)

- ㉑ (1)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 (2) 즉 이때까지 사단은 제자들을 공격하기 보다는 그리스도를 직접 공격했던 것이다(참조, 대하18:30).
- (3) 또한 이것은 이제까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방패가 되셨으나 앞으로는 그들이 환난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 내야 하리라는 뜻이다(참조, 계12:4, 13, 17).
- (4) 그러나 성령께서 사단의 침공을 받는 제자들을 도와 주시고 같이하셔서 그들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이끄실 것이다.
- (5) 이와 같이 오늘날의 성도들도 세상 끝날까지 같이하신다는 주의 약속(마28:20)을 믿고 시련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소망을 갖는 굳센 신앙을 경주해야 한다.

7. ㉑ 주께서 가시려는 곳을 설명하라(5점).

- ㉑ (1) 주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신다고 말씀하셨다.
- (2) 그리고 13:1에서는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표현되어 있고 13:3에는 '하나님'께로 가신다고 나타나 있다.
- (3)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의 표현들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설명한다.
- (4) 더우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가셔야만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된다(14:16; 15:26).
- (5) 그러므로 이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삼위 일체의 교리(敎理)를 설명하는 좋은 자료가 된다.

8. ㉑ 제자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시느냐고 묻는 사람은 과연 없었는가? (5점)

- ㉑ (1) 예수의 거취에 대해 묻는 제자가 있었다(13:36; 14:5).
- (2) 그런데도 주께서는 그러한 질문을 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 (3) 이는 제자들이 그러한 질문을 한 동기와 그리스도의 사역의 방향이 다른 데서 기인한 차이이다.
- (4) 즉 제자들은 육신적인 이별에만 집착하여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이다.
- (5) 이같이 오늘날에도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다가 영적인 착각과 혼란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많다.
- (6) 그러므로 우리들은 구원받은 성도의 위치에서 세상의 일보다는 하늘의 일을, 육신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와 안목이 필요하다(참조, 약1:5).

9. ㉑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주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6점)

- ㉑ (1) 제자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가득하였다.
- (2) 이는 영적 무지에서 비롯된 쓸데없는 근심으로서 그들이 주께서 떠나가시는 목적과 의도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기뻐했을 것이다(14:28; 15:11).
- (3) 이 같은 현상은 인간적인 감정이 앞선 때문이요 영적인 무지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 (4) 많은 순교자들은 그들이 가진 하늘나라의 보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았기에 거 거 육신의 죽음을 감내할 수 있었다(참조, 행7:54-60).
- (5) 오늘날의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입을 것, 먹을 것, 쓸 것 등을 근심하느라고 그 모든 것의 주관자인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마6:25-34)를 잊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
- (6)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키우시고, 가르치시며, 인도하신다는 신앙의 본질을 기억하여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
- (7) 그러한 신앙을 가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인간적 근심과 염려, 슬픔에서 벗어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후13:11).

10. **㉠ 그리스도와 보혜사와의 관계를 설명하라(7,8절).**

- ㉠ (1)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역을 모두 마치신 후에 하나님께로 가서야만 보혜사께서 오시게 된다.
- (2) 즉 그리스도의 사역 후에 성령의 역사(役事)가 전개되는 것이다.
- (3) 성경과 하나님의 사역을 연결지어 살펴보면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활동하셨던 시기이며 신약 시대는 성자 그리스도의 사역 시대이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시기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4) 물론 이는 각 시기마다 삼위(三位)가 독자적으로 활동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같이 일하셨지만 주로 사역한 분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참조, 시2:7; 사61:1; 고후13:13),
- (5) 결국 본질에 나타난 성령의 특성은 그분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생된다는 점이다(15:26; 롬8:9; 갈4:6).

11. **㉠ 성령 사역의 3대 양상을 설명하라(8-15절).**

- ㉠ (1) 첫째, 세상에 대한 사역으로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8-11절).
- (2) 둘째,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12, 13절).
- (3) 셋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14, 15절).

12. **㉠ 성령께서 세상에 대하여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8절)**

- ㉠ (1)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 (2) 여기에서 책망한다는 말의 헬라어는 <엘렙코>로서 ‘죄를 깨닫게 하다’, ‘밝히 드러내다’, ‘폭로하다’, ‘벌주다’ 등의 의미를 지닌다.
- (3) 즉 성령께서는 인간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죄를 깨닫게 하시며 그 죄를 밝히 드러내어 꾸짖으시고 바로잡아 주신다.

13. **㉠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란 무엇인가? (9절)**

- ㉠ (1) 그 죄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을 가리킨다.
- (2) 여기에서 ‘죄’라는 의미로 사용된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로서 ‘빛나감’, ‘악행’, ‘위법’ 등의 뜻을 갖지만 원래는 화살이 과녁에서 빛나간 것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 말이다.
- (3)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죽음을 맛보게 되었다(참조, 창2:17).
- (4) 이렇게 인간들이 타락하여 죄에 거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과의 사이가 올바르게 못하고 빛나간 상태로 있게 되었다.
- (5) 바로 이러한 상태를 성령께서 꾸짖으시고 올바르게 교정하신다.
- (6) 이같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여(시51:5)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올바른 길을 찾지도 걷지도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7) 그래서 칼빈 (Calvin)은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들은 근본적으로 죄 이외에는 아무것도

도 가질 수 없다고 이 귀절을 풀이했던 것이다.

14. **㉠ 의에 대한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라(10절).**

- ㉠** (1) 본절에서 말하는 ‘의’란 죄의 반대 개념으로서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킨다(참조, 행3:14, 15).
- (2) 즉 인간들의 죄인된 상태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셨으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의미이다.
- (3) 따라서 인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깨끗케 되며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된다(참조, 롬4:24, 25).
- (4)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복음을 통하여 선포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받아들일도록 역사(役事)하신다.

15. **㉠ 심판에 대한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라(11절).**

- ㉠** (1) 성령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하실 것이다.
- (2) ‘이 세상 임금’이란 사단을 뜻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에 대한 심판이 시작되었으며 부활하심으로 결국 사단은 패배한 것이다(참조, 창3:16).
- (3) 사단은 자기에게 내려질 최후의 심판을 알기 때문에(참조, 제20:10) 하나님의 자녀를 최대한 미혹하려고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 (4) 이러한 상황에서 성령께서는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지키고 보호하시며 지속적인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 사단을 최후의 심판으로 한걸음씩 한걸음씩 몰아가신다.

16. **㉠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대한 성령의 사역은 어떠한 것인가? (12, 13절)**

- ㉠** (1)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 (2) 아직은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을 감당할 만한 영적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후에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셔야 비로소 제자들은 완전한 진리에 거하게 될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3) 여기에서 진리란 곧 그리스도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다(참조, 14:6).
- (4) 즉 본절에 나타난 성령의 들쭉 기능은 주께서 그들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다.
- (5) 이 같은 성령의 인도는 결코 새롭거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배치(背馳)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인격을 한층 더 깊이 깨닫게 하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미 제시하신 구원의 진리를 더 굳게 한다.

17. **㉠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영적인 수준을 살펴보라(12절).**

- ㉠** (1) 그들은 아직 그리스도의 모든 진리를 깨닫고 감당할 만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 (2) 여기에서 ‘감당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바스타조>로서 ‘견디다’, ‘가져가 버리다’, ‘깊어지다’, ‘흠치다’ 등의 의미가 있다.
- (3) 즉 제자들의 영적 수준이 아직 낮아서 진리를 깊어지고 견딜 수가 없다는 뜻이다.
- (4) 그러나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 강해졌으며, 믿음이 성장하여 그리스도의 당당한 증인들이 되었다(참조, 행2:1-47).
- (5) 성령의 은혜를 풍성히 받기 이전 영적으로 무력했던 제자들처럼 오늘날 성도 중에도 많은 이들이 세상에 휩쓸려 버려진 소금처럼 제 맛을 잃고 있다.
- (6)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알았던 때의 뜨거운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며, 자신의 영적 나태와 무기력함을 뉘우치고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참조, 고전3:7; 히5:11-14).

18. **㉠** 주께서 말씀하신 ‘장래 일’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13절)

- ㉠** (1) 장래 일이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재림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다.  
 (2) 즉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를 믿게 되는 것이 그들의 이성(理性)이나 감각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라는 의미이다.  
 (3)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것도 역시 진리의 성령께서 알려 주셨기 때문이다.  
 (4)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로는 이 같은 영적인 일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없으며 오로지 성령으로만 영적인 지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전2:10-14).

19. **㉠** 성령께서는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시는가? (14, 15절)

- ㉠** (1)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2)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은 곧 그리스도의 교훈과 인격을 중심한 가르침이다.  
 (3) 즉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신앙과 사고(思考)의 중심이 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을 하신다.  
 (4) 이는 성령의 세번째 사역인데(참조, ㉠ 11) 결국 그분의 모든 사역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 준다.

20. **㉠** ‘조금 있으면’이라는 표현에 대하여 설명하라(16-19절).

- ㉠** (1) 먼저 주께서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말씀하셨다.  
 (2) 여기서의 ‘조금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각각 나타내는 시간 개념이다.  
 (3)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이미 여러 번 경고되었던 말씀으로서 제자들의 각성을 촉구하시는 표현이다(참조, 14:19, 28).  
 (4) 그리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  
 (5)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듯이 시간적인 개념이 필요치 않지만(벧후 3:8)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계22:20).  
 (6) 따라서 우리들은 이러한 주의 약속을 기억하여 세상이 주는 유혹이나 근심에 흔들리지 말고 소망 있는 신앙 생활에 힘써야 한다.

21. **㉠** 제자들의 근심과 기쁨에 대하여 설명하라(20, 21절).

- ㉠** (1) 제자들은 스승이신 그리스도와의 헤어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으나 이 헤어짐 때문에 성령 강림이 있게 되었고 그래서 제자들은 이전의 근심을 능가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2) 반대로 세상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뻐하나 이는 일시적인 것이며 끝내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패배가 선언되었다.  
 (3) 이처럼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과 세상과는 반대적인 입장에 놓이게 된다.  
 (4) 따라서 성도들이 세상의 악한 모습들을 보고 고민하고 또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참조, 마5:11, 12).  
 (5)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세상을 피해 은둔 생활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도리어 이 땅에서 선한 행실을 베풀어 악을 부끄럽게 하며 끝내는 그 악에게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롬12:17-21).

22. **㉠** 해산의 고통은 무엇을 비유한 것인가? (21, 22절)

- ㉠** (1) 그리스도와의 헤어짐을 나타낸다.  
 (2) 즉 그리스도와의 헤어짐은 해산의 고통과 같이 생산적인 고통이요 근심이라는 뜻이다.

- (3) 사실상 제자들은 스승이신 그리스도의 죽음 후에 근심과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었다 (참조, 20:19).
- (4) 그러나 이 고통은 순간적인 것이었으며 주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는 커다란 기쁨으로 바뀌었다.
- (5)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 생활도 고통과 근심이 있으며 세상의 거친 파도를 헤쳐 나가는 과정이다.
- (6)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누릴 기쁨에 비하면 이는 짧은 기간 동안의 수고요 고생이다.
- (7) 어떻게 보면 현재의 이 어려운 신앙 생활은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기쁨에 대한 필수적인 훈련이요 연단이라고도 할 수 있다.
- (8) 그러므로 우리들은 현재의 어려움을 피하려 하거나 묵인하고 타협해서는 안 되며 경주에 임하는 선수나 훈련에 참가하는 군인과 같이 열심히 뛰고 싸워(참조, 딤후2:3;4:7,8; 히12:1) 영적인 성장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23. **㉠ 제자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가? (23, 24절)**

- ㉠** (1)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을 받게 된다.
- (2) 이는 그리스도의 증보자적 사역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다.
- (3) 이제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신이 구하는 것에 대해 아버지 하나님(롬8:15)의 응답을 받을 자격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 (4) 이러한 모든 일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 (5) 따라서 오늘날의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참조, 롬8:26, 27).

24. **㉠ 주께서 자신의 사역을 비사(比辭)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25절)**

- ㉠** (1) 우선 주께서 말씀하실 때의 상황을 연상하면 이 같은 말씀이 반드시 필요했음을 알게 된다.
- (2) 즉 제자들은 주께서 이별을 선언하셨을 때 무척 당황했기에 그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필요했다.
- (3)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을 이해하기에는 제자들의 영적인 이해력이 너무나 미약했다(12절).
- (4) 그래서 주께서는 그들이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 (5) 여기에서 비사(比辭)란 헬라어로 <파로이미아이스>로서 '비유', '은유', '격언', '수수께끼' 등의 뜻을 가진다.
- (6)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나라를 '밭에 감추인 보화'(마13:44),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마13:45), '겨자씨'(눅13:18) 등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신 일이 있는데 이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하늘나라의 모습보다는 개념과 가치를 설명하시려는 의도 때문이었다.
- (7) 이처럼 비사(比辭)는 어떠한 대상의 부분적 특성을 강조하는 데에 사용되기도 하는데 본장에서는 성령 강림 이후의 기쁨을 '해산'의 기쁨으로 비유하여 '기쁨'과 그 기쁨을 갖기 위한 인내와 수고를 설명하고 있다.

25. **㉠ '내 이름으로'라는 표현에 대하여 설명하라(26절).**

- ㉠** (1) 이 표현은 그리스도의 작별 설교에서 자주 나온다(23, 24절; 14:13, 14, 26).
- (2) 이 표현의 의미는 제자들의 입장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변(代辨)되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후원자가 되심을 공적으로 증거하신다는 것이다.

- (3) 이렇게 제자들과 그리스도 간에 맺어진 관계는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의 바탕이 되어 제자들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참조, ㉑ 23).
- (4) 그리스도께서 자주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이 슬픔과 고민에 빠져 있기 때문이었다(14:27).
- (5)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에 어려운 사역을 앞에 두고도 제자들을 위로하시던 주를 생각하면 우리의 고난에 주께서 동참하시고 격려하신다는 믿음이 생겨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낼 수 있게 된다(참조, 33절).

26. ㉑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까닭은 무엇인가? (27절)**

- ㉑ (1)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고 또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 (2)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다는 뜻으로 쓰인 헬라어는 <필레이>로서 따뜻하고도 친절한 우정이 어린 사랑을 뜻한다.
- (3)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했다는 뜻의 헬라어 <페필레카테>도 역시 같은 의미로서 완료형인데 제자들이 그리스도를 꾸준하게 사랑하고 아낀 사실을 뜻한다.
- (4) 즉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육신(成肉身)을 믿었으며 그분을 사랑하고 따랐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이다.
- (5) 이와 같은 사실로부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힘쓰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애쓰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호6:1-3; 약4:8-10).

27. ㉑ **그리스도의 사역을 간단하게 설명하라(28절).**

- ㉑ (1)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세상에 오셨고 다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셨다.
- (2) 이는 그리스도의 선재성(先在性)과 성육신(成肉身), 죽으심과 부활, 승천 모두를 설명하시는 말씀이다(비교, 답전3:16).
- (3) 그리스도 자신이 이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구속의 역사(役事)가 바로 자신의 사명임을 제자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함이다(참조, 14:6).

28. ㉑ **주의 사역에 대한 분명한 선언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29, 30절)**

- ㉑ (1) 제자들은 주의 명확한 말씀을 듣고 난 후 스스로 이제 진리를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 (2)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에도 종종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충 설명을 해주신 일이 있었다(막4:33, 34).
- (3) 이와 같이 진리를 배우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은혜와 사랑, 기회를 부여받은 제자들은 예수께 자신들이 그 말씀을 확실히 믿게 되었음을 고백하였다(30절).
- (4) 그러나 오늘날에는 진리가 선포되고 전파되는 것이 그때보다 더욱 활발하지만 진리를 수용하는 자세는 과거보다 바람직하지 못한 면이 많다.
- (5) 즉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다든지(참조, 약2:14, 17), 알기만 하고 믿지는 못하는 나쁜 풍조가 만연(蔓延)되어 있다.
- (6) 그러므로 이러한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더욱더 말씀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여 자기가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한다.

29. ㉑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고 하신 그리스도의 질문은 무슨 뜻인가? (31절)**

- ㉑ (1) 이 말씀은 의문문으로도, 또 감탄문으로도 볼 수 있다.
- (2) 만일 의문문으로 본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이전의 불신앙을 책망하시면서 또한 현재의 신앙도 연약한 것임을 깨우쳐 주시려는 반어적(反語的)인 의도가 있다.

- (3) 그리고 감탄문으로 본다면 이 말씀은 제자들의 신앙을 기쁘게 보시는 그리스도의 심정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 (4) 따라서 이러한 질문을 받은 제자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자세를 가져야 했다.
- (5)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아 이전의 상태보다 못하면 당연히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을 느껴야 할 것이며 또한 이전보다 나아졌다면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30. **㉠ 예수께서는 지금 함께 있는 제자들이 곧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가? (32절)**

- ㉠** (1)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이 당신을 혼자 두고 각각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 (2) 이 말씀은 속13:7을 인용하신 것으로 신앙을 고백한 제자들의(29, 30절)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깨우치시는 일종의 경고이다.
- (3)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게 되자 제자들은 모두 그분을 버리고 도망갔다(마 26:56).
- (4)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제자들의 믿음이었지만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 그들은 담대한 신앙을 갖게 되어 열심히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참조, 행2:14, 38; 4:1-4).
- (5) 그러므로 우리들도 비겁함을 버리고 성령을 받은 자답게(참조, 롬8:16; 고전3:16)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31. **㉠ 제자들이 당신 곁을 모두 떠나게 될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32절)**

- ㉠** (1)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스도를 잡으러 온 무리를 보고 ‘다’ 도망갔다(마 26:56).
- (2)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던 여자들도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께 가까이 하지 못하고 단지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였다(마 27:55; 막 15:40).
- (3) 또한 뜨거운 열심이 있던 베드로도 주를 세 번이나 부인하여 연약한 믿음을 나타내었다(눅 22:54-62).
- (4) 이러한 모습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던 그들이 너무 관념적이고 안일한 믿음을 가졌던 결과이다(참조, 6:26).
- (5) 그러므로 우리들은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은 믿음만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다(참조, 예 4:16; 단 3:17, 18)

32. **㉠ 비록 제자들이 모두 주를 떠난다고 해도 그리스도는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는가? (32절)**

- ㉠** (1)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다.
- (2)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같이 계신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에 계시는 것이기에 인간적인 배신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 (3) 이것은 신앙의 충족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신앙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이지 주위의 사람은 직접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 (4) 즉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치 않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신앙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인간으로 인한 기쁨과 실망에 머무르지 말고 한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이다.

33. **㉠ 혼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하라(32절).**

- Ⓐ (1) 그리스도께서는 곧 제자들이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리라는 것을 아셨다.
- (2) 그리스도의 생애는 결국 ‘혼자’ 이루어진 생애였다.
- (3) 즉 주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지만(눅1:26-38) 그의 부모 들조차 때때로 그 사실을 잊고 있었다(비교, 눅2:49, 50).
- (4) 또한 주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나가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그분은 혼자이셨다.
- (5) 그리고 사역 기간 중에도 무리들은 그분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사랑하는 제자들마저 떠나가 버렸다(참조, 막15:34).
- (6)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성도들도 혼자이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 하나 때문에 성도들은 직장이나 사회, 심지어는 가정에서조차 따돌림 받고 핍박받기도 한다.
- (7) 그러나 이 같은 외로움은 당연한 것으로서 자신이 하늘나라에 속한 자임을 나타내는 증거이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
- (8) 단지 우리는 그러한 소외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같이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며 또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포용력있는 넓은 마음을 소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4. ⓐ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32절과 같은 예언을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33절)

- Ⓐ (1)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 (2) 즉 제자들에게 앞으로 될 여러 일들을 미리 설명하심으로써 막상 그 일이 닥치게 될 때 요동함이나 혼란이 없게 하려는 의도이다.
- (3) 이렇게 ‘평안’을 강조하는 본질의 말씀은 만찬 석상에서 하신 말씀의 주제로서(14:1, 27; 15:11) ‘평안’의 반대 개념인 ‘환난’을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또 그 환난 후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는 뜻도 있다(참조, 20-24절)
- (4)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즉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긴 성도들에게는 하늘나라에서의 큰 상급이 약속되어 있다(참조, 계2:17, 26; 3:5, 12, 21).
- (5)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환난에 대비하는 마음가짐으로서의 평안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수고와 염려를 주께 맡김으로써 가질 수 있는 본질적인 평안도 강조하셨다(마11:28).
- (6)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참조, 시131:2; 마11:29).

35. ⓐ 주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근거는 무엇인가? (33절)

- Ⓐ (1)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이다.
- (2) 여기에서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모든 대적자들과 사단의 무리들을 가리킨다(참조, 12:31; 14:30).
- (3) 즉 그리스도께서는 사역 기간 중에도 사단에 대해 승리하셨지만(막9:25; 눅4:35)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사단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것이다.
- (4) 따라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들도 주의 승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으며(요일5:4)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36. ⓐ 주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33절)

- Ⓐ (1) 환난을 당할지언정 담대하라는 당부의 말씀이다.
- (2) 즉 제자들이 환난을 당할 것은 분명하지만 최후의 승리가 약속되어 있으므로 고난이 실제로 닥친다 하더라도 낙심치 말고 담대하라는 의미이다.
- (3) 이 말씀은 환난에 대처할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가르치시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난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며 단지 담대하게 대처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다.

- (4) 그러므로 우리들은 고난을 보는 시각을 달리하여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는 계기로 보아야 한다(참조, 롬5:3, 4).

37. **Q** 세상에서의 성도의 승리란 어떤 의미인가? (33절)

- A** (1) 성도의 승리는 물질적이고 가시적(可視的)인 것이 아니다.  
 (2)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여(참조, 빌2:8)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성도의 승리도 영적인 의미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3) 즉 성도들이 미워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롬12:21) 것이 곧 승리이다.  
 (4) 또한 자신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손해를 감내하는 믿음의 생활이 곧 성도의 승리이다(참조, 엡5:8-11).

38. **Q**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세상에서 당하게 될 환난에 대하여 설명하라(33절).

- A** (1) 그리스도인들의 환난에는 크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  
 (2) 첫째, 하늘나라에 속한 성도들이지만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영적 차원에서의 환난이 있다(참조, 롬8:35, 36).  
 (3) 둘째,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허락하시는 고통도 있다(참조, 고후12:7).  
 (4) 셋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신분을 가진 자로서 잘못을 범했을 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징계(참조, 히12:5-13) 등이 있다.

### 화보자료

유리창에 그려진 비둘기. 프랑스 화해(和解) 교회의 유리창을 장식하고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이다. 프레스에리크의 작품으로서 예수께서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7절)이 이 땅 위에 강림하시는 것을 비둘기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모양으로 형상화한 것이다(참조, 1:32; 마 3:36).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으심과 승천 사건을 눈앞에 두고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승천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7절; 14:16; 15:26). 이처럼 예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후 성령을 보내 주시는 까닭은 그가 세상에서 행하셨던 인간 구원 사역을 성령이 계속해서 수행하시도록 하려는 데 있다. 이 같은 예수의 약속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행 2:1-4)으로 성취되었는데 오늘도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키고 계신다.

## 제 17 장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

단락구분 1-5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다 / 6-19 세상 중에서, 제자들을 지켜주 시도록 간구하다 / 20-26 모든 성도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다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2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이다

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됨을 아는 것이니이다

4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6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7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8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9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0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11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와 지키었나이다 그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옹하게 함이니이다

13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14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15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 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6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삽나이다

17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8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고

19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20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으로이다

24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25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삼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삽나이다

26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1. **㉠ 그리스도께서 하신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라.**

- ㉠** (1) 본장의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기도로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마6:9-13)과 함께 기도의 표본이 된다.
- (2) 또한 본장의 기도는 점진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즉 처음에는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기도로부터 시작하여 제자들,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확대되어 간다.
- (3) 그리고 이 기도에는 몇 가지 중요한 교리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권세’(2절), ‘영생’(3절), ‘그리스도의 선재(先在)’(5절), ‘그리스도의 계시’(8, 14절), ‘성화’(17, 19절), ‘연합’(21, 26절) 등이다.
- (4) 당연하게도, 또한 신기하게도 본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는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는 없다(비교, 마6:12). 즉 본장에는 그리스도의 무죄성이 잘 드러나 있다.

2. **㉠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기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1-5절)**

- ㉠** (1) 이 부분의 기도는 엄밀하게 말하면 ‘아버지를 영화롭게’하려는 기도이다.
- (2) 즉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이며, 동시에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이다.
- (3) 또한 이 기도에는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의 본질이라는 귀한 진리도 담겨 있다.
- (4) 결국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큰 일을 앞두고 힘과 용기를 구하는 내용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회구하는 간구이다.
- (5)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는 주기도문의 첫 부분과 같다(비교, 마6:9, 10).
- (6)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이 성취되기를 간구해야 한다(참조, 막12:31).

3. **㉠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과의 관계를 설명하라(1-5절).**

- ㉠** (1)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광로 하나님과 자신을 영화롭게 하신다.
- (2)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곧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신 구속의 사역은 다시 그리스도의 희생을 값진 것으로 만든다(빌 2:7-9).
- (3) 결국 신적 본질에 있어서 동등한 두 위(位)의 영광은 그 사역에 있어서 상호간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 (4) 따라서 이러한 영화로움에 대한 관계는 삼위 일체(三位一體)의 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해주는 좋은 자료가 된다.

4. **㉠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모습은 어떠했는가? (1절)**

- ㉠** (1)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셨다.
- (2) 여기서 ‘눈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전형적인 몸짓을 가리킨다(참조, 시 121:1; 겔 33:25; 단 4:34).
- (3) 또한 하늘을 우러러보는 자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동시에 하나님을 대면한다 해도 한 점 부끄럼이 없으신 그리스도 자신의 무죄성을 나타낸다(비교, 눅 18:13).

5. **㉠ 그리스도의 기도 가운데 ‘때가 이르렀사오니’란 무슨 뜻인가? (1절)**

- ㉠** (1)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달성할 시기가 되었다는 뜻이다.
- (2) 이전에 그리스도께서는 가나의 혼인 잔치 때에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2:4).
- (3) 또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그리스도에게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시도록 청하면서 예루살렘

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도 역시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7:8).

- (4)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도 유대인들의 많은 미움을 받으셨지만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다(7:30;8:20).
- (5) 결국 본절에 ‘때’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사역의 정점(頂點)을 가리키는 말이다(참조, 12:23;13:1).
- (6) 따라서 이러한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메시아적인 사역을 스스로 인정하셨다는 귀한 의미를 지닌다.

6. **㉠ 주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1절)**

- ㉠** (1) 아버지라고 부르셨다.
- (2) 본장의 기도에서 그리스도는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다(참조, 2, 4-14절 등).
- (3) 또 공관 복음서에 보면 만찬 후 주께서는 기도하시려고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셨다(눅 22:42).
- (4)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것처럼 양자(養子)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롬8:15).
- (5) 그러므로 우리들은 단순한 피조물의 지위에서 격상된,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양자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 것이다.
- (6) 뿐만 아니라 신분에 따르는 행동과 책임이 있듯이 성도들은 모든 언행(言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힘써야 하며(고전 10:31) 또한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와 사랑을 선포하고 증거할 책임이 있다(참조, 잠 31:8; 마 5:13-16).

7. **㉠ ‘영화’(榮華)란 무엇인가? (1절)**

- ㉠** (1) 본절에서 영화라는 뜻으로 쓰인 헬라어는 <독사>로서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 즉 비길 수 없는 찬란한 상태를 의미한다.
- (2) 그러나 본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 <독사>라는 용어를 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지칭하는 뜻으로 사용하였다(참조, 1:14).
- (3) 또한 광의(廣義)로서의 영화는 하나님의 능력, 거룩하심, 신성, 권위 및 존엄하심을 나타낸다.
- (4) 이러한 하나님의 영화는 신의 본질적인 속성이지만 그분의 택한 백성과 그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성’의 개념도 지닌다(비교, 렘 2:11; 호 4:6).
- (5) 즉 선택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곧 그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참조, 시 3:3) 피택자(被澤者)들이 범죄하고 타락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가 되고 만다(참조, 시 63:2).
- (6) 물론 하나님께서는 굳이 인간을 통하지 않고서도 자신의 위엄과 능력, 존귀하심을 능히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참조, 사 26:15).
- (7)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받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음에 대하여 감사해야 하며(참조, 사 60:1) 주의 일을 할 때에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비교, 행 12:23).

8. **㉠ ‘영생’(永生)이란 무엇인가? (2절)**

- ㉠** (1)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여 그분과 화목한 후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을 뜻한다.
- (2)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풀이하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므로 인간이 영생을 얻기 이전에는 죽어 있었다는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다.
- (3)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고 ‘죽음’의 선고를 받았는데 이 죽음이란 육체적인 죽음 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즉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분리된 상태를 당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참조, 창 3:7,8).

- (4)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죄와 불의와 암흑에 거하게 되었으나 화목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롬5:1, 2)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은 다시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엡2:16; 골1:20), 즉 생명을 얻게 되었다.
- (5)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천국에 '사망'이 없다는 것(계21:4)은 당연한 사실인 동시에 성도의 지위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잘 알 수 있다.
- (6) 또한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숨을 쉬며 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곧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며 기도하고 그리고 주께서 맡기신 자신의 사명을 힘써 수행하는 데서 얻을 수 있다.

9. **㉠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신 권세에 대하여 설명하라(2절).**

- ㉠** (1)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 (2) 이러한 권세를 부여하신 목적은 구원받기로 예정된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는 것이다
- (3) 여기서 '모든 자'는 헬라어로 <파세스 사르코스>로서 문자적으로는 '모든 육체'라는 뜻인데 이는 특히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능력에 대조되는 시한적이며 약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표현할 때 사용된 표현이다.
- (4) 즉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에게(참조, 행 13:48)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권세를 지닌 분이셨으며(참조, 3:15) 그러한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필요했던 것이다.
- (5) 또한 이 권세는 최후의 심판 때까지도 효력이 유지되어 이 권세로써 그리스도는 그를 믿지 않았던 악인들을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5:27; 행 10:42; 17:31; 빌 2:10; 딤펴전 4:1).
- (6) 물론 이러한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심으로써 성부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권세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안에서 작정과 섭리에 따라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게 된다.

10. **㉠ 예수께서는 '영생'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셨는가? (3절)**

- ㉠** (1) 예수께서는 영생에 관해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셨다.
- (2) 여기에서 '안다'라는 뜻으로 쓰인 헬라어는 <기노스코>로서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도 체험적으로 안다는 뜻이다.
- (3) 즉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성령과 동행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요일4:13)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하다(참조, 14:7, 17, 26; 15:26).
- (4) 반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에 거하는 자들은 복음을 반대하고 도리어 피하게 되는데(1:4, 5; 3:19-21) 이러한 자들은 곧 '사망'에 거하는 자들이다.
- (5) 따라서 우리가 비록 약하며 많은 유혹을 받고 때때로 범죄하기는 해도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알고 확실하게 믿는다면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다(참조, 롬 6:23).
- (6) 결국 영생을 얻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믿음'에 달린 것으로서(롬 4:23, 24) '행위'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다. '행위'는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 상급과 관계된 이차적인 문제이다(엡 5:8-13; 요일 1:5-7).

11. **㉠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설명하라(3절).**

- ㉠** (1)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들은 그 죄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고전 1:21).
- (2)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조, 역사, 인간의 양심

과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이를 계시(revelation)라 한다.

- (3) 이러한 계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은 일반(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이다.
- (4) 먼저 일반 계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과 역사(歷史)와 인간의 양심을 통하여 자신을 증거하시는 것을 말한다(행 14:8-18; 17:16-34; 롬 1:18-32)
- (5) 그리고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현실적인 계시)와 성경의 해석적인 말씀(말씀의 계시)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말한다(히 1:1; 벧후 1:21).
- (6)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성경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현현(顯現)(출 3:2; 욥 38:1)이나 직접적인 뜻의 전달(민 12:6; 27:21; 신 5:4), 기적 등도 포괄적으로 내포하기도 한다는 점이다.
- (7) 또한 성경 내의 계시는 그리스도에게서 절정을 이루는데 말씀(헬, 로고스)이 육신을 입은 사건은(1:1)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최대의 사건으로서 그리스도는 복음의 중심이다(롬 1:3,16; 고전 15:1-4; 갈 4:4; 히 1:1, 2).
- (8) 즉 구약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예표한 여러 사건들과 인물들을 기록한 것이며 신약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사역을 거쳐 부활 이후 최후의 심판까지 기록한 것이다.
- (9) 결론적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으며 더구나 그분의 외아들 그리스도를 육신을 취하여 지상에 보내사 처참한 죽음까지 당하시도록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야 한다(요일 4:9, 11, 19).

**12. ㉠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그리스도의 기도와 사명감을 살펴보라(4,5절).**

- ㉠ (1) 시간적으로 볼 때 아직 자신의 사역이 모두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끝난 것으로 기도하셨다(비교, 19:30).
- (2) 이는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확실히 알고 계셨으며 동시에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확고한 사명감이 있음을 기도 가운데 표현한 것이다(참조, 12:27, 28).
- (3) 또한 주의 기도에는 자신이 창세 전에 가졌던 영화를 회복하게 해 달라는 내용도 있다(5절).
- (4) 여기에서 ‘가졌던’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콘>으로서 ‘가지다’(헬, 예코)라는 동사의 미완료 과거 능동태이며 ‘가지고 있었던’이라는 의미이다.
- (5)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헬, 파라 세아우토)란 ‘당신의 그 옆에서 함께’라는 뜻이다.
- (6) 이렇게 주께서 창세 전의 영광으로 돌아가 하나님 옆에서 같이 영광을 누릴 것을 소원하는 기도는 곧 그리스도의 선재성(先在性)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참조, 1:1, 3:5:19; 골 1:17; 히 1:3).

**13. ㉠ 제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6-19절)**

- ㉠ (1) 먼저 이 기도는 그리스도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분량이 많다는 것이 눈에 띈다.
- (2) 또한 이 기도는 제자들의 아직은 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3) 즉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염려하시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 (4)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다(참조, 롬 8:26-28).

**14. ㉠ 예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나타내었던 ‘아버지의 이름’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6절)**

- ㉠ (1) 아버지의 이름이란 곧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는 하나님의 품성과 인격,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2)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름은 인격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었기에 이름은 귀중하게 취급되었다(참조, 창 17:5; 32:28).
- (3) 한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은 ‘다스리는 이’, ‘강하신 분’이라는 뜻의 <엘>,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의미의 <예호와>(출 3:14),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샬다이>(1:49),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지닌 <엘 엘리온>(창 14:18) ‘만군의 주’라는 <예호와 체바오트>(롬 5:29; 약 5:4) 등이 있다.
- (4) 결국 이 같은 여러 이름들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리 표현된 하나님의 속성을 잘 드러내 준다.
- (5) 따라서 본절에 나온 이 표현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능력, 구속 사역, 은혜, 사랑 등을 모두 포괄하여 지칭하는 말이다.
- (6) 단지 본절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좁은 의미에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양자의 자격을 취급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7) 그러므로 본절의 이 표현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다 나타내되 거기에 아버지와 자녀 간의 자애스러운 관계가 포함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15. **㉠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8절)**

- ㉠** (1)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이다.
- (2)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말씀(헬, 로고스)을 듣고 그리스도가 메시아적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믿었다.
- (3) 여기에서 믿었다는 뜻으로 사용된 헬라어 <에피스투스산>은 능동적인 의미로서 신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확신이나 신앙을 가리킨다.
- (4) 이처럼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었지만 유대인들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했으며 도리어 주를 죽이려 했다(참조, 마 11:15).
- (5) 이같이 같은 주의 말씀을 듣고도 믿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절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며 심지어는 죽이는 악한 자들도 있다(참조, 행 7:57; 28:27).
- (6) 이러한 차이점은 선택과 유기(遺棄)의 관계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참조, 롬 11:8).
- (7) 즉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믿지만(롬 10:17) 선택받지 아니한 자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반발하는 태도를 보인다(참조, 행 7:57).
- (8)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악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언제 어떻게 회개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므로 우리들은 도리어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행 7:60).
- (9) 또한 우리들은 지금 말씀을 믿고 따르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받은 것인가를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16. **㉠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대하여 설명하라(8절).**

- ㉠** (1) 여기서의 ‘말씀’은 헬라어로 <레마타>로서 복수형이며 하나님의 개개의 말씀들을 지칭한다(참조, 3:34).
- (2) 즉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교훈을 가리킨다.
- (3) 그러나 이와는 달리 6절과 14절에 쓰인 ‘말씀’(헬, 로고스)은 단수로서 하나님의 메시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 (4) 결국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 근본이 하나님이며 <로고스>와 <레마타>는 다같이 하

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7. **㉠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본질에 대하여 설명하라(8절).**

- ㉠** (1)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주장이나 가르침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즉 신적 기원과 권위를 지니는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2) 첫째, 이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으로서 권세가 있으며(눅 4:32)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막 13:31).
- (3) 둘째, 인간의 말과는 달리 영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이며(6:63)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6:68).
- (4) 셋째, 따라서 이 말씀은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7:46) 귀하고도 은혜스러운 것이다(눅 4:22).
- (5) 넷째, 이 말씀은 그저 선포되기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받는 자들에게는 은혜요 축복이지만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다(12:48).
- (6) 다섯째, 이러한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저 듣고 받아 믿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행할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14:24).

18. **㉠ 9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인가?**

- ㉠** (1) 하나님께서 택하사 그리스도에게 주신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다.
- (2) 주께서는 이 부분의 기도가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셨다.
- (3) 물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대속의 제물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며(3:16)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눅 23:34; 롬 5:8).
- (4) 그러나 이러한 대속적 죽음의 효과는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미치는 것이다(참조, 10:11, 14).
- (5) 따라서 본질의 기도는 택함 받은 제자들-아버지의 것-만을 위한 기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9. **㉠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에 대하여 설명하라(9절).**

- ㉠** (1) 본질에서 주께서는 제자들만을 위하여 기도하셨다.
- (2) 또한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신다고 기록되었다(롬 8:34; 히 7:25; 9:24; 요일 2:1).
- (3)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믿는 자들에게 임하신 성령께서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 대신 간구하신다(롬 8:26).
- (4)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선택된 자로서(엡 1:4) 그리스도와 성령의 중보 기도라는 지원을 받고 있는 셈이다.
- (5)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뿐만 아니라 승천하신 후에도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 간구하는 은혜를 베푸신다.

20. **㉠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10절)**

- ㉠** (1) 그리스도의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공유적 관계에 놓여 있다.
- (2) 이는 두 분이 하나이심을 나타내신 귀절이다(참조, 10:30).
- (3) 또한 이 귀절은 보다 깊은 의미로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세상의 모든 주권을 맡기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사역을 행하심을 가르쳐 준다.
- (4) 즉 성육신(成肉身)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통치권을 갖고 계시지만(참조, 마 26:53) 자신의 통치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만 충실하게 사용

하셨던 것이다(참조, 행 10:38).

- (5)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받은 우리들도 자신의 모든 달란트(talent)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참조, 벰전 2:9).
- (6) 그리고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신분과 특권을 악용하여 일부러 죄를 짓거나(히 10:26, 27; 벰후 2:20, 21)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비교, 행 12:23).

**21. ㉠ 제자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의 주제는 무엇인가? (11-19절)**

- ㉠** (1)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보전(保全)을 위해 기도하셨다.
- (2) 즉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제자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잘 수행하도록 돌보아 주시며 진리로 그들을 거룩케 해주실 것을 간구하셨다.
- (3)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실 수도 있었지만 그것은 그분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다.
- (4) 이는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는 뜻이며 그들은 어렵겠지만 그 사역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다.
- (5) 이러한 사역을 그리스도께서는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라고 표현하셨다(18절).
- (6)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기는 하지만(16절)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증거자의 사명이 있다.
- (7)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직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해야 할 임무가 남아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여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야 한다(참조, 행 13:25; 20:24).

**22. ㉠ ‘보전’(保全)이란 무엇인가? (11, 12절)**

- ㉠** (1) 악한 세상에서 죄와 싸워 이겨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을 가리킨다.
- (2) 본절에서 보전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헬라어 <테레오>는 ‘조심스럽게 돌보다’, ‘굳게 붙들다’, ‘보호하다’ 등의 의미가 있다.
- (3) 즉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의 성결 유지와 사명 완수를 위한 하나님의 보호를 부탁하신 것이다(참조, 벰전 4:19; 담후 1:12).
- (4) 이와 같은 보전은 결코 소극적인 경계나 도피가 아니며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벰전 1:5)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담대한 증인이 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것이다.
- (5)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은 ‘애매히 받는 고난’이나(벰전 2:19) 순교를 자기 희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고난까지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의 굳게 붙드심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23. ㉠ 본절의 내용을 14:15과 비교하여 설명하라(11절).**

- ㉠** (1) 본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보살피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2)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전에 자신이 승천하신 후 보혜사를 보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14:16; 15:26).
- (3) 이러한 약속대로 성령께서는 강림하셨으며(행 2:1-4) 성도들을 떠나지 않고,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며(15:27) 그 말씀대로 살도록 돌보아 주신다.
- (4) 하지만 성령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해서 본절의 기록이 잘못된 것은 아니며 성령의 사역도 역시 하나님의 사역이므로 본절이 잘못 기록된 것은 아니다.

**24. ㉠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에 대하여 설명하라(11절).**

- ㉠** (1) 이 말은 헬라어로 <엔 토 오노마티 수>로서 ‘당신의 이름 안에’라는 의미이지만 실제로 이 표현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 (2) 첫째, 이 표현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해석될 수 있다. 즉 제자들이 세상에서 보전되어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 (3) 둘째, 이는 문자 그대로 ‘아버지의 이름 안에’라고 풀이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두려워하는 일에 항상 거하게 해 달라는 의미가 된다.
- (4) 셋째, 이 말은 ‘아버지의 이름을 통하여’라고 생각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으로 제자들을 보살피 주기를 원한다는 뜻이 된다.
- (5) 결국 이러한 해석들은 그 어느 것이나 모두 가능하다.
- (6) 한편 성경에서 ‘그의 이름으로’(헬, 엔 토 오노마티)라는 표현은 그 이름의 권위와 능력(참조, 막16:17)을 나타내며 그 이름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기도 한다(참조, 골3:17).
- (7) 결론적으로 이 표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설명한다(참조, Q 14).

25. Q 멸망의 자식이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12절)

- A (1) 예수를 대제사장에게 팔아 넘길 가롯 유다를 가리킨다.
- (2) 이 표현은 또한 살후2:3에서 적그리스도를 가리킬 때에도 사용되었다.
- (3) 가롯 유다에 대해 성경대로 옹했다라는 말은 행1:20에 나타난 베드로의 말로 보아 시 69:25이나 시109:6-8의 귀절이 성취된 것으로 보인다.
- (4)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앞에서 가롯 유다에 대한 기도를 하신 이유는 가롯 유다의 범죄가 성경의 예언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우쳐 줌으로써 다른 제자들을 실족치 않게 하시려는 뜻이 있기 때문이었다.
- (5) 물론 가롯 유다의 배신이 성경에서 예언되었지만 그 책임은 유다 자신에게 있다. 즉 그의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리스도를 팔게 했던 것이다(참조, 12:4-6).
- (6) 그러므로 우리들은 겉으로 멀정한 사람들의 타락이나 실족은 나름대로 원인이 있음을 깨달아 주위 사람들의 흔들림에 동요되지 말고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한다.

26. Q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14-16절)

- A (1)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 (2)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는 것은 헬라어로 <테도카>로서 ‘자발적으로 주다’, ‘부여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위임하다’, ‘위탁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비교, 마 25:15; 막12:9).
- (3) 즉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아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속(眷屬)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참조, 엡2:19).
- (4)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특성인 불의, 시기, 다툼, 거짓 등에 대하여 본능적인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러한 감정이 없는 것은 그 심령에 말씀이 확고히 자리잡지 못했고 아직도 옛 성품과 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참조, 갈5:17,18).
- (5) 한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의 여러 악에 대하여 기피하거나 그것들을 수술하는 것에 대해서 체념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말씀과 선한 행동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헌신해야 한다(참조, 엡4:25-32).

27. Q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세상의 미움은 어떻게 표출되었는가? (14절)

- A (1) 그리스도인들은 그 본질상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다.
- (2) 이러한 환난을 히브리서의 기자는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岩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히11:36-38).

- (3)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서도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이들은 원형 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으며 산 채로 가죽을 벗기우거나 쇠뿔등이로 맞아 순교하는 일도 있었다.
- (4) 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문과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다.
- (5) 더우기 놀라운 사실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그 신앙 양심에 따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애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압과 소외를 당하는 것이다.
- (6) 이 같은 점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은 결코 시대나 이념에 따른 파생적 결과가 아니라 세상이 가지는 악한 특성과의 상충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 (7) 따라서 우리들은 지금이 편안한 상황이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며 항상 긴장하여 말씀을 잊지 말고(히12:5)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주의 일에 힘써야 한다.

28. **㉠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제자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15절)**

- ㉠** (1)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다(참조, 마28:19, 20).
- (2) 그래서 주께서는 그들을 데려가기를 원치 않으셨으며 도리어 하나님께서 세상에 남아 있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전해 달라고 간구하셨다.
- (3)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의 제자들의 선지자적 사명을 나타내셨는데 이 같은 사명은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명백하게 지시하심으로써 다시 한번 강조되었다(참조, 마28:19, 20).
- (4)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악으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맡겨진 빛과 소금의 직분을 열심히 감당해야 한다.

29. **㉠ 제자들은 무엇으로 거룩하게 되는가? (17-19절)**

- ㉠** (1)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데 이 진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 (2)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징계를 통하여 그분의 거룩함에 참여하기도 한다(히12:10).
- (3) 여기에서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기아조>로서 보통 어떤 특별히 좋은 목적이나 용도를 위해서 '분리시키다' 또는 '따로 두다'라는 뜻이다.
- (4)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므로 말미암아 악으로부터 분리되는 정결함이 거룩을 유지하는 근본이 된다는 의미이다.

30. **㉠ 그리스도인과 거룩에 대하여 설명하라(19절).**

- ㉠** (1)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이름은 성도(聖徒)인데(참조, 엡2:19) 성도들은 자신의 전인격과 생활을 그리스도에게 맞춤으로써 거룩을 이루어 나간다(참조, 엡4:13).
- (2) 이러한 성도들은 중생(重生)을 통하여 거룩한 사람들로 간주되며(제20:6)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받았다(행20:32; 26:18; 고전6:11; 히10:10).
- (3) 또한 성도들은 거룩한 형제들로서(살전5:27), 교회(헬, 에클레시아)를 이루며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벧전2:5) 죄와 분리된(고전6:19; 딤후2:19) 정결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골1:22; 벧후3:11).
- (4) 그리고 거룩함 자체는 성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살전4:3; 히10:10) 선택과 소명에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딤후1:9; 벧전1:5).

- (5) 이러한 거룩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참조, 살후1:12).
- (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과 거룩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지만 특히 이러한 거룩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만 성립된다(고전1:30).
- (7) 따라서 사랑이 없는 외적인 딱딱함과 완고함, 진리에 대한 열정도 없으면서 외식(外飾)하는 태도 등은 올바른 거룩이라고 할 수 없다.
- (8)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셔(엡3:17)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할 때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31. **㉠ 모든 성도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인가? (20-26절)**

- ㉠** (1) 이 부분의 기도는 앞에서 기도하신 내용보다 확대되었으며 본장의 결론이기도 하다.
- (2) 이 기도는 두 가지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하나는 '연합'이며 다른 하나는 '영광'이다.
- (3) 먼저 연합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하나 됨이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 성도들의 하나됨이고, 성도들 사이의 하나 됨을 가리킨다(20-22절).
- (4) 이 연합의 원리는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도 제시되었는데(15:1-9) 본장에서는 설명이 추가되어 사랑이 연합의 근본임이 보다 명확하게 밝혀졌다(23절).
- (5) 또한 성도들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인데 이는 구속받은 자가 누리는 영광은 곧 구원자의 영광이므로 당연한 귀결이다(22절).
- (6)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은 새 예루살렘의 광채이므로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참조, 계21:23).
- (7) 결론적으로 영광과 연합은 서로 연관되어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32. **㉠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는 누구를 위한 간구인가? (20절)**

- ㉠** (1) 이 기도는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간구이다.
- (2) 즉 이는 후대의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로서 그리스도 당시에는 아직 출생하지도 않은 백성들(시22:31)까지도 포함된 기도이다.
- (3) 또한 그리스도의 기도는 우리의 신앙이 그분만을 지향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혀 준다.
- (4) 그리고 '저희 말을 인하여'라는 표현은 전파되는 복음의 능력과 특성(참조, 롬10:8-15, 17)을 잘 나타내고 있다.
- (5) 결국 복음을 듣고 믿은 오늘날의 성도들도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33. **㉠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는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21절)**

- ㉠** (1)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의 나타나심과 성도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실천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성이 증거된다.
- (2) 이는 연합의 원리를 나타내는데 성도들이 하나님과 연합한 모습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명한다는 뜻이다.
- (3) 즉 성도들은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거룩'에 참여하여(벧후1:2, 3)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롬12:5).
- (4)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가 감당해 내야 할 일이 비록 미천하고 작은 일이라고 해도 그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성실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야 한다(참조, 고전12:12-31).

34. **㉠ 성도의 온전함이란 무엇인가? (21-23절)**

- ㉠** (1)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 성도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한다.

- (2) 즉 성도들은 성령께서 내주(內住)하시는 전(고전6:19; 고후6:16)으로서의 성결과 활동을 유지할 때에 온전하다는 의미이다.
- (3) 여기에서 '온전함을 이루어'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이오메노이>로서 완료 수동태이다.
- (4) 따라서 이 말의 올바른 해석은 '온전히 성장하여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이 된다.
- (5) 이러한 성장의 목표가 '하나가 되는'(헬, 에이스 엔) 것이다.
- (6) 결국 성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 성장하여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목표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참조, 엡4:13).

### 35. ㉠ 성도의 하나 됨에 대하여 설명하라 (21,22절).

- ㉠ (1)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그분께 영광돌리는 것을 삶의 목적 가운데 가장 우선에 둘 것을 가리킨다.
- (2) 즉 성도들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지 직업이 무엇이든지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실제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 (3)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귀절을 오해하여 본질이 '교회 일치'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 (4) 하지만 이는 잘못된 해석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본절과 같은 간구를 하셨을 당시에 교파나 교단이 없었음을 생각하면 금방 그러한 주장이 허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 (5) 따라서 성도의 하나 됨이란 포도나무의 여러 가지들이 그 나무에 붙어 있듯이 성도들이 어떤 모양의 삶을 살더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는 일치를 이룬다는(참조, 엡1:22, 23).

### 36. ㉠ '연합'과 '사랑'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하라 (24-26절).

- ㉠ (1) 본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간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신 것은 곧 그분의 사랑 때문임을 알 수 있다.
- (2) 또한 그리스도의 증보자적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까지 연결되었다.
- (3) 결국 그리스도와 성도들과의 연합은 사랑에 근거한 은혜의 결합인 것이다.
- (4) 그래서 본서의 기자인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했다(요일4:7-21).

## 본장의 요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1절).



## 제 18 장 그리스도께서 체포당하시다

단락구분 1-5 예수를 판 가롯 유다 / 6-9 예수를 잡으러 온 무리가 예수의 음성을 듣자 땅에 엎드려지다 / 10-11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베다 / 12-14 예수께서 체포되어 안나스와 가야바 앞으로 끌려가다 / 15-18 베드로의 첫번째 부인 / 19-24 안나스가 예수를 심문하다 / 25-27 베드로의 두번째 세번째 부인 / 28-32 관정 밖에서의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대화 / 33-37 빌라도 앞에 서신 그리스도 / 38-39 빌라도의 무죄 선언 / 40 무리가 그리스도를 거부하다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2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3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횃과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느니라

4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든 가라사대 내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6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로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느니라

7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든

8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9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삽나이다 하신 말씀을 옹호하게 하려 함이러라

10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베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11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12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하속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13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14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권고하던 자러라

15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16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느니라 대제사장과 아

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왔더니

17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18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속들이 숯불을 피우고 서서 쪼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쪼더라

19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20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21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 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느니라

22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는 하속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가로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 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2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된 것을 증거하라 잘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24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이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25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쪼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아니라 하니

26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베어 버리운 사람의 일가라 가로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그 동산에 있던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27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28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29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소하느냐

30 대답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31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저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우리에게서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32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옹호하게 하려 함이러라

33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청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3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여 내게 한 말이요

35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36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7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시니라

38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나 하더라도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39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40 저희가 또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러라

## 1. ㉠ 본장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본장은 그리스도의 체포와 심문을 기록한 내용으로서 19장까지 연결되어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루고 있다.
- (2) 또한 본장은 공관 복음서와는 달리 겐세마네 동산에서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모습이 기록되지 않았다(비교, 마26:36-46; 막14:32-42; 눅22:40-46).
- (3) 반면에 본장은 특별히 이 동산이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가끔 찾아가신 장소임을 밝히고 있다(2절).
- (4) 뿐만 아니라 예수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6절) 태도를 보인 것은 그리스도의 위엄과 권세를 나타낸 것으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다.
- (5) 이 같은 특징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메시아적 사역을 강조한 본서의 특징과도 부합된다.
- (6) 그러므로 우리는 공관 복음서와는 약간 다른 본장의 기록상 특징을 살펴봄으로 자신의 사역의 완성을 위하여 고난에 임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다.

## 2. ㉠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잡히셨는가? (1-14절)

- ㉠ (1) 주께서는 잡히실 때에 자신의 사역의 정점(頂點)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당당하고도 몇몇한 태도를 보이셨다.
- (2) 즉 주께서는 자신의 신분을 확실하게 밝히셨으며(5, 7절)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제자들을 염려하셨던 것이다(8절).
- (3) 또한 스승을 보호하겠다고 나선 베드로를 만류하시며 이 같은 체포가 자신의 사역의 완성을 위한 길이기 위하여 용하시겠다는 뜻을 나타내셨다(11절).
- (4)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위엄을 조금도 잃지 않으셨으며 도리어 잡으러 온 사람들이 엎드리는 놀라운 상황도 연출되었다(6절).
- (5)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당당하시고 위엄 있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불의와 맞서 싸우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배울 수 있다.
- (6) 즉 성도들은 세상의 악과 불의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방조 내지는 타협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의연한 자세를 지녀야 한다.

## 3. ㉠ 기드론 시내란 어떤 곳인가? (1절)

- A** (1) 이는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시내로서 겨울에는 탁류가 매우 거세게 흐르나 여름에는 말라 버린다.
- (2) 성경의 기록에 나타난 기드론 시내를 살펴보면 우상들이 불태워졌던 곳이 바로 이 시내가이며(왕상15:13; 대하29:16)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도피하던 중에 건넌던 시내이기도 하다(삼하15:23).
- (3)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 이 시내를 건넌 것을 그리스도의 수난과 연관짓기도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 (4) 왜냐하면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것과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죄에 대한 징벌이었기 때문이다(참조, 삼하12:11).
- (5) 따라서 죄에 대한 징계를 받아 도망가는 다윗과 자신의 사역의 완성을 위해 기드론 시내를 건너신 그리스도를 연관지으려는 시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
- (6) 오히려 그리스도와 기드론 시내와의 관계는 렘31:40의 성지(聖地)에 관한 예언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 (7) 결국 그리스도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신 것은 예언의 성취(참조, 시110:7; 렘41:30)였으며 또한 공관 복음에는 없는 이러한 기록을 본서의 기자 사도 요한이 남긴 이유도 그리스도 사역의 모든 것이 예언의 성취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다.

4. **Q 가롯 유다는 감람산의 동산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2절)**

- A** (1) 이전에 주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던 곳이었기에 가롯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 동산을 찾아가신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 (3) 그 이유 중 하나는 습관대로(비교, 눅22:39) 그곳에서 기도하시기 위함이다.
- (4)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자신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 가롯 유다가 아는 장소를 스스로 택하신 것으로 볼 수 있다.

5. **Q 가롯 유다가 데리고 온 사람들은 어떠한 자들이었는가? (3절)**

- A** (1)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下屬)들이었다.
- (2) 이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로마의 군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하수인들임을 알 수 있다.
- (3) 즉 그리스도께서는 정치적 지도자와 종교적 지도자들로부터 양면 공격을 받으신 것인데 이러한 상황도 역시 미리 예언된 것이었다(참조, 시 2:1, 2).
- (4)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말세에 가서는 정치적으로 미움을 받으며 위선적이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참조, 15:19).
- (5)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진실되게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기를 원한다면 이 같은 핍박은 당연히 있게 될 것이다.
- (6) 이와 같이 진리와 정의를 외치는 것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담당해야 할 당연한 사명이므로 그 어떤 학대와 박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한다(마5:10-12).

6. **Q 그리스도를 잡으러 온 자들이 가진 무기는 무엇이었는가? (3절)**

- A** (1) 본절에서는 그저 병기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 (2)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는 그들이 검과 몽치, 즉 짧은 몽둥이를 가지고 왔다고 기록되어 있다(막14:43; 눅22:52).
- (3) 그들은 지금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체포하려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다.
- (4)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도리어 그들에게 위엄을 보이시자 무기를 가지고 있던 자들은 주로부터 물러나 땅에 엎드렸다(비교, 6절).
- (5) 이는 말씀의 능력을 나타낸 것으로서 성도가 세상의 세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보여 준다(참조, 살후2:8).

- (6) 즉 세상을 향한 성도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므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철저한 무장을 해야 하며(참조, 엡6:16, 17) 또한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참조, 계2:17, 26; 3:5, 12).

7. **㉠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을 향해 던지신 그리스도의 질문은 무엇이었는가? (4-7절)**

- ㉠** (1)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는 물음이었다.  
 (2) 이 질문은 두 번 반복되었으며 그때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대답하였다.  
 (3) 이렇게 본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시고 그들은 그들이 찾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혔지만, 공관 복음에는 가롯 유다가 직접 주께 입맞춤으로써 그리스도를 지적했다고 기록되어 있다(마26:49; 막14:45; 눅22:48).  
 (4) 이러한 기록상의 차이점은 그리스도의 신적 사역을 강조하려는 본서의 저자 사도 요한의 의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 즉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 같은 일들이 모두 실제로 일어났지만 요한은 상황 묘사보다는 그 상황에서 취하신 그리스도의 태도를 설명하는 데에 더 치중한 것이다.

8. **㉠ 주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라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4절)**

- ㉠** (1) 예수께서 수난을 통하여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시리라는 것과 지금 이 상황에서 자신이 잡혀가야 한다는 것을 아셨다는 의미이다.  
 (2)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수난을 미리 아셨다는 기록은 본서에서 여러 번 나온다(참조, 6:64; 13:1, 3, 11, 18).  
 (3) 자신의 고난을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이 꼭 해야 할 일이었기에 과감하게 고난에 임하셨던 것이다.  
 (4) 물론 그 일이 육신을 가지신 그리스도로서 너무나 감당하기 벅찬 일이었기에 하나님께 가능하면 그 일을 피하게 해 달라고 간구하시기까지 하였다(참조, 막14:35, 36; 눅22:41-44).  
 (5) 그러나 주께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자신이 반드시 수행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아셨기에 기꺼이 그 고통의 잔을 받으셨던 것이다.  
 (6) 이러한 주의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자기 앞에 놓인 책임을 감당하는 성실을 배울 수 있게 된다.  
 (7) 즉 우리는 선지자 요나처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가서는 안 되며(욘1:3)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책임을 완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8) 우리가 소속된 가정과 학교, 직장 등의 모든 단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지상(地上)에서 감당해야 할 각자의 책임이기도 하다.

9. **㉠ 자기를 찾는 자들을 향하여 주께서는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는가? (5절)**

- ㉠** (1) '내로라'(헬, 에고 에이미)고 대답하였다.  
 (2)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실 때 사용하셨던 표현이기도 하다(참조, 8:24, 28, 58).  
 (3) 뿐만 아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실 때 쓰셨던 말과 동일한 표현으로서(출3:14) 70인역(LXX)은 이 말씀을 <에고 에이미>라고 번역하였던 것이다.  
 (4) 결국 그리스도의 대답은 체포자들 앞에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뿐 아니라 자신의 신성(神性)과 함께 자신이 잡히는 것도 메시아적 사역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천명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0. **㉠ 주를 판 가롯 유다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 (5절)**

- Ⓐ (1) 체포자들과 함께 서 있다.
- (2) 이전에 주를 좇아다닐 때 그는 돈케를 맡았을 정도로(12:6) 여러 사람의 신임을 받았으나 지금은 동료들과 스승을 배반하고 체포자들 틈에 섞여 있는 것이다.
- (3) 후에 그는 주를 팔아 넘긴 일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아 목매어 죽었는데(마27:3-5) 그의 몸은 곤두박질하여 떨어져 배가 터져 창자가 나왔다(행1:18).
- (4) 이러한 유다의 마지막과는 반대로 그리스도의 남은 제자들은 비록 잠깐 동안의 낙심을 겪기는 했지만 성경 강림 이후 그리스도를 열심히 증거하는 산 증인들이 되었다.
- (5) 따라서 우리들은 이와 같은 대조적인 상황을 통하여 끝까지 주를 의지하고 그분만을 따라야 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다. 은 30에 주를 팔아 버린 유다처럼 우리는 직장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혹은 자식들 때문에 주를 부인해서는 안 되며 비록 현재에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주를 따르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11. ⓐ 주를 체포하러 온 자들이 주의 대답을 들은 후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6절)

- Ⓐ (1) 그들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
- (2) 이는 주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똑같이 <에고 에이미>라고 두 번씩이나(참조, 5절)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 같다.
- (3) 또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그리스도의 위엄 있는 태도에 놀라서 체포자들이 엎드린 것으로 볼 수도 있다.
- (4) 아뭏든 지금 체포하러 온 자들은 엎드러지고, 잡혀가셔야 할 분은 도리어 당당한 태도를 보이는 놀라운 장면이 벌어졌다.
- (5) 물론 이는 당연한 현상이겠지만 그리스도의 이같이 당당하신 모습은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준다.
- (6) 즉 우리들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사면에서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당당해야 하며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를 외쳐야 한다. 비굴하고 나약한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일에 있어서 과감하게 용기 있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참조, 16:33).

12. ⓐ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하여 설명하라(8,9절).

- Ⓐ (1) 주께서는 저들이 찾는 자가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두 번이나 스스로 말하게 하신 뒤에 제자들을 놓아 줄 것을 요구하셨다(8절).
- (2) 즉 그들이 찾는 사람이 그리스도뿐이면 제자들은 당연히 놓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시다.
- (3) 이러한 그리스도의 배려는 자신의 말씀을 옹하게 하시는 것이며(17:12) 동시에 자신의 목숨을 자진하여 버리심으로써 제자들의 안전을 도모하신 것이다.
- (4) 이러한 사건은 본서에 널리 퍼져 있는 '대속의 원리'를 보다 확실하고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참조, 1:29; 3:14-16; 10:11, 15-18; 12:32; 17:19).
- (5) 또한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이 영적인 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삶도 그분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역설하는 것이기도 하다.
- (6)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들의 신앙을 영적인 면에만 한정지워서는 안 되며 실생활 전체에서 믿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즉 신앙은 주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직장 생활, 사업, 가정 생활, 오락 등의 모든 면에서 그 역동적인 힘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 (7) 물론 이 같은 생활 전반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

13. ⓐ 그리스도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베드로가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10절)

- A** (1)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편 귀를 베었다.  
 (2) 물론 다른 제자들도 주를 체포하려 온 자들에 대하여 분노와 위기를 느껴 검을 가지고 대항하려 하였다(눅22:49).  
 (3) 그러나 베드로는 그의 다혈질적인 기질로 말미암아 남들보다 먼저 칼을 빼어 휘둘렀으며 그 결과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었던 것이다.  
 (4)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은 그의 성급함과 함께 주께 대한 뜨거운 충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5) 그러므로 우리는 이상과 같은 베드로의 행동을 어리석게만 보지 말고 오히려 주를 위해 위험한 상황에 자신을 내던진 그의 충성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  
 (6) 이와 같이 신앙은 평화스러운 때보다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그 진면목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14. C** **잘린 말고의 귀를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치료하셨는가? (10절)**

- A** (1) 본서에는 말고의 귀가 잘렸다는 기록만 있지만 눅22:51에는 주께서 그 귀를 만져 낮게 하셨다는 자세한 치료의 기록이 있다.  
 (2) 이 같은 그리스도의 행동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善待)하라’고 하신 자신의 말씀을(참조, 눅6:27) 그대로 실천에 옮기신 행동이었다.  
 (3) 이러한 원수 사랑에 대한 교훈은 율법과(출23:5) 지혜서(잠25:21), 그리스도의 가르침과(마5:44; 눅6:35) 사도 바울의 서신(롬12:20; 살전5:15) 등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역설되고 있다.  
 (4)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며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고(요일4:8,16) 표현된다.  
 (5) 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러한 사랑이 많이 식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말씀에 대한 사랑보다 교회 내에서의 자신의 지위나 명예에 대한 애착이 더욱 강하며, 사회에서도 빛과 소금으로서의 성도로 살기 보다는 물질과 권세를 탐하는 평범한 개체의 위치로 전락하고 만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  
 (6) 또한 교회는 교회대로 외적인 성장에만 주력하여 예배당의 건물, 교인의 수 등을 자랑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나타내기 보다는 목회자의 실력(?)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7) 이같이 안타까운 모습들은 교회가 진리에 대한 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병적인 증상들이다.  
 (8) 따라서 우리들은 비록 아프겠지만 자신의 이런 환부(患部)를 수술하는 일을 먼저 시도하여 진리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것이다.

**15. C** **검을 뽑아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에게 주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11절)**

- A** (1)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고 말씀하셨다.  
 (2) 또한 눅22:51에서는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기록이 있다.  
 (3) 그리고 마26:52, 53에는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열 두 영(營)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는 주의 말씀이 있다.  
 (4) 이러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종합해 볼 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수난을 무력으로 회피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셨으며 나아가 폭력과 복수를 온당치 않은 행동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주의 종들이 각자의 사역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를 배울

수 있는데 그것은 주께서 맡기신 일을 행할 때에는 비록 그 일이 목숨까지 던져야 하는 수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담대히 그리고 기꺼운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16. **㉠ 주께서 잡혀가신 모습을 설명하라(12-14절).**

- ㉠** (1) 그리스도께서는 잡히신 후에 결박당하여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셨다.  
 (2) 이전에 저들은 여러 번 그리스도를 체포하려고 시도했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이제 그 ‘때’가 이르러(17:1)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쌌다’(시22:12),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다’(시118:12),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와 기쁨 부으신 자가 함정에 빠졌다’(애4:20)는 구약의 예언이 응하게 된 것이다.  
 (3) 그리고 주께서는 아직 재판도 받지 않으셨는데 마치 불의한 일을 저지른 행악자처럼(비교, 삼하3:33, 34) 결박당하셨다.  
 (4) 전승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잔인하게 묶이셨다고 한다. ‘저희가 그를 어찌나 난폭하게 묶었던지 주의 손가락 끝마다 피가 터져 흘렀으며 주의 손을 등에 대고 묶었고 목에는 쇠사슬을 채워 그 끈을 잡아 끌고 갔다’.

17. **㉠ 그리스도의 잡히심은 어떠한 영적 의미가 있는가? (12절)**

- ㉠** (1) 흑자는 그리스도의 잡히심과 연관지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온몸이 결박당한 것(창22:9),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 감옥에 갇힌 것(창39:20-23), 사사였던 삼손이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잡힌 것(삿16:21, 28-30) 등을 비교 설명하고 있다.  
 (2) 그리스도의 잡히심은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인류 대속의 한 과정이다.  
 (3)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잡히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음서들 가운데 본서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기 위해 죄수들처럼 대접을 받으리라는 예언이 성취된 것을(사53:8) 명확히 제시하여 그리스도께서 곧 메시아이심을 밝히려는 저자의 의도 때문이다.  
 (4) 성도들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한 스스로의 포기로서 결국 성도들이 매여 있던 죄의 사슬에 대신하여 매이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자신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이시라 뜻으로서 이전에 불법의 사슬(잠5:22)과 우리 자신의 죄악의 멍에(애1:14)에 매였다가 해방되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상징인 것이다.  
 (5) 이처럼 성도들이 주께 매인 것은 은혜에 참여하기 위함이며(빌1:7)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수준까지의 신앙의 성장과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6)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서 그분의 이름과 의(義)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자신의 신앙을 세상이 인정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기뻐하고(참조, 마5:10-12) 더욱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18. **㉠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는 어떠한 자였는가? (13절)**

- ㉠** (1) 안나스는 A. D. 6-15년 사이에 대제사장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의 아들 가운데 네 사람이 역시 대제사장이었고 사위인 가야바도 대제사장이었다.  
 (2) 원래 대제사장이라는 지위는 종신직이었으나 로마의 통치가 시작된 이후에는 로마에 대한 적극적인 추종자, 최고액의 뇌물을 바치는 자에게 이 지위가 주어졌다.  
 (3) 따라서 대제사장의 신분을 취득한 자는 그 신분을 악용하여 착취, 치부(致富)를 일삼았다.  
 (4) 그래서 당연히 안나스는 막대한 권력과 부를 소유하게 되었는데 특히 그는 성전의 뜰에서 파는 제물들에 비싼 값을 매겨 이득을 취하곤 했다.  
 (5) 당시에는 제물에 대한 결점을 조사하는 검열관이 있었는데 이 검열관은 성전 밖에서

산 제물에 대해서는 억지로라도 트집을 잡았다. 성전 뜰에서 산 제물은 이미 검열을 마친 것이므로 예배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그것들을 살 수밖에 없었다.

- (6) 이와 같이 성전의 경영 전체가 타락하고 부패하였기에 사람들은 제물을 파는 가게를 일컬어 ‘안나스의 시장’이라고까지 말했으며 탈무드(Talmud)는 ‘화 있을지어다. 안나스의 집이여! 그들은 대제사장, 그들의 아들들은 금고지기, 사위들은 성전의 관리인 그리고 종들은 막대기로 백성을 때리는도다’라고 그들의 악행을 비난하였다.
- (7) 이러한 성전의 부패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준엄한 책망과 분노를 나타내셨기에(2:13-17) 안나스로서는 주께 대한 개인적인 원망과 분노가 있었을 것이다.
- (8) 실로 그리스도와 성직자 사이의 이러한 갈등과 대립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에도 많은 교훈을 준다.
- (9) 즉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많은 샅군 사역자들은 오늘날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우롱하고 있다.
- (10)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역자들의 말만 듣고 그대로 끌려가서는 안 되며 먼저 그 교역자의 행실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아보아야 한다.

19. **㉠ ‘그 해의 대제사장’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13절)**

- ㉠** (1) 원래 대제사장직은 평생직이었으나 권세를 잡은 자들의 성직 매매로 인해 대제사장은 자주 바뀌었으며 당시는 거의 1년 직으로 되어 있었다(참조, ㉠18).
- (2) 하필이면 그리스도께서 가장 힘드신 일을 감당해야 할 이 시점에 악한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악인도 그 소용에 맞게 사용하셨음을 잘 나타내 준다(참조, 잠16:4).
- (3) 그러나 비록 이러한 악인들의 행위가 당시에는 강해 보여도 이미 그들에게는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고 성경은 여러 번 지적하였다(요18:5; 사3:11; 습1:3).
- (4) 이와 같이 악한 대제사장이 살던 시기에 선택하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현하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진리와 감사를 느끼게 해준다.
- (5) 따라서 우리는 악인의 존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해서는 안 되며 도리어 그러한 악한 자를 통해서 성도들을 징계하시고 성장시키시는 섭리가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20. **㉠ 그리스도를 첫번째 부인한 베드로에 대하여 설명하라(15-18절).**

- ㉠** (1) 다른 제자들은 동산에서 주가 잡히실 때에 모두 도망갔지만(막14:50) 베드로와 다른 제자 하나는 주를 멀찍이 따라가서 대제사장의 뜰, 숯불 피운 곳에 이르렀다.
- (2) 그러자 문 지키는 여종이 ‘너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는 질문을 던졌다.
- (3) 이에 베드로는 당황하며 자신은 아니라고 주를 부인하게 되었던 것이다.
- (4) 이러한 베드로의 태도에는 그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리고 흩어졌을 때 주를 따라간 그의 태도는 용감했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문 지키는 하찮은 여종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 (5) 둘째,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주께서 이전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마26:34)고 하신 예언을 기억치 못하고 있었다.
- (6) 셋째, 이미 주를 부인하여 그 양심에 가책을 받았을 터인데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숯불을 쬐며 종과 하숙들의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다(18절).
- (7) 이와 같은 베드로의 악한 모습은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한 점이 많다. 우리는 흔히 남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그래!’라는 말에 위축되어 자신의 신앙을 뺄개치거나 자신의 행위가 신앙적으로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체면과 물질 때문에 역시 세상의 무리와 어울리는 경우가 많다.

(8) 그러므로 우리는 위와 같은 베드로의 연약한 생활을 안타까와하듯이 우리의 연약함도 애통해 할 줄 아는 자아 성찰(自我省察)이 필요하다.

21. **㉠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베드로가 한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18절)**

- ㉠** (1) 스승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고도 계속해서 그 집의 종과 하숙들과 함께 숯불을 쬐었다.
- (2) 즉 베드로는 잡혀신 주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까지 오고서도 자신의 모습이 사람들 눈에 띌까 봐 전전긍긍하며 날이 춥자 숯불에 가까이 가서 불을 쬐었던 것이다.
- (3) 이와 같은 베드로의 모습은 우유 부단하기 짝이 없다. 주를 쫓겠다는 자신의 맹세대로 (13:37) 주를 따르든지 아니면 다시 주를 부인하기 전에 그 집에서 나가든지 했어야 하는데 어리석게도 그는 남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와 무관한 사람으로 보아 주기를 원하면서 악한 자들 틈에 섞여 있었다.
- (4) 이렇게 자신의 안전을 위해 악한 자들 사이에 몸을 숨기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참조, 시141:4). 주께서는 우리가 차든지 덥든지 확실한 신앙의 태도를 밝히기를 원하신다(참조, 계3:15, 16).
- (5)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기를 꺼려 하거나 혹은 교회 내에서도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도입하여 교회의 모든 일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등 세상과 교회 양쪽에 다리를 하나씩 놓고 사는 생활을 버려야 할 것이다.

22. **㉠ 대제사장은 예수께 무엇에 관한 질문을 했는가? (19절)**

- ㉠** (1) 먼저 제자들과 주께서 가르치신 교훈에 관하여 물었다.
- (2) 이러한 그의 질문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세속적인 혁명가로 오인한 것에서 비롯된 질문으로서 그 의미는 곧 제자들의 수가 얼마이며 주의 교훈에 어떠한 혁명적 요소가 있었는가를 묻는 것이다.
- (3) 또한 이 질문은 시공을 초월하여 독재자와 기독교가 맞부딪칠 때마다 제기되었다.
- (4) 즉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이 정부 전복 음모를 꾸민다고 해서 사형에 처해졌으며 우리나라에도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 신자들이 이러한 명목으로 탄압당했던 것이다.
- (5) 물론 현대에도 이런 양상은 되풀이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외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당하고 있다.
- (6) 이 같은 현상은 독재자나 권력자들이 스스로의 죄를 알기 때문에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 시도하는 더욱 가증된 범죄 행위이다.

23. **㉠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한 그리스도의 답변은 무엇이었는가? (20, 21절)**

- ㉠** (1)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대답하셨다.
- (2) 또한 주께서는 ‘어찌하여 내게 물느냐...들은 자들에게 물어 보라’고 도리어 대제사장에게 반문하셨다.
- (3) 원래 유대인의 재판 원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가 자신의 자백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과가 성립되는 질문은 일체 받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오로지 증인에 의한 고발의 합법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판결하게 되어 있다(참조, 신19:15-19).
- (4) 따라서 그리스도의 대답과 질문은 자신의 사역의 정당함을 나타내는 것인 동시에 적법한 증인 없이 진행되는 현재의 이 심문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신 것이다.
- (5) 그리고 이미 불법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포해 놓고 그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냐고 묻는 것 자체가 말도 되지 않는 행위였기에 주께서는 자신의 결백함과 아울러 이 심문의 부당성을 밝히신 것이다.

24. **㉠ 그리스도를 친 하숙의 행동과 이에 대한 주의 반응을 설명하라(22, 23절).**

- A** (1) 대제사장의 질문과 심문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그리스도의 대답을 듣고 곁에 섰는 하속한 명이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고 말하면서 그분을 쳤다.
- (2) 이러한 하속의 악한 행위에 대해 주께서는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는 부당한 것이요 또 만일 죄를 지었다고 해도 이런 폭행은 온당치 못하다고 항변하셨다.
- (3) 사실상 하속의 행위와 말은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일종의 아부요 과잉 충성이었다.
- (4) 실로 주께서는 일개 종으로부터 대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모욕과 수난을 당하신 것이다.
- (5) 하지만 주께서 받고 있는 이러한 멸시와 곤욕이 인류 전체를 위한 희생이었기에(참조, 사 53:3-12) 그분은 온전히 인내하였다.
- (6)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할 차례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모든 부끄러움과 모욕을 기꺼이 당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러한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멸시와 핍박을 감사하게 받고 인내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각성해야 할 것이다(참조, 고후 11:23-33).

**25. C 베드로의 두번째 부인(否認)과 세번째 부인 사실을 설명하라(25-27절).**

- A** (1) 베드로가 계속 불을 쬐는 가운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냐고 묻자 그는 자신이 주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였다. 이는 두번째로 주를 부인한 사건이다.
- (2) 그러자 대제사장의 종으로서 말고의 친척인 사람이 베드로를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동산에서 보았다고 하자 베드로는 다시 한번 자신이 그가 아니라고 부정하였다.
- (3) 이렇게 베드로가 세 번 주를 부인하자 닭이 울었다.
- (4) 본서에는 예언대로(13:38) 주를 세 번 부인한 후의 베드로의 태도에 관한 언급이 없지만 공관 복음서에는 닭이 울자 베드로는 스승의 예언이 생각나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기록되어 있다(마 26:75; 막 14:72; 눅 22:62).
- (5) 이 같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죄라는 것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큰 것으로 옮겨 가는 속성이 있음을 배우게 된다.
- (6) 즉 베드로가 처음 주를 부인할 때 질문을 던진 사람은 문 지키는 하찮은 여종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었으며 그 다음에는 말고의 친척이었다.
- (7) 따라서 처음에 베드로가 자신의 신분을 당당하게 밝혔다면 뒤에 올 더 큰 위협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처음의 부인으로 말미암아 그 거짓말은 어쩔 수 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8)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다. 처음에 범죄할 때는 죄가 별 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바로 그 범죄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경계가 무너지고 드디어는 큰 죄까지 범하게 된다.
- (9)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며(히 3:13) 큰 든 작은 죄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26. C 베드로가 주를 세번째 부인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7절)**

- A** (1) 닭이 울었다.
- (2) 이렇게 닭이 울자 베드로는 주의 예언이 기억나 심히 통곡하였다(마 26:75).
- (3) 그러나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눅 22:60, 61에서는 닭이 울고 그리스도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자 그제야 그는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고 기록되었다.
- (4) 즉 자신에게 닥친 위험만을 생각하던 베드로에게 그리스도의 눈길이 향하자 비로소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다.
- (5)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의인들을 바라보시는 '눈'을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이 죄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감찰하신다(참조, 대하 16:9; 시 11:4; 뱀전 3:12).

**27. C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어디로 끌고 갔는가? (28-32절)**

- Ⓐ (1) 그들은 그리스도를 안나스의 집에서부터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가(24절) 다시 총독 빌라도의 관정으로 데리고 갔다.
- (2) 본서에는 가야바의 집에서 있었던 공회의 판결 내용이 생략되었는데 공관 복음서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공회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여(눅22:70) 율법 가운데 살인죄에 해당하는 불경죄를 지은 것으로 판결되었다(막14:64).
- (3) 그러나 범죄자를 직접 사형에 처할 권한이 없는 공회원들은 그리스도를 사형시키기 위해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간 것이다.
- (4) 그러나 공회는 원래 낮에 성전의 한 장소에서 열려야 정당한 공회의 성립이 되므로 이같이 밤에, 그것도 대제사장의 개인 저택에서 열린 공회는 당연히 무효였지만 주를 해치려고 이미 작정한 저들에게 그러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 (5) 이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온통 불법 투성이었지만 정작 그리스도께서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셨던’(사53:7) 것이다.
- (6) 이러하신 주의 모습은 곧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모습이다. 즉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고난과 역경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견도록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야만 한다.
- (7)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외쳐야 할 때는 육신의 위협과 배고픔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진리를 증거해야만 한다(참조, 눅19:40).

28. Ⓢ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28절)

- Ⓐ (1)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이다.
- (2) 즉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이방인의 집이나 사무실에 들어가면 이레 동안 부정하게 된다. 이때는 유월절을 바로 앞둔 때였으므로 만약 그들이 부정하게 되면 유월절에 참석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 (3) 이같이 외적인 정결에만 신경을 쓰는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정작 영적인 성결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었다.
- (4) 이런 자들에 대해 주께서는 일찌기 ‘걸으로는 사람에게 좋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外飾)과 불법이 가득하다’(마23:27, 28)라고 책망하셨다.
- (5) 오늘날에도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겉으로만 경건과 거룩을 찾으려 참된 사랑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모르는 자들이다.
- (6) 따라서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들의 겉모양만 보고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되며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신앙도 내면적으로 잘 다져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밖으로 표출되도록 하고 외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29. Ⓢ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죄목을 묻자 그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했는가? (29-31절)

- Ⓐ (1) 그들은 뚜렷한 죄목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행악자라고만 하였다.
- (2) 이 ‘행악자’라는 뜻으로 쓰인 헬라어 <카코스>는 인격적으로 악한 자라는 의미이지 법을 위반한 자는 아니다.
- (3) 따라서 명백한 범죄 행위가 없으므로 빌라도는 그리스도를 다시 유대인들에게 넘기려 하였다.
- (4) 사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네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명령한 것은 일종의 비난으로서 명백한 혐의가 없는 사람을 재판하는 것이 너희의 관례냐고 빈정대는 것이다.
- (5) 이처럼 잘못된 신자의 행동은 불신자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된다.

(6)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신의 기준에 맞춘 잘못된 신앙적 편견과 완고함 때문에 전체 그리스도인들과 나아가서는 그리스도께서 모욕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30. ㉠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 죄인을 사형할 권한이 없다고 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 (31, 32절)**

- ㉠** (1) 당시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다.  
 (2)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그리스도를 사형시켜 줄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3) 이러한 상황은 곧 ‘인자가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마20:19),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3:14) 등의 예언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다(32절).  
 (4) 즉 율법으로 따지자면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덮어 씌운 죄목인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불경죄로 인해(막14:64; 눅22:70)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어야 했다(레24:16; 신17:7).  
 (5)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으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사형 집행권이 있는 로마 권력자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셨다.  
 (6) 결국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역사와 관련지워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  
 (7)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 시대의 역사적 상황도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적 환경에 부응(副應)하는 신앙적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다.  
 (8)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부인하거나 도피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부정적인 시대 상황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선포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물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 역사 안에서 활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31. ㉠ 그리스도를 심문하는 과정에 나타난 빌라도의 모습을 설명하라(33-40절).**

- ㉠** (1) 먼저 우리는 재판관으로서 그의 진지한 태도를 볼 수 있다. 그는 유대 귀족들과 같이 흥분하거나 감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다(33, 37, 38절).  
 (2) 심문의 결과로 그는 그리스도에게 아무런 죄가 없음을 확인했으며(38절; 눅23:14, 15) 예수를 놓아 주려고 하였다(39절).  
 (3) 그러나 그는 우유 부단(優柔不斷)하여 자신이 확신한 바대로 무죄한 그리스도를 석방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리스도께 적당한 매질을 함으로써 유대인들과 타협하려고 하였다(참조, 눅23:16).  
 (4) 이러한 그의 타협적인 태도는 진리와 양심을 저버린 단순한 정치가의 모습으로서 끝내는 오랜 역사를 두고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통해 주를 못박게 내어 준 장본인으로 낙인찍히게 하였다.  
 (5) 결국 우리는 정치가나 재판관들도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보다는 양심과 진리에 근거해서 행동해야 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다(참조, 잠31:9).  
 (6) 오늘날 신앙을 가진 많은 재판관과 정치가들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심판받을 것을 염두에 두고 압력이나 재물에 굽히지 말고 양심껏 자신의 직분을 이행해야 하는데 이 같은 소명(召命)은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이다.

**32. ㉠ 빌라도가 그리스도께 한 질문은 무엇이었는가? (33절)**

- ㉠** (1)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질문이었다.  
 (2) 이 질문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3) 하나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고소한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더이다’(눅23:2)는 죄목들을 실제로 확인하여 그리스도로부터 로마 통치하에서 독립 활동을 한 사실을 입증하려는 의도이다.  
 (4) 다른 하나는,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이 정말로 왕인가 의심하며 빈정대고 있

는 것이다.

33. **㉠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나라’란 어떤 개념을 지닌 것인가? (36절)**

- ㉠** (1) 이는 곧 ‘하나님의 나라’(the Kingdom of God)를 가리키는데(막12:28; 계12:10) 지상의 어떤 나라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계11:15) 나라를 가리킨다.  
 (2) 또 이 나라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신 하나님 자신의 권위와 지배를 의미한다(눅22:29).  
 (3)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으로 인해 참여케 되는 것으로서(고전15:23-28) 그 완성은 세상 끝날에 이루어지게 된다.  
 (4) 한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나라에 속하는 국민이 되며 그 혜택은 완전한 의와 평강과 기쁨(롬14:17) 그리고 영생(永生)이다(마25:46; 막9:45; 10:17, 30).  
 (5) 하지만 육신적으로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까지 소망을 가지고 사랑과 선행의 생활을 해야 하며(히10:23, 24) 때로는 많은 환난을 겪기도 해야 한다(행14:22).  
 (6) 이처럼 성도들 삶에는 영생의 축복과 세상의 미움이(15:19) 동시에 발견되기 때문에 그 삶은 기본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7)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가 약속되었기 때문에(살후3:3; 벰전1:5)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참조, 마5:10-12).

34. **㉠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설명하라(37절).**

- ㉠** (1) 그리스도는 자신이 친히 밝히셨듯이 왕이시다.  
 (2) 또한 주께서는 육체적으로도 왕가(王家)인 다윗의 가문에서 출생하셨으며(마1:1; 롬1:3)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롬1:4) 당연히 왕이시다.  
 (3)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삼위 일체이신 하나님의 제 2위(位)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과 권능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를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계17:14)이라고 칭하였다(계19:16).  
 (4) 이러한 주를 왕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왕국의 백성들이다(참조, 약2:5).  
 (5) 그러므로 성도들은 겉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 영적 신분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귀한 신분이 된 것을 깨달아 그 신분에 알맞는 성결된 생활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참조, 고후7:1; 벰후3:11).

35. **㉠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37절)**

- ㉠** (1)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시기 위함이다.  
 (2) 이 표현을 영어 성경 Living Bible은 ‘세상에 진리를 가져오기 위해서’(to bring truth to the world)라고 번역하였다.  
 (3) 주께서는 이 땅에서 장님을 눈뜨게 하시고, 앓은병이를 일으키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했지만 그분이 오신 제일 되는 목적은 불의한 세상에 진리를 전하는 것이었다.  
 (4)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은 진리이신 그리스도(13절; 1:14; 14:6)를 증거하는 것이며 또한 우리는 그 일을 위해 택함 받았다(사43:10).  
 (5)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가진 이상 당연히(고후4:13) 또한 담대히 주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증거해야 한다(참조, 딤후1:8).

36. **㉠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37절)**

- ㉠** (1)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진리에 속한 자이다.  
 (2) 이러한 자들은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기 때문에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역사(役事)하여(살전2:13) 그 뿌리를 내리게 된다(마13:33).  
 (3) 이렇게 주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주어진다(1:12).

- (4) 결국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은 말씀을 받아들여 진리에 속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말씀을 대할 때에 그것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참조, 스8:21; 마18:3).
- (5) 그러므로 이미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말씀을 대할 때에 의심하거나(마21:21; 약1:6-8) 부인해서는 안 되며 오로지 간절함과(행17:11) 감사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한다.

37. **㉠** 빌라도의 '진리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설명하라(38절).

- ㉠** (1) 이 질문은 본서에만 나타나 있는 것으로서 그 의도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2) 첫째, 그가 그리스도를 비웃어 경멸적으로 너 같은 자가 어찌 진리를 알겠느냐고 모욕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3) 둘째, 과연 진리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싶어하는 그의 호기심으로 볼 수 있다.
- (4) 아마도 그는 군중들이 불과 며칠 전까지 그리스도를 영웅처럼 떠받들었던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또한 자신이 총독이라는 신분으로서 진리라고 하는 여러 주장들을 이미 많이 들었을 것임에 틀림없기에 후자(後者)의 견해가 더 타당하다.
- (5) 그러나 만일 빌라도가 후자의 의도가 있었다면 여기서 묻는 진리(헬, 알레테이아)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고 보면 타당한 진리를 의미하게 된다.
- (6) 즉 지금과 마찬가지로 당시에 자신의 주장이 진리라는 여러 의견들이 있었기에 빌라도는 '내가 주장하는 진리는 어떠한 것이냐'라는 의도로 물었던 것이다.
- (7) 이 같은 현상은 오늘날에도 존재하며 기독교 내에서조차도 많은 이단들이 나와 서로 자기가 진리를 찾았다고 주장한다.
- (8)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러한 거짓된 진리에 현혹되지 말고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고전 2:13) 자신의 신앙을 굳게 지켜야 한다(참조, 엡6:14).

38. **㉠** 유월절에 죄수를 놓아 주는 관습은 근거가 있는 것인가? (39절)

- ㉠** (1) 그 근거는 불확실하다.
- (2) 이 관습이 시작된 시기도 분명치 않으나 확실한 것은 '유월절'에 죄수 하나를 석방하는 경우가 빌라도 당시에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이다.
- (3) 성경에서는 범죄한 자를 죄가 없다고 무죄 석방하는 것을 정죄하였다(잠17:15).
- (4) 이러한 잘못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그대로 지키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신앙의 도리를 오로지 말씀 속에서만 찾아야 한다.
- (6) 그래서 칼빈(Calvin)은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9. **㉠** 빌라도는 유월절 죄수 석방이라는 전례(前列)를 이유로 재판정에 모인 무리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졌는가? (39, 40절)

- ㉠** (1) 빌라도가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고 질문했다.
- (2) 사실 빌라도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예수께서 무죄하다는 결론을 내렸었다(38절). 그런데도 위의 질문을 모인 무리들에게 던진 것은 자가 당착(自家撞着)이 아닐 수 없다.
- (3) 더우기 그의 이러한 질문은 한 생명보다는 자신의 인기와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기는 악한 본성을 표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기회를 틈타 모인 무리들은 예수의 석방보다는 그 당시 악명 높은 강도 바라바를 풀어 달라고 간했다.
- (4) 이처럼 주관 없고 자신의 명예만을 생각하는 한 권력자와 대제사장에게 포섭되어 소리쳤던 무리들의 악한 선택에 의해 주께서는 죄없는 몸으로 십자가 형을 받으셔야 했다.
- (5) 이와 같이 지도자의 권력 남용과 다수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 진리가 왜곡되고 무죄한 자가 피흘림을 당하는 경우가 오늘날에도 세계 도처에 산재해 있다.

# 제 19 장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시다

단락구분 1-3 가시관을 쓰고 매를 맞으시는 그리스도 / 4-6 빌라도가 예수의 무죄를 판결하다 / 7-16 군중에게 압도된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히도록 내어 주다 / 17-18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시다 / 19-22 십자가에 붙여진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牌) / 23-24 군병들이 제비뽑아 주의 옷을 나누다 / 25-27 예수께서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다 / 28-30 숨을 거두신 그리스도 / 31-32 군병들이 다른 두 죄수의 다리를 꺾다 / 33-37 예수의 뼈는 예언대로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 38-42 무덤에 묻히신 그리스도

1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2 군병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3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 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4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5 이에 예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저희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6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7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저가 당연히 죽을 것은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8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9 다시 관청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10 빌라도가 가로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11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 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12 이러하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13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

서 박석(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란 곳에서 재판석에 앉았더라  
 14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 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15 저희가 소리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박으라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16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히게 저희에게 넘겨 주니라  
 17 저희가 예수를 맡으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헤골(히브리 말로 끌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18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19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20 예수의 못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21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22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23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것에 나누어 각각 한 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24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나이다 한 것을 옹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병들은 이런

일을 하고

25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26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27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28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술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31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32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33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

리를 꺾지 아니하고

34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35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36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37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38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회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39 일찍 예수께 밤에 나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백 근쯤 가지고 온지라

40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41 예수의 십자가에 못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42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1. **㉠ 그리스도께서 수난당하신 과정과 의미를 간략하게 설명하라.**

- ㉠** (1) 본장은 18장과 연결되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에 관한 사건을 다루었다.  
 (2) 이렇게 본장에 묘사된 그리스도의 고난은 단지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의해 발생되었던 종교적 탄압이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주께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을 '예언의 성취'라는 측면에서 기록한 것이다.  
 (3) 즉 본장에 나타난 주의 고난을 예언과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본장의 기록	내 용	예 언
1, 5 절	채찍을 맞으시고 찢리심	사53: 4, 5
18 절	죄인들과 함께 못박히심	사53: 12
24 절	군병들이 주의 옷을 얻고자 제비뽑음	시22: 18
29 절	신 포도주를 받으심	시69: 21
33 절	뼈가 꺾이지 않음	시34: 20
34 절	옆구리를 찢리심	시22: 16; 속12: 10
41 절	부자의 묘실에 장사됨	사53: 9

(4) 결국 이러한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정점(頂點, climax)을 이루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을 걸쳐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쏟으셨는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5) 그러므로 우리는 본장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인 것을 깨달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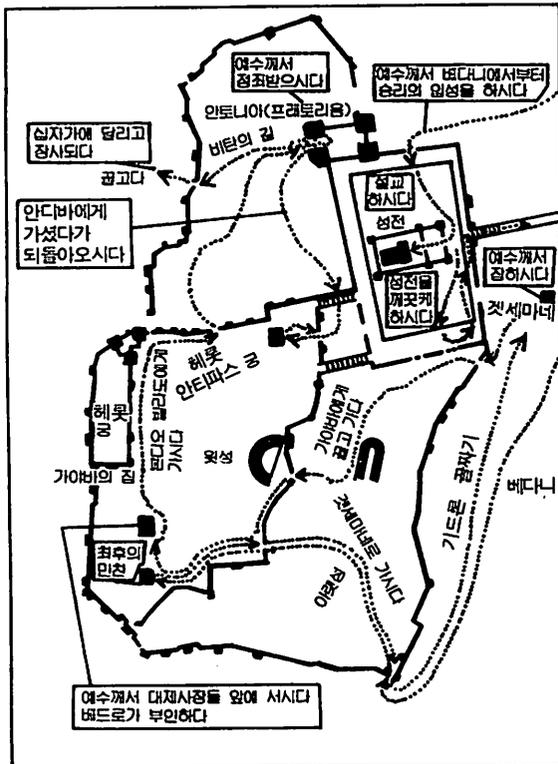
2. **㉠ '십자가 사건'에 나타난 여러 등장 인물들의 성격을 분석하라.**

**㉠** (1) 빌라도: 그는 그리스도의 무죄를 확신했으며 공중(公衆) 앞에서 그 사실을 공표하기까

지 했으나(4절) 백성들의 반란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도록 넘겨 주었다.

- (2) 유대인들: 불과 얼마 전에는 메시아를 그토록 열렬히 환영하더니(12:12-19) 이제는 고위 성직자들의 사주(使囑)를 받아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15절)라고 외쳤다.
  - (3) 이러한 그들의 태도는 죄로 말미암아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 (4)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유한 공회원으로서 무덤을 그리스도께 내어 드렸다(38절).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기록하였지만(눅23:50) 그리스도를 위해 두드러진 행동을 한 기록은 없다.
  - (5) 이와 같이 '십자가 사건'을 두고 주를 옹호하며 그분과 행동을 같이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사방에는 예수의 죽음에 회열을 느끼는 적들이 가득했던 것이다.
  - (6) 실로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는 동시에 우리 자신에 대한 신앙 점검을 해보아야 할 것이다.
  - (7) 즉 우리는 편하고 좋을 때에만 주를 따른 것이 아닌가, 과연 어렵고 힘들 때에도 감사했는가, 환난 중에라도 주와 동행하려고 애썼는가 하는 점들을 검토해야 한다.
  - (8) 결론적으로 신앙의 진가(眞價)는 어려울 때에 나타나는 것이므로 우리는 고난에 처하면 처할수록 주를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이름이 영광받도록 애써야 한다.
3. **㉠** 주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으로부터 십자가의 죽음을 맞으시기까지의 과정을 지도로 설명하라.

**㉠**



4. **㉠** 메시아를 심문한 빌라도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는가? (1-16절)

**㉠** (1) 무죄 판결을 내렸다(4절).

(2) 그는 그리스도를 석방하려고 노력했으나(12절) 끝내는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욕심 때문에 주를 십자가에 못박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 주고 말았다(15, 16절).

(3) 결국 그는 자신의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양심을 저버리고 정의를 묵살한 부패한 정치가의 표본이 되었다(비교, 잠31:9).

(4) 오늘날에도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단지 양심적이고 정의를 외쳤다는 것 하나 때문에 불법적으로 체포, 감금, 고문, 처형하는 악한 정치가들이 세계 도처에 너무도 많다.

(5) 이렇게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특히 권세나 정치적인 힘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점에 주의하여 양심적이고도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통치를 해야 한다.

(6) 왜냐하면 그런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롬13:1, 2)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만 한다.

5. **㉠** 그리스도께서 맞으신 '채찍'은 어떤 종류였는가? (1절)

**㉠** (1) 그 채찍은 나무 손잡이에 가죽끈 몇 개가 달린 것으로 그 끈 하나하나에는 나비 모양의 작은 쇠붙이나 뼈조각이 붙여져 있다. 이는 십자가 형을 구형받은 자들에게 주로 사용되었다.

(2) 따라서 이 채찍은 매우 살인적인 무기로서 사람의 등을 두세 번만 때리면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인데 이 채찍으로 맞은 사람은 그 자리에 죽고 말아 십자가에 달릴 수도 없게 되는 경우가 흔했다고 한다.

(3) 하지만 그리스도의 경우, 이는 부당한 채찍질이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아직 재판의 판결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다(참조, 16절).

(4) 이렇게 주께서 무고하게 채찍질을 받으신 것은 예언이 성취되기 위함이었으나(사53:5) 빌라도는 군중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생각하여 이러한 악행을 저지른 것이다.

(5) 결국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인도 그 섭리에 맞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참조, 잠16:4).

(6)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상의 악인들을 볼 때에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6. **㉠** 군병들이 그리스도를 조롱한 말은 무엇이었는가? (3절)

**㉠** (1)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KJV, RSV, Hail, King of the Jews!)란 말이었다.

(2) 원래 이 표현은 백성이나 사신들이 왕을 접견할 때에 왕위를 찬양하는 의미로서 사용하는 말이었다.

(3) 따라서 로마 군병들은 지금 메시아를 자신들의 왕에 비유하여 조롱하고 있는 것이다.

(4) 그러나 그분은 진짜 왕이셨기에(참조, 계17:14) 주를 괴롭힌 그들은 심판 때에 자신들이 조롱한 그분이 진짜 왕이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

(5) 이렇게 영적인 눈이 먼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간하지 못하고 그저 생각나는 대로 행한다.

(6) 따라서 우리들은 어떤 행동과 말을 하기 전에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것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를 생각해야만 한다(참조, 롬12:2).

7. **㉠** 빌라도가 두려워한 것은 무엇인가? (7, 8절)

**㉠** (1) 그리스도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고 유대인들이 외친 것이다.

(2) 즉 그는 로마 신화에 신(神)이 인간의 모습을 취하여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

있기에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두려워진 것이다.

- (3) 더구나 마27:19에 의하면 재판을 시작하기 전,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꿈이 매우 이상하니 ‘저 옳은 사람’을 괴롭히지 말도록 부탁했는데 이 같은 사실은 빌라도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음이 분명하다.
- (4) 결국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와 폭도화한 유대인들 사이에서 양자 택일(兩者擇一)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
- (5) 때로는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다. 신앙을 택하면 세상에서의 소외와 손해를 보게 되고 세상을 택하면 신앙이 손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성도의 현실이다.
- (6) 하지만 그럴 때에 성도는 어디까지나 잠시 동안의 패락과 안전보다는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 신앙을 택해야만 한다(참조, 골3:5; 히11:24, 25; 요일2:15).
- (7)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이며 이러한 올바른 선택의 횡수가 점점 더 늘어가는 것이 곧 ‘신앙의 성장’인 것이다(참조, 딤후2:12; 벧후3:11).

8. **㉠ 두려움을 느낀 빌라도가 주께 한 질문은 무엇인가? (9절)**

- ㉠** (1) ‘너는 어디로써나’는 물음이었다.
- (2) 이 말은 곧 너는 어디서 왔느냐(RSV, Living Bible, Where are you from?)는 의미로서 예수의 출신지를 물어 보는 질문이 아니고(비교, 눅23:6, 7) 너는 사람인가 신인가라고 묻고 있는 것이다.
- (3) 이미 빌라도는 소문과 그리스도와의 대화를 통하여 그분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비범한 분이심을 알았을 터인데도 여전히 불신의 태도를 지니고 있다.
- (4) 결국 이 같은 불신은 무고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게 했다.
- (5) 그러므로 불신앙 그 자체도 죄이지만(8:24; 16:8, 9) 이미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의심하는 일 역시 죄임을 인식하고 날마다 확실한 신앙 가운데 거해야 할 것이다(비교, 마13:58; 17:19, 20; 막16:14).

9. **㉠ 예수께서는 빌라도의 질문을 받으신 후 무엇이랴 대답하셨는가? (9절)**

- ㉠** (1) 예수께서는 그저 침묵하셨다.
- (2) 물론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신 것도 이미 예언된 바였다(사42:2; 53:7).
- (3) 이러한 침묵에 대해 사도 바울은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딤후6:13)라는 귀절을 통해 이 침묵 자체가 곧 대답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 (4) 즉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자신의 사역을 말씀하셨기에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으셨으며 더구나 자신의 무죄를 변명하여 놓임을 받기 위해 설명하는 것은 그분의 사역이 아니었기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것이다.
- (5) 이와 같은 주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성도의 담대함(엡3:12)과 악에 대처하는 의연(毅然)한 태도를 배울 수 있게 된다.
- (6) 즉 우리는 세상의 많은 부조리와 불의에 부딪히게 될 때 신앙 양심에 따라 그러한 악을 지적하되 그 같은 한계 상황에서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그 상황을 방관하거나 변명해서는 안 된다.

10. **㉠ 그리스도의 침묵에 대해 빌라도는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10절)**

- ㉠** (1)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고 험박하였다.
- (2) 즉 그는 자신에게 무죄와 용서를 빌지 않는 그리스도에게서 모욕을 느꼈던 것이다.

- (3) 이러한 그의 태도는 참으로 소인(小人)의 모습이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정치적 압력에는 굴복하면서도 자기 앞에 있는 나약한 한 사람에게는 자기를 존경하지 않는다고 협박하기 때문이다.
- (4) 더군다나 이미 그리스도의 무죄를 확신한(4, 6절) 그가 와서 다시 주를 협박하는 행위는 불의한 재판관의 본보기이다.
- (5) 따라서 우리는 이런 빌라도의 모습을 통해 정의가 무시당하는 재판이 오늘날 뿐만 아니라 예수 당시에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6)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공적인 위치에 있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재판에 임할 때에 무엇보다도 정의와 양심에 근거한 공의로운 판단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11. Q '나를 내게 넘겨 준 자'란 누구를 뜻하는가? (11절)

- A (1) 가야바와 유대인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 (2) 또한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가롯 유대와 대제사장 일당의 사주를 받은 지조 없는 유대인들을(참조, 6, 7절) 뜻한다.
- (3) 주께서는 이들의 죄가 '더 크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준다.
- (4) 그 하나는 상급에도 차등이 있듯이(참조, 마25:20-23) 죄에도 경중(輕重)이 있다는 것이다.
- (5) 또 다른 하나는 율법을 잘 아는 유대인 지도층과 그 무리들이 아무런 죄가 없는 그리스도를 범죄한 자처럼 고소한 사실에서 말씀을 아는 자가 고의로 범한 죄는 그 죄과(罪過)가 더욱 크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참조, 히10:26, 27).
- (6) 따라서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 죄와 의를 분간할 줄 아는 영적인 식별력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엄격한 판단 기준에 의하여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다(참조, 마11:22, 24; 눅12:47, 48).
- (7) 그러므로 성도들은 더욱 언행을 조심하며 말씀과 양심에 의거한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참조, 딤후1:18, 19; 히3:12, 13).

### 12. Q 주를 석방하려고 애쓰는 빌라도에게 군중들은 무엇이라고 외쳤는가? (12-15절)

- A (1)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라고 소리쳤다(12절).
- (2) 여기에서 '가이사'의 충신이란 말은 헬리어 <필로스 투 카이사로스>로서 '가이사의 친구'(NIV, friend of Caesar)를 뜻한다.
- (3) 이 말은 황제의 지지자 또는 그와 연합한 자, 즉 황제 측근의 중요한 사람을 의미한다.
- (4) 결국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정치적 생명을 위협하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 (5) 이와 같은 그들은 더욱 발전하여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외치기 까지 했다(15절).
- (6) 따라서 그들은 로마의 압제를 받는 자신들의 상황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로마의 총독에게 충성을 강요하는 아이로니칼(ironical)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 (7) 이렇게 유대인들은 신앙적으로 눈이 멀게 되자 자신들의 국가가 처한 상황까지도 망각하였다.
- (8) 그러므로 우리들은 신앙이 바로 정립되어야 올바른 국가관이나 판단력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음을 배울 수 있다.

### 13. Q 가이사를 반역할 것이냐는 유대인들의 위협에 의해 빌라도는 언제 어디서 예수에 대한 판결을 번복했는가? (13, 14절)

- A** (1) 가이사에 대한 충성이라는 문제에 도전을 받은 빌라도는 재판관을 재개하기 위해 ‘박석’(鵝石, 히브리 말로 가바다)이라는 곳에 재판정을 개설했다.
- (2) 여기서 ‘박석’이라 함은 돌을 정갈하게 깎아 포장한 곳을 가리킨다. 학자에 따라 이곳을 성전과 연관이 있는 곳이라 하기도 하고 장소라는 의미보다는 운반용 재판석 자체를 가리킨다고도 한다. 그러나 전체 문맥의 흐름으로 보아서 이곳은 돌을 정연하게 잘라 놓은 관정의 뜰로 봄이 타당하다.
- (3) 한편 가이사가 재판관을 재개한 시간에 관해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 육시라’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유월절’이라 함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감격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절기로서 이스라엘 종교력 니산 월(1월) 14일 저녁을 가리킨다(참조, 레23:5). 그리고 그날 이후 7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켰었다(참조, 레23:6-8).
- (4) 그런데 유월절과 그 이후에 진행되는 무교절과는 별 구별 없이 생각되어졌으며 ‘유월절’이란 용어로 두 절기 모두를 지적하기도 했다(참조, 신16:2,3).
- (5) 왜냐하면 유월절에 먹는 음식 중 무교절에 먹게 되는 무교병이 있었으며(참조, 출12:8, 15) 무교절 행사를 위해 누룩을 제거하는 일은 유월절 행사의 준비라 할 수 있는 유월절 양 잡기 이전에 완료되어야 했기 때문이다(참조, 신16:4).
- (6) 그러므로 ‘유월절 예비일’이란 좁은 의미에서의 ‘유월절’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본절에 기록된 ‘제 육시’란 로마식 시간으로서 오늘날의 시간 개념(오전6시)과 동일하다. 즉 본절의 정확한 시간은 금요일 오전 6시이다.
- (7) 그렇게 본다면 예수께서 십자가 형을 구형받으시기까지 진행되었던 각종 재판은 주로 밤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의인을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 정치·종교 지도자들은 관례에도 없는 밤을 이용하여 그들의 목적인 바를 달성해 갔다.
- (8) 이처럼 어두워져 버린 양심은 어두운 시간을 틈타 악행을 저지르기 일췌이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에도 찾아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성도들은 어두워져 버린 양심과 세상을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빛으로 드러남으로 인해 양심과 세상을 밝히고 진리가 참된 힘으로 등장할 수 있게 해야 한다(참조, 마5:14-16).

#### 14. **Q** 빌라도의 마지막 결정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16절)

- A** (1) 주를 십자가에 못박히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 주는 것이었다.
- (2) 사도 요한은 ‘넘겨 주었다’(NIV, RSV, handed over)라는 표현을 써서 빌라도의 무책임한 행위를 비난하였다.
- (3) 이렇게 다수(多數)의 압력에 의해 진리가 왜곡(歪曲)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악이라고 지적하였다(참조, 출23:2).
- (4) 따라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불의를 의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우리들은 불의라고 크게 외칠 수 있는 신앙적 지조를 가져야 한다.

#### 15. **Q** 끌고다로 가시는 그리스도께서 지신 것은 무엇이었는가? (17절)

- A** (1) 자신이 못박히실 십자가였다.
- (2) 이미 채찍질을 당하신 주께서 나무로 만든 그 큰 십자가를 등에 지신다는 것은 무리였지만 ‘자기의’ 십자가였기에 기꺼이 지신 것이다.
- (3) 즉 주께서는 이 일이 당신께서 감당해야만 할 일이었기에 묵묵히 그 일을 해내셨다.
- (4) 이와 같이 우리들도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피해 도망치지 말고(비교, 은1:2,3) 비록 그 일이 고통스럽고 세상적으로 명예롭지 않아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한다.

#### 16. **Q**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었는가? (18절)

- A** (1) 본서에는 다른 두 사람이라고 기록되었지만 공판 복음에는 양편에 못박힌 자들이 강도

들이었다고 밝혔다(참조, 마27:38; 막15:27).

- (2)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강도들과 같은 죄인이라는 취급을 받으셨으며 이러한 취급은 한 편으로는 부당한 것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그분의 사역을 반증(反證)하는 것이기도 하다(참조, 눅22:37).
- (3)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굴욕은 우리를 무던히도 분하게 하지만 정작 그분께서는 아무런 변명이나 항의도 없이 그 많은 모욕을 인내로써 감당하셨다.
- (4) 또한 이러한 그리스도의 순종과 인내는 자신들의 명예나 인격이 손상을 입을 때에는 맹렬한 분노를 나타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모욕을 받을 때에는 마치 남의 일을 보는 것처럼 무관심한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5) 따라서 우리들은 자신의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며 이러한 신앙적 사고 방식이 더욱 큰 범위로 확산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이다(참조, 고전11:1; 엡3:17-19).

17. **㉠** 그리스도께서 못박히신 십자가의 패(牌)에 기록된 말은 무엇이었는가? (19, 20절)

**㉠** (1)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었다.

- (2) 이 글은 히브리어와 로마어(라틴어)와 헬라어(Greek)로 기록되었다. 어떤 학자는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어는 유대인의 생활 언어이고 로마어는 그 당시의 국제 언어로서 공적인 문서에 주로 사용되었으며 헬라어는 주로 고전과 문학에 사용된 언어인데,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사용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전세계적이며 전우주적임을 말해 주는 것이라 주장한다. 더욱이 이러한 여러 종류의 언어를 제시함으로써 그 당시 예수의 십자가 주위에 모인 모든 자들이 그 사실을 확연히 목격하고 이해하게 하려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Hendriksen).
- (3) 빌라도는 이 같은 죄명 아닌 죄명을 써서 그리스도를 정죄했지만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신 '모든 민족'의 왕이셨다(참조, 계1:5; 19:16).
- (4) 이같이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돌보시는 성도들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최후에는 필연코 이기게 되어 있지만(계17:14) 날마다의 생활은 그렇지가 못하다.
- (5) 즉 게으름과(잠24:30, 31; 히6:12) 교만과(잠16:18; 21:4) 이성의 사랑(요일2:16), 탐욕(눅12:15) 등으로 말미암아 시시때때로 실족하는 일이 많다.
- (6) 그러나 걱정할 것은 없다. 단지 우리는 한번 저지른 실패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각성하고 기도하여 신앙으로 무장할 때(엡6:10-18) 우리의 삶은 나날이 성화(聖化)되어 갈 수 있는 것이다.

18. **㉠** 십자가의 명패에 대한 빌라도와 대제사장들 사이의 논란은 어떠한 것이었는가? (21, 22절)

- ㉠** (1) 이는 십자가의 명패에 쓰여진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에 관한 것으로서 대제사장들은 이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쓸 것을 요구했다.
- (2) 이러한 요구에 대해 빌라도는 '나의 쓸 것을 썼다'고 대답하여 그들의 요구를 묵살하였다.
  - (3) 즉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을 보통 범죄자와 같이 취급하여 십자가 형에 처했다는 사실을 선포함으로써 유대인 지도층에 대한 실질적인 반격을 가한 셈이 되었다.
  - (4) 따라서 유대인들은 모욕을 당한 셈이 되고 말았으며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에만 주력한 나머지 자신들의 명예와 자존심이 비참하게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 (5) 이러한 유대인들의 자승자박(自繩自縛)을 통하여 우리는 올바른 자들의 행동은 결국 자신들의 몰락과 망신을 초래하게 된다는 성경의 교훈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참조, 시73:1-28).

(6) 그러므로 성도들은 악인의 일시적인 행동을 부러워하여 실족해서는 안 되며(비교, 욥 20:5; 눅16:24, 25) 끝까지 우리가 가진 신앙을 지켜야 한다(비교, 3:36; 살전5:3).

19. **㉠** 그리스도가 달려 있는 십자가 아래에서 로마의 군병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23, 24절)

- ㉠** (1) 그리스도의 옷을 나누어 갖기 위해 제비를 뽑았다.
- (2) 이러한 관계는 의류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그 당시에 흔히 있었던 일로서 사형수의 옷을 사형 집행을 하는 병사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은 별 흠이 되지 않았다. 즉 그들은 이웃의 죽음보다 자신의 치부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이다.
- (3) 이 같은 로마 군병들의 태도는 남들이 처한 상황은 알 바 없다는 몰인정하고 무관심한 극도의 이기주의적인 태도이다(비교, 애1:12).
- (4) 마찬가지로 현대 사회도 바쁘게 돌아가는 가운데 무관심과 이기적인 사고 방식이 팽배(膨湃)해 있다.
- (5) 또한 오늘날의 한국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이 널리 퍼져서 내 교회만, 나만 잘되면 그것으로 만사는 끝나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것으로 간주하는 참으로 한심한 현실이 존재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 (6)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된 원인은 우선 목회자가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목회를 했기 때문이고 또 한국 교회의 독특한 기복 신앙(祈福信仰) 때문이기도 하다.
- (7) 따라서 한국 교회는 이제 내적인 치장과 교제에서 벗어나 믿지 않는 이웃과 세상에 눈을 돌려 각박한 현대 사회에서 소외된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에게 관심을 쏟아야 한다.
- (8) 이런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베풀 수 있는 곳은 오늘날 교회밖에 없으며 이는 또한 사회라는 유기체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의 대사회적 사명이기도 하다.

20. **㉠** 주께서 못박하신 십자가 곁에 있었던 여자들은 누구였는가? (25절)

**㉠** (1) 이 여인들은 다른 복음서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성 경	여 인 들
마 27: 56	1. 막달라 마리아 2.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3.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막 15: 40	1. 막달라 마리아 2.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 3. 살로메
25절	1. 그리스도의 어머니 2. 이모 3.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4. 막달라 마리아

- (2) 이러한 기록상의 차이를 해결하려면 먼저 살로메는 그리스도의 모친의 동생이 되며 동시에 본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된다.
- (3) 또한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는 작은 야고보와 요세(요셉)의 어머니가 된다.
- (4) 이러한 연결은 확실하게 증명할 수가 없으며 또한 그렇게 중요한 일도 아니다.
- (5) 단지 우리는 주를 3년이나 따르던 제자들은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참조, 26절) 모두 도망갔으며 오직 연약한 여자들만이 주의 곁에 남았음을 알 수 있다.
- (6) 이같이 우리들도 끝까지 주를 따를 수 있어야 한다. 누가 오래 믿었고 누가 기적을 보았는가에 대한 문제는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중요한 것은 고난과 굴욕의 자리에게까지 주를 따라갈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비교, 행 7:54-60; 고후 11:20-33).

- (7) 그러므로 우리들은 좋고 편한 자리 뿐만 아니라 억울하고 모욕적인 곳에까지라도 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갈 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참조, 고전4:8-13; 9:19-23).

21. **㉠ 주께서 자기 어머니를 부른 호칭은 무엇이었는가? (26, 27절)**

- ㉠** (1) '여자여'(KJV, RSV, Woman)였다.  
 (2) 이 호칭은 그리스도의 사역 초기에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주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른 호칭이기도 하다(2:4).  
 (3) 즉 주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 자신이 공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셨으며 이제는 자신의 모든 사역이 끝나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다.  
 (4) 따라서 이 표현은 결코 자신의 육신적 어머니를 낮추어 부르는 것이 아니다.  
 (5) 도리어 주께서는 이렇게 처절하고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어머니를 걱정하여 그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자상한 모습을 보이셨다.  
 (6) 이런 주의 호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공적인 사역을 위해 부모와 집을 떠나 생활하시던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과 많이 다른 것이다(참조, 마8:20).  
 (7)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인간미를 잘 나타낸 이 대목은 효도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 준다.  
 (8) 즉 성도들은 주의 일을 한다고 가정을 돌보지 않거나 믿지 않는 부모를 멸시해서는 안 되며 부모께 순종하고(엡6:1) 공경하며(출20:12) 경외해야 할 것이다(레19:3).

22. **㉠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머니에게 자신의 제자를 아들로 소개한 것은 무슨 의미인가? (26, 27절)**

- ㉠** (1) 육신의 아들인 자신이 죽음으로써 어머니 마리아가 슬퍼하는 것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2) 물론 주께서는 친형제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할 수도 있었으나 그 형제들은 주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7:5) 자신을 따르던 제자에게 모친을 보살펴 드리도록 부탁하신 것이다.  
 (3) 이처럼 주께서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자신에게서 얻을 수 없었던 다른 위로를 주셨다(참조, 14장).  
 (4)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무엇을 잃고서 슬픔과 실의(失意)에 빠져 있을 때 또 다른 위로와 기쁨을 허락하신다.  
 (5) 그러므로 성도들은 소중한 것-건강, 사랑하는 사람, 부모, 자녀, 친구...-을 잃었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또 채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억하여 범사에 기뻐해야 하며(살전5:18) 이러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하여 감사해야 한다(참조, 살후2:16, 17).

23. **㉠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의 상황은 어떠했는가? (28-30절)**

- ㉠** (1) 본서에는 주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머리를 숙이고 그 영혼이 돌아가셨다고만 기록되어 있다.  
 (2)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으며 지진이 나고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았다고 한 기록도 보인다(참조, 마27:45-54; 막15:33-38; 눅23:44-46).  
 (3) 하지만 본서의 기록자인 요한이 다른 사건들을 기록하지 않고 단지 그리스도의 '목마르심'(28절)에 대하여만 서술한 것은 주께서 실제로 고통과 갈증을 느끼시는 완전한 인간의 육체를 가지셨음을 강조하기 위함이다(참조, 4:6, 7).  
 (4) 결국 우리는 주께서 돌아가실 때의 여러 상황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신성'(神性)과 '인성'(人性), '부활의 모델(model)' 등을 배우게 된다.

24. **㉠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30절)**

- Ⓐ (1)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두 완성하셨으며 더불어 구약의 모든 예언이 응답되고 성취되었다는 의미이다.
- (2) 공관 복음서들을 보면 주께서는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크게 소리를 외치시고 돌아가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마27:50; 막15:37) 바로 그 소리가 '다 이루었다'(헬, 테 텔레스타이)로 추정된다.
- (3) 이는 결코 절망의 외침이 아니고 승리와 환희의 외침이다.
- (4) 즉 비록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아서는 예수는 실패한 인생인 것 같았으나 예수께서 당신 스스로를 보실 때는 인류 구속을 위한 십자가의 선택이라는 측면과 구약 예언의 성취 그리고 미래에 있을 영광(참조, 빌2:10, 11)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는 절대 만족과 감격의 발언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다.
- (5) 이러한 주의 생애를 본받아 사도 바울도 열심히 주를 증거하면서 살았는데 그는 자신의 생애를 '선한 싸움을 하면서 달려 믿음을 지킨' 것으로 묘사하였다(딤후4:7).
- (6) 그러므로 성도들도 마지막 날에 아무런 후회가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정직하고 신실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5. ⓐ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갖는 의미와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라(30절).

- Ⓐ (1) 속전(贖錢):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형벌의 대가가 치루어졌다(참조, 마20:28; 딤펢2:6).
- (2) 구속(redemption): 아담의 범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던(창3:17) 세상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이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후5:18, 19).
- (3) 화해: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을 위한 화목 제물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를 만족해 하신다(요일2:2).
- (4) 대속(代贖): 그리스도는 죄인을 대신해 죽으셨다(고후5:21).
- (5) 증거: 이러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끼신 사랑의 증거이다(롬5:8).

26. ⓐ 유대인들이 시체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려고 한 까닭은 무엇인가? (31절)

- Ⓐ (1) 이날은 안식일의 전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는 일몰(日沒) 전까지 시체를 치워야 했기 때문이다. 안식일까지 시체를 방조하면 의식법상 큰 죄가 된다.
- (2) 이는 또한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라는 율법을(신21:22, 23) 지키고자 하는 나뭇대로의 율법에 대한 충성이 들어 있는 행동이었다.
- (3) 그러나 이것은 율법을 완성하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됨(마5:17) 모욕하는 행위였으며 안식일의 주인인 그분을(막2:28)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와 위선이었다.
- (4) 이 같은 일은 오늘날에도 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의 본질은 이해하지 못하면서 교회의 일 그 자체에 매달리는 형식주의적인 신앙이 바로 그것이다.
- (5) 그러므로 성도들은 교회의 여러 일들, 즉 주일 성수, 십일조, 봉사, 구제, 전도 등을 왜 해야 하며 그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는가를 확실히 인식하여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참조, 호6:6).

27. ⓐ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박힌 사람들의 다리를 꺾은 이유는 무엇인가? (32-36절)

- Ⓐ (1) 유대인들이 날이 저물기 전에 시체를 치우려고 했기 때문이다.
- (2) 그래서 로마의 군병들은 죄인들이 빨리 죽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박힌 사람들의 다리를 꺾은 것이다.
- (3)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는데 이는 예언의 성취였다(참조, 시34:20).
-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병정이 주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것은 아마도 예수의 완전한

죽음을 확인하려는 의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5) 결국 이러한 행동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음을 확인시켜 주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 (6)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단순히 기절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뜻하는 것이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분의 죽으심은 확실한 죽음이었다. 이는 그분의 부활도 확실한 사실임을 반증해 주는 자료이다.

## 28. ㉠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지낸 사람은 누구인가? (38절)

- ㉠ (1)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다.
- (2)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였으며(마27:57) 부자였고 공회원이었다(막15:43). 또한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으나(눅23:50) 숨어서 믿은 사람이었다.
- (3) 하지만 이제는 빌라도에게 그리스도의 시체를 요구할 정도로 신앙적인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
- (4) 이와 같이 주를 따르는 자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밝혀야 한다.
- (5) 특히 남을 다스리는 신분을 가진 자들은 더욱더 그래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 자신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며 둘째, 자신의 부당한 처신을 미리 제어하기 위함이다.
- (6) 이처럼 신앙은 드러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참조, 마6:16) 자신의 신앙을 숨기는 태도는 옳바르다고 볼 수 없다.
- (7)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가 잘했거나 못했거나 자신이 신앙인임을 밝혀야 한다. 우리들의 잘된 행동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실수한 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연단시키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 29. ㉠ 니고데모가 주의 장례를 위해 가지고 온 것은 무엇인가? (39절)

- ㉠ (1) 몰약과 침향(沈香) 섞은 것을 백 근쯤 가지고 왔다.
- (2)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공회원으로써 역시 숨어서 주를 믿은 자였다.
- (3) 한편 그가 가지고 온 몰약과(비교, 마2:11) 침향을 섞은 것은 매우 비싼 것으로서 건조제의 역할을 하여 시체 썩는 냄새를 제거해 준다(참조, 대하16:14).
- (4) 또 그가 이렇게 비싼 것을 백 근, 즉 34kg정도나 가지고 온 것은 그의 높은 신분과 함께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을 보여 준다.
- (5) 결국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자신들의 신앙을 확신시키는 귀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 (6) 이 같은 니고데모의 담대함과 열심은 이전의 무지했던 상태(참조, 3:10)에서의 영적인 성장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이었다.
- (7) 자신의 높은 지위가 흔들릴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신의 신앙을 나타낸 니고데모의 행동은 오늘날 자신의 지위 때문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이 많다.

## 30. ㉠ 유대인들의 장례법에 대하여 살펴보라(40절).

- ㉠ (1) 그 과정에 대하여서는 확실치 않지만 대충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된 듯하다. 제일 먼저 사람이 죽으면 가족들은 그의 눈을 감겨 주며 시신(屍身)에 입을 맞추으로써 슬픔을 표한다(창46:4;50:1).
- (2) 그리고 나서 시신을 염(殮)하게 되는데 이때 향료와 천으로 시체를 둘러싼다. 이 향료는 끈적거리는 성질의 것이므로 이것을 천에 묻혀서 시체를 둘러싸면 시체가 빨리 부패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애굽인들은 시체를 염할 때 대개 몸 속의 내장을 제거하고 그 안에 향료를 넣어 미이라(mirra)를 만들었다(참조, 창46:2, 3,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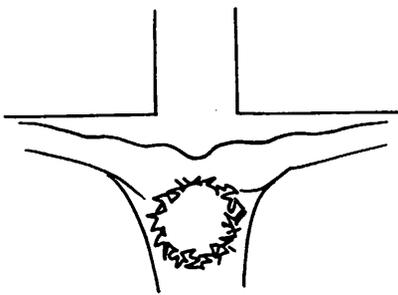
- (3) 이렇게 하여 염이 끝난 시체는 무덤 가운데에 안치(安置)되어진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무덤은 우리나라의 것과 달리 대개가 자연 동굴이나 암석을 쪼아 만든 것으로서 입구를 돌로 막아 놓은 것들이다(참조, 11:38).
- (4) 그리스도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도 바로 이러한 무덤이었는 데 그것은 아리마대 요셉이 훗날 자신의 무덤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 바위에 판 것이었다(마28:59, 60).

31. **㉠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장사되신 사건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의의는 무엇인가? (42절)**

- ㉠** (1) 첫째,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장사되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의 사역을 완수하고 안식하시는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 (2) 실로 그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때까지 인간 구원을 위하여 동분 서주하시느라고 식사하실 틈도 없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그의 사역을 완수하신 그리스도(30절)는 영원한 안식(히4:3)의 전단계로서 안식을 누리셨다.
- (3) 둘째,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장사되신 것은 그의 영광스런 부활을 위한 준비 단계라는 데 의의가 있다.
- (4) 만일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장사되신 것만으로 본서의 기록이 끝났다면 이 기록은 어느 사람의 전기(傳記)와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전기들은 그 사람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 (5)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신 후 제 3일에 다시금 살아나셨으니(20장) 이는 그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믿고 고대하는 바 부활과 영생에 대한 보증이 된다(참조, 고전15:12-58).
- (6) 한편 예수께서 이처럼 급하게 처형당하시고 또한 신속하게 장사되신 것은 율법을 사수하여 유대인 자신에게는 율법이 주는 악영향이 미치지 않게 하려는 의도에서였다.
- (7) 이같이 악인들은 좁은 시각으로 인류 구속의 대업을 완성하시고 편히 쉬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없었으며 오히려 자신들의 안전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 (8) 이러한 현상은 예수의 명예와 교회가 손상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자존심과 이익에는 손해를 보지 않으려 애쓰는 오늘날의 악삭빠른 산자들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참되게 신앙하는 자들은 항상 주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세상과 자신과 역사를 생각해야 한다.

본장의 요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30절).



## 제 20 장 다시 사신 그리스도

단락구분 1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아온 마리아 / 2-10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확인 / 11-13 마리아에게 나타난 두 천사 / 14-18 그리스도와 마리아의 상면(相面) / 19-23 그리스도를 뵈고서 기뻐하는 제자들 / 24-25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 / 26-29 도마의 신앙 고백 / 30-31 본서의 기록 목적

1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 간 것을 보고

2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3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4 돌이 같이 달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5 구푸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6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7 또 머리를 찢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8 그때야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9(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10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11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푸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12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13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14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15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 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6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든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여 하니(이는 선생님

이라)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18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19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23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24 열 두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25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26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7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고 믿을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8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29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30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1. **㉠ 본장의 의의에 대하여 살펴보라.**

- ㉠** (1) 본장에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만일 본서에서 이와 같이 기록된 장(章)을 찾아 볼 수 없었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본서의 기록은 독특한 한 인물에 대한 묘사에 불과하였을 것이다.
- (2) 뿐만 아니라 본서의 중심되는 이야기인 부활과 생명의 진리(11:25, 26)는 한낱 허튼 소리로만 그치고 말았을 것이다.
- (3) 그러나 본장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에 대하여 증거함으로써 그의 가르침과 주장이 전혀 반박될 수 없는 진리임을 입증하고 있으니 바로 여기에 본장의 의의가 있다.
- (4) 한편 본서의 저자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물적(物的) 증거를 제시하기 보다는 그 사건이 여러 사람의 개인 인격에 미친 영향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밝히는 것을 더 중요시 여기고 있다(2, 15, 20, 25, 28절).
- (5) 이러한 기술법(記述法)은 먼저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증한 후(1, 2절) 이어서 그 사건이 제자들에게 끼친 영향을 부연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반박의 여지를 남겨 두지 않은 좋은 기술법이라고 하겠다.

2. **㉠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는 어떠한 여자인가? (1절)**

- ㉠** (1) 예수께 병 고침을 받은 여자이다. 성경에 의하면 그녀는 일곱 귀신이 들렸었는데 그리스도께서 고쳐 주신 것으로 되어 있다(막16:9; 눅8:2).
- (2) 우리는 이 여자를 마르다의 동생이며 나사로의 누이인 베다니의 마리아와 같은 인물로 오해하기 쉬운데(11장) 이 사람은 분명히 별개의 인물이다.
- (3) 막달라 마리아(Mary Magdalene)라는 그녀의 이름으로 미루어 보아 그녀의 고향은 막달라(Magdala)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 성읍은 디베라(Tiberias) 북쪽 4.8km 지점에 위치해 있다.
- (4) 그녀는 병 고침을 받은 후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다녔는데 이에 대한 기록은 사복음서에 끌고루 나온다. 그녀는 갈릴리에서 그리스도를 따라 예루살렘까지 동행하면서 그를 수종들었으며(마27:56)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려 할 때에는 곁에서 이를 지켜 보았다(19:25).
- (5) 뿐만 아니라 그녀는 본절에 나와 있듯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아갔으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뵈고서는 이 소식을 사도들에게 알리기도 했다(18절).
- (6) 이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녀의 헌신과 믿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병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그리스도께 다함 없는 정성을 쏟았는데 죄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그분께 어떠한 헌신을 하여야 할 것인가? 항상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을 좇아 살므로써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자(참조, 롬12:2).

3. **㉠ 마리아가 이른 아침에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인가? (1절)**

- ㉠** (1) 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본절에는 나와 있지 않으나 공관 복음서에는 나와 있다.
- (2) 즉 마리아가 이른 아침부터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에 향유를 발라 드리기 위해서였다(막16:1, 2; 24:1-3, 10).

- (3) 이처럼 마리아가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된 그리스도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 드리려 했던 것은 유대인들의 관습을 따른 행위이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장사지낸 후 사흘 동안 무덤에 찾아가 시신을 들보는데 이는 그들이 시체가 썩기 전까지는 고인(故人)의 혼이 시신 곁을 떠나지 않는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 (4) 여하튼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어쩌면 무모한 것인지도 몰랐다. 왜냐하면 비록 시체에 바를 좋은 향유를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는 무덤 입구에 놓여 있던 큰 바위를 옮겨야만 하기 때문이었다.
- (5) 그러나 그녀의 행동은 이러한 불가능한 요소를 생각하기 보다는 예수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참사랑의 표상이었다.
- (6) 주께서는 앉아서 이해 타산을 점치면서 신앙 생활하는 자보다는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는 그 일념으로 행동하는 자에게 영광과 감격과 교제를 허락하신다.

#### 4. **㉠**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란 누구를 가리키는가? (2절)

- ㉠** (1) 본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을 가리킨다.
- (2) 이 같은 사실에 대한 증거는 21장에 나오는데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21:20)란 말을 본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자신에게로 돌리고 있다(21:24).
- (3) 물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던 제자는 비단 사도 요한만이 아니었지만(11:1-5, 36; 13:1; 15:9)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란 말을 사용한 것은 아마 그가 받았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못 사람들에게 증거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 같다.
- (4) 한편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란 말은 본절 외에도 13:23; 19:26에 나오는데 이 역시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말이다.
- (5) 이처럼 자기 스스로를 일컬어 ‘내가 나의 스승이신 예수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았다’라고 할 만큼 요한은 예수와 자신과의 관계를 확실히 밝힐 수 있었다. 이는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인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 (6) 오늘날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들은 공적인 석상에서 자신을 ‘예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가?

#### 5. **㉠** 마리아가 말한 ‘우리’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2절)

- ㉠** (1) 그리스도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무덤으로 찾아갔던 여자들 전부를 가리키는 말이다.
- (2) 본장에는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아간 여자가 마리아 외에 더 있었다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으나 공관 복음서에는 분명한 언급이 있다.
- (3) 이에 대하여 살펴볼 것 같으면 마28:1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함께 무덤으로 간 것으로 나와 있다. 그리고 막16:1, 2에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눅24:10에는 막달라 마리아, 요안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함께 간 것으로 나와 있다.
- (4) 따라서 본절에서 마리아가 ‘우리’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러한 공관 복음서의 기록이 정확한 것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 6. **㉠** 그리스도의 무덤이 빈 것을 발견한 마리아는 어떻게 행동하였는가? (2절)

- ㉠** (1) 12제자 중 지도자 급인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가 그리스도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리었다.
- (2) 그런데 그녀는 이 같은 소식을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모르겠다’라는 말로 전하였다.
- (3) 이러한 말로 미루어 보아 그녀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유대인들이 그를 살해하고서도 그분이 다시금 살아날 것을 두려워하여(참조, 마27:63) 시체를 훔쳐 간 것으로 생각할

였음을 알 수 있다.

- (4) 한편 그녀가 그리스도께서 장차 부활하시리라는 사실을 듣고 이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그분의 시신을 찾고자 했다고 보는 이도 있으나 그것은 인정할 만한 해석이 되지 못한다.
- (5)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여러 선진(先進)들의 말과 그리스도의 교훈을 전해들은 우리들은 오늘날 과연 어느 정도의 경의심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일까?
- (6) 행여 농담 중에라도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그보다 낮은 자리에 놓아 두지는 않는가? 삼가 자신의 언행을 살핍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우는 누를 범치 말자(참조, 벰전3:10).

### 7. **㉠** 마리아의 보고를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하였는가? (3-10절)

- ㉠** (1) 그리스도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선 그리스도의 무덤을 향해 갔다. 아마도 그 도중에 그들은 마리아와 함께 무덤에 있었던 여인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천사가 전한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참조, 눅24:1-10).
- (2) 그리하여 그들은 큰 당혹감을 느꼈으며 답답박질하여 무덤에 이르렀던 것 같다. 그런데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 먼저 무덤에 도착하였던 것은 그가 베드로보다 젊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는 있지만 확실한 이유는 알 수 없다.
- (3) 그러나 먼저 온 사도 요한은 무덤 속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 서서 주춤거리고 있는 반면 뒤따라 온 베드로는 즉시 무덤 속에 들어갔다. 그리고서는 그리스도의 시신을 썼던 세마포와 수건이 그곳에 가지런히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의 시신이 도난당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 (4) 그러자 밖에 서 있던 요한도 무덤에 들어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서 그 사실을 믿었다. 그런 후 그들은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 (5) 이처럼 베드로는 예수에 관해 알고자 하는 생각으로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예수가 누워 있던 무덤 안으로 들어갔다. 이러한 행동은 진리를 사랑하는 자에게 진리는 없어서 느끼는 피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찾아가 확인하는 실제적인 사실임을 가르쳐 준다. 신앙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진리(진실)에 대한 대한 열심이다.

### 8. **㉠** 그리스도의 시신을 썼던 세마포가 그분의 무덤 안에 놓여 있고 머리를 썼던 수건은 그 곁에 개켜 있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6,7절)

- ㉠** (1)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 (2)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분의 시신을 훔쳐 간 것이라면 그 자는 수의에 싸인 그대로의 시신을 갖고 갔거나 아니면 수의를 벗기어 아무렇게나 팽개치고 갔을 것이기 때문이다.
- (3) 그러나 세마포가 그 자리에 놓여 있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머리를 쌓던 수건조차 그 옆에 가지런히 개켜 있었다.
- (4) 여기서 '개켜 있었다'(wrapped up by itself)는 말은 <엔테플리그메논>이라는 헬라이어 인테 식탁보와 같이 납작하게 접힌 것을 의미하지 않고 머리를 다친 환자의 머리에 동그랗게 감겨 있는 봉대처럼 둘둘 말려 있는 것을 의미한다.
- (5)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자신의 몸과 머리를 감싸고 있던 세마포와 수건을 풀고 이것을 가지런히 정돈해 두셨거나 아니면 이적적인 방법으로 세마포와 수건을 건드리지 않으신 채 몸을 빼내셨거나 하셨음을 깨닫게 해준다.

### 9. **㉠** 9절에서 말하는 '성경'은 어느 성경 권절을 가리키는 것인가?

- ㉠** (1)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고 있는 시16:10을 가리킨다(이와 같이 신약에서

말하는 ‘성경’이란 거의 구약 성경임을 알 수 있다).

- (2) 하지만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보고서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은 베드로와 요한도 아직은 이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 (3) 그런데 이러한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는 비단 이들만이 아니었다. 엠마오를 향해 가던 두 제자들도 역시 그러하였으니 이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이해 주셨다(눅24:13-27).
- (4) 결국 모든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달은 때는 그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난 후(눅24:36-48)였는데 이는 이미 2:22에 예고되었던 바이다.
- (5) 이처럼 몇 년 동안이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 성경 말씀을 좇아 그분에 대한 믿음을 확립하지 못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만 믿음을 가졌던 사실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실감케 해준다.
- (6) 그러나 우리는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29절)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쌓아 온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더욱 확고히 하자.

#### 10. ㉠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간 후 마리아는 어떻게 하였는가? (11절)

- ㉠ (1) 여전히 그리스도의 무덤 밖에 서서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여기서 ‘운다’(헬, 클라이오)는 것은 큰소리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면서 우는 통곡을 가리킨다.
- (2)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확인했지만 마리아는 아직까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3) 어쩌면 그녀는 베드로와 요한의 뒤를 좇아 곧바로 무덤으로 되돌아오지 않고(참조, 3절) 다소 늦게 되돌아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 그 같은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한 것 같다.
- (4) 그러기에 그녀는 처음과 같이 없어진 그리스도의 시신에 대한 염려(참조, 2절)와 안타까움으로 어쩔 줄 몰라 하며 통곡한 것이다.
- (5) 이처럼 그녀는 아직도 예수의 부활을 인식치 못했으며 죽어 있는 예수를 찾기에만 급급했다. 그런데 비록 죽어 버린, 그래서 아무 희망도 제공하지 못하는 예수일망정 그분을 향하여 극존칭인 ‘주’(the Lord)라는 용어를 쓰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이는 분명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생시(生時)의 사랑에 아직도 감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 (6) 이처럼 ‘진리’는 그것을 깨달은 자에게는 한없는 기쁨과 자유를 허락하지만(참조, 8:32) 아직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답답함과 절망만 제공할 뿐이다.
- (7) 더우기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오히려 신앙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인이라는 외적인 이쁨을 소유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항상 진리 안에 거하며 그 진리를 확신할 수 있도록 간구하며 그분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 11. ㉠ 마리아가 무덤 속을 들여다보다가 목도(目睹)한 자들은 누구인가? (12절)

- ㉠ (1) 흰 옷 입은 두 천사였다.
- (2) 그런데 이들 중 한 명은 그리스도의 시신이 놓였던 곳에서 머리 편에, 다른 한 명은 발편에 앉았다고 했는데 이 위치는 그리스도의 시신을 싣던 수의(壽衣)의 형태로 식별한 듯하다.
- (3) 한편 눅24:4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목도했던 천사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흰 옷을 입었으며 그 수가 들어있었다는 점에서 본질의 기록과 일치한다.
- (4) 그러나 마28:2, 3과 막16:5에서는 여인들이 목도한 천사의 수가 한 명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기록상의 차이점은 사건을 묘사하는 기록자의 관점에 따라서 발생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 (5) 즉 누가와 요한은 무덤 주위의 사실 설명에 성실했던 반면에 마태와 마가는 예수의 부활에 대한 사실성을 증명하는 데 주력한 나머지 그 부대 사항들(예를 들면 천사의 수자 같은 것)에 대해 생략할 것은 생략했던 것으로 보인다.

## 12. ㉠ 천사와 마리아 간의 대화에 대하여 살펴보라(13절).

- ㉠ (1)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목도한 마리아(19:25)는 인간적인 슬픔에 젖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안 마리아는 슬픔과 더불어 크나큰 불안과 염려, 의혹감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 (2) 이러한 심경에 처해 있는 마리아에게 던진 천사들의 첫마디 말은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는 것이었다. 아마도 이 같은 말은 ‘여자여 너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느냐’라는 반문이었을 것이다.
- (3) 즉 이 말에는 ‘그리스도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분께서 부활하셨다는 기쁜 증표인데 너는 왜 울고만 있느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참조, 눅24:5, 6).
- (4)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서도 그 진의(眞意)를 깨닫지 못한 채 ‘제가 우는 까닭은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 (5) 이상에서 우리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사랑이 어떠한 것이었는지와 그분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깊은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참조, ㉠ 2).
- (6) 하지만 이와 같은 인간적 감성이 너무 앞선 나머지 무덤에서 일어난 상황을 살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마리아의 한 가지 흠이라 하겠다.
- (7) 그런데 비록 성격은 다를지라도 이처럼 크나큰 슬픔과 당혹감을 조성하는 일은 언제라도 인간들에게 닥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가운데 그와 같은 일에 갇혀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힘쓰자(참조, 약5:13).

## 13. ㉠ 그리스도께 나타나셨는데도 마리아가 미처 그분이 누구신 줄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14-16절)

- ㉠ (1) 본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변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2) 왜냐하면 성경에는 성도들이 부활할 때 다 변화하여 불가불 썩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전15:51-53). 이에 준하여 그리스도의 몸도 역시 변화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물었던 것처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시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시신을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일러 주십시오 제가 가져가리이다’라고 말하였다.
- (4) 한편 여기서 ‘주’라는 말은 단순히 상대방을 높이는 경어로서 ‘선생님’(Sir)이라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동산지기’(헬, 케푸로스)란 주인의 동산을 관리하는 자로서 그곳에 있는 주인의 무덤까지도 관리하는 자이다.
- (5) 그러므로 마리아는 이곳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보고서 아리마대 요셉의 동산지기인 줄 알고 행여 이 자가 주인의 명을 좇아 그리스도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앓았나 하고 생각한 것 같다(참조, 19장 ㉠ 30).
- (6) 이와 같이 마리아에게는 예수의 시신이나마 잘 간수하려는 애뜻한 사랑이 여전히 남

아 있었다. 이러한 사랑은 희생과 봉사보다는 대접과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 오늘날의 이기적인 성도들에게 좋은 귀감이 된다.

14. **㉠** 마리아는 어떻게 하여 동산지기로 여겼던 자가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게 되었는가? (16절)

- ㉠** (1)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야’라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  
 (2) 마리아는 방금 전 그리스도께서 ‘여자여’라고 불렀을 때에 미처 그분의 음성을 분별치 못하였다.  
 (3) 그러나 그분께서 ‘마리아야’라고 다정스럽게 자신의 이름을 불러 주시자 마리아는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곧 알게 되었다.  
 (4) 이처럼 다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 준다는 것은 아련한 느낌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누가 그 이름을 부르든 간에 자신의 마음속에 가장 깊이 스며드는 것은 바로 자신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불러 준다는 것은 말하는 자의 신분을 스스로 밝히는 것이기도 하다.  
 (5) 아마도 동산지기 중에 마리아의 이름을 알고 있었던 자는 없었을 것이다. 또한 그밖의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부르신 것처럼 똑같은 음성을 내지는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신 그 한 마디에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아차린 것이다.  
 (6) 예수께서 절망 중에 처해 있던 마리아에게 그녀의 이름을 불러 주어 새로운 자각과 기쁨을 갖게 해주셨듯이 오늘 현실의 도전 앞에 상심하며 절망하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며 친히 우리 개개인의 이름을 불러 주실 것이다(참조, 10:3). 이것이 영의 귀가 열려 있는 우리들의 특권이요 자랑이다.

15. **㉠**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은 마리아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사용한 경어는 무엇인가? (16절)

- ㉠** (1) ‘랍오니’(Rabboni)이다.  
 (2) 이것은 ‘선생’(Rabbi)이라는 단어에 소유격 접미사가 붙은 히브리어로서 ‘나의 선생’이라는 말이다.  
 (3) 그러나 마리아는 이 말을 ‘나의 친애하는 주’라는 뜻으로 더 친근감 있게 사용하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죽은 후 그의 시신조차 없어진 줄로만 믿었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셔서 자신 앞에 나타나신 것은 그녀로 하여금 무한한 감동을 자아내게 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4) 그 뿐 아니라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하여 염려하며 당혹해 하고 슬퍼하던 순간은 사라지고 이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11:25)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실로 입증되었으니 마리아의 심정은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니이다’(28절)라고 고백하고 싶을 정도였을 것이다.  
 (5) 따라서 ‘랍오니’라는 말에는 마리아의 이러한 모든 심정이 다 담겨 있다고 하겠다.  
 (6) 그러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순간에 갑자기 우리 앞에 재림하셨다고 가정할 것 같으면 그때 그분께 대하여 외칠 우리의 첫마디는 어떠한 것일까? 과연 우리는 ‘랍오니여’라고 외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영접할 수 있을까? 혹시 우리는 ‘아니 주님 왜 벌써 오셨습니까?’라고 되려 반문하지는 않을까?  
 (7)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마24:42)는 말씀을 좇아 살므로써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 ‘랍오니여’라고 부르면서 기꺼이 맞이할 수 있도록 하자.

16. **㉠** 17절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라.

- (A) (1) 여기에서 '나를 만지지 말라'는 말은 공동 번역의 '나를 붙잡지 말라'는 표현이 보다 정확한 번역이다. 왜냐하면 '만지다'(헬, 하프트)라는 말은 어떤 물체의 실상을 알기 위해 손가락 끝으로 만져 보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움켜쥐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2) 그러나 이 말은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몸에 손대는 것을 금하신 것이 아니다. 다만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마리아와 제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얼마 동안 지내실 것이므로 마리아가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참조, 19-29절).
- (3) 그리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는 말도 정확히 번역하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 있노라'는 말이 된다. 왜냐하면 '올라가다'(헬, 아나베베카)는 말은 완료 시상으로서 행동이 아닌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 (4) 또한 여기서 '내 형제들'(헬, 무스 아벨푸스 무)이란 말은 단순히 직계 가족 형제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 이상의 것을 뜻한다. 일찌기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막3:35)고 말씀하셨다.
- (5) 그 뿐 아니라 히브리서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 대하여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히2:11)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란 말에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과 보다 새로운 관계를 맺으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 (6)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치명적 상황을 맞이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황폐해져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친구이시며 또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이 생각하지 않으시는 예수께서 우리와 더불어 계시기에 우리는 새롭고 풍요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는 것이다.

17. **㉠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에게 자신이 승천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도록 명하신 까닭은 무엇인가? (17절)**

- (A) (1) 자신이 얼마 동안은 제자들과 함께 계실 것이지만 머지않아 하나님께로 올라가실 것임을 밝히시기 위함이다.
- (2) 일전에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얻을 영생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 말씀이 너무 어려워 이해할 수 없다고 불평하였는데 이때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6:62)라고 반문하셨다.
- (3)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의 승천 사건은 그 자체가 교훈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는 하나의 메시지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성(神性)을 증거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 (4) 한편 이 같은 승천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두 분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시며 마리아와 모든 제자들은 자신을 영접함으로써 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으니(참조, 1:12) 이 두 관계는 오직 한 하나님과의 관계이다는 뜻이다.
- (5) 바로 이러한 관계성의 의미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 대하여 '내 형제들'이란 말을 사용하신 데에 깃들어 있는 본뜻이기도 하다(참조, ㉠ 16).
- (6) 이미 하나님의 성스러운 가족(家族)이 된 우리는 우리의 '형제'인 예수를 이 땅에 소개함으로써 그분이 마련해 두신 영원한 가정을 풍성하게 그리고 더욱 아름답고 복되게 꾸며 가야 할 것이다(참조, 14:2).

18. **㉠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문을 닫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19절)**

- (A) (1)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 (2) 일찌기 제자들은 겐세마네 동산에서 그리스도께서 체포당하실 때 빨빨이 흩어져 제각

기 피신했었다(마26:56).

- (3) 그 후 그들은 자신들이 위험한 선동자로 간주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그와 함께 뜻을 같이한 자들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음을 알았을 것이다(참조, 마26:69-73).
- (4) 그러므로 그들은 유대인 곧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자신들을 체포하려고 보냈을지도 모르는 군사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굳게 닫고 은신해 있었던 것 같다.
- (5)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할 사실은 만일 그들이 마리아가 전한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18절)을 믿었더라면 과연 이 정도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을까 하는 점이다.
- (6)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뵈기 전까지 그 사실을 믿지 않고(참조, 막16:11; 눅24:11) 세상적인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 (7) 이처럼 예수의 부활 사실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각각의 삶을 결정지워 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이 곧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일임을 확신하고 불안과 회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19. **㉠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닫힌 문을 열지도 않으신 채 방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었는가? (19절)**

- ㉠** (1)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시공간(時空間)을 초월할 수 있는 영체(靈體)로 변화했기 때문이다(참조, 고전15:44).
- (2) 그러므로 그분께서 문을 열지 않으시고도 밖에서 실내로 들어오실 수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26절에도 또 한번 나와 있다.
- (3) 하지만 이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보통 사람의 몸과는 성질이 다르지만 전혀 육체적 성질이 없는 정기(精氣)와 같은 것은 아니었다.
- (4) 그리스도께서 생전에 입으셨던 육체적 몸과 부활하신 후의 새 몸 간에는 분명한 연속성이 있었다. 그 증거로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친히 자신이 입으셨던 십자가의 상처를 보여 주심으로써 이를 증명하셨던 것을 들 수 있다.
- (5) 이러한 그리스도의 영체는 장차 성도들이 겪게 될 부활과 그 결과 있게 될 변화된 몸(고전15:51-53)의 성질이 어떠한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표본이라고 하겠다.

20. **㉠ 제자들에 대하여 하신 그리스도의 첫마디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19절)**

- ㉠** (1)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인사말이었다.
- (2) 여기서 ‘평강’(헬, 에이레네)이란 말은 ‘평화’, ‘화평’ 또는 ‘복지’(福祉)로도 번역될 수 있으며 <shalom>이라는 히브리어와 동일한 말이다.
- (3) 이러한 인사말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인사말인데 그들은 길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왕하5:21)나 헤어질 때(삼상1:17; 행16:36; 약2:15, 16), 이웃을 방문할 때(마10:12) 등과 같은 일상시에 이 말을 자유롭게 사용하였다.
- (4)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같은 인사말에는 일상적인 의미 외의 뜻이 담겨 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평강’이라는 말과 관련하여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니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평강과는 다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14:27)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 (5) 아마도 이러한 평강은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결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두려움을 모르고 담대함을 잃지 않은 것(참조, 행13:4-12)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참조, 22절; 14:26, 27).
- (6) 이와 같은 평강은 오늘날에도 성령의 손에 사로잡히기만 하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다(참조, 롬14:17). 우리는 무엇보다도 날마다의 삶에서 성령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여 그분이 공급하시는 평강의 은사를 힘입도록 하자.

21. **㉠** 예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기에 앞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21-23절)

- ㉠** (1) 장차 그들에게 임할 성령에 대한 보증과 죄 사함을 선포할 사명이다.  
 (2)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려 하셨다.  
 (3)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사명과 임무를 온전히 성취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께서는 하늘나라로 돌아가실 것이었다.  
 (4) 그런데 자신과 함께 지내며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를 전파했던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이 떠나시면서 그들을 교아와 같이 내버려두시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다. 더우기 그들이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해 두셨다.  
 (5)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이 같은 사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을 보증하셨고 아울러 죄 사함을 선포할 사명도 준비해 주신 것이다.  
 (6)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께서 임혀 주시는 큰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능히 세상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친히 본을 보여 주었다(참조, 히11장).  
 (7) 그러므로 험악한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지닌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지닌 지식과 권력을 의존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엡6:10-17).

22. **㉠**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22절)

- ㉠** (1) 오순절에 있을 성령 강림을 제자들에게 보증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2) 여기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흠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창2:7)과 유사하다. 그 결과 사람은 생령(生靈)이 되었으니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신 것은 제자들을 새롭게 재창조하셨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3) 이처럼 제자들이 재창조되어야 할 까닭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던 최초의 사람들이 물질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여야 했던 자들인데 반해(창1:27, 28) 제자들은 ‘영적 세계 곧 인간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을 지닌 자들이기 때문이다(마 28:16-20).  
 (4) 또한 그리스도께서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은 성령이 그리스도와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16:7; 롬8:9; 갈4:6)을 의미하는 상징적 행위이기도 하다.  
 (5)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보내 주시겠다고 보증하신 성령은 결국 오순절 날 한 곳에 모여 있던 모든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함으로써 그 약속이 실현되었다(행2:1-4).  
 (6) 이러한 성령의 강림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무관하지 않다. 특별히 복음 전파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들은 세상을 향해 외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해 성령의 내주(內住) 하심을 소원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인간 구원의 원동력은 분명 성령께 있다.

23. **㉠** 23절의 의미는 무엇인가?

- ㉠** (1) 죄 사함의 복음을 선포할 사명이 제자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2) 죄를 용서해 주시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시32:5; 막2:7). 우리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3)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셨을 때에만 가능하다(참조, 마18:21-35). 우리의 임무는 단지 어떻게 하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으나 하는 것에 대해 해답을 제시해 주고 있는 죄 사함의 복음(3:16, 17; 요일1:9)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뿐이다.

- (4) 한편 우리는 본절과 유사한 표현을 마16:19; 18:18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거기서 뜻하는 바도 역시 말씀 선포권이 그리스도의 제자 된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 (5)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인 죄 사함의 복음을 이 땅에 전달하는 심부름군으로서 맡은 바 소임을 감당해야 하며 그 일에서 얻어진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참조, 15:8).

24. **㉠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도마는 그의 동료들이 전한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24, 25절)**

- ㉠** (1)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2) 도마(Thomas)의 헬라식 이름이 '디두모'(Didymus)라는 것과 그 이름의 뜻이 '쌍둥이'라는 것 그리고 그의 성격 및 행적에 대하여서는 11장 **㉠** 11을 참조하라.
- (3) 그런데 본절에 나타난 바와 같은 도마의 불신앙은 실증주의적인 면이 강한 그의 성격 탓이지 그리스도의 부활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태도는 아닐 것이다.
- (4) 왜냐하면 그가 그리스도의 부활 그 자체를 믿지 못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니이다'와 같은 고백을 결코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 (5) 이처럼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신앙하는 방법과 자세는 뚜렷한 개인차를 보이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비난하지 말고 그들이 확신에 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참조, 롬 14:1).

25. **㉠ 그리스도를 직접 뵈고 난 후 도마는 어떻게 처신하였는가? (26-29절)**

- ㉠** (1) 자신의 불신앙을 뉘우치는 가운데 겸손히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니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였다.
- (2) 그런데 여기서 유념해야 할 것은 자신의 부활 사건을 믿지 아니한 도마에 대하여 보여 주신 그리스도의 태도이다.
- (3) 그분께서는 도마에 대하여 처음부터 그의 불신앙을 책망치 않으시고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모여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비셨다(참조, 19절).
- (4)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는 도마가 한 말(25절)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도마로 하여금 자신의 몸을 살펴보고서 부활 사건을 믿도록 촉구하셨다.
- (5)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공박하기에 앞서 그로 하여금 굳건한 신앙을 견지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 주시기를 잊지 않으셨다(참조, 11:17-27).
- (6) 이러한 그리스도의 태도는 도마의 심성을 녹이기에 충분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기에 이르렀으니 이 같은 신앙 고백은 본서의 정점(頂點)을 이루고 있다.
- (7) 그러나 끝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말씀을 하시기를 잊지 않으므로써 도마의 이전 불신앙을 책망하시고 이로써 경각심을 심어 주셨다.
- (8) 이처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묵인이나 용납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적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더 나은 신앙 인격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 (9) 이러한 사실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은혜로 용납하고, 그래서 교회 내에 악을 싹트게

하는 오늘의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된 목회 방침에 귀감이 될 만하다. 목회자는 궁극적으로 무엇이 그 영혼을 위해서 이익이 될 것인가를 현명하게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예수께서는 당신과 진리가 머무는 곳의 상황에 평화만이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하셨다(참조, 마 10:34-39; 눅 12:51).

## 26. ㉠ 도마의 신앙 고백에 대하여 살펴보라(28절).

- ㉠ (1)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게 된 로마는 그분을 ‘주’(헬, 쿼리오스)와 ‘하나님’(헬, 데오스)으로 고백하였다. 이 고백에서 언급된 두 호칭은 모두 하나님(히, 예호와)을 가리키는 칭호이다.
- (2) 따라서 이처럼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간주한 도마의 신앙 고백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일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 (3)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율법은 일신교(一神敎)를 엄격히 신봉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사고 방식에 의하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으로 간주하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 (4) 그러기에 그들은 어떤 사람을 신격화하는 행위를 신성 모독으로 간주하고 인간을 신성시하는 자에게 율법(레 24:16)을 적용시켜 돌로 쳐죽였다(참조, 5:18; 10:33).
- (5) 그러나 도마는 그리스도에게서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신성(神性)을 재확인하고서 이를 고백하였으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임을 선언함으로써 시작되고 있는 본서(1:1)는 여기에 와서 그 정점을 이루고 있다.
- (6) 이와 같이 진리는 세상의 제도와 압제로 막아지는 허술하고 연약한 것이 아니다. 진리는 그 어떠한 힘보다 강하고 활동력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가 왜곡되는 이 땅 위에 거하면서 진리가 진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의 출발점은 바로 도마처럼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참조, 마 16:16).

## 27. ㉠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니고 있는 교훈적 측면에 대하여 생각해 보라(29절).

- ㉠ (1) 이 말씀은 비단 도마에게만 해당되는 훈계의 말씀으로 여겨질 필요가 없다.
- (2)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그를 믿게 된 모든 자들은 실상 그를 보지 않고서 믿는 자들이기 때문이다(참조, 히 11:1).
- (3) 따라서 이러한 신앙의 소유자인 우리들은 순수한 마음의 발로이긴 하지만 간혹 그리스도께서 내게 나타나 보이신다면 내가 그분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터인데 하는 염원을 갖게 될 때가 있다.
- (4) 그 뿐 아니라 오늘날 불신자들이 즐겨 하는 말 중의 하나가 ‘하나님을 보여 준다면 내가 그를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하다.
- (5)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때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우리의 귀에 가만히 속삭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기억함으로써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다져 나가자.

## 28. ㉠ 본서의 집필 방법상 특징 및 대주제,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라(30, 31절).

- ㉠ (1) 첫째, 본서 집필 방법에 있어서의 특징은 저자가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표적을 중심으로 본서를 서술해 나갔다는 점이다.
- (2) 본서에는 그리스도의 8대 표적(참조, 11장 ㉠ 1)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분의 신성을 증명해 주는 것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위대한 표적은 그분의 부활 사건이니 이로써 본서는 만민에게 구원의 희망을 안겨 주는 온전한 복음서가 되었다.
- (3) 둘째, 본서의 대주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저자는 이분이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밝히 보여 주려고 하였다(참조, 1:34, 49; 5:25; 9:35; 10:36; 11:4).

- (4) 세계, 본서의 기록 목적은 모든 사람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써 새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은 이 같은 말씀을 듣고 나가 세상에 증거할 사명이 있는 것이다(딤후4:2).
- (5) 오늘 우리가 그 어떤 봉사와 성경 공부와 교제를 한다 하더라도 예수가 우리가 구세주이시며 또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참조, 요일5:11-13).

### 화보자료

예수의 못 자국과 장 자국을 확인하는 도마. 파리의 노트르담(Notre Dame) 대성당 내부를 장식하고 있는 조각품이다. 도마가 이 조각품에서처럼 실제로 예수의 옆구리에 손을 넣었는지에 관해서는 성경상에 언급이 없다.



3년 동안이나 예수와 함께 다닌 도마가 동료들이 전해 준 예수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은 것은 분명 그의 믿음이 부족한 때문이었다(24, 25절). 결국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고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나라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증거해 주고 있다(참조, 14:8).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보여 주면 내가 믿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때 우리는 낙심치 말자. 그리고 다만 하나님을 증거하기만 하자.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감화시키어 보지 않고서도 하나님을 믿게끔 역사하실 것이다(참조, 고전3:6, 7).

## 제 21 장 마지막 표적을 행하신 그리스도

단락구분 1-4 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 / 5-11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마지막 표적 / 12-14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시다 / 15-17 시몬 베드로에 대한 분부 / 18-19 베드로의 죽음 예고 / 20-23 사도 요한의 최후에 대한 물음 / 24 본서의 진실성 / 25 본서의 기록상 한계

1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2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들이 함께 있더니

3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대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4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5 예수께서 이르시되 애들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6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시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7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걸음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8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한 불과 한 오십 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는 그물을 끌고 와서

9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0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대

11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일백 쉰 세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2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14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15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 또 두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 세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옵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18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20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로 나이까 물던 자러라

21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삽나이까

22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23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고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24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25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날날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1. **㉠ 본장의 저자는 누구인가?**

- ㉠** (1) 본서의 결론은 이미 20:30, 31에 나와 있다. 그런데도 발문적(跋文的)인 성격을 띠고 있는 본장이 부가되어 있는데 대하여 일부 학자들은 요한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를 기록하여 덧붙여 놓은 것으로 여기고 있다.
- (2) 그러면 과연 본장의 저자는 누구일까? 이에 답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3) 첫째, 베드로의 죽음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19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는 12:33과 문체가 유사하다.
- (4) 둘째,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헬, 아멘 아멘 레고 소이)라는 표현(18절)은 '진실로'라는 말을 한 번만 언급하고 있는 공관 복음서의 표현(마 8:10; 막 9:41; 눅 4:24)과는 구분되는 본서의 특이한 표현이다(1:51; 3:5; 5:19; 8:34; 14:12; 16:20).
- (5) 셋째,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란 말(7, 20절)은 본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자신을 가리킬 때 사용하던 용어이다(13:23; 19:26; 20:2).
- (6) 넷째, '디베라 바다'라는 말(1절)은 사도 요한이 갈릴리 바다를 지칭할 때 사용하던 특별한 용어이다(6:1, 23).
- (7)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적으로 본장의 저자는 다른 누구도 아닌 본서의 저자와 동일 인물인 사도 요한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다.

2. **㉠ 그리스도께서 디베라 바다에 나타나신 것은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난 몇번째의 일인가? (1-14절)**

- ㉠** (1) 세번째의 일이다.
- (2) 그런데 여기서 세번째란 말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경우(20:11-18)를 제외하고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20:19-25)을 첫번째로, 도마와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20:26-29)을 두번째 일로 본 결과 나온 말이다.
- (3) 한편 여기서 '그 후에'라는 말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하기는 하지만(참조, 2:12; 3:22; 5:1)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갔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4) 그리고 '디베라 바다'(the Sea of Tiberias)는 '긴네렛 바다'(민34:11), '긴네룻 바다'(수12:3) '게네사렛 호수'(눅5:1) 등과 같이 갈릴리 바다를 가리키는 별칭이니 이에 관하여서는 6장 **㉠** 2를 참조하라.

3. **㉠ 1-14절에 기록된 사건과 눅5:1-11에 기록된 사건은 동일한 사건인가?**

- ㉠** (1) 동일한 사건이 아니다.
- (2) 비록 이 두 사건 사이에는 장소의 일치(참조, 눅5:1) 및 표적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참조, 눅5:5)과 표적의 성격(참조, 눅5:6)이 유사하다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뚜렷한 차이점이 나타난다.
- (3) 첫째, 눅5장에 의하면 제자들은 고기를 잡지 못하자 육지로 나왔다가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 다시금 바다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절에는 제자들이 계속 바다에 있었던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 (4) 둘째, 눅5장에 의하면 제자들은 처음부터 자신들과 대화를 나누는 자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었으나 본절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나와 있다.
- (5) 셋째, 눅5장에는 잡은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진 것으로 묘사되어 있으나 본절에는 153마리나 되는 고기를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 (6) 마지막으로 눅5장의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기간 중에 행하셨던 표적인 반면, 본절의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에 행하셨던 표적이다.
- (7) 그러므로 이 두 사건은 동일하지 않은 별개의 두 사건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4. **㉠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고기잡이를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 (3절)**

- ㉠** (1) 흑자는 이에 대하여 그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실망한 나머지 옛 거주지로 되돌아가 생계 유지를 위해 고기잡이하러 나선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 (2) 그러나 이러한 추측은 본서의 기록과 상반된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뵈고서 크게 기뻐하였으며 또한 그로부터 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받았기 때문이다(20:19-23).
- (3) 그러면 그 같은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그 사명은 준행하지 않고 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나 하고 있었을까?
- (4) 본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이유로 우리는 그들이 아직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참조, 20장 ㉠ 21, 22).
- (5) 즉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20:21-23)을 듣고서는 자신들이 사역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깨닫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생업에 종사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날을 기다렸던 것이라고 하겠다(참조, 행2장).
- (6) 한편 이러한 제자들의 태도는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어떠한 일을 행하기에 앞서 때가 차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먼저 기도하는 가운데 그분의 뜻이 드러나기를 기다리며 또한 겸손히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자(참조, 롬12:2).

5. **㉠ 그리스도의 말씀을 좇아 바다에 그물을 내린 제자들의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고라(4-6절).**

- ㉠** (1) 제자들은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
- (2)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밤새껏 수고하였어도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오른편에 던지면 고기를 얻을 것이라'고 한 그 한 마디에 다시금 바다에 그물을 던졌다.
- (3) 무엇이 이처럼 제자들로 하여금 낚선 자의 말을 청종케 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혹시 제자들은 이 낚선 자가 해변가의 높은 곳에서 있다가 배 오른쪽으로 물러드는 고기 떼를 발견한 것으로 생각했을런지도 모르겠다.
- (4) 하지만 이유야 어쨌든 간에 말씀에 순종한 결과 그들은 그물에 가득 찬 고기를 얻을 수 있었다.
- (5) 그러면 이러한 사실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참조, 사55:8, 9).
- (6) 둘째, 겸허한 자세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안다는 것 자체가 축복임을 깨닫게 해 준다(참조, 잠10:17).

6. **㉠ 바닷가에 서 있는 자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차린 자는 누구이며 '그리스도시라'는 소리를 들은 베드로의 행동은 어떠하였는가? (7절)**

- ㉠** (1) 바닷가에 서 있는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이심을 맨 먼저 알아차린 제자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인 사도 요한이었다(참조, ㉠ 1).
- (2) 아마도 그는 말씀에 순종한 결과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표적이 재현되자(참조, ㉠ 3) 즉각적으로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차린 것 같다.
- (3) 그리하여 그는 베드로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즉시로 벗고 있던 걸옷을 두른 후 바다로 뛰어내려 그리스도께로 헤엄쳐 갔다.
- (4) 여기서 베드로가 걸옷을 벗고 있었던 것은 일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었으며 다시금 걸옷을 두른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경외심을 나타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 (5) 그리고 그리스도를 빨리 만나뵈고자 했던 베드로의 열심은 그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

겠다고 한 그의 고백(13:37)과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려 했던 그의 이전 행동(마14:25-29)과 일치한다 하겠다.

7. **㉠ ‘오십 간’(五十間)은 어느 정도의 거리를 가리키는 말인가? (8절)**

- ㉠** (1) 여기서 ‘간’(間)은 길이의 단위인데 1간은 6자에 해당된다. 그런데 1자[一尺]는 약 30cm로서 1간은 약 3m이다.  
 (2) 그러므로 50간은 약 150m에 해당하는 거리임을 알 수 있다.  
 (3)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는 ‘오십 간’이란 말이 <페콘 디아코시온>, 즉 ‘200규빗’으로 나와 있다.  
 (4) 여기서 1규빗은 약 45cm에 해당되니 200규빗은 약 90m에 해당되는 거리임을 알 수 있다.  
 (5) 이렇게 되면 원어에 의거해 계산한 거리와 우리말 번역에 의거해 계산한 거리 간에는 60m나 되는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할 거리는 당연히 원어에 의거해 산정한 약 90m의 거리라고 하겠다.

8. **㉠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위해 떡과 생선을 준비하신 후 그들과 함께 조반을 드신 것에 대하여 살펴보라(9-14절).**

- ㉠** (1)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왔을 때에는 이미 그곳에 떡과 숯불 위에 놓인 생선이 예비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명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병 이어(五餅二魚) 사건(6:1-13; 마14:13-21)을 연상시켜 준다.  
 (2)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마14:16)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시험하신 후(6:6) 어린아이가 바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표적을 행하셨다.  
 (3) 그런데 여기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바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며 그 헌물으로써 그 자리에 모인 자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하셨다.  
 (4) 따라서 우리는 이상과 같은 식사 장면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 간의 교제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즉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사랑과 제자들의 헌신이 어울려 화목한 교제의 장(場)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5)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오늘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그것은 곧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친다는 의미이다.

9. **㉠ 잡아 올린 고기가 153마리였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11절)**

- ㉠** (1) 초대 교회 때부터 많은 신학자들은 잡힌 고기가 153마리였다는 데 초점을 맞춰 이 수자에 담겨 있다고 믿는 상징적 의미를 밝혀 내려 하였다.  
 (2) 그중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는 어거스틴(Augustine, 354-430)의 견해이다. 그는 율법을 상징하는 10을 구약으로, 성령을 상징하는 7을 신약으로 보고 이 둘을 합한 수인 17에 이르기까지 1부터 더해 나가면(1+2+3+4+5+...+17) 153이란 수자가 나온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 153이란 수자는 신·구약 시대를 통틀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을 자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3) 두번째 것으로는 알렉산드리아의 시릴(Cyril of Alexandria)의 견해가 있는데 그는 100을 이방인 수로, 50을 유대인 수로 그리고 3을 삼위 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수로 보았다. 그리하여 100+50+3=153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삼위 일체 하나님을 믿고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4) 그러나 이상과 같이 수자에 담겨 있으리라고 믿는 상징적인 의미를 밝히려 한 시도는 너무 지나친 추측에 의존한 것이므로 그다지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

(5) 따라서 잡아 올린 고기가 153마리였다는 말은 제자들이 그것을 서로 나누기 위해 숫자를 세다 보니 153마리였다는 것이지 그 숫자에 꼭 상징적 의미가 들어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이 무난하다.

10. **㉠ 초기 기독교인들과 관련지워 생각해 볼 수 있는 물고기의 상징적 의미는 무엇인가? (11절)**

- ㉠** (1) 예수 그리스도이다.  
 (2) 왜냐하면 ‘물고기’를 가리키는 헬라어 <일투스>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헬,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테우 휘오스 소테르)란 말의 각 머리 글자를 따서 합친 말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3) 그러므로 초대 기독교회에서는 이 물고기가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암호나 다름없는 하나의 상징이 되었는데 오늘날에도 카타콤(the Catacombs) 벽에 물고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1. **㉠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경우를 도표화하라(14절).**

**㉠**

때	목격자	장소	성경 권절
부활하신 날	막달라 마리아	예루살렘	20:11-18; 막16:9
	다른 여자들	예루살렘(?)	마28:9
	베드로	예루살렘	눅24:34; 고전15:5
	두 제자	엠크마오	눅24:15-31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	예루살렘	20:19-24
부활하신 다음 주일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	예루살렘	20:26-29
불확실함	고기를 잡고 있는 일곱 제자	갈릴리 바다	1-14절
	열 한 사도	갈릴리의 산	마28:16, 17
	500여 형제들	알 수 없음	고전 15:6
	야고보	알 수 없음	고전15:7
승천 시	열 한 사도	베다니	행1:2-6
불확실함	사울(바울)	다메섹 도상	행9:1-5; 고전15:8

12. **㉠ 그리스도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으나 감히 그들이 ‘당신이 누구냐’고 묻지 못한 까닭은 무엇인가? (12, 13절)**

- ㉠** (1)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표적(6, 11절)이 곧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것이었으니 이로써 그들이 ‘주’(主)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2)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이번 표적은 못 사람들을 위하여 행하셨던 여타 표적들(2:9; 4:53; 5:8; 6:10, 19; 9:6; 11:43, 44)과는 달리 그리스도께서 제자들만을 위하여 행하신 표적이라는 데 특이성이 있다 하겠다.  
 (3) 한편 바다에서 수고하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셨다. 이처럼 음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행위를 통하여 제자들은 그분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던 최후의 만찬(마26:26-29)을 회상했을런지도 모르겠다.  
 (4) 그러나 본절에서의 식사 행위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제자들의 수고로 마련된 식사 자리에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가 있지 성례(聖禮)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5) 왜냐하면 성찬 예식을 제정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눅22:19)라고 말씀하셨으면서도 ‘나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마 26:29)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13. **㉠**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함께 15-17절에 나타난 바와 같은 대화를 나누신 까닭은 무엇인가?

- ㉠ (1) 본절에는 직접 묘사되어 있지 않으나 문맥의 흐름으로 보아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자신이 아직도 그를 사랑하시며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 주시기 위함인 듯하다 (참조, 15:6).
- (2) 그런데 이 같은 대화 중에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하신 것은 베드로가 3번이나 그리스도를 부인(否認)한 것(18:15-27)과 대조를 이룬다.
- (3) 아마도 제자들은 베드로가 이처럼 3번이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모두 다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를 새롭게 하시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베드로의 신앙을 재인식시키신 것이다.

14. **㉠** 그리스도와 베드로 간에 행해진 3번의 질문의 차이점을 도표화하라(15-17절).

㉠

구분		회수	1	2	3
질문	문장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원어	사랑하다		아가파오	아가파오	필레오
대답	문장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원어	사랑하다		필레오	필레오	필레오
	알다		오이다	오이다	기노스코
분부	문장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원어	먹이다		보스코		보스코
	치다			포이마이노	

15. **㉠** 15-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라.

- ㉠ (1) 본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랑’을 뜻하는 두 헬라어는 <아가파오>와 <필레오>이다.
- (2) 이중 <아가파오>는 그리스도의 첫번째 질문과 두번째 질문 중에 사용되었고 <필레오>는 세번째 질문과 베드로의 3번의 대답 중에 사용되었다(참조, ㉠ 14).
- (3) <아가파오>란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이 가지신 애정과 의지, 목적을 의미한다. 그리고 <필레오>는 친근한 사랑, 맹목적인 사랑, 우정을 의미한다.
- (4) 그런데 본서에서는 이 두 용어가 하나님의 사랑(3:16;5:20)과 인간의 사랑(14:21;16:27)을 나타내는 데 동시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의미상 큰 차이 없이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참조, 11장 ㉠ 4).
- (5) 그러나 본절에서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세번째 질문에서는 굳이 <필레오>를 사용하신 데에는 구별된 의미가 있다 하겠다. 곧 ‘베드로야 너는 나의 진정한 친구로서도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6) 그러기에 Living Bible은 그리스도의 세번째 질문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진정 나의 친구이냐?’(Simon, son of John, are you even my friend?)라고 번역하고 있기도 하다.

16. **㉠** 15-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알다’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자.

- ㉠** (1) 본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알다’란 말의 두 헬라어는 <오이다>와 <기노스코>이다.
- (2) 이중 <오이다>는 베드로의 첫번째 대답과 두번째 대답에 사용되었으며 <기노스코>는 세번째 대답에 사용되었다(참조, ㉠ 14).
- (3) 여기서 <오이다>란 어떤 사실에 대한 지적(知的)인 앎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노스코>는 <오이다>보다 더 강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로서 일정한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을 의미한다.
- (4) 그러므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베드로의 세번째 대답에 있어서 두 번 거듭 ‘알다’(헬, 기노스코)라는 말이 사용된 점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대한 베드로의 사랑이 어느 정도의 것이었는지를 짐작케 해준다.
- (5)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을까? 내 가족이나 연인 만큼이라도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들의 대부분을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 (6) 하지만 우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아비나 어미,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마 10:37)라고 한 그분의 말씀을 좇아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보다 더 승(勝)하지 못하도록 힘쓰자.

17. **㉠** ‘내 양을 먹이라’는 말과 ‘내 양을 치라’는 말 사이에 있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15-17절)

- ㉠** (1) ‘먹이다’(헬, 보스코)는 말에는 ‘양들을 목초지로 인도하라’는 의미가 깃들여 있는 반면, ‘치다’(헬, 포이마이노)는 말에는 ‘양들의 모든 활동을 돌보라’는 뜻이 담겨 있다.
- (2)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린 양들을 돌보며 바른길로 인도할 책임이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 (3) 왜냐하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모두 다 목자이기 때문이다(참조, 벰전 5:1, 2).
- (4)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중차대한 사명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 일에 전념하되 ‘말기운 자들에게 주장(主掌)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는 일을 하여야 할 것이다(벰전 5:3).

18. **㉠**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말은 어떠한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가? (15절)

- ㉠** (1) 한글 개역 성경 난하주에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이 ‘네가 이것들보다’라는 말로 대치될 수도 있다는 주(註)가 달려 있다.
- (2) 그러므로 이 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 네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느냐? 둘째,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셋째, 네가 이것들(즉 배나 기타 다른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 (3) 그러나 다른 사람이 다 그리스도를 버릴지라도 자기 만큼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다고 장담하였던 베드로의 자세(13:37, 38)와 관련지워 볼 때 그리스도의 물음의 의미는 첫번째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 (4)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나타나셔서 이와 똑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답변을 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는 ‘제가 다른 누구보다도

더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 (5) 혹시 말로써는 그와 같이 고백하고서도 실제적인 면에서는 베드로가 했던 실수를 그대로 답습하지는 않을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을 살펴 그 마음의 주된 관심처를 관찰하고 이를 제어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그리스도께 드리자.

19. **㉠**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가 순교하게 될 사실을 어떤 말로 예고하셨는가? (18, 19절)

- ㉠** (1)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떠 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떠 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는 말로 예고하셨다.
- (2) 그런데 성경에는 베드로가 언제 어디서 순교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 그의 마지막 행적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헤롯 아그립바 1세(Herod Agrippa I, 39-44)의 박해를 받아 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탈출한 후(행12:1-19) 예루살렘 공의회에 나타난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행15:7-11).
- (3) 그러나 기독교 초기 문헌들에는 베드로의 최후 행적에 대한 언급이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다. 그중 로마의 감독 클레멘트(Clement, 88-97)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클레멘트 1서)에서 베드로가 바울과 함께 로마에서 순교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 (4) 그 뿐 아니라 터툴리안(Tertullian, 100?-240?)도 네로(Nero) 황제 통치(54-68)하의 로마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하였다고 언급하였다.
- (5) 따라서 이상과 같은 문헌과 벤전5:13을 참조하여 우리는 베드로가 A. D. 63년 내지 64년경에 로마에 갔다가 기독교인에 대한 네로의 대박해(A. D. 64-68)가 절정에 달한 때에 순교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0. **㉠** 18절의 의미를 좀더 쉽게 풀이하라.

- ㉠** (1) 베드로가 '젊어서는 스스로 떠 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닌다'는 말은 그의 최후가 이르기 전에는 환난이나 핍박을 개의치 않고 각지를 돌아다니며 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참조, 행4:1-31).
- (2) 그리고 그가 '늙어서는 팔을 벌리우고 떠 떠움을 당하며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끌려가게 된다'는 말은 노년(老年)에 그가 타인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 (3) 그런데 혹자는 이 귀절에 대하여 달리 설명하기를 '팔을 벌리우고 떠 떠움을 당하게 된다'는 말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 (4) 비록 간접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베드로행진'이라는 신약 외경이 있다. 거기에는 베드로와 관련된 감동적인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전개되어 있다.
- (5) 박해를 피해 로마를 떠난던 베드로는 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분께서는 '네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 하니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로 간다'라고 대답하셨다. 이에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로마로 되돌아가 사역하다가 체포당한 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린 채 처형당하였다.
- (6) 그러나 이상과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베드로행진'은 연대 착오 및 비역사성, 지리적 부정확성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므로 그 이야기를 사실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 (7) 따라서 우리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그럴 수도 있다고 여길 수는 있지만 그것을 꼭 정설(定說)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21. **㉠** 베드로의 죽음을 예고하신 후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19절)

- ㉠** (1)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하셨다.

- (2) 일찌기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고기잡이를 하는 베드로를 보시고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4:19)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 (3) 그 같은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그 즉시로 그물을 버려 두고 그리스도를 쫓았으니(마 4:20) 이후 그는 항상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특별히 인정을 받는 수제자가 될 수 있었다(참조, 마17:1; 막5:35-37).
- (4) 그리하여 그는 ‘비록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나 버리지 않겠으며’(마26:33),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겠나이다’라고 스스로 호언 장담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
- (5) 하지만 그러한 그의 장담은 가야바(Caiaphas)의 뜰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써 여지없이 깨어졌다(마26:69-75). 이 같은 실수는 일평생 동안 베드로를 경책하는 경계 거리가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 (6)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실수를 지니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죽음을 예고하신 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아마도 ‘베드로야 이제 너는 죽기까지 나를 부인하지 말고 온전히 나를 따르라’는 촉구와 격려의 의미가 담겨 있는 듯하다.

22. **㉠** 20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과 같은 행위는 어느 때에 일어났던 일인가?

- ㉠** (1) 그리스도께서 그의 12제자들과 함께 일명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불리우는 곳(참조, 눅22:12)에서 최후의 만찬(晩餐)을 드실 때에 일어났던 일이다(13:21-30).
- (2) 이때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서 마지막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던 때인데 심령이 민망해지신 그리스도께서는 모여 있는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이 자신을 팔리라고 말씀하셨다.
- (3) 그러자 제자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의아해 하며 서로 수군거렸는데 그때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그리스도의 품에 의지하여 누운 채 ‘주여 그 자가 누구오니이까’라고 물었던 것이다.
- (4) 이에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딱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으나 당시 제자들은 미처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23. **㉠**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도 요한의 최후에 대하여 물어 본 까닭은 무엇인가? (21절)

- ㉠** (1) 자신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사도 요한의 최후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 (2) 베드로는 방금 전에 그리스도께로부터 자신이 순교하게 되리라는 것을 들었다(18,19절).
- (3) 그러므로 그는 자신의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자신이 맡게 된 사역의 중차대성에 묘한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 (4) 그러던 차에 베드로는 자신의 뒤에 서 있던 요한을 발견하고 그의 최후에 대한 즉각적인 호기심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즉 ‘나는 앞으로 순교하게 되지만 이 친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친구도 나와 똑같은 책임을 맡고 사역하다가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게 될런가?’ 등과 같은 호기심이 베드로를 사로잡았을 것이다.
- (5) 따라서 베드로는 본절에서와 같이 그리스도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라고 여쭙었던 것 같다.

24. **㉠** 베드로의 질문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답하셨는가? (22절)

- ㉠** (1)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답하셨다.
- (2) 여기서 ‘내가 올 때’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를 가리킨다. 그러므로 ‘내가 올 때

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라는 말은 가정적인 의미로서 '내가 비록 그를 오래 살도록 할지라도'라는 의미이다.

- (3)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답변에서 다음과 같은 암시적인 뜻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베드로보다 오랫동안 살도록 하신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자신의 운명을 요한의 운명과 비교해서는 안 되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 (4) 그런데 이러한 자세는 비단 베드로에게만 요구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의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이므로 팔은 팔로서의 그리고 다리는 다리로서의 역할에만 관심을 쏟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전심 전력하는 자세가 요구된다(참조, 고전12:12-31).
- (5)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며 처신하자'(롬12:3).

25. **㉠**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가 초대 교인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의미로 곡해되어 전파되었는가? (23절)

- ㉠** (1)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사도 요한은 죽지 않는다'는 의미로 곡해되어 전파되었다.
- (2)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가 곡해된 의미로 초대 교인들 사이에 널리 퍼질 수 있었던 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가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친 것 같다.
- (3) 첫번째 요소는 초대 교회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그리스도 재림의 임박 사상'이다(참조, 14:1-24; 마16:27, 28; 행1:11; 계2:16; 3:11; 22:7, 12, 20).
- (4) 그러므로 초대 교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조만간에 다시 오실 것이니 그때까지 사도 요한이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은 그렇게 불가능하지 않는 일로 여겼을 것이다.
- (5) 두번째 요소는 사도 요한이 비교적 장수하였었다는 사실이다. 만일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때로부터 오래지 않아 죽었을 것 같으면 본절과 같은 풍문(風聞)은 이내 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도미티안(Domitian, 81-96) 황제 때까지도 죽지 않았었으니(참조, 서론 ㉠ 2) 이러한 상황이 풍문을 보증해 주는 간접적인 역할을 했을 것이다.

26. **㉠** 본서는 어떠한 말로 끝을 맺고 있는가? (24, 25절)

- ㉠** (1) 본서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진실되다'는 말과 '지면 관계상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을 다 기록하지 못하였다'는 말로 끝을 맺고 있다.
- (2) 그런데 본서에 기록된 모든 내용이 진실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본서를 기록한 자가 3년간 예수와 동행하며 그분이 행하신 일을 친히 목도한 자인 사도 요한이기 때문이다.
- (3)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점은 '우리는 안다'(헬, 오이다멘)라는 말이다. 본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 (4) 이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오이다멘>이라는 헬라어는 <오이다> <멘>으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말은 '나는 확실히 안다'라는 의미가 된다.
- (5) 따라서 우리는 이 말을 저자 자신이 자신의 증거에 대하여 확실하게 보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6) 그러나 이러한 인간적인 보증에 앞서 우리가 성경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는 까닭은 신·구약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것이기 때문이다(참조, 답후3:16).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詳考)함으로써 스스로를 책망하며 의로 교훈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자.

## 저자 소개

---

강병도 목사는 1923년 경남 진주에서 출생하였으며, 고려신학교(제 13회, 1959년)를 졸업한 후 30여 년 간 목회에 전념하고 있다. 그는 개혁주의적 목회의 일환으로 평신도 성경 공부에 관심을 쏟던 중그간의 성경 연구 자료를 정리한 「성경 문답식 강해」(1973년)를 펴내어 교계에 신선한 충격을 던진 바 있다. 초기에 4권으로 시작되었던 이 책이 독자의 호응에 힘입어 3년 사이에 6권으로 늘어났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바쁜 목회 생활 중에 기존 저술의 보완 작업을 쉬지 않던 그는 이제 「QA시스템 성경 연구 시리즈」 전15권의 저술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현재 자신이 개척한 부산 동래 성일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으며, 또한 기독교지혜사 발행인으로서 저술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성경 문답식 강해 증보판-

## QA시스템 성경연구시리즈

㉒ 누기복음-요한복음

1999년 9월 10일 인쇄

1999년 9월 20일 발행

저 자/강 병 도  
발행인/강 병 도  
대 표/강 도 환  
발행처/기 독 지 혜 사

등록/제 16-267호(89.7.21)

주소/서울 강남구 역삼동 736-28

전화/568-8122, 1361~2

FAX/553-4830

---

정가 19,000원